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언어학박사 학위논문

만주어 문어의 시제와 양상 연구

– <滿文老檔>의 용례를 중심으로 –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어학과

박 상 철

국문초록

이 논문은 만주어 문어에서 시제(tense)와 양상(aspect)을 나타내는 여섯 개의 문법 형태 -ra, -ha, -mbi, -habi, -mbihe, -ha bihe의 분포와 의미를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만주어 문어의 체계적인 시제와 양상 대립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서 본고는 초기 만주어 문어를 반영하는 <만문노당(滿文老檔)>을 주 자료로 삼았는데, 이 자료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만주어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인 가치를 가진다. 첫째, 1599년 위구르식 몽골문자를 빌려서 만주문자가 창제된 이후에 작성된, 가장 오래된 만주어 문어를 반영한다. 둘째, 만주족의 문화가 한족의 문화에 동화되기 이전에 순만문으로 쓰인 문헌으로, 한어의 영향을 받지 않은 순수한 형태의 만주어를 반영한다. 셋째, 비교적 짧은 시기에 작성되어서 일관된 언어적 직관이 반영되었다.

2장에서는 본고의 논의에서 핵심이 되는 시제, 양상, 완료, 양태 등의 이론적 배경을 Comrie (1976, 1985)와 Bybee et al. (1994)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선행 연구에서 만주어학 고유의 용어로 기술한 만주어의 시제와 양상을 유형론적 연구를 통해 정립된 일반 언어학의 용어로 기술할 수 있었다.

3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선행 연구는 크게 만주어를 시제 대립 중심 언어로 보는 연구와 양상 대립 중심 언어로 보는 연구로 나눌 수 있는데, Avrorin (1949) 이후 후자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Avrorin (1949)의 '완결된 양상(окончательный вид)'과 '완결되지 않은 양상(неокончательный вид)' 의 대립은 Comrie (1976)에서 정립된 '완망상(perfective)'과 '비완망상(imperfective)'의 대립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이들은 상대 시제적 관점에서 과거와 비과거 시제의 대립으로 대체될 수 있다.

4장과 5장에서는 각각 분사 어미와 정동사 어미의 분포와 의미를 기술하였다. 분사 어미에는 -ra와 -ha가 포함되는데, 이들은 종결의 기능, 관형의 기능, 명사의 기능을 모두 가진다. 관형의 기능과 명사의 기능에서는 -ra와 -ha가 각각 상대 시제적인 비과거 상황과 과거 상황을 가리킨다. 한편 종결의 기능에서 -ha가 일관되게 과거 상황을 가리키는 데 비해 -ra는 1인칭 주어와만 출현하여 '약속'의 양태 의미를 나타낸다는 분포와 의미의 제약이 있다.

정동사 어미에는 -mbi, -mbihe, -habi, -ha bihe가 포함된다. -mbi와 -mbihe는 '진행, 습관, 예정된 미래' 등 비완망상의 전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데, 각각 비과거와 과거 상황을 가리키는 차이가 있다. -habi와 -ha bihe는 '과거 상황의 현재 관련성'이라는 완료(perfect)의 의미를 공유하는데, 역시 각각 비과거와 과거 상황을 가리키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기술된 시상 형태의 의미와 분포를 바탕으로, 6장에서는 만주어 문어의 체계적인 시제 및 양상 대립을 제시하는데, 비종결형과 종결형을 분리해서 제시한다. 비종결형은 비과거 -ra와 과거 -ha로만 이루어진 정연한 시제 대립을 이룬다. 종결형은 양태 의미를 강하게 나타내는 -ra를 제외하고, -ha의 유무에 따라 비과거(-mbi, -habi)와 과거(-ha, -mbihe, -ha bihe)의 시제 대립을 보인다. 과거 시제 가운데 -ha와 -mbihe는 완망상과 비완망상의 대립을 보인다. -ha와 -habi는 과거 상황을 가리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후자만이 '현재 관련성'을 함의한다.

7장에서는 만주어 문어의 시제와 양상 대립이 <청어노걸대(淸語老乞大)>의 18세기 한국어 대역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대체로 본고에서 살핀 시제 대립과 양상 대립이 그대로 반영되었지만, 두 언어의 구조적 차이로 인한 의역도 다수 발견되었다. 한편 <청어노걸대>와 <삼역총해(三譯總解)>에 나타나는 종결형

-ha와 -habi의 전수 조사를 통해, 만주어의 -ha는 한국어의 부정법 과거(Ø)로 대역될 수 있지만 -habi는 부정법 과거로 대역되지 않고 대부분 새로 발달한 과거 시제인 '-엇-'으로 대역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완망상 과거 -ha가 담화 내에서 '전경(foreground)'으로, 현재 완료 -habi가 '배경(background)'으로 기능한다는 본고의 논의를 뒷받침한다.

주요어 : 만주어, 문어, 만문노당(滿文老檔), 시제, 양상, 완료
학 번 : 2010-30026

목 차

국문초록 ····· i

목차 ····· iv

표 목차 ····· xi

1. 서론 ····· 1

1.1. 연구의 목적과 대상 ····· 1

1.2. 만주어 ····· 3

1.2.1. 만주어의 활용형 ····· 3

1.2.2. 만주어의 시간 표현 ····· 10

1.3. 자료 ····· 13

1.3.1. 주 자료: <滿文老檔> 太祖朝 ····· 13

1.3.2. 보조 자료: 17-18세기의 만주어 문어 자료 ····· 15

1.4. 논문의 구성 ····· 17

2. 이론적 배경 ····· 18

2.1. 시제(tense) ····· 19

2.2. 양상(aspect) ····· 22

2.3. 완료(perfect) ····· 26

2.4. 양태(modality) ····· 28

3. 선행 연구 검토 ····· 31

3.1. <淸文助語虛字>(1730) ····· 32

3.2. 시제 대립 중심의 연구 ····· 35

3.2.1. Verbiest (1696), *Elementa Linguae Tartaricae* ····· 36

3.2.2. Gabelentz (1832), *Elemens de la grammaire mandschoue* 38

3.2.3. Adam (1873), *Grammaire de la langue mandchou* ····· 40

3.2.4. Zaxarov (1879), *Grammatika man'czurskogo jazyka* [Manchu Grammar] ····· 42

3.2.5. Harlez (1884), *Manuel de la langue mandchoue: grammaire, anthologie & lexique* ····· 45

3.2.6. Möllendorff (1892), *A Manchu grammar: With analysed texts* ····· 47

3.2.7. 박은용(1969), <만주어문어연구(1)> ····· 48

3.2.8. 최학근(1980), <알타이어학논고> ····· 50

3.2.9. 愛新覺羅烏拉熙春(1983), <滿語語法> ····· 52

3.2.10. 季永海·劉景憲·屈六生(1986), <滿語語法> ····· 54

3.2.11. 津曲敏郎(2002), <滿洲語入門20講> ····· 55

3.2.12. 愛新覺羅瀛生(2004), <滿語雜識> ····· 56

3.3. 양상 대립 중심의 연구 ····· 56

3.3.1. Avrorin (1949), "O kategorijax vremeni i vida v man′chzhurskom jazyke" [On the categories of tense and aspect in the Manchu language.] ····· 56

3.3.2. Haenisch (1961), *Mandschu-Grammatik: mit Lesestücken und 23 Texttafeln* ····· 58

3.3.3. Sinor (1968), "La langue mandjoue" ····· 59

3.3.4. Roth Li (2000), *Manchu: A textbook for reading documents* ····· 60
3.3.5. Gorelova (2002), *Manchu Grammar* ····· 61
3.3.6. 河内良弘·清瀨義三郎則府(2002), <滿洲語文語入門> ····· 63
3.3.7. Baek (2011), *A Colloquial Manchu Grammar* ····· 65
3.3.8. 오민석(2013), “18세기 국어의 시제체계에 관한 쟁점 연구” · 67
3.4. 요약 및 문제점 ····· 68
4. 분사 어미의 분포와 의미 ····· 72
4.1. 분사 어미 -ra ····· 72
4.1.1. 종결의 기능 ····· 73
4.1.1.1. ‘약속’의 양태 의미 ····· 73
4.1.1.2. 예외적 용법 ····· 76
4.1.2. 관형의 기능 ····· 79
4.1.2.1. 현재 진행 중인 상황 ····· 79
4.1.2.2. 습관적 상황 ····· 81
4.1.2.3. 일반적 사실 ····· 81
4.1.2.4. 미래 ····· 82
4.1.3. 명사의 기능 ····· 83
4.1.3.1. 현재 진행 중인 상황 ····· 84
4.1.3.2. 습관적 상황 ····· 85
4.1.3.3. 일반적 사실 ····· 85
4.1.3.4. 미래 ····· 86
4.1.3.5. 시간부사절(-ra de) ····· 87

4.1.4. 시상 대립과 무관한 용법 ····· 87
4.1.5. -ra의 의미: 비과거(non-past) ····· 89
4.2. 분사 어미 -ha ····· 90
4.2.1. 종결의 기능 ····· 90
4.2.2. 관형의 기능 ····· 91
4.2.3. 명사의 기능 ····· 92
4.2.4. 시상 대립과 무관한 용법 ····· 94
4.2.5. -ha의 의미: 과거(past) ····· 96
5. 정동사 어미의 분포와 의미 ····· 97
5.1. 정동사 어미 -mbi ····· 101
5.1.1. 현재 진행 중인 상황 ····· 101
5.1.2. 습관적 상황 ····· 103
5.1.3. 일반적 사실 ····· 104
5.1.4. 미래 ····· 105
5.1.5. 부정(否定)형 ····· 109
5.1.6. 시상 대립과 무관한 용법 ····· 110
5.1.7. -mbi의 의미: 비과거(non-past) ····· 112
5.2. 정동사 어미 -mbihe ····· 113
5.2.1. 과거의 진행 중인 상황 ····· 114
5.2.2. 과거의 습관적 상황 ····· 115
5.2.3. 과거 시점에서 예정된 미래 ····· 116
5.2.4. 반사실 가정 ····· 117
5.2.5. 시간부사절(-mbihede) ····· 119

5.2.6. -mbihe의 의미: 비완망상 과거(past imperfective) ····· 120
5.3. 정동사 어미 -habi ····· 121
5.3.1. 결과 지속 ····· 122
5.3.2. 경험 ····· 124
5.3.3. -habi의 의미: 현재 완료(present perfect) ····· 125
5.4. 정동사 어미 -ha bihe ····· 126
5.4.1. 결과 지속 ····· 126
5.4.2. 경험 ····· 129
5.4.3. -ha bihe의 의미: 과거 완료(past perfect) ····· 130
6. 만주어 문어의 시제 대립과 양상 대립 ····· 131
6.1. 시제 대립 ····· 132
6.1.1. 비종결형: 비과거 -ra와 과거 -ha ····· 132
6.1.2. 종결형: 비과거 -mbi, -habi와 과거 -ha, -mbihe, -ha bihe 135
6.2. 양상 대립 ····· 137
6.2.1. 완망상 과거 -ha와 비완망상 과거 -mbihe ····· 139
6.2.2. 완망상 과거 -ha와 현재 완료 -habi ····· 144
6.3. 시제 대립과 양상 대립의 관계 ····· 146
6.4. 시제 대립과 양상 대립의 통시적 발달 ····· 150
6.4.1. -mbi의 기원에 대한 가설 ····· 150
6.4.1.1. -me bi > -mbi ····· 151
6.4.1.2. -n bi > -mbi ····· 153
6.4.1.3. -m bi > -mbi ····· 154
6.4.1.4. -rV(n)-bi > -mbi ····· 155

6.4.1.5. 소결 ····· 157
6.4.2. 비대칭적인 시상 대립의 형성 ····· 157
7. 청학서 대역에 반영된 만주어의 시제와 양상 ····· 161
7.1. 비과거 -ra ····· 166
7.1.1. -ra 종결형의 대역 ····· 166
7.1.2. -ra 비종결형의 대역 ····· 168
7.1.2.1. 전형적인 대역: 비과거 시제 ····· 168
7.1.2.2. 비전형적인 대역: 과거 시제 ····· 170
7.1.2.3. 기타 비전형적인 대역 ····· 172
7.2. 과거 -ha ····· 173
7.2.1. -ha 종결형의 대역 ····· 174
7.2.1.1. 전형적인 대역: 과거 시제 ····· 174
7.2.1.2. 비전형적인 대역: 현재 시제 ····· 178
7.2.1.3. 기타 비전형적인 대역 ····· 180
7.2.2. -ha 비종결형의 대역 ····· 182
7.2.2.1. 전형적인 대역: 과거 시제 ····· 182
7.2.2.2. 비전형적인 대역: 현재 시제 ····· 187
7.2.2.3. 기타 비전형적인 대역 ····· 189
7.3. 비과거 -mbi ····· 190
7.3.1. 전형적인 대역: 비과거 시제 ····· 190
7.3.2. 비전형적인 대역 ····· 193
7.4. 비완망상 과거 -mbihe ····· 195
7.5. 현재 완료 -habi ····· 196

7.5.1. 전형적인 대역: '-엇-' ····· 197
7.5.2. 비전형적인 대역: 현재 시제 ····· 198
7.6. 과거 완료 -ha bihe ····· 198
7.7. -ha와 -habi의 대역에 나타나는 담화상의 기능 차이 ····· 200
8. 결론 ····· 205
참 고 문 헌 ····· 210
Abstract ····· 219

표 목 차

<표 1> 만주어 동사 ara- ‘쓰다’의 활용형 ····· 7
<표 2> 보조 자료의 목록과 간략한 서지사항 ····· 16
<표 3> 만주어 시상 형태에 대한 선행 연구의 용어 정리 ····· 68
<표 4> 만주어 문어의 시제와 양상 대립 ····· 147
<표 5> 전기 근대국어의 시상체계(최동주 2002a) ····· 164
<표 6> 후기 근대국어의 시상체계(최동주 2002b) ····· 165
<표 7> <청어노걸대>에 나타나는 -ra 종결형의 대역 ····· 166
<표 8> <청어노걸대>에 나타나는 -ra 비종결형의 전형적인 대역 ···· 168
<표 9> <청어노걸대>에 나타나는 -ha 종결형의 전형적인 대역 ····· 174
<표 10> <청어노걸대>에 나타나는 -ha 비종결형의 전형적인 대역 · 182
<표 11> <청어노걸대>에 나타나는 -mbi의 전형적인 대역 ····· 190
<표 12> <청어노걸대>와 <삼역총해>에 나타나는 -habi 종결형과 -ha 종결형의 대역 ····· 201

1. 서론

1.1. 연구의 목적과 대상

본고는 만주어 문어[1]에서 시제(tense)와 양상(aspect)을 나타내는 여섯 개의 문법 형태 -ra, -ha, -mbi, -habi, -mbihe, -ha bihe를[2] 대상으로 그 분포와 의미를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만주어 문어의 시상[3] 대립 체계를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들 형태의 분포와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선행 연구에서 기술한 바 있지만 이들 연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언어 자료의 편차가 크다. 선행 연구에서 모두 '만주어'라는 이름 아래 기술하고 있지만, 이들의 언어 자료는 문어와 구어의 차이나 시간적 또는 공간적 방언 차이를 구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滿語語法>이라는 제목을 가지는 季永海·劉景憲·屈六生(1986)에서는 대부분 청나라 시기의 문서 자료에서 가져온 예문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출전을 밝히지 않은 -mahabi라는 형태에 대해서는 '現在時'라고 기술했다. 그런데 -mahabi는 만주어의 후대형으로 알려진 현대 시버어에서 발견되는

1) 본고에서 '만주어 문어'는 기본적으로 만주어를 만주문자로 적은 자료를 지칭하는데, 편의상 원문의 만주문자를 묄렌도르프(Möllendorff)식 로마자 표기로 변환하여 제시하며, 한어 등 외래어를 적는 만문 특수문자의 로마자 표기는 성백인(1977)에서 제안된 방식을 따른다.

2) -ra는 -ra/re/ro, -ha는 -ha/he/ho/ka/ke/ko, -habi는 -habi/hebi/hobi/kabi/kebi/kobi, -ha bihe는 -ha/he/ho/ka/ke/ko bihe 등의 이형태를 대표한다. 대체로 동사 어간이 a로 끝나면 a 이형태가, e, i, u, ū로 끝나면 e 이형태가, o로 끝나면 o 이형태가 연결된다. h/k의 교체 조건은 공시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mbi와 -mbihe는 이형태 없이 단일한 형태로 나타난다.

3) '시상'은 '시제와 양상'의 줄임말이다.

형태로서 본고의 주 자료인 <만문노당(滿文老檔)> 및 보조 자료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형태이다.[4] 이 책에서는 -mbi를 '將來時'로 파악하여 -mahabi와 구별했지만, -mahabi가 존재하지 않는 <만문노당>의 만주어에서는 -mbi가 전형적인 현재 시제로 사용되어 언어 현실이 아주 크게 차이가 난다.

이러한 문어와 구어의 차이 또는 시공간적 방언 차이 이외에도 만주어 자료를 다룰 때는 한어의 영향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만주족이 한족을 지배하게 되면서, 한족의 언어와 문화에 급속도로 동화되어 간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만주어 자료에도 이러한 영향이 드러난다. 본고에서 주 자료로 삼는 <만문노당>은 만주족이 한족을 본격적으로 지배하기 이전에 작성되었으므로 비교적 순수한 형태의 만주어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언어 사실에 대한 불완전한 기술이 존재한다. 만주어 문어에서 종결형 어미 -ra는 평서법 긍정문에서 1인칭 주어만을 가질 수 있다는 제약이 있는데, 본고에서 파악한 바로는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지적한 선행 연구가 없다. 또한 -ha와 -habi가 분포상의 차이만을 가지는 것으로 기술한 연구도 있는데, 두 형태는 종결형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그 의미에 차이가 있으며 이것은 담화상의 기능 차이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셋째, -mbihe에 대한 타당한 분석을 제시하지 않았다. 선행 연구는 만주어를 시제 대립을 중심으로 보는지 또는 양상 대립을 중심으로 보는지에 따라 크게 두 부류로 나뉘지만, -mbi, -ra, -ha를 하나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기술한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즉 시제 범주에 속하거나 또는 양상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둘 중 하나의 범주를 택한다. 그러나 -mbihe의 존재는 이들을 하나의 범주로 보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mbihe와 -mbi는 과거와 비과거 시제의 차이만 있을 뿐 '진행, 습관적 상황, 예정된 미래' 등의 의미를 공유하므로 의미상 -mbihe를 -mbi와 -ha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 관계를 고려하면, -mbi와 -ha는 다른 범주에서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4) 〈만문노당〉과 보조 자료에 대해서는 본고의 1.3에서 소개한다.

요약하면, 본고는 비교적 한어의 영향을 받지 않은 초기 만주어 문어 자료에 한정하여, 시제와 양상 범주에 속하는 형태의 분포와 의미를 상세히 기술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적인 모순이 없는 대립 체계를 제시하는 데에 연구 목표를 둔다고 하겠다.

1.2. 만주어

만주어는 알타이어족 가운데 만주퉁구스어파에 속하는 언어로서 나나이어(Nanai), 윌타어(Uilta), 울치어(Ulchi), 우디허어(Udihe), 오로치어(Orochi), 시버어(Sibe)와 함께 남부어군을 이루고 있다. 2000년대 초의 보고에 따르면 만주어는 화자가 10여 명에 불과한 '절멸 임박 언어(nearly extinct language)'이지만[5] 이미 16세기 말부터 위구르식 몽골문자를 차용한 만주문자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언어를 표기한 전통이 있다. 만주족은 중국의 마지막 왕조인 청나라(1616-1912)를 건립하고 중국 전역을 지배하였는데, 공식 문서에 만주어를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여러 사전을 편찬하고 중국 고전을 만주어로 번역하는 등 자신들의 언어를 보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비록 만주어 구어는 절멸하다시피 했지만 방대한 분량의 만주어 문어가 축적되어 연구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는 만주어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러한 문어 자료에 한정된다.[6]

1.2.1. 만주어의 활용형

만주어는 한국어와 계통적 친연성이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어순 등에서

5) 이상의 내용은 김주원 외(2008)을 참고하였다.

6) 현재 만주어 구어 화자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구어와 문어의 성격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지만, 현대 시버어를 만주어의 직접적인 계승으로 본다면, 그 문법 형태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어와 구어는 별개의 문법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시버어 구어에 대한 연구로는 Zikmundová (2013)를 참고할 수 있다. 국내 학자에 의한 만주어 구어 연구는 Kim et al. (2008)이 있다.

구조적 유사성을 보인다. 다음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만주어와 한국어의 문장을 비교하면 대체로 어순이 일치하며 문장 성분이 일대일로 대응한다.

(1) 만주어와 한국어 문장의 구조적 유사성
hoton de dosime genere niyalma morin ihan be gaifi gajiha, (8:1:7)[7]
성 에 들어 가는 사람 말 소 를 빼앗아서 데려왔다.

(1)에서 만주어 문장의 각 어절은 한국어 문장의 각 어절에 순서대로 대응하며,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명사-조사', '수식어-피수식어', '목적어-서술어'의 어순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동사의 활용 어미가 통사적인 위치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즉, 한국어에서 관형형 어미, 연결어미, 종결어미가 다르게 나타나듯이 만주어도 분사(participle) 어미, 부동사(converb) 어미, 정동사(finite verb) 어미의 구별이 있다.

만주어의 분사 어미에는 -ra와 -ha가 포함되는데, 1) 문장을 종결짓는 종결형 어미, 2)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형 어미, 3) 주어나 목적어 등 명사형 어미 등으로 기능한다. 즉 한국어와는 달리 하나의 형태가 여러 의미 기능을 담당한다. 이는 만주어에서 명사와 형용사의 품사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과 평행한 현상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 만주어 sain '선(善), 좋다'는 명사, 수식어, 서술어 위치에 모두 나타날 수 있다.

(2) 세 통사적 위치에 출현하는 sain
a. sain ehe be tuwame hūda salibufi wajiha manggi, (45:9:5)
좋음과 나쁨을 보아 값 매기기를 마친 후에,
b. sain niyalmai gebu enggici donjimbi, (57:23:5)
선한 사람의 이름은 안 보이는 곳에서도 들린다.
c. orho moo elgiyen, usin huweki, ba sain, (29:16:2)
목초와 나무가 풍부하고 밭이 비옥하며, 땅이 좋다.

7) 본고의 주 자료인 〈만문노당〉 태조조(太祖朝)의 8권 1장 7행을 의미한다. 이하 달리 언급하지 않으면 동일한 형식을 따른다.

(2a)는 조사 앞에, (2b)는 피수식어인 명사 앞에, (2c)는 문장 서술어 자리에 각각 나타난다. 분사 어미인 -ra와 -ha도 동일하게 세 위치에 나타날 수 있으며, 이 세 용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중심 의미로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아래에서 다룰 동사의 정동사 어미가 서술어 자리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편의상 이와 구분하여 -ra와 -ha를 관습적으로 쓰이는 분사 어미로 지칭하겠다.

만주어의 정동사 어미는 한국어의 종결어미와 대응하며, 다양한 문장 유형을 나타낸다.

(3) 만주어의 문장 유형

a. fakcafi yabuci, yabuha niyalma be wambi,[8] (6:14:5)
   이탈하여 가면, 간 사람을 죽인다. (평서문)

b. han i gisun be maraci etembio, (4:9:2)
   황제의 말을 거스를 수 있겠는가. (의문문)

c. meni meni bade ilihai alime gaifi gabta, (4:32:2)
   각자의 자리에 선 채 대응하여 쏘라. (명령문)

d. tasha deduhe be sabuci, ume acinggiyara, (4:33:4)
   호랑이가 누운 것을 보면, 건드리지 말라. (금지문)

e. juhe jafakini, (5:14:1)
   얼음이 얼었으면 좋겠다. (원망문)

만주어의 의문문은 (3b)와 같이 평서문 어미에 의문 첨사 -o를 덧붙이거나 의문사를 사용한다. 명령문은 (3c)와 같이 동사 어간만으로 나타낸다. 금지문은 (3d)와 같이 ume와 함께 분사 어미 -ra를 사용한다. 원망문은 (3e)와 같이 -ki, -cina, -kini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의문문은 대응하는 평서문과 시간 의미가 다르지 않으며 명령문, 금지문, 원

8) 본고에서 제시하는 만주어 예문은 모두 한국어 번역이 수반되는데, 논의의 대상이 되는 형태를 포함하는 어절에 만주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 모두 밑줄을 그어 강조한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ra, -ha, -mbi, -mbihe, -habi, -ha bihe는 모두 동사 어간에 결합하므로, 같은 어절에서 이들에 선행하는 부분이 동사 어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3a)의 wambi '죽인다'는 동사 어간인 wa-와 정동사 어미인 -mbi의 결합으로, 각각 한국어 번역의 동사 어간 '죽이-'와 종결어미 '-ㄴ다'에 대응한다.

망문 등은 의미상 시제 대립이 나타나기 어렵다. 따라서 본고의 대상이 되는 정동사 어미는 -mbi, -mbihe, -habi, -ha bihe 등 평서문을 이루는 어미에 한정된다.

만주어의 부동사[9] 어미에는 -me(동시), -fi(선행), -ci(조건), -cibe(양보), -hai(지속), -nggala(이전), -tala(도급)가 있다.

(4) 만주어 부동사 어미의 용례

a. han i cooha ice sunja de sahaliyan ula be doome, dergi wargi be tuwaci, gemu juhe jafahakūbi, (5:20:7) Han의 병사가 초닷새에 Sahaliyan강을 건너며 동쪽 서쪽을 보니 모두 얼음이 얼지 않았다. (동시)[10]

b. bolori uyun biyai ice ninggun de, usihai siren tucifi, nadan jakūn dobori šun dekdere ergide, hoifa gašan i teisu sabufi jai nakaha, (1:12:2) 가을 9월 초엿새에, 별에서 광선이 나와서, 7일과 8일 밤 해 뜨는 쪽 Hoifa 마을 쪽으로 보이다가 다시 사라졌다. (선행)

c. ulha komso waci sarin simen akū (4:2:7) 가축을 조금 잡으면 잔치가 흥이 나지 않습니다. (조건)[11]

---

9) 'converb (부동사)'라는 용어는 할하 몽골어(Khalkha Mongolian)의 동사 활용형에 대한 연구인 Ramstedt (1903: 55)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Haspelmath & König 1995: 46), 근래의 유형론적 연구를 통해 세계 여러 언어에서 나타나는 비슷한 분포와 의미를 가지는 문법 형태에 대해서도 이 용어가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만주퉁구스어학에서도 20세기 중반 이후 이 용어가 널리 쓰여서 현재에는 대다수 문법서에서 채택하고 있다(Benzing 1955, Roth Li 2000, Gorelova 2002, 河内良弘·清瀬義三郎則府 2002 등).

10) 부동사 어미 -me의 다양한 의미는 성백인(1968: 86)에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1. 완전히 부사화한 용법
2. 주동작이 수행되는 방법이나 양태를 나타내는 용법
3. 2에 준하는 기타 관용적 용법
4. 주동작과 동시에 병행하여 일어나는 동작을 나타내는 용법
5. 주동작이 수행되는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용법
6. 주동작이 수행되는 목적이나 의도를 나타내는 용법
7 인용 부동사로서의 용법

11) 부동사 어미 -ci의 경우 한국어의 '-면'에 대응하여 조건절을 형성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용법이지만, '-어도'에 대응하는 '양보'의 의미와 '-니' 또는 '-자'에 해당하는 순접의 의미도 적지 않게 나타난다. 그런데 이는 -ci의 다의성에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문맥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양보의 의미는 후행절 상황이 선행절 상황과 상반되는 경우에 파생되는 것이고, 한국어 '-니' 또는 '-자'로 번역되는 경우는 -ci가 실제 상황을 가리키는 경우, 한국어 조건절 '-면'과 결합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동사 어미 -ci의 분포와 의미는 정확히 한국어 '-면'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d. ama, mafa be wacibe, bi ehe gūnihakū (15:6:1) 아버지, 할아버지를 죽였어도 나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다. (양보)

e. jaisanggū, morohon efu meye, ceni joboro jalin de gisureme yabuhai, jaisanggū, morohon i eyun de korakabi, (16:30:6) Jaisanggū와 Morohon은 처남 매부 사이인데, 자신들의 곤란을 이유로 말하러 다니면서, Jaisanggū는 Morohon의 손윗누이와 사통했다. (지속)

f. dube wajinggala, hecen i wargi duka tule cooha toron sabumbi seme alanjiha manggi, (19:16:1) 후미가 다 건너가기 전에 "성의 서쪽 문 밖에 군사의 모래먼지가 보인다" 하고 알려오자, (이전)

g. dosire cooha be gidafi, ninju ba i dubede an šan i bade isitala waha, (19:17:1) 들어오는 군사를 무찌르고 60리 떨어진 곳에 있는 안산(鞍山)이라는 곳에 도달할 때까지 죽였다. (도급)

이들은 한국어의 연결어미와 유사하게 종속절이나 대등절을 주절과 연결시킨다. 그런데 부동사 어미가 가지는 '동시', '선행', '지속', '이전', '도급'의 시간적 의미는 항상 후속절과의 관계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이는 분사 어미 -ra와 -ha, 정동사 어미 -mbi, -mbihe, -habi, -ha bihe가 종결형으로 사용되어 상황을 시간선상에 위치시킬 수 있는 것과 대비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들 부동사 어미의 시간 의미는 주절과의 부사적 종속 관계에서 나오는 부차적인 의미로 보아[12] 시제와 양상을 다루는 본고의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참고로 만주어 동사 ara- '쓰다(write)'의 전반적인 활용형을 아래에 제시한다.[13]

<표 1> 만주어 동사 ara- '쓰다'의 활용형

분사(participle)

'조건', '양보', '순접'의 의미를 아우르는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2) Haspelmath & König (1995:3)에서는 부동사(converb)를 "부사적 종속을 표시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비종결 동사 형태(a nonfinite verb form whose main function is to mark adverbial subordination)"로 정의한다.

13) Möllendorff (1892: 9)와 Roth Li (2000: 358-364)의 형태 목록과 영어 번역을 참고하였고, 필자에 의한 한국어 번역도 함께 제시하였다. 본고의 주 자료인 〈만문노당〉에 나타나지 않는 형태는 제외하였다.

ara-ra	I shall write. writing, going to write	(내가) 쓰-마/쓰-겠다.(종결형) 쓰-는, 쓰-ㄹ (관형형) 쓰-ㄹ 것, 쓰-기 (명사형)
ara-ha	I wrote. written, having written	쓰-었다. (종결형) 쓰-ㄴ (관형형) 쓰-ㄴ 것, 쓰-ㅁ (명사형)
정동사(finite verb)		
ara-mbi[14]	I often write. I write. I will write.	(습관적으로) 쓰-ㄴ다. (일반적으로) 쓰-ㄴ다. 쓰-ㄹ 것이다.
ara-mbihe	I was writing. I used to write. I should have written.	쓰-고 있었다. (습관적으로) 쓰-었다. 쓰-ㄹ 것이었다.
ara-habi	I have written.	쓰-었다. (결과 지속/경험)
ara-ha bihe	I had been writing.	쓰-었었다. (과거의 과거)
ara-Ø	Write.	쓰-라.
ume ara-ra	Do not write.	쓰-지 말라.
ara-ki	I want to write a letter.	쓰-고 싶다. 쓰-자.
ara-kini	May he write.	쓰-게 하라.
ara-cina	I hope you will write.	쓰-려무나.
부동사(converb)		
ara-me	to write; writing	쓰-기를, 쓰-며
ara-fi	having written, after having written	쓰-고, 쓰-어
ara-ci	If I wrote,	쓰-면
ara-tala	until I writes (wrote)	쓰-도록
ara-nggala	before I write (wrote)	쓰-기 전에
ara-cibe	even if I write	쓰-더라도
ara-hai	keeping wrting	쓰-는 채로
ara-mbime	whilst writing	쓰-면서

본고의 대상이 되는 여섯 형태는 모두 만주어 문어의 평서문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평서문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들 여섯 형태 가운데

14) 이들은 한국어와는 다르게 시상 형태와 평서법 형태가 하나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즉 '쓰-었-다'와 같이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과 평서법 종결어미 '-다'를 분리할 수 있는 한국어와는 달리, 만주어 ara-ha는 동사 어간인 ara- '쓰-'와 과거 시제와 평서법을 모두 나타내는 -ha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본고의 대상이 되는 시상 형태는 모두 종결어미의 기능도 겸하고 있다. 또한 관형형과 명사형 어미로도 사용되는 -ra와 -ha는 시상 의미와 함께 전성어미의 기능도 겸한다고 할 수 있다.

하나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15] ara(명령문), ume arara(금지문), araki, arakini, aracina(원망문) 등의 문장 유형에서는 의미상 시제와 양상 대립이 나타나지 않고 단일한 종결어미를 사용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종결형에서 시제와 양상 대립이 가장 잘 드러나는 평서문을 기본적인 연구 대상으로 한다.[16]

한편 각 형태의 부정형(negative form)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는데, -ra와 -mbi는 -rakū가, -ha는 -hakū가 대응한다.[17]

(5) 각 형태의 부정형
arara[18] - ararakū '쓰지 않는/않을, 쓰지 않는/않을 것'
araha - arahakū '쓰지 않은, 쓰지 않은 것, 쓰지 않았다'
arambi - ararakū '쓰지 않는다, 쓰지 않을 것이다'
arambihe - ararakū bihe'(습관적으로) 쓰지 않았다, 쓰지 않고 있었다'
arahabi - arahakūbi '쓰지 않았다(현재 관련성)'
araha bihe - arahakū bihe '쓰지 않았었다(과거의 과거)'

의문문은 설명의문문의 경우 adarame '어떻게'나 ainu '왜' 등의 의문사를 사용하고, 판정의문문의 경우 의문 첨사 -o를 종결형에 덧붙인다.

(6) 설명의문문과 판정의문문
adarame genembi '어떻게 가는가'
ainu genehe '왜 갔는가'
suwe donjimbio '너희는 듣고 있는가'
suwe donjihakūbio '너희는 듣지 않았는가(현재 관련성)'

---

15) -ra 종결형의 경우 수행문(performative)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별개로 볼 수 있지만 편의상 평서문에 포함시킨다. -ha bihe의 경우 앞에서 살폈듯이 통사적 구성으로도 볼 수 있지만 역시 편의상 하나의 형태로 취급한다.
16) 분사 어미 -ra와 -ha의 경우 관형형과 명사형 등 비종결형에 사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종결어미에 따른 문장 유형과는 관계없이 출현하므로 이러한 경우 평서문이 아닌 문장 유형도 자료에 포함한다.
17) 이들은 각각 -ra + akū '없다', -ha + akū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18) -ra 종결형의 경우 화자의 '약속'을 나타내는 수행문(performative)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형태들과 달리 부정형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부정문이나 의문문은 대응하는 긍정문과 시제 및 양상 의미가 다르지 않으며, 단지 부정과 의문의 의미를 더할 뿐임을 알 수 있다.[19]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평서법 긍정문의 시상 의미를 위주로 살피겠다.

1.2.2. 만주어의 시간 표현

만주어에서 시간 의미는 어휘적 수단과 문법적 수단으로 표현할 수 있다. 어휘적 시간 표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7) 어휘적 시간 표현
a. terei onggolo jekui ku akū bihe. (3:3:6)
그 이전에는 곡식 창고가 없었다.
b. cimari erde bi genembi (8:19:2)
내일 일찍이 내가 가겠다.
c. ilan biyai orin emu de, sunja solho de juwe jušen be adabufi takūraha. (9:23:4) 3월 21일에 조선인 다섯 명에 여진인 두 명을 동행하게 하여 파견했다.

어휘적 표현 가운데 '이전/이후', '어제/오늘/내일' 등 화시적(deictic) 표현은 비교적 개수가 제한된 대립항을 이루지만, '3월 21일' 등 비화시적인 날짜나 시간 표현은 무제한적인 개수를 가질 수 있는 '열린 집합(open class)'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어휘적 표현은 문장의 필수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없는데, 이들이 없이도 만주어 문어에서는 '곡식 창고가 없었다', '내가 가겠다', '조선인 다섯 명에 여진인 두 명을 동행하게 하여 파견했다'와 같은 문장을 발화하는 것이 가능하며,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이들 상황의 대략적인 시간적 위치를 파악하는 것도 가

19) 표현할 수 있는 시상 의미와 그 대립 체계는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이 대체로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형태적 실현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긍정문에 나타나는 -mbi 형태는 부정문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rakū에 대응한다. 또 긍정문에서 -ra 종결형은 1인칭 주어만 취하는 제약이 있는데, 의문문 -ra 종결형은 이러한 제약이 없다. 이러한 불균형은 통시적인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능하다. 이는 이들 문장에서 종결어미로 사용된 -mbi나 -ha 등의 문법적 시간 표현에 의한 것으로,[20] 아래의 예문에서 이러한 문법적 시간 표현이 어휘적 시간 표현 없이 사용되어 시간 지시를 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8) 어휘적 시간 표현 없이 사용된 문법적 시간 표현
a. jongtoi be beiguwan obuha, (17:4:3) Jongtoi를 비어(備禦)로 삼았다. (과거)
b. sinde bi ushambi (18:7:4) 너에게 내가 화가 난다. (현재)
c. nikan i beiguwan de sunja tanggū haha bumbihe, (49:7:7) 한인 비어에게는 500명의 장정을 주었다. (과거의 습관적 상황)

이러한 문법적 시간 표현은 어휘적 시간 표현과는 달리, 1) 문장의 필수 구성 요소이며, 2) 동사 어간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의존 형태소이며, 3) 그 대립항의 개수가 한정된 '닫힌 집합(closed class)'을 이룬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문법적 시간 표현에는 -ra, -ha, -mbi, -mbihe, -habi가 포함된다.

한편 만주어 문어에서 다음과 같이 통사적 구성을 통해 시간 의미를 표현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9) 통사적 구성에 의한 시간 표현
a. feniyen de afame bihe (18:8:7) 무리에서 싸우고 있었다.

---

20) 만주어에서는 명사나 형용사가 서술어를 이루는 경우 아무런 시상 형태가 결합하지 않으면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여기에 bihe를 덧붙여서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데, 이 경우 영형태(Ø)가 규칙적으로 현재 시제를 나타내기 때문에 역시 문법적인 시간 표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bisire niyalma doosidame gaici weile, (39:20:7) 있는 사람이 욕심을 내어 가지면 죄이다."라는 문장에서 명사 weile '죄'는 문장의 서술어로 사용될 때 '죄이다'와 같이 계사를 가지는 것으로 번역되는데 시제는 현재 시제이다. 또한 형용사의 경우도 시상 형태가 결합하지 않고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 "dain de baturu niyalma, gašan de banjire de baitakū moco, (4:71:2) 전장에서 용맹한 사람이 마을에 살 때는 쓸모없고 우둔하다."와 같은 문장에서 moco '우둔하다'는 달리 시상 형태가 결합하지 않고 그대로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이들 명사나 형용사를 서술어로 가지는 문장의 과거형은 존재 동사 bi- '있다'의 과거형인 bihe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예를 들어, "julgei beri ere adali akū ajige bihe, (64:27:5) 예전의 활은 이것과 같지 않고 작았다."

b. fujiyang ni hergen obuha bihe, (18:8:1) 부장의 직위로 삼았었다.
c. ulha wame sarin sarilahai bimbi, (16:34:6) 가축을 잡아 잔치를 벌이는 채로 있습니다.
d. niru faksi boode ukafi bihe, (64:8:7) 활 장인의 집에 도망하여 있었습니다.
e. orin uyun de hecen sahame wajiha. (18:21:6) 29일에 성 쌓기를 마쳤다.
f. juwan emu de, sarhū i ajige hecen be sahame deribuhe. (17:23:3) 11일에 Sarhū의 작은 성을 쌓기 시작했다.

(9)에서 -me bi-, -ha bi-, -hai bi-, -fi bi-, -me waji-, -me deribu- 등의 통사적 구성은 시간 의미와 관련된 보조 동사 구성으로 볼 수 있으며, 각각 '진행', '완료', '계속', '결과상태지속', '종결', '기동' 등의 양상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21] 그런데 이들은 위에서 살핀 문법적 시간 표현과는 차이가 있다. 우선 -ra, -ha, -mbi, -mbihe, -habi 등의 형태가 하나의 형태로 인식되는 반면 보조 동사 구성은 띄어쓰기가 개재된 통사적 구조에서 드러나듯이 하나의 형태로 고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의미상으로도 이들 보조 동사의 의미가 그 구성 요소 각각의 의미를 단순히 결합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도 이들을 하나의 문법 형태로 볼 근거가 희박하다.[22]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통사적 구성에 의한 시간 표현을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런데 (3b)의 -ha bihe의 경우 통사적 구성이기는 하지만 -habi와 시제 대립을 보이므로 체계를 고려하여 연구의 대상에 포함시킨다.[23] 따라서 본고에서 연구

21) 河內良弘·清瀨義三郎則府(2002: 98)에서 -me bi-를 '進行相', -ha bi-를 '完成相', -hai bi-를 '繼續相', -fi bi-를 '狀態相'을 의미하는 보조 동사로 보았다. -me waji-와 -me deribu-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22) (9a)의 afame bihe는 '싸우고 있었다'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부동사 -me의 '동시적 상황' 의미와 bihe '있었다'의 어휘적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싸우면서 (거기에) 있었다'로 해석할 수도 있다. (9b-d)의 경우도 각각 명사형 -ha '-했음', 부동사 -hai '-는 채로', 부동사 -fi '-하고서'와 후속하는 존재 동사 bi- '있다'의 어휘적 의미가 그대로 결합하였다고 볼 수 있다. (9e)와 (9f)도 각각 동사 waji- '마치다'와 deribu- '시작하다'의 본래 의미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특별히 문법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23) 일부 선행 연구에서는 -ha bihe를 별개의 문법 형태로 다루지 않았지만, 상당수 연구에서는 -ha bihe를 '대과거(pluperfect)' 또는 '과거 완료(past perfect)' 로 명명하는

의 대상으로 삼는 시상 형태는 분사 어미 -ra와 -ha, 정동사 어미 -mbi, -mbihe, -habi, -ha bihe의 여섯 형태에 한정된다.

1.3. 자료

1.3.1. 주 자료: 〈滿文老檔〉 太祖朝

만주문자는 1599년에 청태조 누르하치가 어르더니(erdeni)와 가가이(g′ag′ai) 등에게 명하여 최초로 제정되었는데, 위구르식 몽골문자를 차용한 문자로서 일부 음소를 구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까닭에 1632년에 청태종 홍타이지가 다하이(dahai) 등에게 명하여 점(點)과 권(圈)을 더하여 기존의 문자를 개량하였다. 흔히 개량 이전의 만주문자를 '무권점(無圈點) 만주문자' 또는 '구만문(舊滿文)'으로, 개량 이후의 만주문자를 '유권점(有圈點) 만주문자' 또는 '신만문(新滿文)'으로 구별하여 지칭한다.[24]

이러한 만주문자를 이용하여 1607년부터 1636년까지 입관(入關) 전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40책의 만문 당안(檔案)이 만주어 문어의 가장 초기 자료로 남아 있는데, 이 자료는 학계에서 흔히 <구만주당(舊滿洲檔)> 또는 <만문원당(滿文原檔)>이라는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다.[25] 그런데 <구만주당>은 주로 무권점 만주문자로 기록된 것으로, 이를 저본으로 하여 건륭년간(1774-1778)에 중초(重抄)하여 무권점 및 유권점 만주문자 각각의 초서체(草書體) 및 정자체(正字體) 중초본을 4종 간행하였다.[26]

등 다른 형태들과 동등한 문법 형태로 취급하였다.

24) 무권점 만주문자와 유권점 만주문자의 제정 경위와 그 성격에 대해서는 성백인(1981: 6-18)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25) 김두현(2008: 272)에 정리된 바에 의하면 〈구만주당〉이 기록되기 시작한 시기는 1629년 이후(關孝廉), 1621년 이후(劉厚生), 1616년 이후(喬治忠) 등 다양한 주장이 있지만 대체로 17세기 초기로 볼 수 있다. 김두현(2008: 271)에서는 〈구만주당〉에 사용된 만주문자가 주로 구만문이라는 점이 〈구만주당〉의 많은 부분이 그 당시의 직접적인 기록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본고의 주 자료인 <만문노당>은[27] 이러한 중초본 가운데 유권점 만주문자 정자체로 적힌 내각장본(內閣藏本)으로, 이 중에서도 태조조(太祖朝) 권1부터 권81까지를 대상으로 한다.[28]

그런데 <만문노당>은 건륭년간의 중초본이라는 점에서 초기 만주어 문어 자료로 다루는 데 주의를 요한다. 중초 당시의 언어 현실과의 괴리로 인한 변개가 가해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성백인(1978: 104)에서 "이 때의 중초작업은 그대로 사본을 만든 것이 아니라 원당을 다시 정리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제거하고, 첨삭을 하여 완전신만문 즉 유권점 만문으로 정리하는 작업이었던 것 같다"고 언급한 것을 따르면, <만문노당>의 언어가 반드시 초기 만주어 문어, 즉 17세기 초반의 만주어 문어를 반영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는 아래의 근거로 만주어 문어의 시상 대립 체계를 살피는 데 있어서 <만문노당>이 초기 만주어 문어의 언어 현실을 반영하는 자료라고 판단한다.

첫째, <구만주당>과 <만문노당>의 대당 부분을 비교하면, 표기법의 차이, 어휘의 변화, 첨삭에 따른 윤문 등은 비교적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문장이 그대로인데 문법 형태만 교체된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적어도 문법 형태로 표현된 시제와 양상 의미에 있어서 <만문노당>은 17세기 초반의 만주어 문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본고의 자료인 내각장본 <만문노당>에는 중초 당시 난해어구로 인식된 <구만주당>의 만주어에 대해서 난상(欄上)에 첨주(添注)를 달았는데, 이는 저본인 <구만주당>의 만주어를 충실히 옮기고자 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시제와 양상을 나타내는 형태의 쓰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있다. 이는 건륭년간 <만문노당>의 편자들에게

---

26) 이상의 중초 과정에 대해서는 김두현(2008: 262-263)에 의존하여 서술하였다.

27) 〈만문노당〉이라는 서명은 20세기 초 이 자료를 발견한 일본인 학자 나이토 도라지로(內藤虎次郎)가 명명한 것이 그대로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8) 원문은 中國第一歷史檔案館 整理·編譯(2009)에 영인된 것을 이용하였고 그 로마자 전사와 한국어 번역은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의 '만문노당연구회'에서 수년간 윤문한 자료에 의지하였다. 한편 〈만문노당〉은 크게 태조조(太祖朝)와 태종조(太宗朝)로 나뉘는데, 본고에서는 태조조 부분만 대상으로 하므로 〈만문노당〉의 전반부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본 학자들에 의한 滿文老檔研究會(1955-1963)의 총 7권 가운데 앞의 세 권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구만주당>의 시상 형태 사용이 이질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어떠한 변개를 가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29]

본고에서 특히 <만문노당>에 주목하는 이유는, 방대한 만주어 문어 자료를 모두 살필 수 없다는 현실적인 제약도 있지만, <만문노당>에 반영된 순수한 형태의 만주어 직관이 우선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주어 문어 자료를 크게 나누면, 1) <만문노당>과 같은 만주인에 의한 창작 자료, 2) <(만문)삼국지(三國志)>와 같은 대역 자료, 3) <청어노걸대(淸語老乞大)>와 같은 외국인에 의한 창작 자료로 분류할 수 있는데, 비록 2)와 3)의 만주어 문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1)의 만주어와 동등하게 다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30] 궁극적으로는 1)-3)의 만주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만주어 문법을 지향해야겠지만, 본고에서는 현재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만주어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문노당>을 주된 자료로 삼는다.

1.3.2. 보조 자료: 17-18세기의 만주어 문어 자료

주 자료인 <만문노당>에 더하여, 20여 종의 만주어 문어 자료를 보조 자료로서 이용하였다.[31] 보조 자료는 주로 <만문노당>에 나타나는 형태에 대한 본고의 기술을 점검하거나 그 변이형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용하였으며, 보조 자료에만 나타나는 형태는 본고의 논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32]

---

29) 〈만문노당〉에서 〈청어노걸대(淸語老乞大)〉(1765)에 이르는 자료를 다루고 있는 성백인(1968)에서 "서로 100여년의 시차를 가진 자료를 함께 다룬 점에 고려의 여지가 있겠으나 필자가 살핀 바로서는 함께 다루지 못할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따르면, 17-18세기의 만주어 문어는 대체로 동질적인 문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30) 외국인 화자가 한국어 문장을 만들어 낼 때, 그 표현이 문법적으로 어긋나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또 영어투의 직역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이 나타난다.

31) 이 자료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만주어문학의 통합적인 연구를 위한 만주어 사전 및 만주문학 자료 DB 구축" 연구에서 입력한 자료이다.

32) 예를 들어, 〈만문노당〉에서 종결어미 -ra는 1인칭 주어와만 결합하여 '약속'의 양태 의미를 나타내는데, 보조 자료인 〈삼역총해〉와 〈청어노걸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러한 주어 제약과 의미가 역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ha

아래 표는 보조 자료의 목록과 간단한 서지사항이다. 대체로 17세기 말부터 18세기 말까지 100여년 사이에 간행된 문헌들로, 자료의 성격도 사전, 산문, 운문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표 2> 보조 자료의 목록과 간략한 서지사항

문헌명	간행년도	분량	비고
<滿漢同文類集>	간년미상	2권 4책(2책)	漢滿 유별사전
<大淸全書>	1683	14권 14책	滿漢 십이자두순 사전
<滿漢同文全書>	1690	8권 8책	滿漢 십이자두순 사전
<同文彙集>	1693序	4권 4책	漢滿 유별사전
<新刻淸書全集>	1699序	5책	漢滿 유별사전
<滿漢類書>	1700	32권 8책	滿漢 유별사전
<御製淸文鑑>	1708	首1卷 20卷 總綱 4卷	滿文 유별사전
<淸文彙書>	1724	12권 12책	滿漢 십이자두순 사전
<同文類解>	1748	2권 2책	漢韓滿 유별사전 (조선 사역원)
<御製增訂淸文鑑>	1771序	46권 48책	滿漢 유별사전
<漢淸文鑑>	1779?	15권 15책	漢韓滿 유별사전 (조선 사역원)
<金甁梅>	1708序	40권 100회	滿文 산문 (일부 단어에 한문 병기)
<滿漢西廂記>	1710년序	4권 4책	滿漢 산문
<三國志>	1722-1735	24권 48책	滿漢 산문
<淸語老乞大>	1765	8권 8책	滿韓 산문 (조선 사역원)
<三譯總解>	1774	10권 10책	滿韓 산문 (조선 사역원)
<小兒論>	1777	1권 1책	滿韓 산문 (조선 사역원)
<八歲兒>	1777	1권 1책	滿韓 산문 (조선 사역원)
<擇翻聊齋志異>	1848	24권 24책	滿漢 산문
<御製飜譯詩經>	1768序	8권 4책	滿漢 운문

bihe의 띄어쓰기 이형태인 -habihe를 보조 자료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만문노당〉에 나타나지 않는 형태이다. 한편 -ha bihe에 bi가 붙은 형태인 -ha bihebi(~habihebi)는 보조 자료 가운데 〈삼국지〉, 〈금병매〉, 〈요재지이〉 등에서 발견되는데 이는 〈만문노당〉에 나타나지 않는 형태이므로 본고의 논의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1.4. 논문의 구성

2장에서는 논의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문법 범주의 개념을 정립한다. 3장은 연구사로, 본고의 연구 대상인 시상 형태에 대한 선행 연구의 기술을 살피고 그 의의와 문제점을 밝힌다. 4장과 5장에서는 각각 만주어의 분사 어미와 정동사 어미의 분포와 의미를 기술한다. 6장에서는 4장과 5장의 기술을 바탕으로 만주어 문어의 공시적인 시제 및 양상 대립을 제시하고 그 형성 과정을 재구한다. 7장에서는 조선 사역원에서 간행한 청학서의 대역을 검토함으로써 본고에서 분석한 만주어 문어의 시상 대립을 재확인한다.

2. 이론적 배경

초기의 선행 연구에서는 본고의 대상이 되는 -ha, -mbi, -ra 등의 형태에 대해서 주로 과거, 현재, 미래 등의 시제 용어를 이용하여 설명하였는데, Avrorin (1949)에서 -ra와 -ha를 각각 두 개의 주요 양상(основных вид), 즉 '완결된(окончательный)' 양상과 '완결되지 않은(неокончательный)' 양상으로 설명한 이래 만주어를 양상 대립을 중심으로 하는 언어로 기술하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33]

그런데 지금까지 선행 연구에서 만주어의 -ra와 -ha를 설명하는 데 사용한 소위 '완결된' 또는 '완결되지 않은' 양상의 대립은 Comrie (1976)에서 정립된 일반언어학적인 '완망상(perfective)'과 '비완망상(imperfective)'의 대립과 차이가 있다.[34] 이러한 개념 차이가 만주어가 시제 대립을 중심으로 하는 언어인지 양상 대립을 중심으로 하는 언어인지 결정하는 데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35] 아래에서는 본고의 논의와 관련된 문법 범주의 개념이 일반언어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되었는지 검토함으로써 앞으로 진행될 논의의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자 한

33) 물론 Avrorin (1949) 이후에도 시제의 대립으로 기술하는 연구가 있다. 본고의 3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34) Comrie (1976)의 'perfective aspect/imperfective aspect'에 대한 '완망상(完望相)/비완망상(非完望相)' 번역은 박진호(2011: 304)의 각주 12를 따른 것이다. "완망상을 특징지을 때 사용되는 '완전한(complete)'이라는 말을 '완결된(completed)'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Comrie 1976: 18). 완망상의 본질은 "종결, 완결, 끝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종결, 완결, 끝남"과 상관관계가 없지는 않으나) 사태를 온전하게 시야에 넣고 바라본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perfective aspect를 '완료상, 완결상', imperfective aspect를 '불완료상, 미완료상, 비완결상' 등으로 번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

35) Lindstedt (2001)에서 "the Latin Perfect is not a perfect, but a perfective past tense"라고 언급하여, 개별 언어의 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일반언어학적으로 정립된 문법 용어와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36]

2.1. 시제(tense)

시제는 일반적으로 화시적 범주(deictic category)로 설명되는데, 엄밀한 의미의 화시성(deixis)은 발화 상황에서 '나, 지금, 여기(I, now, here)'를 화시적 중심(deictic center)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인칭, 공간, 시간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시간에 관련하여, '어제, 오늘, 내일' 등은 화시적 중심인 '지금'에 대한 시간적 선후 관계를 어휘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과거/현재/미래 등의 시제 형태는 이를 문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다음은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시제의 정의이다.

(1)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시제의 정의

a. "... tense is a deictic category, i.e. locates situations in time, usually with reference to the present moment though also with reference to other situations." (Comrie 1976: 5)

b. "Tense shows the location of the situation in time; in other words, it is the grammatical expression of temporal reference" (Lindstedt 2001: 770)

c. "시제란, 절이나 문장이 나타내는 사태(state-of-affairs)가 발생한 시간적 위치(temporal position)를 문법적 수단(grammatical means)을 통해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어떤 것의 위치를 나타내려면 기준점이 필요한데, 사태의 발생 時點을 나타낼 때에는 화자가 해당 문장을 발화하는 순간(발화시, speech time)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그 외의 순간을 기준점으로 할 수도 있다. 전자를 절대 시제(absolute tense), 후자를 상대 시제(relative tense)라고 한다. 절대 시제는 화시적(deictic category)이다." (박진호 2011: 290)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시제는 '상황[37]의 시간적 위치를 문법적 수단을

36) 이하의 논의는 주로 Comrie (1976, 1985), Dahl (1985), Bybee et al. (1994), Lindstedt (2001), 박진호(2011)를 참고하였다.

37) 본고에서는 Comrie (1976: 13)를 따라, '상태(state)', '사건(event)', '과정(process)'

통해 나타내는 것'인데, 이 때 상황시점((E, point of event)의 시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기준시점(R, point of reference)이 발화시점(S, point of speech)인지 또는 다른 시점인지에 따라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를 구별할 수 있다.[38)]

절대 시제의 경우 1) 상황시점이 발화시점과 같은 경우 현재(present), 2) 상황시점이 발화시에 선행하는 경우 과거(past), 3) 상황시점이 발화시점에 후행하는 경우 미래(future)로 볼 수 있다. 현재와 미래 시제를 구별하는 언어도 있지만 많은 언어에서 이들을 하나의 형태(비과거)로 표현한다.[39)]

상대 시제의 경우 영어의 현재 분사를 예로 들 수 있다(Comrie 1985: 57).

(2) The passengers awaiting flight 26 proceeded to departure gate 5.

(2)는 일반적으로 'the passengers who were awaiting flight 26 proceeded to departure gate 5'로 해석되어, 현재 분사 구문(awaiting)과 주절(proceeded)의 상황이 동시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일반적인 해석은 아니지만 동일한 문장에 대하여 'the passengers who are awaiting flight 26 proceeded to departure gate 5'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경우 현재 분사 구문(awaiting)이 발화시점과 동시적인 상황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영어의 현재 분사 구문은 기준시점이 발화시점뿐 아니라, 그 밖의 시점(여기서는 주절의 상황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 시제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을 아우르는 용어로 '상황(situation)'을 사용한다.

38) 발화시점(S, point of speech), 상황시점(E, point of event), 기준시점(R, point of reference)의 구별은 Reichenwach (1947)와 Comrie (1985)를 참조하기 바란다. Comrie (1985: 78)에서는 Reichenwach (1947)와 달리 완료(perfect)와 절대-상대 시제(absolute-relative tense)를 구별해야 함을 언급했다.

39) Comrie (1985: 48-49). "While the general theory allows us a three-way distinction within absolute tense, many languages in fact have a basic two-way split, with either an opposition between past and non-past or between future and non-future."

한편 Comrie (1985)에서는 영어의 대과거(pluperfect) 구문을 '절대-상대 시제(absolute-relative tense)'로 명명하였다.

(3) John had arrived by 6 o'clock yesterday evening. (Comrie 1985: 65)

여기서 기준시점은 시간부사(yesterday evening)에 의해 주어지는데, 이는 발화시점 대비 과거이며, 상황시점(John의 도착)은 다시 이 기준시점으로부터 과거이다. 이러한 시점들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4) E before R before S (Comrie 1985: 125)

만주어 분사 어미 -ra와 -ha의 경우, 다음의 예에서와 같이 종결형의 시제는 절대 시제를, 관형형의 시제는 상위문의 상황시점을 기준시점으로 하는 상대 시제를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5) 종결형과 관형형에 나타난 waha의 예
a. hoton i ejen baindari beile i ama jui be bahafi waha, (1:18:2)
성의 수장 Baindari Beile 부자를 잡아서 죽였다.
b. tere gurgui yali be amcafi waha niyalma gulhun gaisu (4:35:1)
그 짐승의 고기는 추격하여 죽인 사람이 온전히 가지라.

(5a)에서는 waha '죽였다'가 종결형으로 사용되었는데, 발화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상황을 지시하고 있다. 반면 (5b)의 문장은 명령문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지시하고 있지만, 명사구로서 내포문을 이루는 waha niyalma '죽인 사람'의 상황은 상위문의 상황(가지라)보다 선행한다. 이 경우 waha의 시제는 상위문의 시제, 즉 미래를 기준시점으로 하는 상대 시제적 관점의 과거 시제라고 할 수 있다.[40]

40) (5b)의 내포문 상황의 시간적 위치는 'E before R after S'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이 때 상황시점(E)과 발화시점(S)의 선후 관계는 알 수 없다. 즉 '짐승을 죽인' 상황이 발화시점에 이미 일어난 상황인지 아닌지 여부는 문맥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2.2. 양상(aspect)

위에서 살핀 대로 시제가 발화시점 또는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상황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화시적 문법 범주라면, 양상은 시간 축의 상대적 위치와 무관한, 상황 내적인 시간 구성을 바라보는 관점(觀點)과 관련된 문법 범주이다. 다음은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양상의 정의이다.

(6)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양상의 정의

a. “Aspects are different ways of viewing the internal temporal constituency of a situation.” (Comrie 1976: 3), “Aspect is not concerned with relating the time of the situation to any other time-point, but rather with the internal temporal constituency of the one situation; one could state the difference as one between situation-internal time (aspect) and situation-external time (tense).” (Comrie 1976: 5)

b. “상은, 사태의 시간적 구조나 전개 양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관련된 문법 범주이다. 시제의 주된 기능이 사태를 시간 축 상의 특정 위치에 위치짓는 것인 데 비해, 상은 그러한 시간적 위치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 사태의 발생 시점이나 시간 축 상의 위치보다는 그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이 관건이 된다.” (박진호 2011: 300)

시제와 양상이 서로 다른 의미 범주에 속함은 아래의 예문에서 잘 드러난다.

(7) Comrie (1976: 3)의 프랑스어 예문

a. Il lisait. ‘He was reading/He used to read.’[41]

것으로 보인다.

41) (7a)의 프랑스어 예문은 하나의 비완망상 형태로 진행상과 습관상을 모두 표현할 수 있지만, 영어 번역은 진행상과 습관상을 다른 형태로 표현해야 하는 차이가 있다. 또한 (7b)의 프랑스어 예문은 완망상적 용법만을 가지는데 비해 영어 번역은 완망상과 더불어 습관상적 용법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언어에 따른 차이가 있다.

b. Il lut. ‘He read.’

프랑스어에서 (7a) lisait와 (7b) lut는 모두 발화시점을 기준으로 선행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과거 시제에 속하지만, 전자는 비완망상적(imperfective) 과거 시제로, 후자는 완망상적(perfective) 과거 시제로 구별할 수 있다. 완망상은 상황을 ‘시작-중간-끝’이라는 국면(phase)의 구분 없이 하나의 덩어리로 바라보며(complete view), 비완망상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상황의 내적인 시간 구성을 필수적으로 언급한다. 범언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비완망상과 완망상의 대립이 명확히 드러난다.

(8) Comrie (1976: 3)
영어: John was reading when I entered.
러시아어: Ivan čital, kogda ja vošel.
프랑스어: Jean lisait quand j'entrai.
스페인어: Juan leía cuando entré.
이탈리아어: Gianni leggeva quando entrai.

이들 문장에서 공통적으로 첫 번째 동사는 비완망상(영어의 경우 진행상) 형태로, 두 번째 동사는 완망상 형태로 나타난다. 완망상적 관점은 상황을 내적인 시간 구성의 고려 없이 전체로서 바라보기 때문에, 시간 축 위에 여러 상황을 겹치지 않고 순서대로 배치하는 것이 수월하다. 이에 반해 비완망상은 상황의 시작과 끝이 아닌 내부를 바라보기 때문에, 진행 중인 상황으로 해석되기 쉬우며, 시간 축 위에서 다른 상황과 겹쳐지는 것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완망상을 취하는 동사는 주로 담화 내에서 줄거리를 전개시키는 전경(foreground)으로, 비완망상을 취하는 동사는 주로 배경(background)으로 기능한다.[42] 즉

42) 완망상과 비완망상이 각각 전경과 배경으로 기능함은 Hopper (1982)를 참고할 수 있다. “... It is mentioned in most treatments of aspect, and furthermore the interplay between the perfective for 'foregrounded' event lines and imperfective 'backgrounded' scene settings and descriptions is well understood ...” (Hopper 1982: 9). 최동주(1995)에서 이 논의를 중세 한국어에 적용하였다. “相은 談話의 흐름을 조

(8)에서 비완망상으로 표현된 '존이 (책을) 읽는' 상황은 완망상으로 표현된 주요 사건인 '내가 들어온' 상황에 대한 배경 상황이며, 시간적으로 전자가 후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되는데, 이는 비완망상이 상황의 시작과 끝을 명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완망상과 완망상의 정연한 대립은 양상 범주의 문법화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진 언어에서 나타나는데, 이 경우 시제 대립과 양상 대립을 구별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박진호 2011: 303).[43] (6)의 정의에서 살폈듯이 양상은 시제와는 달리 상황을 시간 축 상의 특정 지점에 위치시키지 않지만, 별도의 시간 지시가 없으면 비완망상 형태는 현재 시제로, 완망상 형태는 과거 시제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시제 대립이 없이 양상 대립만을 가지는 요루바(Yoruba)어에서는 아무런 문맥 없이 사용될 경우 비완망상 형태는 현재 시제로, 완망상 형태는 과거 시제로 해석된다.[44] 그러나 별도의 시간 표현을 사용하면 비완망상 형태가 과거 상황을 가리키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45]

(9) 요루바어의 완망상과 비완망상(Comrie 1976: 83)
a. ó ń ṣiṣẹ́ 'he is working, he works (habitually)'

절하는 메카니즘(flow-control mechanism)으로 작용하여, 이야기의 중심 플롯을 진전시키는 전경(foreground)에서는 '完了相'이 사용되고, 플롯을 뒷받침해 주는 배경(background)에서는 '非完了相'이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경/배경의 차이는 서술 방식과도 관련되는데, 전경을 이루는 사건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서술되며, 반면 배경은 이를 벗어나 때로 전경을 이루는 사건과 시간적으로 중첩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배경은 대개 중심 줄거리를 부연·설명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최동주 1995: 23-24)

43) Bybee et al. (1994)에서 범언어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상(resultative)/종결상(completive) 〉 완료상(anterior) 〉 완망상/단순 과거'의 발달 경로와 '위치 표현(locative expressions) 〉 진행상(progressive) 〉 비완망상/현재 시제'의 발달 경로를 제시하였는데, 이를 통해서도 완망상/비완망상 대립과 과거/현재 대립이 문법화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완료상(anterior)'은 본고의 '완료(perfect)'와 같은 개념이다.

44) 완망상 형태가 전형적으로 과거 상황을 가리키는 것은 과거 상황이 자연스럽게 '경계가 있는(bounded)'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현재 상황은 경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완망상으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anomalous). 미래 상황의 경우 경계가 있거나(완망상) 없는 것으로(비완망상) 보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Bybee et al. 1994: 83).

45) 요루바어에 대한 기술은 Comrie (1976: 82-83)를 참고하였다. 상태동사(stative verbs)의 경우 완망상/비완망상 대립을 가지지 않으므로 ń 형태가 붙지 않는다.

b. ó wá ‘he came’
c. ó ń ṣiṣẹ́ l′ ánă ‘he was working yesterday’

(9a)와 (9b)에서 볼 수 있듯이 아무런 문맥이 없는 경우 ń가 붙은 비완망상 형태는 현재 시제로, ń가 붙지 않은 완망상 형태는 과거 시제로 해석되지만 (9c)에서와 같이 l′ ánă ‘yesterday’와 같은 과거 시간 표현이 함께 사용되면 비완망상이 과거 상황으로 해석되는 것이 가능하다. 즉, 비완망상 형태가 현재 시제로 해석되는 것은 본연의 의미가 아닌 문맥에 따른 부차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완망상과 과거 시제 또한 의미와 기능이 매우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

(10) 완망상과 과거 시제(simple past)의 차이점(Bybee et al. 1994: 95)
a. 완망상은 영형태가 아닌(non-zero) 비완망상과 대립하지만, 과거 시제는 비완망상과 함께 나타나서 비완망상 과거(past imperfective)를 이루거나 또는 단독으로 사용되어 완망상 과거(past perfective)와 비완망상 과거를 모두 나타낼 수 있다.
b. 완망상은 종종 영형태로 나타나지만 과거 시제는 그렇지 않다.
c. 완망상은 상태 동사(stative verbs)와 함께 나타나지 않거나 상태 동사와 함께 사용되어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효과가 있다. 과거 시제는 과거의 상태를 나타낸다.
d. 완망상은 종종 미래 시제로 사용되거나 미래 시제와 함께 나타나지만, 과거 시제는 그렇지 않다.

만주어의 분사 어미 -ra와 -ha는 관형의 기능(관형형)과 명사의 기능(명사형)에서 두 어미만으로 이루어진 정연한 대립을 보이므로(즉 두 어미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므로) ‘비완망상/완망상’의 양상 대립 또는 ‘현재(비과거)/과거’의 시제 대립 가운데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46] Avrorin (1949) 이후 -ra와 -ha를 소위 ‘완결되지 않은(неокончательный)’ 양상과 ‘완결된(окончательный)’ 양상의 대립으로 기술하

46) -ra와 -ha가 ‘비현실(irrealis)/현실(realis)’의 양태 대립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ra가 현재 진행 중인 구체적인 상황을 가리킬 수 있기 때문이다.

는 경향이 생겼는데, 이는 상황의 완결 여부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Comrie (1976)에서 정립된 비완망상/완망상 대립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47] 최근의 만주어 연구에서 -ra와 -ha를 'imperfective'와 'perfective'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있는데[48] 이를 Comrie (1976) 이후 정립된 일반언어학적인 개념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3. 완료(perfect)

앞서 살핀 양상 범주가 '상황의 내적 시간 구성을 바라보는 관점'과 관련이 있다면, 완료(perfect)[49]는 두 시간적 위치(즉 선행하는 상황과 현재의 상태)를 연결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양상 범주와는 차이가 있다.[50] 본고에서는 완료를 '과거 상황의 현재 관련성(the continuing present relevance of a past situation)'으로 기술한 Comrie (1976: 52)의 정의를 따른다.

이러한 현재 관련성은 영어에서 현재 완료(present perfect)와 일반 과거(simple past)의 대조를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47) Comrie (1976: 18)에서 완망상(perfective)에 대한 이러한 오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The perfective does indeed denote a complete situation, with beginning, middle, and end. The use of 'completed', however, puts too much emphasis on the termination of the situation, whereas the use of the perfective puts no more emphasis, necessarily, on the end of a situation than on any other part of the situation, rather all parts of the situation are presented as a single whole."

48) 예를 들어 愛新覺羅烏拉熙春(1983)의 시제 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여 양상 대립으로 파악한 Roth Li (2000)에서 'perfective'와 'imperfectiv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49) 'perfect (완료)'는 'perfective (완망상)'과 용어의 유사성으로 혼동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anterior'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Bybee et al. 1994: 61).

50) Comrie (1976)의 3장에서 완료(perfect)를 다루고 있지만, 이는 전통적인 분류를 따르는 것이며 완료가 다른 양상(aspect)과는 개념적인 차이가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Aspect, as we have been concerned with it hitherto, has been concerned with different ways of representing the internal temporal constitution of a situation. The perfect is rather different from these aspects, since it tells us nothing directly about the situation in itself, but rather relates some state to a preceding situation." (Comrie 1976: 52)

(11) 영어에서 현재 완료와 일반 과거의 차이(Comrie 1976: 52)
a. I have lost my penknife.
b. I lost my penknife.

(11a)와 (11b)는 모두 동일한 과거의 사건을 가리키지만 함의하는 바는 다르다. (11a)는 과거에 주머니칼(penknife)을 잃어버린 결과 현재 화자에게 주머니칼이 없음을 함의한다. 대조적으로 (11b)는 그러한 현재 상태에 대한 함의가 없다. 한편 이러한 현재 관련성은 절대 시제적인 관점에서의 현재는 아니다.

(12) 영어의 과거 완료와 미래 완료(Comrie 1976: 53)
a. John had eaten the fish.
b. John will have eaten the fish.

(12)에서 볼 수 있듯이 영어의 과거 완료(past perfect)는 과거의 기준시점 대비 더 과거 상황과 기준시점의 관련성을, 미래 완료(future perfect)는 미래의 기준시점 대비 과거 상황과 기준시점의 관련성을 나타낸다.

영어 완료형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용법을 가지는 것으로 기술된다.

(13) 영어 완료형의 네 가지 용법 (Comrie 1976: 56-61)
a. Perfect of result: John has arrived.
b. Experiential perfect: Bill has been to America.
c. Perfect of persistent situation: I've been waiting for hours.
d. Perfect of recent past: I have recently learned that the match is to be postponed.

(13c)와 (13d)의 용법은 확인되지 않지만, 만주어 정동사 어미 -habi는 정확히 '(과거 상황의) 결과 지속'과 '경험'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이는 '과거 상황의 현재 관련성'이라는 완료의 정의와 일치한다. 대조적으로 분사 어미 -ha는 종결형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현재 관련성을 함의하지 않는다. 이는 위에서 살핀 영어의 현재 완료와 단순 과거의 차

이와 유사한데, 이러한 차이는 담화상의 기능을 살필 때 명확히 드러난다.[51]

한편 유럽 언어들에서 완료는 결과상(resultatives)에서 비롯하는 경우가 많은데,[52] 이들의 결과상은 '계사(copula) + 과거 분사(past participle)' 또는 '소유 동사(=have) + 과거 분사'의 우언적인(periphrastic) 구성에서 비롯한다(Lindstedt 2001: 776). 만주어의 -habi도 기원적으로는 과거 분사 -ha와 존재 동사(또는 계사) bi의 통사적 구성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과 유사한 발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2.4. 양태(modality)

본고는 만주어 문어에 나타나는 양태 의미를 전반적으로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본고의 주요 연구 대상인 -ra가 종결어미로 사용되는 경우 그 분포와 의미를 보아 양태 의미를 가진다고 기술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양태는 '절이나 문장이 나타내는 명제/사태에 대한 주관적 태도/판단을 나타내는 범주'로 정의할 수 있는데(박진호 2011: 310), Palmer (2001)에서 아래와 같이 양태의 종류를 나누고 있다.

(14) Palmer (2001: 22)의 양태 분류
a. Propositional modality (명제 양태)
Epistemic (인식 양태)

---

51) Dahl (1985: 139)에서 "...the most striking difference is in narrative contexts: as we have noted above, PFCT[역주: 즉, 완료(perfect)] is very rarely used narratively, whereas several of the proto-typical cases of PFV[역주: 즉 완망상(perfective)] belong to these contexts."라고 언급하였듯이 범언어적으로 과거 시제 또는 완망상은 서사(narrative contexts)에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데 반해 완료는 이러한 서사에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52) 완료와 결과상의 결정적인 차이는 오직 결과상만이 still '여전히' 또는 as before '전처럼'과 같이 '제한되지 않은 지속성(unlimited duration)'을 나타내는 부사와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Lindstedt 2001: 777). 즉, 영어에서 결과상을 나타내는 'She is still gone'은 가능하지만 완료를 나타내는 '*She has still gone'은 불가능하다.

speculative: John may be in his office.
deductive: John must be in his office.
assumptive: John'll be in his office.

Evidential (증거 양태)

Reported: German. Er soll steinreich sein. 'He is said to be extremely rich.'
Sensory: Fasu. a-pe-re. '[I see] it coming.' / pe-ra-rakae. '[I hear] it coming.'

b. Event modality (사건 양태)

Deontic (당위 양태)

Permissive: You may go now.
Obligative: You must go now.
Commissive: You shall do as you are told.

Dynamic (동적 양태)

Abilitive: He can run a mile in under four minutes.
Volitive: Will you stand by the anchor?

(14a)는 '명제의 진리치에 대한 화자의 태도'에 관련된 양태이다. 인식 양태(epistemic)는 명제의 진리치에 대한 추측, 추론 등 화자의 판정을, 증거 양태(evidential)는 명제의 진리치에 대해 화자가 가진 증거, 즉 전언(傳言), 감각 등을 나타낸다. (14b)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잠정적인 사건(event)'에 관련되는데, 당위 양태(deontic)는 그 사건의 실현과 관련하여 화자(speaker) 등 외부자에 의한 허락, 의무 등을, 동적 양태(dynamic)는 그 사건의 실현과 관련하여 주어 등 내부자의 능력, 의지 등을 나타낸다.

평서법 긍정문에 나타나는 만주어 -ra 종결형은 1인칭 주어만 가지는 분포의 제약이 있으며 의미적으로 2인칭 청자에 대한 화자의 약속을 나타내는데, 이는 위에서 분류한 당위 양태 가운데 언약류(commissives)에[53]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동사 어미 -mbi가 지시하는 미래

53) Palmer (2001: 10)은 이 용어에 대해 Searle (1983: 166)에서 참고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commissives: where we commit ourselves to doing things" (Searle 1983:

상황은 '일어날 것이 확실한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expected future)'로서, 그것의 실현 여부에 대한 화자의 확고한 믿음을 나타낸다고 볼 때, 인식 양태의 의미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166). 한편 'commissives'에 대한 '언약류'라는 번역은 박재연(2004)을 따르는데, 박재연(2004: 56)에서는 '다른 동작주에게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대타적(對他的) 조건 부과', '화자 스스로에게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재귀적(再歸的) 조건 부과'라고 명명하고, 후자를 다시 조건 부과의 강도에 따라 '약속(promise), 의도(intention), 소망(desire)'로 나누었다. 만주어 종결형 긍정문에 나타나는 -ra는 2인칭 청자에 대한 약속의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3. 선행 연구 검토

1599년에 태조 누르하치의 명에 의해 위구르식 몽골문자를 차용한 만주문자가 제정된 이후 청나라가 쇠망한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만주족은 고유의 만주문자를 이용한 문자생활을 영위하여 왔다. 대제국이었던 청나라의 모든 공적 문서가 만주문자를 우선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만주족뿐 아니라 한인 관리, 그리고 청나라와 교류하는 외국인들에게 만주어 및 만주문자 학습은 필수적인 것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중국 고전이 만주어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고립어인 한어에 비해 비교적 이해가 쉬운 교착어인 만주어를 이용하여 중국 고전에 접근하려는 외국인의 학문적인 수요도 계속 존재하여 왔다.[54] 서양의 만주어 연구가 다른 소수민족 언어에 비해 이른 시기부터 활발히 이루어진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 Rudolph & Walravens (2009)에 정리된 1850년 이전의 만주어 연구 저작만 해도 84종에 이르는 사실이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한다.

이하 본 장의 내용은 17세기 후반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간행된 서구 및 중국, 일본, 한국의 주요 만주어 문법서 20여 종을, 본고의 연구 대상이 되는 여섯 개의 시상 형태에 주목하여 요약하고 그 의의 및 문제점을 제시한 것이다. 이들의 기술은 모두 나름의 의의를 가지며 만주어 시상 의미의 일면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일부는 개개의 시상 형태의 분포와 의미에 대해 잘못된 기술을 보이며, 대부분은 계열성과 통합성의 차원에서 체계 내부적인 모순을 보인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고찰함으로써 본고의 지향점이 뚜렷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54) Möllendorff (1892)의 서론(Introduction)에서 '만주어가 중국어에 비해서 대단히 (infinitely) 배우기 쉽기 때문에' 중국 고전을 이해하는 데 유용함을 강조하고 있다.

선행 연구의 제시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청나라 시기 만주인에 의해 편찬된 문법서인 <청문조어허자(淸文助語虛字)>(1730)의 기술을 살핌으로써 만주인의 언어 직관을 확인한다(3.1). 그 다음으로 Verbiest (1696)을 비롯한 서양 및 동양 학자들의 주요 연구를 시기 순으로 살피는데, 만주어 시상체계에 대한 이들 선행 연구의 기술 태도는 Avrorin (1949)를 전후하여 시제 대립 중심에서 양상 대립 중심으로 옮겨 간 경향이 있으므로, 시제 대립을 중심으로 기술한 연구(3.2 이하)와 양상 대립을 중심으로 기술한 연구(3.3 이하)를 나누어 제시한다.

3.1. 〈淸文助語虛字〉(1730)

이 책은 청나라 舞格이 짓고, 程明遠이 교정한 <淸文啓蒙>(1730) 전 4권 가운데 세 번째 권으로, 만주어의 기능어 99종에 대한 해설과 상용 표현 152종에 대한 한어 번역으로 구성된다.[55] 이렇게 청나라 시기에 만주어를 한문으로 해설한 문법서로는 <淸書指南, 飜淸虛字講約>(1682), <滿漢類書, 字尾類>(1700) 등도 있지만, 이 책의 내용이 더욱 상세하고 예문이 풍부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이하 본고에서 다루는 시상 형태와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여 인용한다(한국어 번역은 필자).

(1) <淸文助語虛字>에 제시된 만주어의 시상 형태

a. ka, ha, ko, ho, ke, he 此六字俱是。了字。矣字。也字。在字尾聯用。乃已然之詞。句中亦有解作之字。的字者。俱隨上字押韻用之。如上用 a 下用 ha, 上用 e 下用 he, 上用 o 下用 ho, 上用 ha 下用 ka, 上用 ge 下用 ke, 上用 fo 下用 ka, 'ka, ha, ko, ho, ke, he 이 여섯 자는 (한어의) 了, 矣, 也에 대응한다. 어미에 사용하며 이미 이루어진 일(已然)을 의미한다. 구절 가운데 또한 풀어서 쓰는 자는 (한어의) 的에 대응한다. 앞 글자의 압운에 따라 앞에서 a가 쓰이면 ha, e가 쓰이면 he, o가 쓰이면 ho, -ha가 쓰이면 ka, ge가 쓰이면 ke, fo가 쓰이면 ka가 쓰인다.'

55) 竹越 孝(2007: 33) 참조. 본고는 이 책의 여러 판본 가운데 雍正 원간본 계통의 三槐堂本본(天理大圖書館 소장)을 활자로 옮기고 주석을 단 竹越 孝(2007)을 이용하였다.

如云。almbi 告訴。alaha(了字) 告訴了。erembi 指望。erehe(了字) 指望着了。obombi 洗。oboho(了字) 洗了。hafumbi 通達。hafuka(了字) 通達了。gerembi 天亮。gereke(了字) 天亮了。fodorombi 毛倒捲。fodoroko(了字) 毛倒捲了。yaluha(的字) morin 騎的馬。foloho(的字) bithe 刻的書。genehe(的字) niyalma 去的人。

凡遇 manggi 字之上。必用 ka, ha, ko, ho, ke, he 等字。

(중략)

bihe 有來着字。在來着字。原曾字。乃追述語。此上必用 daci 字照應。如云。

daci emu umesi sain niyalma bihe 原是一个最好的人來着。

ombihe 可以來着。使得來着。bimbihe 曾有來着。曾在來着。sembihe 說來着。曾說。ki sembihe 欲要來着。曾欲。

sehe bihe 曾經說來。說了來着。ki sehe bihe 曾說欲要。

b. kabi, habi, kobi, hobi, kebi, hebi 此六字俱是。已了字。矣字。也字。乃一事已畢。用此煞尾。另敍別情。已然之語。'(한어의) 已了, 矣, 也에 대응한다. 즉 어떤 일이 이미 끝났음을 의미한다. 이를 이용하여 문장을 끝맺는다. 또한 다른 사정을 서술할 때는 이미 이루어진 일(已然)을 의미한다.'

如云。bahao 得了麽。baha 得了。bahabi(已了字) 已是得了。hafan ohoo 做了官了麽。hafan oho 作了官了。hafan ohobi(已了字) 已做了官了。geneheo 去了麽。genehe 去了。genehebi(已了字) 已是去了。eiten baita yooni wajihabi(已了字) 諸事俱已全畢。

c. ra, re, ro 此三字俱在字尾聯用。乃上接下。未然之語。亦可煞尾用。比mbi 字。語氣輕活。句中亦有解作之字。的字者。俱隨上字。押韻用之。如上用 a 下用 ra, 上用 e 下用 re, 上用 o 下用 ro, 'ra, re, ro 이 세 자는 모두 어미에 사용하여 위의 구절과 아래의 구절을 잇는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未然)을 의미한다. 문장을 끝맺는 데 사용할 수 있다. mbi에 비해 어기가 가볍다(語氣輕活). 구절 가운데 또한 풀어서 쓰는 자는 (한어의) 的에 대응한다. 앞의 글자에 따라 압운하는데, a가 선행하면 ra, e가 선행하면 re, o가 선행하면 ro가 쓰인다.'

如云。bi urunakū anambi 我必定推。bi uthai anara 我就推呀。bi urunakū erimbi 我必然掃。bi uthai erire 我就掃呀。bi urunakū

obonombi 我必正去洗。bi uthai obonoro 我就去洗啊。bithe hūlara(的字) niyalma 讀書的人。jugūn yabure(的字) niyalma 行路之人。baitalaci ojoro(之字) erdemu 堪用之才。
凡遇 jakade, anggala, onggolo, dabala, ayoo, unde 等字之上。必用 ra, re, ro 等字。凡遇 ume 字之下。必用 ra, re, ro 等字應之。如 age ume, jai uttu ume 等句。乃係急口成語不在此例。是一定之詞也。

d. mbi 在字尾聯用。乃將然未然。煞尾之語。比 ra, re, ro 等字。詞義實在。'mbi는 어미에 사용하여 장래의 일(將然)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未然)을 의미한다. ra, re, ro에 비하여 의미가 실재(實在)하다.'
如云。we tubade genere 誰往那裡去啊。bi genembi 我去。
i enenggi jimbio jiderakūn 他今日來不來呀。urunakū jimbi 必然來。

이 책은 만주어가 아직 활발히 쓰이던 시기(18세기 초)에 만주인에 의해 쓰인 만주어 문법서라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이 책의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 당시 한어의 시각에서 만주어를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착어인 만주어에서 어미로 표현하는 문법 형태소를 고립어인 한어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치하는 문법 형태소가 없는 경우 그것을 무시하거나 다른 어휘적 표현으로 갈음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살핀 -ha와 -habi는 각각 한어의 了와 已了로 대응시키는 데 반해 -ra와 -mbi는 규칙적인 대응자를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就와 必定 등의 어휘적 표현을 이용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할 뿐이다. 이는 현재 시제를 표시하는 문법 형태소가 따로 없는 한어의 특징에 의한 것이며, 了와 已了 등의 문법 형태도 문맥에 따라 얼마든지 생략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주어의 -ha와 -habi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또한 근대 서구의 문법서에 비해 의미와 용법의 기술이 소략하고 치밀하지 못하다는 점에서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문법서라고는 할 수 없다.[56] 따라서 반드시 실제 언어자료와 병행하여 그 의미와 용법을 상

56) 일례로, 성백인(1968)에서 적어도 7가지로 유별한 부동사 어미 -me의 용법을, 이 책에서는 그저 한어의 着에 대응하고 있을 뿐이다.

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본고에서 다루는 시상체계와 관련한 논의에서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는데, 아래에 몇 가지를 언급한다.

첫째, 이 책의 기술에 따르면, 통사적 출현 범위에 따라 -ra/-ha, -mbi/-habi가 각각 범주를 이루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둘째, 위에서 예로 든 (1a-d)는 원문에서 각각 독립된 항을 이루는데, 이는 대두(擡頭) 여부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mbihe와 -ha bihe는 독립된 항을 이루지 못하고 (1a) -ha 항목 아래에 ombihe, sembihe, sehe bihe 등의 예문으로만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아래에서 살필 Verbiest (1696) 이후의 서구 문법서에서 -mbihe와 -ha bihe를 독립된 항목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된다. 이는 라틴어 문법에서 이들에 대응하는 비완망상 과거(past imperfective)와 대과거(pluperfect)가 독립된 굴절형으로 존재하는 데에 기인하는 것이며, 반대로 만주인의 직관으로는 이들이 -ha와 나머지 형태의 결합으로 분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ha와 -habi를 각각 한어의 了와 已了로 대응시키고 그 용례를 대비하고 있어서 이들이 다른 의미를 가짐을 보여준다. 일부 문법서에서 -ha와 -habi가 분사 어미와 정동사 어미라는 통사적 범주의 차이밖에 없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넷째, -ra와 -mbi의 차이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 전자가 후자에 비해 '어기가 가볍다(語氣輕活)'거나 후자가 전자에 비해 '의미가 실재하다(詞義實在)'고 기술하고 있다.[57]

3.2. 시제 대립 중심의 연구

57) 이에 대해 최동권(2008: 121)에서는 "(-ra와 -mbi) 상호간의 의미차를 거의 인식할 수 없고 다만 어감상의 미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분포와 의미 면에서 단순히 어감 차이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3.2.1. Verbiest (1696), *Elementa Linguae Tartaricae*

라틴어로 쓰인 이 책은 서양 최초의 만주어 문법서로 알려져 있다 (Poppe 1965: 95, Rudolph & Walravens 2009: 234).[58] 본고에서 다루는 <만문노당>의 원본인 <만문원당>의 작성 시기가 대략 1607-1635년임을 감안하면 적어도 반세기 이상 후대에 작성된 책이지만, 거기에 기록된 언어 사실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만주족의 자칭인 manju 대신에 당시 서양 세계에 익숙한 Tartar라는 민족명을 사용한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언어, 즉 라틴어의 문법 용어를 메타언어로 이용하여 만주어를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 책에서 만주어 직설법 현재 -mi(-mbi)에서 i가 bihe로 변화하면(mutato) 과거 미완료 -mbihe, e로 변화하면 현재 부정사 -me가 된다는 식의 설명은, 라틴어에서 과거/현재/미래 미완료 형태(imperfectum)가 하나의 동일한 어간 형태에서 굴절한다는 설명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교착어로서 만주어는 소위 '완료/비완료' 어간의 구분없이 단일한 어간에 시상 형태가 결합한다.

이러한 분석은 서구 문법의 시각에서 외국어를 기술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인구어와 같이 계통적으로, 따라서 구조적으로 밀접한 언어들끼리는 이러한 분석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만 라틴어와 만주어처럼 계통적으로 무관한 언어 사이에서는 정확한 대응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2) Verbiest (1696: 12-20)에 제시된 만주어의 시상 형태[59]

a. 직설법(Indicativum)
   현재(Præsens): mi (또는 mbi)
   예) hūlami 'vocado'

58) 그 간행시기와 저자에 대해 이견이 있지만 대략 1682-1696 사이인 것은 확실하다.

59) 원문에 사용된 만주어의 로마자 표기는 본고에서 사용하는 묄렌도르프(Möllendorff)식 로마자 표기로 변환하였음을 밝힌다. 이는 본고의 모든 만주문자 표기에 적용된다.

과거 완료(Præteritum perfectum): ha
예) hūlaha ‘vocavi’ (ha bi는 동사가 지시하는 행위가 완료되었음을 의미)
미래(Futurum): ra
예) hūlara ‘vocabo’
과거 미완료(Præteritum imperfectum): mbihe
예) jimbihe ‘veniebam’
대과거(Plusquam-perfectum): ha bihebi
예) jihe bihebi ‘veneram’

b. 비종결형
di 동명사(Gerundium in di)
예) genere erin ‘tempus eundi’
do 동명사(Gerundium in do)
예) generede ‘eundo’
dum 동명사(Gerundium in dum)
예) ere moo boobe weilerede sain ‘hoc lignum aptum est ad faciendam domum’

이 책에서는 종결형(finite form)과 비종결형(infinite form)의 형태적 구별이 뚜렷한 라틴어 문법에 따라, 만주어의 시상 형태도 직설법과 비종결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직설법의 시제를 ‘과거/현재/미래’로 삼분하고 과거를 다시 ‘과거 완료/과거 미완료’의 대립으로 나눈 것은 만주어의 시상체계와 대체로 부합하는 것이지만, 이는 우연히 라틴어의 직설법 시상체계가 만주어와 유사한 점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라틴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로망스어파의 언어들은 과거 시제에서 완망상(perfective)/비완망상(imperfective)의 양상 대립을 가지는데, 계통적으로 무관한 만주어에도 이와 유사한 대립이 나타나는 것은 언어 보편적으로 흔히 나타나는 특성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60]

한편 라틴어와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에서는 용어상의 혼란이

60) 참고로 이는 중세 한국어에의 과거 시제에서도 나타나는 대립이다. 이에 대해서는 최동주(1995)를 참고하기 바란다.

엿보인다. 첫째, 각각 직설법 과거와 미래로 제시한 -ha와 -ra가 동일한 형태로 비종결형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를 어떻게든 라틴어 문법의 틀 안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의 위치에 오는 -ra 형태에 대해, 한편으로는 'di 동명사'로 설명하고(genere erin 'tempus eundi 갈 때') 한편으로는 'quae 관계절'로 설명하고 있는데(sini araha bithe 'libre ille quem tu fecisti 네가 지은 책') 이는 만주어 문법에서 유의미한 구별이라고 할 수 없다.

둘째, 'do 동명사'로 대응시킨 generede의 경우 genere와 여처격 조사 de로 분석되며 이는 라틴어 eundo와 같은 동사의 굴절형이 아닌 동명사와 조사가 통사적으로 결합한 분석적 형태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또한 라틴어 명사형은 시제의 구분이 없는데 반해 만주어에서는 genere de/genehe de와 같이 비과거/과거의 구분이 가능한 사실과도 배치된다.

요약하면, 이 책은 잘 정립된 라틴어 문법이라는 메타언어의 틀을 이용하여 만주어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근대적인 만주어 연구의 시초라고 할 수 있으며, 이후의 연구에서도 각 시상 형태를 출현 위치에 따라, 또 그 의미에 따라 분류하고 범주화한다는 점에서는 이 연구의 방법론을 대체로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라틴어 문법의 간섭으로 만주어 문법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은 그 한계라고 할 수 있다.

3.2.2. Gabelentz (1832), *Elemens de la grammaire mandschoue*

이 책의 서문에서 위에서 다룬 Verbiest (1696)를 참고하였음을 밝히고 있고 내용면에서도 그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주어 연구사를 다룬 논저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책의 내용은 현재까지도 유효하며(Poppe 1965: 95), 라틴어와 프랑스어로 주석을 단 풍부한 예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에 비해 한층 발전한 문법서이다.[61] 이하 이

61) 단순히 분량으로 비교할 순 없지만, 이 책은 본문만 142쪽에 달하고 Verbiest (1696)은 34쪽에 불과하다.

책에 제시된 만주어 시상 형태를 살핀다.

(3) Gabelentz (1832)에 제시된 만주어의 시상 형태
현재(présent): mbi
예) hūwašambi 'je nourris, tu nourris, il nourrit, nous nourrissons etc.'
미완료 과거(Imparfait): mbihe (현재형에 he가 붙은 형태)
예) hūwašambihe 'je nourrissois etc.'
Prétérit indéfini: ha[62)]
예) hūwašaha 'j'ai nourri etc.'
Prétérit défini: habi (ha에 bi가 붙은 형태)
예) hūwašahabi 'j'ai nourri etc.'
미래(Futur): ra
예) hūwašara 'je nourrirai etc.'

대체로 Verbiest (1696)의 용어와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같은 로망스어에 속하는 라틴어와 프랑스어의 구조적 유사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모든 면에서 이 책의 내용이 향상되었음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me, -mbi, -mbihe 활용형의 동사 어간을 m까지 포함시키지 않고 다른 형태(-ra, -ha)와 동일하게 파악한 것은 교착어로서의 만주어의 특징을 온전히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또 -ha와 -habi를 구별하여 제시하면서, 전자는 현재까지 지속되지 않고 후자는 현재와 관련성이 있어서 종종 프랑스어의 현재형으로 번역한다는 설명을 덧붙임으로써 둘의 차이가 단순히 통사적 분포의 차이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한편 -ha가 실사(substantif) 앞에 위치할 때 과거 분사(participe

62) Gabelntz (1832)에서 사용한 'Prétérit indéfini'와 'Prétérit défini'가 정확히 어떤 개념을 지시하는지 확실하지 않다. 보통 'past indefinite'는 완료(perfect)와, 'past definite'는 단순 과거(simple past)와 대응하는데, 만주어 -ha와 -habi는 그 의미가 각각 단순 과거와 완료에 가깝기 때문에 반대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 살필 Harlez (1884)에서 -ha와 -habi를 각각 'Passé défini'와 'Passé indéfini'로 명명한 것과 반대인데, 단순한 오기인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passé)를 의미한다고 하여 관계절 또는 동명사로 설명한 Verbiest (1696)과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ra에 대해서도 erin, tuktan, dulimba, dube, da, ba 등의 시간이나 위치를 나타내는 명사 앞에서 부정사나 라틴어의 di 동명사에 대응하지만, 보통의 실사(substantif) 앞에서 현재 또는 미래 분사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여 분사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어의 분사가 라틴어에 비해 형용사적 용법(adjectival participle)을 가지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후 대부분의 연구에서 -ra/-ha를 분사(participle)라는 용어로 설명하는 것도 이러한 관찰과 같은 방향으로 볼 수 있다.

이 책은 Verbiest (1696)의 용어를 거의 그대로 가져왔지만, 그 내용이 현대 만주어 문법서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충실하며, 특히 -ra/-ha를 분사(participle)로 분류하는 단서를 제공한 초기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ha bihe 형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분석적 형태로 파악하여 따로 다루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없다.

3.2.3. Adam (1873), *Grammaire de la langue mandchou*

Poppe (1965: 95)는 위에서 다룬 Gabelentz (1832)와 함께 당대에 참고할 수 있는 만주어 문법서로 이 책을 꼽고 있다. 이 책에 제시된 만주어 시상 형태는 다음과 같다.

(4) Adam (1873)에 제시된 만주어의 시상 형태
a. 비종결법(Mode indéfini)
완료 분사(Participe parfait): ha
예) araha 'ayant écrit, ayant été écrit'
미완료 분사(Participe imparfait): ra
예) arara 'écrivant, étant écrit, devant être écrit'
동명사 I(Gérondif I): ra
예) oboro 'de laver'
동명사 II(Gérondif II): ra de

예) oborode ‘en lavant, à laver’
동명사 III(Gérondif III): ra be
예) oborobe ‘le lavant, le laver’
동명사 IV(Gérondif IV): ha i
예) obohoi ‘par le laver’

b. 직설법(Mode indicatif)
현재(Présent): mbi
예) bi obo-m(e)-bi ‘moi lavant-est’
완료(Parfait): ha bi ~ habi
예) bi oboho bi ~ obohobi ‘moi ayant lavé est’

c. 미완료 과거(imparfait): mbihe
예) bi obom(e)-bihe ‘je lavais’
d. 대과거(plus-que-parfait): ha bihebi
예) bi oboho bihebi ‘j′avais lavé’

앞서 살핀 Verbiest (1696), 그리고 Gabelentz (1832)와 사뭇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선 연구에서 직설법 과거와 미래로 분류한 -ha와 -ra를 분사(participe)에 포함시킨 것은 그 통사적 기능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하였음을 의미하며, 이후 대부분의 문법서에서 이러한 분류를 따르고 있다. 종결형과 비종결형의 형태적 구별이 명확한 서양어의 직관으로는, 문장의 서술어로도 쓰이지만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에도 형태적 변화 없이 나타나는 -ha와 -ra의 통사적 지위를 자리매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이 이러한 혼란에 반영되어 있다.

앞선 연구와 마찬가지로 -ra, -ra de, -ra be, -ha i 등을 동명사(Gérondif)에 포함시키는 것은, -ra/-ha를 여전히 모국어인 프랑스어의 체계 내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인다. 그런데 라틴어나 프랑스어에서 동명사는 주격이 아닌 사격만을 나타낼 수 있고, 주격은 부정사로 표현하는 데 비해 만주어에서는 이들 형태가 주격으로 사용될 수 있고, 또한 비교적 자유롭게 주어나 목적어를 포함하는 절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한편 그 분포가 확연히 차이나는 부동사 어미 -me와 -ra/-ha를 모두 분사(participe)로 분류한 것은, 로망스어인 라틴어 및 프랑스어에서 분사가 형용사 및 부사로서의 용법을 모두 가지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 다룰 Zaxarov (1879)에서는 이들을 각각 'деепричастие'와 'причастие'라는 용어로 구별하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어에서 부사적 분사(adverbial participle)와 형용사적 분사(adjectival participle)의 형태적 구별이 존재하는 데 기인한다.

이 책은 선행하는 Gabelentz (1832)를 이어서 만주어 문법 기술을 더욱 정교하게 하였으며, 특히 -ra와 -ha를 직설법 어미가 아닌 분사(participe)로 분류한 점에서 이후의 문법서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3.2.4. Zaxarov (1879), *Grammatika man'czurskogo jazyka* [Manchu Grammar]

가장 완전하고 훌륭한 만주어 문법서로 평가되며[63] 특히 80여 페이지의 동사 활용표를 제시하고 있어서 편리하다. 앞서의 문법서들과 달리 만주문자가 키릴문자(cyrillic script) 전자(transliteration)와 함께 책 전반에 걸쳐 병기되었다. 이 책은 특히 로망스어파가 아닌 슬라브어파에 속하는 러시아어의 특징이 많이 반영되었는데, 형용사적 분사(причастие)와 부사적 분사(деепричастие)의 구별이나, 각 범주마다 '완료(한정)/비완료(비한정)'의 구별이 있는 것이 그러하다.

(5) Zaxarov (1879)에 제시된 만주어의 시상 형태
a. 직설법(=정동사, изъявительное)
현재(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mbi = me bi
예) alambi 'говорю'
과거 비한정(прошедшее неопредленное) mbihe = me bihe

63) "Zaxarov ... was the author of the most complete and best grammar of Manchu." (Poppe 1965: 95-96)

예) alambihe ‘говорил’ ~ alame bihe ‘говоря был’

과거 완료(прошедшее совершенное) ha / habi

예) alaha ‘сказал’, alahabi ‘сказал, т. е. есть сказавший ’

대과거(давнопрошедшее) ha bihe

예) alaha bihe ‘был сказывавший ’

미래 비한정(будущее неопредленное) ki

예) alaki ‘скажу’

미래 한정(будущее опредленное) ra biki / ra oki / ra seki

예) alara biki ‘буду говорящим’

b. 분사(причастие)

현재(настоящее причастие) ra

예) alara ‘говорящий ’

과거 비한정(прошедшее неопредленное) mbihe = me bihe

예) alambihe ‘говорил, говоривший ’

과거 완료(прошедшее совершенное) ha

예) alaha ‘сказавший , сказанный ’

대과거(давнопрошедшее) ha bihe

예) alaha bihe ‘говаривал, сказывал, сказывавший , говаривавший ’

미래 비한정(будущее неопредленное) ki sere

예) alaki sere ‘желающий , намеревающий ся сказать’

미래 한정(будущее опредленное) ra

예) alara ‘сказывающий , желающий , намеревающий ся сказать’

c. 부동사(деепричастие)[64]

현재(настоящее деепричастие) -me

예) alame ‘говоря, сказывая’

과거 비한정(прошедшее неопредленное) mbime = me bime

예) alame bime ~ alambime ‘говаривая, сказывая’

과거 완료(прошедшее совершенное) -fi

예) alafi ‘сказав, сказавши’

64) 부동사 어미는 본고의 연구 대상이 아니지만, 이 문법서에서 최초로 만주어의 정동사/분사/부동사를 엄밀히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개한다.

앞선 연구들에 비해 시상체계가 상당히 정연해졌다. (5a)직설법 어미와 (5b) 분사 어미를 비교하면, 현재형에서 직설법 어미가 -mbi, 분사 어미가 -ra인 점을 제외하고 시제의 목록과 형태가 거의 일치한다. 또 이전의 연구에서 다른 범주에 속했던 -me와 -fi도 '부동사(деепричастие)'라는 하나의 범주 아래 각각 현재와 과거의 대립 체계를 이루고 있다. 즉 직설법, 분사, 부동사 세 개의 체계가 모두 현재와 과거의 대립을 공히 가지고 있고, 직설법과 분사의 경우 대과거와 미래 시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부동사보다 더 발달된 시제 체계를 보여준다.

그런데 이렇게 정연한 체계가 과연 언어 사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우선 '미래 비한정 시제'로 기술한 -ki는 다른 연구에서는 주로 직설법이 아닌 원망법(optative) 어미로 기술하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시제에 포함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또 분사 어미 가운데 -ra와 -ha를 제외한 형태들이 직설법 어미와 동등하게 체계 내에서의 지위를 가지는지 의심스럽다. <만문노당>에서 -ra와 -ha는 수식의 기능과 명사의 기능을 가지지만, -mbihe는 수식의 기능은 나타나지 않고 명사의 기능도 격조사 de 앞에 나타나서 비현실 가정(-한다면)만을 나타내며,[65] -habihe는 종결어미 이외의 용법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종결형에서 이들이 가지는 용법이 동등하게 분사에서도 나타난다고 할 수 없다.[66] Zaxarov가 대상으로 한 19세기 말의 만주어 자료와 초기 만주어 문어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앞서 살핀 세 문법서에서도 이런 쓰임은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Zaxarov가 체계를 정연히 제시하는 과정에서 실제 언어사실이 간과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이 책에서 제시한 만주어 동사 형태의 세 가지 분류는 그 명칭의 이동(異同)은 있지만 현대의 만주어 문법서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정연한 체계를 제시하면서 언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모습도 보

65) -me bihe의 경우 명사를 수식하는 위치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Zaxarov가 이러한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me bihe와 -mbihe가 과연 의미 차이 없이 이형태로 사용되었는지가 의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들은 공시적인 이형태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66) 이는 본고에서 사용한 보조 자료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인다.

3.2.5. Harlez (1884), *Manuel de la langue mandchoue: grammaire, anthologie & lexique*

이 책에는 당시의 선행 연구의 목록이 제시되어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데, 앞에서 살핀 네 개의 연구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Harlez 1884: 7-8). 내용 면에서 선행 연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그 접근 태도는 주목할 만한데, 동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주어는 인구어 및 셈계 언어와 명백히 다른 언어이며, (만주어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 문법에 사용된 용어를 사용해야 하지만, 그것이 다소 부정확한 개념을 전달하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자국어에 익숙한 용어를 사용하는 데에서 오해가 비롯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67] 이러한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책에서는 두 가지의 시상체계를 아울러 제시하는데, 하나는 프랑스어 문법의 관점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만주어 문법의 관점에 의한 것이다.

(6) Harlez (1884: 49)에 제시된 만주어의 시상 형태

a. 프랑스어 문법의 관점

Verbes ara, ÉCRIRE; bi, ÉTRE.

I. Indicatif présent, arambi, j'ecris;	bimbi, je suis.
Imparfait, arambihe, j'écrivais;	bimbihe, j'étais
Passé défini, araha, j'écrivis;	bihe, je fus.
Passé indefini, araha-bi, j'ai écrit;	bihe-bi, j'ai été
Futur, arara, j'écrirai;	bisire, je serai

.....

III. Participe absolu, arara, écrivant, devant écrire; bisire, étant, devant être.

67) "si, pour l'expliquer, on doit se servir des termes usites dans nos grammaires, il n'en est pas moins vrai qu'ils donnent une idee assez inexacte de ce qu'on veut signifier." (Harlez 1884: 44)

b. 만주어 문법의 관점

1e FORME. Assertion générale, simple; présent et futur, nécessité. Thème se, dire; sembi, je dis, je dis maintenant, je dirai, je dois dire.
2e FORME. Participe passé, actif et passif; passé actif. Forme ha (ho, he): sehe, dit, qui a dit, j'ai dit; sehebi, j'ai dit; sembihe, je disais; sehe bihe, j'avais dit.
3e FORME. Participe présent et futur, actif et passif et nom verbal. Forme ra (o, e): sere, disant, devant dire, je dirai, le dire, le parler, dit.

(6a) '프랑스어 문법의 관점'에서 바라본 만주어의 시상체계는, 위에서 살핀 Gabelentz (1832), Adam (1873), Zaxarov (1879)의 절충안으로 보인다. 우선 같은 프랑스어로 쓰인 전자의 두 문법서와는 문법 용어를 공유하며, 후자와는 직설법(=정동사), 분사, 부동사의 정연한 삼분 체계를 공유한다.[68]

이렇게 프랑스어 문법을 중심으로 만주어의 시상 형태를 설명하는 방식은, 필연적으로 하나의 형태가 두 개 이상의 항목에 중복되어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프랑스어와 달리 만주어 형태는 종결형과 비종결형의 형태적 차이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ra와 -ha는 직설법 종결형으로도 사용되어 (6a) I에도 포함되지만, 분사로서 형용사적인 쓰임도 가져서 (6a) III에서도 다루고 있다.

(6b)는 반대로, 만주어에서 구별되는 형태를 우선 제시하고, 그 형태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의미를 기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ha의 경우 과거 분사로는 능동적인 의미와 피동적인 기능을 모두 가지며, 종결형으로는 과거 시제로서 능동적인 의미만을 가짐을 하나의 항목 아래 설명하고 있다.

또한 -ha, -habi, -mbihe, -ha bihe 등의 여러 형태를 -ha 항목 아래

68) III. 'Participe absolu' -ra와 함께 'Participe passé' -ha가 기술되지 않은 것은 우연한 누락으로 보인다. 본문에서는 직설법 종결어미로서의 용법뿐 아니라 분사로서의 쓰임도 설명하고 있다.

에서 다루고 있어 이들이 -ha라는 형태를 공유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는데, 이는 앞에서 살핀 <청문조어허자>의 분류와도 유사하다.

이 책은 이전에 나온 문법서에서 다룬 만주어 시상 형태의 주요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Zaxarov (1879)에서 정립된 정동사/분사/부동사의 삼분 체계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 만주어학의 방향과도 이어진다. 또한 만주어의 관점에서 정리한 시상체계는 이 책에서 최초로 시도한 것으로, 하나의 형태가 다양한 통사적 기능을 가지는 만주어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2.6. Möllendorff (1892), *A Manchu grammar: With analysed texts*

이 책은 그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영어로 쓰인 최초의 만주어 문법서이다.[69] 52쪽 분량의 간략한 책이고, 그나마 15쪽부터는 주석을 단 만주어 텍스트이지만, 중요한 내용은 모두 포함하고 있다. 또 이 책에서 사용한 만주어의 로마자 전자 방식이 소위 '묄렌도르프식 표기'라는 이름으로 현대의 만주어학에서 통용되고 있다. 만주어 동사의 서법(mood)과 시제(tense)를 나타내는 23개의 형태를 나열하고, 그들의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이 가운데 본고에서 다루는 시상 형태만을 추려서 아래에 제시한다.

(7) Möllendorff (1892: 9)에 제시된 만주어의 시상 형태
mbi 현재 시제(present tense): ara-mbi 'I write (인칭 구별 없음)'
ha 과거(preterite): ara-ha 'I wrote'; 과거 분사(past participle): 'written, having witten'
ra 미래(future): ara-ra 'I shall write'; 분사(participle): 'writing, going to write'
(위의 형태들에 다시 접사를 붙여서 형성된 형태들)
mbihe 미완료 시제(imperfect tense): ara-mbihe 'I was writing'

69) Wylie (1855)는 〈청문계몽〉의 영문 번역이지만 Möllendorff (1892)의 서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를 만주어 문법서의 범주에 넣을 수는 없을 것이다.

habi 비한정 과거(indefinite past): ara-habi 'I have written'
habihe 대과거(pluperfect): ara-habihe 'I had written'

여기에 사용된 문법 용어와 제시된 의미는 모두 선행 연구에서 다뤄진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시 설명하지 않는다. 본문에서 -ra를 '미래 분사(future parciple)'로 명명하였는데, 비종결형에 사용되는 -ra는 현재와 미래 상황을 모두 지시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술은 정확하지 않은 것이다.

3.2.7. 박은용(1969), 〈만주어문어연구(1)〉

이 책은 따로 참고문헌 목록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본문의 인용을 통해 <淸文虛字指南>, <淸文助語虛字>, <同文類解 語錄解> 등의 기술과 Gabelntz (1832), 上原久(1960) 등의 문법서를 참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8) 박은용 (1969)에서 제시된 만주어의 시상 형태 (원문에 따라 abc 순)
a. ha: 과거 시제. [語根의 動作이 그 言語的 時制보다 지난 어떤 때에 이미 行해졌다]
a) 終結語尾의 경우
예) šan seng ni ere gisun tob seme mentuhun i gūnin de acaha '先生의 이 말이 마치 미혹혼의 싱각에 맛도다(마쳤다)'
b) 形容詞的인 경우
예) juwe ergi de sunja tanggū jangkū jafaha cooha faidafi ilihabi '두 편에 오빅 언월도 잡은 군식 버러 셧고'
c) 名詞形의 경우
예) damu nimaha butara emu niyalma umai gajiha akū bi '다만 고기 잡는 혼 사롬이오 일졀이 드려온 이 업더라'
d) 連結語尾의 경우
예) lioi bu be amargi boode dosimbuha wang yun hendume '呂布를 후당에 드리고 王允이 니로되'

b. habi: ha에 bi가 연결된 형태.

예) tere amba tasha be emu niyalma galai canggi mujasahai wahabi '그 큰 범을 한 사람이 손으로만 마구 쳐 죽였다.'

c. mbi: 시제. [話者의 意識에서 現在以後의 未來]

a) 現在的인 行動

예) dungdzo be jorime yasai muke emdubei tuhebumbi '董卓을 ᄀᆞ르치며 눈물이 니음ᄃᆞ라 ᄯᅥ러치니'

b) 確定的인 意志

예) bi suweni yehei bade hoton arafi suweni gurun be dailambi '나는 너희들의 葉赫 地에 城을 쌓고 너희들의 나라를 치련다'

c) 普遍的인 慣習

예) šun dergi ici dekdefi wargi ici tuhembi 'ᄒᆡ 東으로 도다 西로 지ᄂᆞ니'

d. ra: 미래 시제. [連結된 語幹의 動作이 發話後에 行해질 것이다]

a) 終止敍述의 例

예) unenggi sain arga bihede lu su bi uthai ejen gung be ganara '진실로 좋은 ᄭᅬ 이시면 魯肅이 내 즉시 쥬공을 ᄃᆞ려오마'

b) 形容詞的인 用法

예) sini yali be gosiholoro arga be serefi '네 술을 괴로이하는 ᄭᅬ를 알고'

c) 名詞的인 例

예) mini beye be nantuhūn arara be we gūniha '내 몸을 더러이 밍글믈 뉘 싱각홀고'

d) 連結形의 例

예) sinde jenduken werire hafirabuha ba akū oci ume neire '네게 ᄀᆞ만이 두어 급ᄒᆞᆫ 곳이 업거든 여지 말라'

-mbi, -ha, -ra를 시제 범주로 기술하고 있는데, -ha와 -habi의 차이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다. 각 형태의 이형태를 모두 제시하고, 그 출현 위치를 나누어 각각 풍부한 예문을 제시하는 등 충실히 기술하였지만, 시상 형태를 단순히 abc 순서로 제시하는 등 체계적인 관점은 결여되어 있다.

또한 이 책에서 기술한 시상 형태의 용법과 의미 가운데 잘못된 것이 제법 많은데 예를 들어, -ha나 -ra의 용법 가운데 '連結形 의 例'로 제시한 것은 사역원 청학서의 언해문에서 연결어미로 대응하는 것에 이끌린 것으로, 만주어 -ha와 -ra의 본래 용법에 연결어미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ra의 경우 미래 시제로 파악하였는데, 종결형에서는 미래의 의미를 가지나 비종결형에서는 현재와 미래의 의미를 모두 포괄한다는 점에서 정확한 기술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mbihe에 대해서는 -mbi에 -he가 붙었다는 설명만 제시하였을 뿐 그 분포나 의미에 대한 기술이 전혀 없고, -ha bihe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

3.2.8. 최학근(1980), 〈알타이어학논고〉

<만한자청문계몽>와 <청서지남> 등 청나라에서 간행한 문헌 이외에 Zaxarov (1879)[70], Harlez (1884), Möllendorff (1892) 등이 참고문헌에 실려 있다. 또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을 통해 Haenisch (1961)도 참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에서 특이한 것은, '만주어 동사활용어미'라는 제목 아래의 내용뿐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서도 -ra에 대해 온전히 할애하여 기술한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71] 각기 발표된 여러 논문을 수합한 책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백이 생기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만주어 시상체계에서 -ha와 함께 중요한 대립을 이루는 -ra의 부재는, 이 책이 만주어의 시상 형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기술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완전하지 않다는 인상을 준다.

(9) 최학근(1980)에 제시된 만주어의 시상 형태[72]

a. mbi:

1) [現在 어는[73] 行動이 進行中인 것]

---

70) 최학근(1980: 259)에는 간년이 '1856년'으로 적혀 있는데 오기로 보인다.

71) 중간중간 나타나는 부분적인 언급으로 '미래표시어미'로 파악하였음을 알 수 있다.

72) 아래의 내용 가운데 대부분은 '만주어 동사 활용어미'(최학근 1980: 260-293)아래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논문이 원래 수록된 곳이 어디인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73) '어는'은 원문 그대로 옮긴 것으로, '어느' 또는 '어떤'에 해당한다. 이하 동일하다.

예) bi gemun hecen i baru genembi '나 皇城으로 向해 가노라'

2) [未來에 어는 行動이 行해지는 것을 假定할 때] 또는 [未來의 어는 行動에 對한 自己의 意思]

예) gung bahangge be udu aha seme wesihun obumbi '有功者가 비록 奴僕일지라도 貴하게 만들 것이다'

3) [慣習的인 事實]

예) bin tiyei sele mangga gojime dubede guwaliyambi bijambi '賓鐵은 쇠가 强하다 할지라도 끝에 가서는 變한다 斷折한다.'

4) [過去에 어는 行動이 이미 行해진 것] (歷史的 現在의 境遇)

예) han hendume, sag'u ama be waliyafi, minde husūn bumbi '皇帝가 말하되, 察割은 父親을 버리고 나에게 協力했었다.'

.....(이하 중략)

b. mbihe:

1) [過去에 어느 行動이 確實히 行해진 것, 또는 完了된 것]

예) seibeni ama eme ahūn deo gemu acafi ere sy be tuwambihe '옛날 父母兄弟가 다 만나서 이 寺(절)을 보았었다.'

2) "kemuni" (恒常, 한때)와 함께 使用하여서 [習慣的인 行動]

예) bi ere niyalma be kemuni tolgimbihe '나는 이 사람을 한때 꿈에 본 일이 있었다'

3) [過去에 實行되지 못했던 어느 行動이 어떠한 條件下에서는 實行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예) taidzu sure beile nomina naikada alanarakū bihe bici nikan wailan be bahambihe '太祖는 諾密納와 鼐喀達가 告하지 않고 있었더라면 尼堪外蘭을 生擒했었을 것이다.'

..... (이하 중략)

c. ha:

1) [現在, 或은 過去에 어느 行動이 (或은 어느 事實이) 이미 完了된 것], 즉 [過去形語尾]

예) dailiyoo gurun i suduri bithe be arame šangnaha '大遼國의 史書를 作成하여 完了했다.'

2) [名詞를 修飾하는 冠形詞(形容詞)役割], 時制的으로는 亦是 [過去]

예) ere morin ere niyengniyeri ice aktalaha dahan morin '이 말은 이

봄에 새로 불친 망아지 말이다.'

3) [.....했던 것, ...한 것]을 의미해서 [動名詞]의 役割

예) aisin i cooha kaha be nakafi bederefi ing iliha '金軍은 包圍한 것을 풀고 撤收해서 陣營을 세웠다.'

예) taiboo hafan obufi, ilan yamun i weile be kadalabuha bihe '太保官에 任命하고 三 衙門의 事務를 管轄시킨 바가 있었다.'

..... (중략)

6) ㄱ) -ha와 bi의 연결관계

a. ha bi [어느 行動, 또는 事實이 現在에 이미 實行完了된 것], 즉 [現在完了]

예) li hū geli encu mujilen jafaha bi '李胡 또한 黑心을 품고 있다.'

b. habi [어느 行動, 또는 事實이 過去에 이미 實行完了된 것], 즉 [過去完了]

예) k'ei yuyan fonde taifin ohobi '開原 時節에는 太平했었다.'

ㄴ) habihe

[過去에 어느 行動, 또는 事實이 實行되고 있었다], 즉 [過去進行]

예) nenehe han kemuni yung k'ang wang u ioi be ini sirame obuha bihe '先 皇帝는 이미 永康王 兀欲을 그의 繼承者로 되게 하고 있었다.'

[過去에 어느 行動, 또는 事實이 實行된 바가 있었다], 즉 [過去에 完了된 어느 行動과 事實]

예) liyang wang seme fungnehe bihe '梁王으로 封한 바가 있었다.'

..... (이하 중략)

다소 복잡한 위의 내용을 거칠게 요약하면, 이 책은 만주어가 시제의 대립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mbi(현재/미래)와 -ha(과거)를 주된 의미로 하여 거기에 더해 다양한 의미가 있는 것을 기술하였다.

한편 -ra를 다루지 않고 있다는 체계상의 문제점 외에도, 일부 형태에 대한 기술이 본고와 차이가 있는데, -mbihe의 의미를 '과거에 어느 행동이 확실히 행해진 것, 또는 완료된 것'으로 기술한 것과, -ha bi와 -habi를 각각 '현재완료'와 '과거완료'로 구분한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3.2.9. 愛新覺羅烏拉熙春(1983), 〈滿語語法〉

어떠한 형태의 만주어 연구도 불가능했던 문화혁명 시기(1966-1976)가 지나간 후, 중국에서 가장 먼저 출판된 만주어 문법서가 이 책이다(Ning 2009: 310). 저자인 愛新覺羅烏拉熙春(Aisin Gioro Ulhicun)은 청나라 건륭제의 후손으로, 아버지인 金啓孮(Jin Qicong) 또한 유명한 여진 및 만주학자이다. 지금까지 살핀 (<청문조어허자>를 제외한) 선행 연구와는 달리 저자 자신이 만주어 화자인 이 책에서 제시한 만주어의 시상 형태는 선행 연구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10) 愛新覺羅烏拉熙春(1983: 212)에 제시된 만주어의 시상 형태
動詞時間詞綴表

	過去時	現在時	將來時
第一	ha	mbi, ra	mbi, ra
第二	mbihe, me bihe	me bi, me bimbi mahabi, me ilihabi	
第三	mbihebi	habi fi bi, hai bi	
第四	habihe	habihebi	

이 가운데 -ha와 -ra의 경우 形動詞(동사의 형태를 가지나 형용사의 기능을 함)와 動名詞(동사의 형태를 가지나 명사의 기능을 함)로도 사용됨을 기술하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第二現在時(현재 진행형)'로 기술한 -mahabi와 -me ilihabi인데, 이는 <만문노당>와 보조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형태로, 현대의 시버어에서 나타나는 형태이다(Zikmundová 2:3: 241). 이런 이유로 만주어 문어의 시상 형태를 연구할 때 이 책을 이용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기존 문법서와는 달리 -habi를 '현재시'에 포함시킨 것은 본고에서 -habi의 의미를 '현재 관련성'으로 보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ra의 종결형이 현재시를 나타낸다는 본문의 설명은 <만문노당>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용법인데, 이 책에서 제시하는 용례들이 주로 의문문과 부정문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평서문의 용법을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3.2.10. 季永海·劉景憲·屈六生(1986), 〈滿語語法〉

위에서 살핀 愛新覺羅烏拉熙春(1983)이 만주어를 직접 사용하는 화자에 의해 편찬된 반면, 이 책은 북경의 中央民族學院(지금의 中央民族大學)에서 정책적으로 육성된 중국의 1세대 만주어 학자들에 의해 편찬되었다는 차이가 있다(Ning 2009: 313). 이 책에서 자료로 삼고 있는 것은 대부분 청나라 시기의 문헌 및 당안 자료에서 가져온 것인데, 출처를 밝히지 않은 예문도 있다.

(11) 季永海・劉景憲・屈六生(1986)에 제시된 만주어의 시상 형태
動詞的時
現在時
(1) me ilihabi
(2) mahabi
(3) me bi
(4) ha bi 또는 fi bi
(5) hai bi
過去時
(1) 一般過去時 ha
(2) 肯定過去時 habi
(3) 曾經過去時 ha bihe
(4) 過去進行時 mbihe ~ mbihebi / me bihe ~ me bihebi
將來時: mbi
現在-將來時: ra

愛新覺羅烏拉熙春(1983)와 동일하게 -me ilihabi와 -mahabi를 현재 시제(진행시)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나머지 형태들에 대해서는 모두 출전을 밝히고 있는데 반해 -me ilihabi, -mahabi, -me bi에 대해서는 출전을 밝히고 있지 않고 있어서 저자들이 만든 예문으로 보인다. 본고에서 자료로 삼는 <만문노당> 및 보조 자료에서는 -mahabi 형태가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진행시'로 사용된 -me ilihabi도 나타나지 않는다.

종결형 -me bi가 보조 자료에 나타나지만 '진행시'로 문법화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한편 -mbi는 '將來時'로 기술하였는데, <만문노당>의 -mbi는 전형적인 현재 시제로 나타난다. 추측컨대 -me ilihabi, -mahabi 등이 후대에 발달하면서 -mbi의 의미 영역을 분담한 것으로 보인다.

3.2.11. 津曲敏郎(2002), 〈滿洲語入門20講〉

이 책은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만주어 초학자가 독학으로 만주어를 독해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쓰인 교재이지만, 일본은 물론이고 서양, 중국, 한국의 주요 연구를 두루 참고하였고,[74] 3.3에서 살필 河內良弘·淸瀨義三郎則府(2002)와 마찬가지로 일관된 성격의 만주어 문어 자료를 대상으로 하며 그 기술이 상세하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시상 형태에 대한 기술은 河內良弘·淸瀨義三郎則府(2002)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용어의 선택에서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앞의 책이 만주어의 시상체계를 양상 대립 중심으로 보았다면, 이 책은 시제 대립 중심으로 보고 있다.

(12) 津曲敏郎(2002: 64)에 제시된 만주어의 시상 형태

動詞活用形一覽

(希求法 생략)

終止法	現在形	-mbi
	完了形	-hAbi
連体法	未來形	-rA
	過去形	-hA
	回想形	-mbihe
連用法	不定形	-me
	先行形	-fi

74) 부록인 '주요참고문헌'에는 본고에서 다룬 대부분의 선행 연구 이외에도, 방대한 양의 일본의 만주어 연구 저작, 중국의 주요 저작, 한국어로 적힌 이기문(1958), 성백인(1970), 박은용(1973), 김주원(1988) 등이 망라되어 있다.

(이하 기타 연용법 생략)

河内良弘·清瀬義三郎則府(2002)에서 각각 '非完了アスペクト, 完了アスペクト, 前望了アスペクト'로 본 -mbi, -ha, -ra에 대하여 이 책에서는 '現在, 過去, 未來'라는 시제적인 용어를 대응시키고 있다.

한편 '回想形'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mbihe에 대해서는 '과거의 습관, 과거의 동작의 진행, 또는 의욕, 현실과 반하는 가정' 등의 의미를 표시한다고 하여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회상'이라는 용어가 이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2.12. 愛新覺羅瀛生(2004), 〈滿語雜識〉

愛新覺羅烏拉熙春 선생과 마찬가지로 청나라 황실의 후손인 저자에 대해서 Ning (2009: 311)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이 책에 반영된 만주어의 시상체계는 앞에서 다룬 Möllendorff (1892)의 그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본문 외에도, 이 책의 137-164쪽에 Möllendorff (1892)의 문법 부분의 전문을 한어로 번역한 것을 부록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여기서는 자세히 소개하지 않는다.

3.3. 양상 대립 중심의 연구

3.3.1. Avrorin (1949), "O kategorijax vremeni i vida v man′chzhurskom jazyke" [On the categories of tense and aspect in the Manchu language.]

3.2에서 살핀 문법서들은 만주어에서 시제와 양상 범주를 달리 구분하지 않았다. Verbiest (1696)에서 -ha를 '과거 완료(Præteritum perfectum)', -mbihe를 '과거 미완료(Præteritum imperfectum)'로 분류한

것이나, Zaxarov (1879)에서 -ha를 '과거 완료(прошедшее совершенное)' -mbihe를 '과거 비한정(прошедшее неопредленное)'으로 분류한 것 등을 통해 이들이 시제와는 별도로 양상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지만 여전히 이들은 전통적인 시제 대립 중심의 체계 내에서 다루어져 왔다. 그런데 Avrorin (1949)에서는 시제(времен)와 양상(вид) 범주를 구별하고[75] 이전의 문법서에서 주로 시제 범주로 기술한 -ha와 -ra를 각각 '완결된 양상(окончательный вид)'과 '완결되지 않은 양상(неокончательный вид)'의 대립으로 파악하였다.[76] 다음은 이 책에서 제시한 만주어의 시상체계이다.

(13) Avrorin (1949)에 제시된 만주어 시상체계

a. 분사(имена действия = 행위 명사) 범주는 시제를 가지지 않고 두 개의 주요 양상(основных вид)을 가진다: ha (окончательный '완결된') / ra (неокончательный '완결되지 않은')

b. 서술어로 사용될 경우 각각 과거와 현재-미래 시제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

c. 직설법(исиавительное)의 경우 시제 범주를 가진다: 과거 (habi와

---

75) 시제의 정의는 '발화시에 관련하여 사건시를 표현하는 것'이며 양상의 정의는 '사건의 국면의 특성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구별하고 있다. 한편 Zaxarov (1879)에서도 'вид'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그것이 가리키는 개념은 이 논문의 개념과 사뭇 다르다. Zaxarov (1879)는 -nggi-, -na-, -nji-, -ša-, -ra-, -la-, -ca-, -ta-, -ja-, -nu-, -ndu-와 같이 동사 어근 뒤에 붙어서 '사역, 이동, 지속, 상호' 등의 의미를 더해주는 것을 'вид'라고 지칭하고 있으며, 분사 어미 -ha와 -ra는 시제(времен)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76) "неокончательного, обозначающего действие-состояние, мыслимое как не имеющее конца, и окончательного, обозначающего действие-состояние, мыслимое как имеющее конец. ('완결되지 않은' 양상은 행위-상태가 끝점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완결된' 양상은 행위-상태가 끝점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된다.)" (Avrorin 1949: 63). 본고에서는 Avrorin (1949) 이후 만주어 -ha와 -ra의 양상 대립을 가리키는 용어로 '완결된' / '완결되지 않은'을 사용하는데, 이는 Comrie (1976)의 '완망상/비완망상' 등 범언어적으로 통용되는 양상 범주와 구별하기 위함이다. '완결된' / '완결되지 않은' 양상의 대립은 Comrie (1976) 이후 정립된 완망상(perfective)/비완망상(imperfective) 대립과 일치하지는 않는데, 전자는 상황이 완결되었는지 또는 완결되지 않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 상황도 '완결되지 않은' 양상에 포함되는 반면, 비완망상은 미래라는 시간 영역을 내재적 의미로 포함하지 않는다. Avrorin (1949: 63)에서 만주어의 양상 대립이 러시아어의 양상 대립과 일치하지 않음을 언급한 것도 이들이 완망상/비완망상의 대립이 아니라는 방증이다.

mbihe), 현재-미래 (mbi). 그런데 이들도 두 개의 주요 양상에서 발전한 것이다.

d. 원망법(желательного наклонения) ki가 미래 시제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또한 순수한 시제 범주로 재분석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완결된' 양상 의미를 가지는 -ha의 경우 종결형에서 과거 시제로, '완결되지 않은' 양상 의미를 가지는 -ra의 경우 종결형에서 현재-미래 시제로 해석된다고 볼 수 있다. 직설법 어미도 원래는 양상 의미를 가지던 것이 시제 의미로 발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논문은 시제와 양상의 구별을 만주어 시상체계에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며 이 논문 이후로 만주어를 양상 대립 중심의 언어로 기술하는 연구의 경향이 생겼다.

3.3.2. Haenisch (1961), *Mandschu-Grammatik: mit Lesestücken und 23 Texttafeln*

독일어로 쓰인 이 책이 앞서 살핀 Avrorin (1949)를 참고하였는지는 참고문헌에서 밝히고 있지 않아서 확인할 수 없지만, 이 책에서도 만주어의 동사 활용형이 시제보다는 양상 대립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다.

(14) Haenisch (1961)에 제시된 만주어 시상 형태

동사형태(Verbalformen)

a. 형용사형(Adnominale Formen)

Participium Imperfecti: -ra, -re, -ro

Participium relativum: ele

Participium Perfecti: -ha, -he, -ho (-ka, -ke, -ko)

Participium durativum: -mbihe: 과거의 지속되는 행위

b. 서술어, 종결형(Prädikative, finite Formen)

1. Indikativ

a) Aorist: -mbi (-me + bi)

b) Perfekt: -habi, -hebi, -hobi (-ha + bi, -he + bi, -ho + bi)

형용사형 -ra와 -ha에 대해서 각각 '과거, 현재, 미래의 완료되지 않은 행위', '완료된 행위'라고 기술한 것이나, 직설법의 -mbi와 -habi가 '인칭과 시제(Tempus)의 구별이 없다'라는 기술을 통해 이 책의 저자가 만주어를 시제 중심 언어라기보다는 양상 중심 언어로 파악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mbi에 대해서 이 책은 'Aorist'로 명명하였는데, 이는 완망상 과거(past perfective)를 가리키는 고대 그리스어의 aorist가 아니라 흔히 무시제(timeless tense)로 불리는 터키어의 aorist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77]

3.3.3. Sinor (1968), "La langue mandjoue"

역시 만주어가 양상 대립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는 'aspect neutre / aspect accompli / aspect inaccompli' 등의 용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5) Sinor (1968)에 제시된 만주어 시상 형태
주절의 서술어(le prédicat d'une proposition principale)
mbi: aspect neutre
예) ambasa saisa gisun de elhe, yabun de dacun buyembi 'Les sages désirent la paix dans la parole et la vigueur dans l'action.'
ha: aspect accompli
예) lazang ni sargan, jui surza, duleke aniya, ninggun biyade, meni ili de isinjiha 'L'année dernière, au sixième mois, la femme de Lazang et l'enfant Surza sont arrivés chez nous à l'Ili.'

77) 그런데 터키어의 aorist -er은 과거 시제인 그리스어의 aorist와는 달리 현재 시제를 가리키며, 영형태의 현재 시제를 포함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Jendraschek 2011). 즉 아래의 (a)에서 aorist -er로 분석한 것은 실제로는 (b)와 같이 -er+Ø로 분석되어야 한다(DISP는 dispositive aspect를 나타냄).
(a) gid-er-sin -> (b) gid-er-Ø-sin
go-AORIST-2SG -> go-DISP-PRS-2SG
'you are going; you go' (Jendraschek 2011:253)

habi: présent du perfectum
예) meni taiji ne kemuni ili de tehebi ‘Notre prince a séjourné (et séjourne toujours) dans la région de l'Ili.’
mbihe: (과거에) 지속적, 습관적, 반복적으로 행해진 행위
예) amba ajige uhei sinde coohalaki dailaki sembihe ‘Les grands et les petits, en accord, disaient (mais depuis ont cessé de la dire): nous voulons entrer en campagne contre toi et t'attaquer.’
ra: aspect inaccompli
예) bi sinde tacibure ‘Je t'apprendrai.’

특히 -mbi 형태에 대해서는, ‘행위를 시간 축에 놓지 않으며(ne situe pas dans le temps le procès), 보편적인 확언(assertion générale)를 나타낸다’고 보고 있다. 한편, ‘적극적으로 완료(accompli)를 표현하지 않는 것은 곧 미완료(inaccompli)를 함의하며, 이러한 미완료는 곧 현재(présent)와 적어도 일부분(moins partiellement) 겹쳐지기 때문에, -mbi는 다른 언어에서 현재로 표시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즉, 현재 시제라는 의미는 ‘완료’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데에서 오는 이차적인 의미라는 것이다.

3.3.4. Roth Li (2000), *Manchu: A textbook for reading documents*

Rudolph & Walravens (2009: 333)에서 “the first real textbook”으로 소개하였듯이, 초심자가 혼자 공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텍스트와 함께 상세한 주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아래에 제시된 만주어의 시상 형태는 그 체계나 내용이 위에서 살핀 愛新覺羅烏拉熙春(1983: 212)의 그것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Gabelentz (1832), Zaxarov (1879), Möllendorff (1892), Haenisch (1961), Sinor (1968), 季永海・劉景憲・屈六生 (1986), 河内良弘(1996) 등 주요 저작이 참고문헌에 제시되어 있다.

(16) Roth Li (2000: 358-363)에 제시된 만주어의 시상 형태
Tentative overview of finite verb forms

		Perfective (Past)	Imperfective (Non-perfective)
I	1	-ha, -he, -ho	-mbi
	2		-ra,-ro,-ro
II	1	-mbihe, -me bihe	-me bi
	2		-me bimbi
	3		-mahabi, -me ilihabi
III	1	-mbihe bi	-habi, -hebi, -hobi
	2	-fi bihe	-fi bi
	3	-hai bihe, -hei bihe, -hoi bihe	-hai bi, -hei bi, -hoi bi
IV	1	-ha bihe, -he bihe, -ho bihe	-ha bihe bi, -he bihe bi, -ho bihe bi

3.2.9에서 살핀 愛新覺羅烏拉熙春(1983)의 표와 이 책에서 제시한 표의 차이는 전자에서 과거/현재/미래 시제의 대립으로 구분한 것을 후자에서는 'Perfective'와 'Imperfective(Non-perfective)'의 대립으로 바꾼 것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愛新覺羅烏拉熙春(1983)에서 현재 시제(現在時)와 미래 시제(將來時)로 구분한 -mbi와 -ra가 'Imperfective(Non-perfective)'로 통합되었다.

3.3.5. Gorelova (2002), *Manchu Grammar*

Rudolph & Walravens (2009: 280)에서 "the latest and most comprehensive Manchu grammar"라고 언급하였지만, 저자가 익숙한 러시아어나 서양 언어로 쓰인 저작들만을 주로 참고하였으며 일본이나 중국의 주요 문법서들, 예를 들어 季永海・劉景憲・屈六生(1986)이나 河內良弘(1996) 등에 대해서는 참고문헌에조차 실려 있지 않다.[78] 이러한 점에서 '가장 종합적인'이라는 수식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78) 중국어로 쓰인 만주어 연구서로 앞에서 살핀 愛新覺羅烏拉熙春(1983)이 참고문헌 목록에 실려 있는데, 이마저도 저자의 이름을 "Aixin Jueluo & Wula Xichun"으로 두 사람의 공저인 것처럼 표기한 것으로 미루어 저자가 중국의 만주어학에 대해서 밝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어와 한국어로 쓰인 만주어 연구 저작은 전혀 실려 있지 않다.

(17) Gorelova (2002)에 제시된 만주어의 시상 형태
Verbal parts of speech
a. Participles
imperfect participle -ra
perfect participle -ha
b. Finite verbal forms
indicative
imperfect finite form -mbi = -me bi
perfect participle -ha
past indefinite -habi
past perfect -ha bihe
past indefinite / past continuous -mbihe = -me bihe
future -ra

-ra/-ha의 대립을 'imperfect/perfect'의 대립으로 보았는데, 이는 Avrorin (1949)에서 제시한 두 개의 주요 양상(основных вид)에 의한 대립, 즉 -ha (окончательный '완결된') / -ra (неокончательный '완결되지 않은')의 대립을 계승한 것으로, 저자는 Avrorin (1949)을 인용하며, '이들 두 형태가 고전 만주어에서 고착될 때, 이들의 양상 의미가 시제 의미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Gorelova: 241).

한편 이 책은 다양한 자료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서를 종합하면서 자료의 일관성에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의 목록은, 18세기 초의 만주어 문어 자료부터 현대의 시버어 구어 자료까지 시공간적으로 넓은 범위를 아우르고 있으며, 여러 연구서로부터 출전을 밝히지 않은 자료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과연 하나의 '만주어 문법' 아래에서 다루어도 될지가 의문스럽다. 일례로, 미래 시제를 가지는 -ra의 예로 제시된, 출전을 밝히지 않은 다음의 문장은 1인칭 주어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문노당>에는 이러한 -ra의 용법이 나타나지 않는다. gebu algin duin dere de hafunara 'Fame will be spread in four directions (the four cardinal points)' (Gorelova 2002:

293).

3.3.6. 河內良弘·清瀨義三郎則府(2002), 〈滿洲語文語入門〉

이 책은 河內良弘(1996)과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는데, 다만 文法篇에서 일부 문법 용어의 변개가 있고 文字·發音篇, 讀本篇, 語彙篇 등의 분량이 전편에 비하여 다소 줄었다.

역사학자인 河內良弘 선생이 언어학자인 淸瀨義三郎則府 선생과 만주족 학자인 愛新覺羅烏拉熙春 선생의 자문을 얻어 완성한 이 책은,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만주어 초학자를 위한 교과서의 성격을 가지지만, 그 기술적인 면에서 흠잡을 곳이 거의 없는 훌륭한 만주어 문법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본고에서 주 자료로 삼는 <만문노당>을 이미 1950-60년대에 일본어로 완역한 일본 만주학계의 전통을 생각하면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니다.

또한 이 책은 <만문노당>을 비롯하여 청태조부터 건륭제에 이르는 기간의 비교적 일관된 언어사실을 반영하는 만주어 문어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본고와 자료 면에서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18) 河內良弘·淸瀨義三郎則府 (2002)에 제시된 만주어의 시상 형태
動詞
非完了終止形 (non-perfective form) -mbi
完了終止形 (perfective finite form) -habi
完了連体形 (perfective participle) -ha
前望終止形 (prospective finite) -ra
完了進行 (perfective processive) -mbihe = -me bihe

이 책은 -mbi에 대해 기술하면서 "만주어의 동사에는 時制(tense)를 나타내는 표지가 없으며, 이 접미사는 동작·작용이 「完了가 아니다」라는 aspect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저자가 만주어를 시제 중심 언어가 아닌 양상 중심 언어로 인식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과거', '현재' 등 시제와 관련된 용어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완료', '비완료' 등의 양상 대립을 나타내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사용하는 'アスペクト(aspect)'라는 용어는 Comrie (1976)에서 말하는 그것과는 다르게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 이 책이 'アスペクト(aspect)'와 '相(phase)'을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9) 河内良弘·清瀬義三郎則府(2002: 98)에 제시된 'アスペクト(aspect)'와 '相(phase)'

a. 動詞のアスペクト(aspect)[79]
   完了アスペクト活用語尾: -ha etc. -ka etc.
   非完了アスペクト活用語尾: mbi
   前望アスペクト活用語尾: ra etc
b. 動詞の相(phase)
   完了完城相: -ha etc. + bihe
   完了斷定相: -ha etc. + bi
   完了進行相: -me + bihe, あるいは -mbihe
   非完了進行相: -me + bi, あるいは -me + bi-
   非完了繼續相: -hai etc. + bi
   完了繼續相: -hai etc. + bihe
   非完了狀態相: -fi + bi, あるいは -fi + bi-
   完了狀態相: -fi + bihe
   否定狀態相; -rakū + bi, および -hakū etc. + bi

이에 따르면 '완료(perfective)'와 '비완료(non-perfective)' 등은 'アスペクト(aspect)'에 속하고, '완성', '진행', '계속' 등은 '相(phase)'에 속하므로 그 범주를 달리하며, 이들은 '完了進行相 -me bihe(~ -mbihe)'와 같이 결합해서 나타나기도 한다.[80]

79) 河內良弘(1996)에는 'アスペクト(aspect)'가 '態(aspect)'로 적혀 있다. 의미면에서도 態보다는 アスペクト(aspect)가 적합한 용어로 생각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aspect에 대한 번역으로 사용하는 상(相)은 아래에서 phase라는 용어로 번역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한편 '前望アスペクト'로 설명하고 있는 -ra는 종결어미로 사용될 때 1인칭 주어와만 결합하여 화자의 약속을 나타내는데, 이는 'アスペクト(aspect)'보다는 양태 의미와 가까운 것이다. 또 '完了斷定相 -ha etc. + bi'는 "과거에 어떤 행동이나 동작이 행해졌다는 것을 강조하며 서술하는" 용법을 가지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의 '단정'은 역시 'アスペクト(aspect)'보다는 양태 의미에 가까운 것이다.

이 책은 일관성 있는 만주어 문어 자료를 대상으로, 그 언어적 사실을 충실히 기술하였다는 점에서 큰 가치가 있다. 그러나 'アスペクト(aspect)'와 '相(phase)'의 구별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3.3.7. Baek (2011), *A Colloquial Manchu Grammar*

이 책은 제목처럼 구어 만주어를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청어노걸대>(1765)를 자료로 분석한 문법서이지만 이 문헌에 반영된 만주어가 <만문노당> 등의 문어 자료와 문법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81]

이 책은 Comrie (1976, 1985), Palmer (1986) 등에서 잘 정립된 양상(aspect), 시제(tense), 양태(modality)의 정의를 적극적으로 인용하여 만주어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만주어 문법서와 차이가 있으며, 본고의 접근 방식과도 큰 방향이 같다.

(20) Baek (2011)에 제시된 만주어의 시상 형태

a. Finite Verbs

1) Imperfect[82] Present: mbi

---

80) 그런데 Comrie (1976)의 비완망상(imperfective)은 하위 범주로 진행상(progressive)과 습관상(habitual)을 포함하며, 이들은 모두 양상(aspect) 범주에 속한다는 점에서 河內良弘·清瀨義三郎則府(2002)의 'アスペクト(aspect)'와 '相(phase)'의 관계와 같지 않다.

81) 그런데 〈청어노걸대〉의 편찬 주체가 만주인이 아니라 조선인이라는 점에서 그 언어 직관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82) (20a)에서 사용하는 imperfect라는 용어는 imperfective를 잘못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355쪽에서 imperfective 아래 present habitual과 past habitual을 설명하면서 각각

2) Imperfect Past: mbihe
3) Present Perfect: habi
4) Past Perfect: ha bihe

b. Verbal Nouns
1) Perfective: ha
2) Imperfective: ra

종결형에서는 현재와 과거라는 용어를 사용한 반면 'Verbal Nouns(동명사형)'에 대해서는 'perfective'와 'imperfective'라는 양상 대립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 책에서 파악한 'imperfective'는 Comrie (1976)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1) Baek (2013: 189)
"Imperfective verbal nouns '-ra/-re/-ro' indicate a situation which is not completed at the time of speaking. From this inherent meaning of imperfective aspect, the meanings of present tense and future tense are derived. ('imperfective' 동명사 '-ra/-re/-ro'는 발화시에 완결되지 않은 상황을 지시한다. 'imperfective'의 이런 내재적 의미로부터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의 의미가 도출된다.)"[83]

본고의 2.3에서 언급했듯이, Comrie (1976)의 완망상은 상황을 전체로서 조망하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해석되기 쉽고, 비완망상은 상황을 내부에서 조망하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해석되기 쉽다. 그런데 (21)에서는 상황의 완결 여부에만 초점을 두어서 'imperfective'를 '완결되지 않은 상황'을 지시하는 것으로 기술하기 때문에 현재뿐 아니라 미래 상황도 가리킬 수 있다고 보았다.[84] 이러한 소위 '완결된' 양상과 '완결되지 않은'

-mbi와 -mbihe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가능성은 -habi와 -ha bihe 형태를 지칭하는 'perfect'라는 용어에 대립하는 'imperfect'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수 있다.

83) '발화시에 완결되지 않은 상황'이란 기술은 -ra의 상대 시제적 성격을 생각하면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에 완결되지 않은 상황을 이야기할 때 -ra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는 발화시점에서는 완결된 상황일 수 있기 때문이다.

84) Comrie (1976)에서 정의한 비완망상(imperfective)도 물론 미래 상황을 지시할 때

양상의 대립은,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Avrorin (1949) 이후 만주어를 양상 대립 중심으로 기술한 연구에서 줄곧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3.3.8. 오민석(2013), "18세기 국어의 시제체계에 관한 쟁점 연구"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18세기 한국어의 시제체계에 대한 연구이며, 이를 위해 <청어노걸대>의 만주문과 그 언해문을 자료로 이용하고 있다. 만주어의 시상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은 아니지만, 기존의 논의를 종합한 시상체계를 제시하고 있다.[85]

(22) 오민석(2013)에 제시된 만주어의 시상체계

<table>
<tr><td colspan="2">시상범주
통사적 기능</td><td colspan="2">완망상적 과거시제
(perfective past)</td><td colspan="2">비완망상적 비과거시제
(imperfective non-past)</td></tr>
<tr><td rowspan="2">비정동사형
(non-finite form)</td><td>부동사형
(converb)</td><td colspan="2">fi</td><td colspan="2">me</td></tr>
<tr><td>동명사형
(verbal noun)</td><td colspan="2">ha</td><td colspan="2">ra</td></tr>
<tr><td colspan="2" rowspan="2">시상범주
통사적 기능</td><td>완료적
(perfect)</td><td>완망상적
(perfective)</td><td colspan="2">비완망상적
(imperfective)</td></tr>
<tr><td>과거시제
(past)</td><td>과거시제
(past)</td><td>과거시제
(past)</td><td>비과거시제
(non-past)</td></tr>
<tr><td colspan="2">정동사형 (finite form)</td><td>ha bihe</td><td>habi</td><td>mbihe</td><td>mbi</td></tr>
</table>

이 논문에서는 만주어에 나타나는 시제가 양상(aspect)에 대한 부차적

사용될 수 있지만, 미래 시제나 미래임을 나타내는 시간 표현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 미래의 비완망상적인 상황을 가리킬 수 있다. 반대로 과거 시제나 과거 시간 표현과 함께 사용되면 과거의 비완망적인 상황을 가리킬 수 있다. 그 밖에는 기본적으로 현재 상황(진행 또는 습관 등)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완망상도 미래 시제나 미래 시간 표현과 함께 사용되어 미래의 완망상적인 상황을 나타낼 수 있다. 즉, 비완망상 의미 자체가 미래 시제를 함의하는 것은 아니다.

85) 이 논문의 13쪽에서 만주어의 시상 형태에 대한 선행 연구의 분석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Möllendorff (1892), 박은용(1969, 1973), 최학근(1975, 1977), 池上二良(1999), Gorelova (2002), 津曲敏郎(2002), 河內良弘·淸瀨義三郎則府(2002), 최동권(2008), Baek (2012)가 포함된다.

인 문법 범주로 설정 가능하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상체계의 설정은 실제 언어자료의 분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부 선행 연구의 분석을 종합한 것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다. 즉 앞서 살핀 선행 연구에서, Avrorin (1949) 이후 다수의 연구가 만주어를 양상 대립 중심으로 기술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津曲敏郎(2002)와 같이 시제 대립으로 파악한 연구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검증 과정 없이 전자를 수용하여 만주어의 시제를 '양상을 중심으로 한 부차적인 문법범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ra에 대하여 '비완망상적 비과거시제(imperfective non-pas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역시 Comrie (1976)의 비완망상(imperfective)의 정의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4. 요약 및 문제점

본고의 대상이 되는 여섯 개의 시상 형태에 대한 선행 연구의 용어 또는 기술을 요약하여 제시한다.[86] <청문조어허자> 이후는 간행년도의 순서를 따른다.

<표 3> 만주어 시상 형태에 대한 선행 연구의 용어 정리

번호		-ra	-ha	-mbi	-habi	-mbihe	-ha bihe
1	<청문조어허자> (1730)	未然	了字 / 已然	將然未然	已了字 / 已然	sembihe 說來着。曾說。	sehe bihe 曾經說來。說了來着。
2	Verbiest (1696)	Futurum / Gerundium	Præteritum perfectum	Præsens	(ha bi로 파악) complementm actionnis	Præteritum imperfectum	Plusquam -perfectum
3	Gabelentz (1832)	Futur	Prétérit indéfini	présent	Prétérit défini	Imparfait	-
4	Adam	Participe	Participe	Présent	Parfait	imparfait	plus-que

86) 가능한 원문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직설법(indicative)이나 분사(participle) 등 통사적 위치와 관련한 용어는 원문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굳이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는 본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1873)	imparfait / Gérondif	parfait / Gérondif				-parfait
5	Zaxarov (1879)	будущее опредленное	прошедшее совершенное	настоящее	прошедшее совершенное	прошедшее неопредленное	давнопрошедшее
6	Harlez (1884)[87]	Participe absolu	Passé défini	présent	Passé indefini	Imparfait	-
7	Möllendorff (1892)	future	preterite	present tense	indefinite past	imperfect tense	pluperfect
8	Avrorin (1949)	неокончательный	окончательный	(원래는 неокончательный 에서 기원함) настоящее -будущее	(원래는 окончательный 에서 기원함) прошедшее	-	-
9	Haenisch (1961)	Participium Imperfecti	Participium Perfecti	Aorist	Perfekt	Participium durativum	-
10	Sinor (1968)	aspect inaccompli	aspect accompli	aspect neutre	présent du perfectum	(과거에) 지속적, 습관적, 반복적으로 행해진 행위	-
11	박은용 (1969)	連結된 語幹의 動作이 發話後에 行해질 것이다	語根의 動作이 그 言語的 時制보다 지난 어떤 때에 이미 行해졌다	話者의 意識에서 現在以後의 未來	ha+bi	mbi+he	-
12	최학근(1980)	-	過去形語尾	進行 / 未來 / 慣習 / 歷史的 現在	ha bi 現在完了 / habi 過去完了	過去에 어느 動作이 確實히 行해진 것, 또는 完了된 것 / 慣習的인 行動 / 過去에 實行되지 못했던 어느 行動이 어떠한 條件下에서는 實行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過去進行 / 過去에 完了된 어느 行動과 事實
13	愛新覺羅烏拉熙春(1983)	第一 現在時 第一 將來時	第一 過去時	第一 現在時 第一 將來時	第三 現在時	第二 過去時	第四 過去時

14	季永海·劉景憲·屈六生 (1986)	現在-將來時	一般過去時	將來時	肯定過去時	過去進行時	曾經過去時
15	Roth Li (2000)	Imperfective I	Perfective I	Imperfective I	Imperfective III	Perfective II	Perfective IV
16	Gorelova (2002)	imperfect participle	perfect participle	imperfect finite form	past indefinite	past indefinite / past continuous	past perfect
17	河內良弘·清瀨義三郎則府 (2002)	前望終止形	完了連体形	非完了終止形	完了終止形	完了進行	完了完城相
18	津曲敏郎 (2002)	未來形	過去形	現在形	完了形	回想形	-
19	Baek (2011)	Imperfective	Perfective	Imperfect Present	Present Perfect	Imperfect Past	Past Perfect
20	오민석(2013)	비완망상적 비과거시제 (imperfective non-past)	완망상적 과거시제 (perfective past)	비완망상적 비과거시제 (imperfective non-past)	완망상적 과거시제 (perfective past)	비완망상적 과거시제 (imperfective past)	완료적 과거시제 (perfect past)

본고의 연구 대상인 여섯 개의 시상 형태가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도 주요한 시상 형태로 다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88] 선행 연구에서 이들의 의미 대부분이 충실히 기술되었지만, 일부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한 기술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만주어 문어에는 분사 어미 -ra가 평서문 종결어미로 사용되는 경우 1인칭 주어만을 가지는 제약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기술한 연구가 없다.[89] 이 경우 -ra는 '약속'의 양태 의미를 가지므로 다른 형태와 시제나 양상 대립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일부 선행 연구에서 종결형에 사용된 -ra를 미래 시제로 기술하였지만 본고에서는 이를 시제나 양상 대립에 포함시키지 않는 입장을 취한다.

87) 프랑스어 문법의 관점에서 제시한 용어를 기입하였다. 만주어 문법 관점의 용어에 대해서는 본문을 참조할 것.

88) 다만 -ha bihe의 경우 따로 기술하지 않은 연구가 제법 있는데, 이들을 통사적 구성으로 보아 하나의 문법 형태로 취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89) 河內良弘·清瀨義三郎則府(2002)에서 -ra가 '1인칭 화자의 의지(volitive)'를 나타낸다고 기술하였지만 2·3인칭 주어와도 결합할 수 있는 것처럼 기술하였다는 점에서 충분하지 않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habi와 -ha가 종결형으로 사용될 때 두 형태는 모두 과거의 상황을 가리키지만, -habi는 '현재 관련성'을 함의한다는 차이가 있다. 오민석(2013)에서는 두 형태를 모두 '완망상적 과거시제(perfective past)'로 명명하였는데, 이는 <청어노걸대>에서 -habi의 대역이 현재 시제로도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한편 초기의 선행 연구는 만주어를 시제 대립 중심으로 기술하였는데, Avrorin (1949) 이후 양상 대립 중심으로 기술하는 경향이 생겼음을 확인하였다. 본고에서는 Comrie (1976) 등의 연구에서 정립된 시제와 양상의 개념을 이용하여 만주어 문어의 각 시상 형태가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를 정확히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만주어 문어가 시제 대립을 중심으로 하는지 양상 대립을 중심으로 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6장). 이를 위해 4장과 5장에서 각각 분사 어미와 정동사 어미의 분포와 의미를 자세히 기술한다.

4. 분사 어미의 분포와 의미

만주어의 시상 형태 가운데 분사 어미 -ra와 -ha는 우선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다. 우선 그 형태면에서 정동사 어미 -mbi, -mbihe, -habi, -ha bihe가 공시적으로 또는 통시적으로 분석 가능한 형태인 데 비해,[90] -ra와 -ha는 분석이 불가능한 단일한 형태이다. 또한 기능면에서 정동사 어미들이 대체로 종결의 기능만 가지는 데 비해,[91] 분사 어미 -ra와 -ha는 종결의 기능, 관형의 기능, 명사의 기능을 모두 가지며, 특히 관형의 기능과 명사의 기능에서는 -ra와 -ha 두 형태만으로 이루어진 정연한 대립을 보인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4.1. 분사 어미 -ra

3장에서 살핀 선행 연구에서는 대체로 -ra를 '미래 시제' 또는 '현재-미래(비과거) 시제' 또는 '완결되지 않은 양상'[92]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하 <만문노당>을 주 자료로 하여 살핀 -ra의 분포와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는데, '종결의 기능', '관형의 기능', '명사의 기능'으로 나누어 살핀다.

---

90) 6장에서 살피겠듯이, -mbi와 -mbihe는 각각 -me bi와 -me bihe에서 비롯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적어도 기원적인 형태가 아님은 확실하다. -habi는 -ha와 bi의 결합임이 확실하고, -ha bihe의 경우 표기상으로도 통사적 구성임이 드러난다.

91) 시간부사절을 이루는 -mbihede가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정동사 어미는 종결의 기능만을 가진다.

92) Comrie (1976)에서 정립된 비완망상(imperfective)과 구별하여 '완결되지 않은 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4.1.1. 종결의 기능

4.1.1.1. '약속'의 양태 의미

분사 어미 -ra는 관형의 기능(관형형)과 명사의 기능(명사형)에 비해 종결의 기능(종결형)에서 제한된 분포와 의미를 가진다. -ra는 종결의 기능에서 평서법 긍정문과 부정문, 의문문, 금지문에 사용될 수 있는데,[93] 이 가운데 평서법 긍정문은 항상 1인칭 주어를 가지는 제약이 있다.

(1) 평서법 긍정문에 사용된 -ra 종결형

a. mini yehe de bisire jui be baha manggi, sini jui be gaifi, sini ici ojoro (1:16:6) 'Yehe에 있는 내 아이를 얻은 후에, 네 아이를 취하고서, 네 편이 되겠다.'

b. bi gaifi alin i dele genefi fusihūn gidara (8:38:6) '내가 이끌고 산 위에 가서 아래로 공격하겠습니다.'

c. cimari bi geren cooha be gaifi dahara (8:50:1) '내일 내가 여러 병사를 인솔하고 항복하겠다.'

d. bi gamafi han de acabure, (12:22:7) '내가 모시고 가서 Han을 알현시키겠습니다.'

e. mende ambula bume, suwende komso buci, be gaijarakū ojoro, (13:19:1) 우리에게 많이 주고 당신들에게 적게 주면 우리는 받지 않을 것입니다.

본고의 주 자료인 <만문노당> 태조조에서 평서법 긍정문에 사용된 -ra는 하나의 예외 없이 모두 1인칭 단수 또는 복수 주어를 가진다. 이러한 주어 제약은 보조 자료인 <삼역총해>와 <청어노걸대>를 전수 조사한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93) 평서문 부정문은 -akū, 의문문은 의문사나 의문 첨사 -o, 금지문은 ume 등 다른 형태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온전히 동사 어간에 -ra가 붙은 형태만으로 표현되는 문장 유형은 평서문 긍정문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선행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어 제약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 파악한 최초의 유의미한 기술은 河内良弘·清瀬義三郎則府(2002)에서 나타나는데, -ra를 '前望終止形(prospective finite)'으로 명명하고 다음과 같이 주어의 인칭에 따라 의미를 구별하였다.

(2) 河内良弘·清瀬義三郎則府(2002: 76)에서 기술한 -ra의 의미(번역은 필자)

-ra etc.가 접미하는 활용형은, 그 동사의 前望終止形(prospective finite)이 되어서,

1) 주어가 3인칭일 경우, 어떤 행동이 발화 후의 가까운 미래에 행해진다는 것을 예견하는 추량(conjectural)을 표시

2) 주어가 1인칭일 경우, 가까운 장래에 어떤 행동을 행하겠다는 화자의 의지(volitive)를 표시

3) 주어가 2인칭일 경우, 상대에게 할 것을 권유하는 권유(hortative)를 표시

원래 연체형(連体形)이지만, 소위 연체종지(連体止め)라고 하여, 종지형(終止形)적으로도 사용되는 것이다. 연체종지의 문장은, 화자(또는 필자)의 강한 의지(强意)를 표현한다.

그런데 -ra가 2인칭과 3인칭 주어를 가지는 경우 각각 '권유'와 '추량'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여 마치 평서법 긍정문에 쓰인 -ra가 1인칭이 아닌 주어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기술하였지만, 2인칭 주어에 대한 예문으로는 ume를 수반하는 금지문만 제시하고 있고, 3인칭 주어를 가지는 예문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평서법 긍정문의 예를 확인할 수 없다.

한편 Baek (2011)에서는 'imperfective verbal noun'으로 명명한 -ra가 -mbi, -ki sembi와 함께 'intentives'의 양태 의미(modality)도 가지는 것으로 기술하였다.

(3) Intentives (Baek 2011: 362-363)

Imperfect present, imperfective verbal noun, and '-ki sembi' are used to express a speaker's intention or volition.

a. Imperfect Present
bi uthai amasi jimbi 내 즉시 도라 오마 8-1[94]
...
b. Imperfective Verbal noun
bi booha udame genere 내 반찬 사라 가마 2-3
...
c. -ki sembi
je bi uncaki sembi 오냐 내 풀고저 ᄒᆞ노라 5-2
...

'화자의 의도 또는 의지(a speaker's intention or volition)'라는 기술과, 대부분의 예문이 1인칭을 주어로 가진다는 점을 통해 1인칭 주어 제약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2인칭 주어를 가지는 예도 하나 포함되어 있어서 확실하지 않다. 그런데 같은 'intentives'로 인식한 -mbi나 -ki sembi는 2·3인칭 주어를 가질 수도 있으며 1인칭 주어를 가질 경우에만 '화자의 의도 또는 의지'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1인칭 주어와만 결합할 수 있는 -ra 종결형과는 그 성격을 달리 한다.

선행 연구의 기술과 <만문노당>의 검토를 통해 평서법 긍정문에 사용된 -ra가 청자에 대한 화자의 '약속'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약속은 이미 일어났거나 또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시간적으로 미래라고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평서법 긍정문에 사용된 -ra 종결형의 의미는 2.4에서 살핀 당위(deontic) 양태 가운데 언약류(commissives)에 가까운 것이므로,[95] 시제보다는 양태 요소로 볼 수 있다.

다음은 -ra 종결형이 평서법 긍정문 이외에 의문문, 부정문, 금지문으로 나타난 경우이다.

(4) 평서법 긍정문 이외의 -ra 종결형

94) 여기서 한국어 번역은 〈청어노걸대〉의 언해문이며 번호는 권수와 엽수이다.
95) 언약류(commissives)는 약속(promises) 또는 위협(threats)의 의미를 모두 가질 수 있지만(Palmer 1986: 72), 만주어 -ra 종결형은 전자만을 의미하며, 위협의 의미를 가지는 예는 나타나지 않는다.

a. deo be doro jafabuci, ahūn be sindafi, dabali deo be adarame jafabure, (3:5:5) 동생을 집정케 하자니, 형을 놔두고 순서를 넘어서 동생을 어찌 집정케 하겠는가. (의문문)
b. mini dolo, suweni nikan be beyebe wakalame, aika sain gisun tucifi doro jafara gisun be gisurereo seme (20:21:3) 나는 마음속으로 너희 명이 스스로 그르다 하고, 혹시나 좋은 말이 나와서 도리를 지키는 말을 할까 하여, (의문문)
c. si ainu bedererakū seme gūnireo seme (58:39:6) '너는 어찌 물러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실까 하여 (의문문)
d. han i jase be yaya dabarakū (1:22:3) Han의 경계를 누구도 넘지 않을 것이다. (부정문)
e. labtai si ume gisurere (2:22:5) Labtai 너는 말하지 말라. (금지문)

(4a)는 1인칭 주어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며, 의문사 adarame '어찌'가 붙어서 수사의문문을 이루어 '집정케 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강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4b)와 (4c)는 의문 첨사 -o가 붙어서 각각 2인칭 주어와 3인칭 주어의 미래 행동에 대한 간접 의문문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의문문에는 평서법 긍정문과 같은 1인칭 주어 제약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d)의 부정형(negative form) -rakū는 기원적으로 -ra와 akū '없다'의 결합으로 볼 수 있는데, 3인칭 주어를 가진다. (4e)는 금지문임을 나타내는 표지인 ume와 -ra 종결형이 함께 사용되어 금지문을 이룬다.

요약하면, 종결형으로 사용된 -ra는 평서법 긍정문에서는 1인칭 주어와만 결합하여 '약속'의 양태 의미를 나타내며, 다른 형태를 수반하여 의문문, 부정문, 금지문을 구성할 수 있는데, 이 때 주어 제약은 없다.

4.1.1.2. 예외적 용법

종결형에 쓰이는 sere와 buyere는 위에서 살핀 -ra 종결형의 의미와 다르게 나타나는 예외적인 경우이다. 본고에서는 이들을 특수한, 어휘화된 표현으로 보아 일반적인 -ra의 쓰임과는 구별하는 태도를 취한다.

종결형 sere는 만주어 문어에서 전언(hearsay)을 나타낸다.

(5) 전언을 나타내는 종결형 sere

a. tanggū honin be tanggū niyalma jeci isirakū sere, emu honin be emu niyalma jeci wajirakū sere (4:66:2) 양 100마리를 100명이 먹으면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 양 한 마리를 한 사람이 먹어도 다 못 먹는다고 한다.

b. te geli juwe jurgan i cooha jimbi sere, tere be ainambi (8:34:5) 이제 또 두 갈래로 병사가 온다고 합니다. 그것을 어찌합니까.

c. bi donjici, nikan han, solho gurun de, meni gurun de, gemu ini juse be unggifi ejen obuki seme hendumbi sere, (9:22:2) 내 들으니 명 황제가 조선국과 우리나라에 모두 그의 아들들을 보내어 우두머리로 삼겠다고 말한다고 한다.

이같은 전언은 다른 사람이 전하는 말로서, 주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3인칭 주어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의미도 전언이 실제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미래 상황을 '약속'하는 것으로 본 -ra 종결형의 의미와 맞지 않는다.[96] 본고에서는 이 sere를 어휘화된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ra 종결형과는 다른 예외적인 경우로 취급한다.

그 근거로 만주어 사전인 <御製淸文鑑>(1708)에 sere가 표제어로 등재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만주인에 의해 편찬된 이 사전에서, 일반적으로 동사 표제어는 대부분 -mbi 형태, 또는 비교적 적은 수의 -ha 및 -habi 형태로 등재되었고, -ra 형태 표제어는 ainara '어이 하리' 등의 어휘화된 의문문이 소수 등재되었을 뿐인데, sere는 동사 어간 se-를 공유하는 sembi와는 별도의 표제어로 등재되었다는 점에서, 당시 만주인의 직관에도 일반 동사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96) 보조 자료인 〈청어노걸대〉에서도 다음과 같이 sere를 'ᄒᆞ더라'로 과거 시제에 대응시키고 있다. jodon hūda duleke aniya i hūda emu adali sere (1:12a) 뵈 갑슨 前年 갑과 ᄒᆞᆫ가지라 ᄒᆞ더라

(6) <어제청문감>에 등재된 sere와 sembi

a. sere: gisun de aisilara mudan.. donjici uttu sere. tuttu sere seme gisurembi.. (중략) (niyalma 8·sula gisun 4) 말을 돕는 소리. '들으니 이렇다 한다, 저렇다 한다' 하고 말한다.

b. sembi: gūwa i gisun be ulame alara dubede sindara gisun., hendumbi sere gūnin de adali.. (중략) (niyalma 8·sula gisun 4)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여 고하는 끝에 놓는 말. hendumbi (말하다)라는 뜻과 같다.

(6a)의 전석을 통해 sere가 어조사(語助辭)로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의미는 (6b)의 sembi와 다를 것이 없으면서도 별개의 표제항으로 등재한 것은 sere의 쓰임이 일반적인 -ra 종결형과 달랐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종결형 buyere는 본고의 주 자료인 <만문노당>에는 나타나지 않고, 보조 자료 가운데에서도 <(만문)삼국지>와 <(만문)금병매>에만 나타난다. 1인칭 주어와 결합하여, '-을 원한다'는 의미를 가지는데, -mbi가 아닌 -ra와 결합하는 것이 특이하다.

(7) <삼국지>와 <금병매>에 나타나는 buyere

a. amaga jalan de jiyangjiyūn i sargan ojoro be buyere 願相期于後世 (2:80a)

a′. 후셰예 쟝군의 계집이 되믈 원ᄒᆞ노라 (1:17a)

b. tsootsoo hendume wesihun gisun be donjire be buyere 操曰願聞高論 (10:30a)

b′. 曹操ㅣ 니로되 놉흔 말을 드름을 원ᄒᆞ노라 (6:15a)

c. mafa be dahame ubade bisire be buyere (47:7a) 어르신을 따라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7a, b)는 <삼국지>의 원문, (7a′, b′)은 <삼역총해>의 언해문이다. (7c)는 <금병매>의 예이며 한국어 번역은 필자에 의한 것이다. <삼국지>나 <금병매>는 모두 한문 저본이 존재하며, buyere는 한어 '願'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문노당>에 buyere 형태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삼국지>나 <금병매>에 나타나는 buyere의 용법은 만주어 본래의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는 buyere가 지시하는, 이루어지기 원하는 상황이 미래 상황이며, 1인칭 화자의 원하는 바를 2인칭 청자에게 제시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ra 종결형의 의미와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것만 지적하고 넘어간다.

4.1.2. 관형의 기능

만주어 문어의 분사 어미 -ra와 -ha는 관형의 기능 및 명사의 기능으로 사용될 때, 종결의 기능과 달리 상대 시제적 성격을 가진다. 즉 -ra는 항상 상위문 상황 대비 현재나 미래 상황을 지시하고, -ha는 항상 상위문 상황 대비 과거 상황을 지시한다.

4.1.2.1. 현재 진행 중인 상황

-ra 관형형은 상위문의 상황 대비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지시할 수 있다.

(8)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지시하는 -ra 관형형

a. hūrhan hiya ini gajire sunja tanggū boigon be, alin i ninggude jase jafafi, emu tanggū cooha be tucibufi boigon tuwakiyabuha, (1:1:3) Hūrhan Hiya는 자신이 데려 오던 500가호로 하여금, 산 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군사 100명을 내어서 가호를 지키게 했다.

b. hoton de dosime genere niyalma morin ihan be gaifi gajiha, (8:1:7) 성에 들어가는 사람, 말, 소를 빼앗아서 이끌고 왔다.

c. morin šusilhalame jidere coohai ishun dosika, (8:26:3) 말을 채찍질하며 오는 병사를 향하여 나아갔다.

d. tere cooha amasi bederere de, tere hūlan i golo be tuwakiyara karun i orin niyalma, nikan coohai bederere be safi, (8:54:4) 그 병사가 뒤로 물러날 때 그 Hūlan로(路)를 지키는 초소의 20명이 명 병사가 물러나는 것을 보고

이들 예문에서 -ra 관형형은 기준시점이 되는 상위문의 상황시점 대비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지시한다. 모든 예문들의 상위문이 과거 상황을 가리키기 때문에 -ra가 나타내는 상황도 발화시점 기준으로 과거의 상황이지만, 상위문의 상황과는 동시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이 가리키는 현재 진행 중인 상황과 아래에서 살필 습관적 상황을 명확히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 (8d)에서, 'Hūlan로를 지키는' 상황은, 명 병사가 물러나는 것을 관측한 시점에서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이러한 문맥이 없이는 반드시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체력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병사들은 교대로 근무를 서야 하며 항상 초소를 지키고 있을 수는 없으므로 '지키는' 상황은 일정한 시기에 걸친 병사들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더욱이 형태상으로 -ra가 진행 중인 상황과 습관적 상황을 구별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구별은 문맥에 의존한 인위적인 분류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한편 많은 선행 연구에서 부동사 어미 -me와 존재 동사 bi-가 함께 쓰이는 우언적인(periphrastic) -me bi- 형태가 만주어에서 '진행상(progressive)'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지만,[97] 적어도 <만문노당> 태조조에서는 이러한 -me bi- 형태가 진행상으로 문법화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만문노당>에도 -me bisire, -me bihe, -me bisu 등의 형태가 나타나며 이들을 '연속상(continuous aspect)' 형태로 불리는 한국어 '-고 있-'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용례가 적을 뿐더러(20례 안팎) 대부분 존재 동사 bi-의 어휘적 의미(즉 '있다')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절에서 다루고 있는 -ra 관형형에 -me bi-가 결합한 -me bisire 관형형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역시 <만문노당>의 시상체계에서는 -ra가 진행상의 의미까지 나타내는 것

97) 성백인(1968) '-me bi, -me bi-의 연결은 "…하고 있다"는 뜻으로 두 동사가 결합하여 상태의 여하 또는 진행을 나타내주고 있다', 愛新覺羅烏拉熙春(1983: 200) '正在進行的動作和行爲', Roth Li (2000: 359) 'some action or situation is in progress', 河內良弘·清瀨義三郎則府 (2002) '非完了進行相(non-perfective processive)' 등등.

으로 볼 수 있다.

4.1.2.2. 습관적 상황

앞 절에서 언급하였듯이, -ra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가리키는지 또는 일정한 시기를 특징짓는 습관적 상황을 가리키는지 구별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의 예문에서는 현재 진행의 의미가 특별히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9) 습관적 상황을 지시하는 -ra 관형형

a. wargi goloi jeku hadure be tuwakiyara cooha, bedereme boode jikini (7:12:4) 서로(西路)의 곡식을 수확하는 것을 지키는 병사를, 물러나 집에 오게 하라.

b. mini alban gaijara guwangning ni babe si ume dailara, (14:15:2) 내가 공물을 걷는 광녕 땅을 너는 공격하지 말라.

c. hengkileme alban benjime dahame yabure niyalma be waci, jai duin hošoi gurun i niyalma, muse de adarame dahame yabumbi seme hendume, gisun gaihakū sere, (15:28:5) “절하며 공물을 가지고 오며 복종하며 행하는 사람을 죽이면 또 사방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찌 복종하러 오겠는가” 하며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d. orin nadan de, hoton weilere niyalma de, geli juwe niyalma de emu gin dabsun buhe. (18:17:1) 27일에 성을 축조하는 사람에게, 또 두 사람에게 한 근의 소금을 주었다.

(9a)의 tuwakiyara cooha ‘지키는 병사’는 앞서 (8d)의 tuwakiyara karun i orin niyalma ‘지키는 초소의 20명’과 유사한 구문인데, 문맥을 통해 현재 진행의 의미보다는 일정 시기의 속성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는 (9b)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나는데, ‘공물을 걷는’ 상황은 지금 진행 중이라기보다는 일정한 기간에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4.1.2.3. 일반적 사실

앞에서 살핀 습관적 행위가 특정한 대상과 시간에 한정된 것이라면, 이하의 예문에서 사용된 -ra 관형형은 구체적인 대상을 지시하지 않거나 과거, 현재, 미래 등 특정한 시간 영역에 구애받지 않는 일반적 사실 또는 영구적 속성을 가리킨다는 차이가 있다.

(10) 일반적 사실을 지시하는 -ra 관형형

a. nadan jakūn dobori šun dekdere ergide, hoifa gašan i teisu sabufi jai nakaha, (1:12:3) 7일과 8일 밤 해 뜨는 쪽 Hoifa 마을 쪽으로 보이다가 다시 사라졌다.

b. mini baci tucire ulin, ilan hacin i seke, sahaliyan šanggiyan fulgiyan ilan hacin i dobihi, silun, yarga, lekerhi, tasha, hailun, ulhu, solohi, elbihe, buhi, gihi, tenteke furdehe bi, (15:7:7) 나의 땅에서 나는 재물로는, 세 종류의 담비 가죽, 검은 색, 흰 색, 붉은 색 세 종류의 여우 가죽, 스라소니, 표범, 해달, 호랑이, 수달, 청설모, 족제비, 너구리, 사슴, 노루 등과 같은 동물의 가죽이 있다.

c. takūrara aha tarire ihan yalure morin eture etuku jetere jeku, neigen yooni bisire niyalma udu bi, (4:69:4) 부리는 노복, 밭가는 소, 타는 말, 입는 옷, 먹는 곡식이 골고루 모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10a)는 동쪽 방향을 šun dekdere ergi '해 뜨는 쪽'으로 표현했는데, 해가 뜨고 지는 것은 우주적인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한 변하지 않는 영구적인 속성이다. 방위(方位)라는 불변의 속성을 -ra 관형형으로 표현한 것도 이러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10b)는 자연에서 토산물이 나오는 것을 -ra 관형형으로 표현하였는데, 이 또한 이변이 없는 한 영구히 지속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10c)의 경우 노복을 부리고, 소가 밭을 갈고, 말을 타고, 옷을 입고, 곡식을 먹는 등의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행위자 및 대상과 시간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수식어의 영구적 속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1.2.4. 미래

-ra 관형형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상황을 지시할 수 있다.

(11) 미래를 지시하는 -ra 관형형

a. dain de bahafi wara beyebe ujifi, ula gurun de unggifi ejen obuha. (1:4:4) 전쟁에서 잡아서 죽일 목숨을 살려주고, Ula국에 보내서 수장이 되게 했다.

b. ere temujin, muse de enteheme alban bure niyalma waka, yamka fonde, musei doro be ehe obure niyalma kai, (15:28:1) 이 Temujin은 우리에게 언제까지나 공물을 줄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때엔가 우리의 정권을 나쁘게 할 사람입니다.

c. ciyandzung ni hergen be nakabuha, gaijara uyun yan i weile be waliyaha. (17:14:2) 천총의 직책을 그만두게 하고, 받아야 할 아홉 냥의 죗값은 면제했다.

d. tereci amasi ini boode genere niyalma be emu ergide ilibuha, enteheme jihe niyalma be emu ergide ilibufi, (7:29:1) 그러고 나서 자신의 집으로 갈 사람을 한 쪽에 세우고, 아주 온 사람을 다른 쪽에 세웠다.

(11)의 상황들은 상위문의 상황을 기준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지시한다. 그런데 4.1.1에서 살핀 -ra 종결형은 당위(deontic) 양태 가운데 언약류(commissives)와 가까운 의미를 보이는데 반해 -ra 관형형은 그러한 양태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다. 즉 1인칭 주어 제약을 보이지 않고, 따라서 화자의 약속을 함의하지 않는다. 한편 -ra 관형형이 한국어의 관형사형 어미 '-을'에 대응하는 '비현실(irrealis)'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앞서 살핀 대로 -ra는 현재 상황, 즉 '현실(realis)' 상황을 나타낼 수도 있으므로 -ra와 -ha를 '비현실 대 현실'의 대립으로 볼 수 없다.

4.1.3. 명사의 기능

분사 어미 -ra가 결합한 활용형은 주어나 목적어 등의 명사형으로도 사용되는데,[98] 대체로 관형형에서 나타나는 의미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4.1.3.1. 현재 진행 중인 상황

(12)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지시하는 -ra 명사형

a. jai terei gese buya niyalma ajige ajige ulin acifi dosire be jafafi, aciha ulin i teile gaiha, (10:28:4) 또 그처럼 하급 관리가 소소한 재물을 싣고 들어오는 것을[99] 잡아서 실은 재물만 빼앗았다.

b. mangga moo i abdaha de aiha i adali filtahūn bisire be safi, ileci jancuhūn uthai hibsu, (5:7:6) 참나무 잎에 유리같이 투명하게 있는 것을 보고 핥아보니 달았다. 즉 꿀이었다.

c. wan arara moo sacire be geren be ulhirahū seme, (6:8:3) "사다리를 만들 나무를 베는 것을 여럿이 알까 염려된다" 하며

d. han, tangse weceme genehe amari, pan tūre be donjiha, (7:18:5) Han 이 당자(堂子)에 공양하러 간 후에 운판 치는 것을 들었다.

이들 예문에서 -ra 명사형은 상위문의 상황시점 대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가리킨다. 그런데 앞서 -ra 관형형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과 습관적 상황을 명확히 구별하는 것은 어려우며, 본고의 구별은 문맥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100] (12a)는 기준시점 대비 현재 들어오고 있는 것을 잡는 구체적 상황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당시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습관적 상황임을 가리킬 수도 있다. 즉, '(그 시기에는) 들어오는 족족 잡아서 빼앗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12b-d)

---

98) 그런데 속격(혹은 도구격) 어미 i 앞에서는 'muterei teile, baharai teile 할 수 있는 데까지'와 같이 i teile라는 관용적인 표현 앞에서만 나타나는 등 -ra 활용형이 명사와 완전히 같은 위치에 같은 빈도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ra, -ha 명사형보다는 거기에 명사화 접사 -ngge가 덧붙은 형태가 명사의 기능으로 활발히 사용되는데, 그 시제적 의미에 대해서는 -ra, -ha 형태와 -rangge, -hangge 형태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meni niyalma morin i jeterengge akū de, (13:4:7) 우리의 인마가 먹을 것이 없는데,

99) 한국어는 명사와 서술어의 구별이 뚜렷하기 때문에, 만주어의 -ra 명사형을 '-는 것, -을 것'으로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명사 '것'의 결합으로 풀어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100) 앞서 -ra 관형형과 마찬가지로, 〈만문노당〉에서 -ra에 '진행'을 의미하는 -me bi-가 결합한 -me bisire 명사형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상황도 -ra 명사형을 이용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는 문맥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또는 계속되는 상태인) 상황인 것으로 보이지만 역시 습관적 상황과의 구별을 위해서는 언어외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4.1.3.2. 습관적 상황

(13) 습관적 상황을 지시하는 -ra 명사형

a. abkai kesi de jirgame banjire be hihalarakū, ahūn sure kundulen han i ujire be elerakū ofi, (1:30:3) 하늘의 은혜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형 Sure Kundulen Han이 보살펴 주는 것에 만족하지 않다가,

b. han be, gurun ujire sain seme (42:29:6) Han이 백성을 돌봄이 선하다 하며

c. cangguna be sunja niru kadalara be nakabuha, (6:47:7) Cangguna를 다섯 Niru를 관할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였다.

d. julgei niyalma jakūnju tumen nikan, dehi tumen monggo, mukei ilan tumen jušen seme mafari gisurere be donjiha bihe (10:31:3) 이전의 사람은 한인 80만 명, 몽골이 40만 명, 물의 여진인 3만 명이라고 노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e. jarut gurun i irgen, yehe de jifi jeku gamara, tutaha niyalma be wara be wara, gamara be gamara, tuttu yabure be donjifi, (13:15:5) Jarut국의 백성이 Yehe에 와서 곡식을 가져가는 것, 남아있는 사람을 죽일 자는 죽이고 끌고 갈 것은 끌고 가는 것, 그렇게 행하는 것을 듣고,

(13a)와 (13b)의 ujire '돌봄'이나 (13c)의 kadalara '관할함'과 같은 명사형은 그 의미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 한정된다기보다는 일정한 기간에 걸친 속성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문맥상 타당하다. (13d)에서 노인들이 말하는 상황도 일회성 상황은 아닐 것이다. (13e)의 yabure '행함'은 그 어휘 자체의 의미가 습관적인 행위임을 함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4.1.3.3. 일반적 사실

-ra 명사형은 또한 특정한 대상이나 시간을 한정하지 않는 일반적 사실을 가리킬 수 있다.

(14) 일반적 사실을 지시하는 -ra 명사형

a. bahara be ume nemšere, tondo be nemše, ulin be ume gūnire, erdemu be gūni, (4:53:6) 얻을 것을 탐하지 말고 올곧은 것을 탐하라. 재물을 생각하지 말고 덕을 생각하라.

b. ba be baha manggi, efulere ci uthai biburengge dele, (71:11:3) 땅을 얻은 후에, 멸하는 것보다는 존속시키는 것이 상책입니다.

(14)의 예문은 모두 격언을 통해 보편적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여기에 사용된 -ra 명사형이 구체적인 대상과 시간을 가리키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4.1.3.4. 미래

-ra 명사형은 상위문의 상황시점 대비 미래의 상황을 가리킬 수 있다.

(15) 미래를 지시하는 -ra 명사형

a. beyebe wara be nakafi, cangšu gebungge amban de, tanggū yan i weile araha, nacibu gebungge amban de, kadala seme buhe jušen be gemu gaiha, (1:10:1) 죽일 것을 그만 두고, Cangšu라는 대인에게는 100냥으로 치죄하고, Nacibu라는 대인에게는 관할하라고 주었던 Jušen을 모두 몰수했다.

b. sure kundulen han, nikan i wan lii han i nenehe ehe be gūnihakū, geli sain banjire be buyeme, (1:20:3) Sure Kundulen Han이 명의 만력제의 지난 시절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다시 화목하게 지낼 것을 원하여,

c. geren de isibure be gūnime, malhūn jaka be ambula kiceme gaisu (4:58:4) 여럿에게 돌아가게 할 것을 생각하여 많이 노력하여 물건을 싸게 사서 가져오라.

d. bojiri bucere de geleme banjire be buyeme, geleme geleme jimbi seme donjifi (6:3:2) Bojiri가 죽기를 두려워하고 살기를 원하며 두려워

하고 두려워하며 온다는 것을 듣고서
e. dahara daharakū be suwe inu ambula seolehe de sain kai, (6:32:2) 항복할지 항복하지 않을지를 너희들도 깊이 숙고하는 것이 좋다.

-ra 관형형의 미래 지시와 마찬가지로, 양태 의미와 무관하게 미래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1.3.5. 시간부사절(-ra de)

한편 -ra에 여처격 조사 de가 이어지는 경우 주로 시간부사절을 형성하며, 한국어의 '-을 때'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다.

(16) -ra de의 용례
a. dain de baturu niyalma, gašan de banjire de baitakū moco, (4:71:2) 전장에서 용맹한 사람이 마을에 살 때는 쓸모없고 우둔하다.
b. tere wara de uyun niyalma tucifi waha medege be ninggun biyai orin jakūn de donjiha, (5:13:4) 그들을 죽일 때 아홉 명이 탈출하여, 죽인 소식을 6월 28일에 들었다.
c. bojiri bucere de geleme banjire be buyeme, geleme geleme jimbi seme donjifi, (6:3:2) Bojiri가 죽기에(죽기를) 두려워하고 살기를 원하며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며 온다는 것을 듣고서,

이는 대체로 시간부사절 상황과 주절 상황이 동시적임을 나타내며, 뒤에서 살필 -ha de '-했을 때'가 시간부사절 상황이 주절 상황에 선행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과 대조적이다. 물론 (16c)의 경우처럼 -ra de가 시간부사절을 이루지 않고 여처격 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4.1.4. 시상 대립과 무관한 용법

특정한 후치사 앞에서 -ra나 -ha 가운데 하나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시상 대립을 가지지 않으므로 시제를 논하는 것이 무

의미하다.

(17) -ra와만 결합하는 후치사[101]

a. anggala: niyalmai gebu bijara anggala, giranggi bija seme henduhe bihe (2:19:2) 사람의 이름을 꺾기보다는 뼈를 꺾으라고 말하였다.

b. jakade: bi cooha tucifi karulara jakade, abka, jaisai be minde buhe, (13:14:3) 내가 군사를 내어 보복하자 하늘이 Jaisai를 나에게 주었다.

c. onggolo: bi suweni akdun be sabure onggolo sindafi unggirakū, (13:34:5) 나는 너희들이 신실함을 보이기 전에는 놓아 보내지 않을 것이다.

d. unde: hoton weilere niyalma de, neneme emu jergi buhe dabsun jeme wajire unde kai, (18:19:7) 성을 축조하는 사람에게 전에 한 번 준 소금을 아직 다 먹지 못했을 것이다.

-ra onggolo '-하기 전에', -ra unde '아직 -하지 못했다' 등과 같은 후치사와는 -ra가 의미적으로 어울리지만, -ra jakade '-하니', '-하기 때문에'와 같이 인과적 의미를 가지는 jakade는 오히려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ha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102] 이것은 만주어와 한국어의 직관이 다르기 때문으로, 본고에서는 이에 대해 깊이 논의하지 않고 다만 이들 후치사 앞에서 시제 대립이 없다는 것만을 지적하고 넘어간다.

또한 -ra는 대등한 구문을 병렬적으로 나열할 때, 시제적 의미를 가지지 않고 사용될 때가 있다.[103]

(18) 병렬 구문에 사용된 -ra

a. tumen funcere coohai niyalma gabtara sacire, gida i tokoro, wehe fahara, minggan funcere poo miyoocan sindaci umai tucirakū, (7:8:3) 1만 명이 넘는 병사는 활 쏘고 도끼로 찍고 창으로 찌르고 돌을 던지고

101) 河內良弘·清瀨義三郞則府(2002: 78-79)의 목록을 참고하여 〈만문노당〉을 검색한 내용이다. 이 책에서 제시한 목록 가운데 dabala는 -ha와도 함께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하였다.

102) 河內良弘·清瀨義三郞則府(2002: 79)에서도 jakade가 일본어 번역에서 완료상(完了アスペクト)의 '-た'와 대응함을 지적하고 있다.

103) 河內良弘·清瀨義三郞則府(2002: 78)에서도 이러한 용법을 기술하고 있다.

1000이 넘는 포와 총을 쏘아도 전혀 나오지 않고,

b. dolo encu gūnire, oilo anggai holtome sain gisun gisurehe bici, abka mimbe ainu gosire bihe, (15:5:2) 속으로 달리 생각하고 겉으로 입으로 속이며 좋은 말을 했다면, 하늘이 나를 어찌 사랑하겠는가.

c. jaisanggū joboro gisun be han amji de alaci, ahūn amin taiji de gelere, alarakū oci, banjici ojorakū jobome bihe, (16:29:1) Jaisanggū는 근심하는 말을 백부인 Han에게 고하자니 형인 Amin Taiji가 두렵고, 고하지 않자니 살아갈 수 없어서 근심하고 있었다.

d. tereci ici ergi duin gūsai juleri afara olbo i cooha, sejen kalka gamame, nikan i tucike coohai baru ibeme dosime genere, nikan cooha kuren hadafi poo miyoocan ilan jergi faidafi iliha, (19:19:5) 그로부터 우익 네 기(旗)의 앞에 싸우는 올보병이 방패차를 끌고, 명의 나온 군사를 향하여 전진하여 들어가고, 명군은 대오를 갖추고 포와 조총을 세 겹으로 배치하고 섰다.

e. weilengge niyalma be enculeme tantara, goibure, weile arara, sindaralaha seme tofohon yan i weile gaiha (42:22:7) 죄 있는 사람을 사사로이 때리고, 맞추고, 치죄하고, 석방하였다 하여 15냥의 죗값을 받았다.

이들 예문은 공통적으로 대등한 지위의 구문이 병렬적으로 이어져 있다. 특히 (18b-d)의 경우는 대구(對句) 구성으로도 볼 수 있다. (18a)는 '...ra, ...ra, ...ra, ...ra, ...ci', (18b)는 '...ra, ...ha bici', (18c)는 '...ra, ...me bihe', (18d)는 '...ra, ...ha', (18e)는 '...ra, ...ra, ...ra, ...ha의 구성으로, 각 구성의 대등적 성격을 고려하면 -ra를 마지막에 오는 형태로 대치할 수 있다. 따라서 본래 -ra의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4.1.5. -ra의 의미: 비과거(non-past)

이상 살펴본 분사 어미 -ra의 분포와 의미는 다음과 같다.

(19) 분사 어미 -ra의 분포와 의미

a. 평서법 긍정문: 1인칭 주어와만 결합하여 '약속'의 양태 의미

b. 의문문, 부정문, 금지문
c. 관형형 및 명사형: 현재 진행, 습관적 상황, 일반적 사실, 미래
d. 시상 대립과 무관한 용법

분사 어미 -ra의 의미는 비종결형(관형형과 명사형)과 종결형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우선 -ra와 -ha만으로 이루어진 정연한 대립 체계를 보이는 관형형과 명사형에서 -ra는 상위문의 상황시점 대비 항상 현재 또는 미래 상황을 가리킨다. 이에 비해 종결형에서는 평서법 긍정문에서 1인칭 주어와만 결합하여 '약속'의 양태 의미를 보이는데, 이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시간적으로는 미래 상황을 가리킨다.[104] 본고에서는 1인칭 주어 제약과 양태 의미를 고려하여 -ra 종결형이 시상 대립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비종결형에 사용된 -ra를 대상으로 그 시상 의미를 살피면, -ra는 상대 시제적 '비과거(non-past)' 시제라고 명명할 수 있다. 아래 살필 -ha는 상대 시제적 '과거' 시제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과거/비과거의 이항대립(binary contrast)은 범언어적으로 흔하게 발견된다.[105]

4.2. 분사 어미 -ha

3장에서 살핀 선행 연구에서는 대체로 -ha를 '과거 시제' 또는 '완결된 양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하 <만문노당>을 주 자료로 하여 살핀 -ha의 분포와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는데, -ra와 마찬가지로 '종결의 기능', '관형의 기능', '명사의 기능'으로 나누어 살핀다.

4.2.1. 종결의 기능

분사 어미 -ha는 -ra와 달리 평서법 긍정문으로 사용될 때 주어 제약

104) Verbiest (1696)을 비롯한 시제 대립 중심의 연구에서 -ra를 '미래 시제'로 기술한 것도 이러한 의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05) Comrie (1985)의 '2.4 Binary tense systems'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 없다. 즉 1인칭 뿐 아니라 2·3인칭이 모두 주어로 사용될 수 있으며, 그 의미적인 차이도 없다.

(20) -ha 종결형
a. mini ilan jui be buhe ilan jergi hojihon bujantai, minde ehe dain oci, bi dailaha, (3:23:7) 나의 세 아이를 준 세 겹 사위 Bujantai가 나에게 나쁜 적이 되니 내가 정벌하였다.
b. yehe i gisun de dosifi jaisai si hoto gebungge elcin be waha, (25:8:1) Yehe의 말에 넘어가서 Jaisai 너는 Hoto라는 사신을 죽였다.
c. sunja biyade, hibsu i aga agaha, (5:7:3) 5월에 꿀 비가 내렸다.
d. dain, alin i dele iliha bade afame genere de afahakū, (1:9:2) 적병이 산 위에 진을 친 곳으로 공격하러 갈 때 공격하지 않았다.
e. nimaha butanaha niyalma jihe, umai bahakū. (30:11:2) 물고기를 잡으러 간 사람이 왔다. 전혀 얻지 못했다.

(20a-e)는 모두 발화시점 기준 과거 상황을 기술하고 있다. (20d)와 (20e)는 부정문인데, 일반적으로 -ha와 부정사 akū가 결합한 것으로 기술된다.

4.2.2. 관형의 기능

-ha 관형형은 종결형과 마찬가지로 과거 시제의 의미를 가지나, 앞서 살핀 -ra 관형형과 마찬가지로 상대 시제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21) -ha 관형형
a. cooha gaifi genehe ilan beile de, ula i cooha heturehebi seme amasi niyalma takūraha, (1:1:6) 군사를 이끌고 간 세 Beile에게는 Ula의 군사가 길을 막아 놓았다고 뒤로 사람을 보냈다.
b. cimari suweni gūniha babe minde hūlhame ala (16:44:3) 내일 너희가 생각한 바를 나에게 비밀리에 고하라.
c. nikan i emu iogi hafan, tere be dahaha cooha, meni ere ing de bi, (8:48:1) 명의 한 유격 관리와 그를 따라온 병사가 우리의 이 영(營)에

있다.

d. cangguna i gese afahakū niyalma be afaha seme ume holtoro, (10:2:4) Cangguna처럼 싸우지 않았던 사람을 싸웠다고 거짓말 하지 말라.

-ha 관형형을 포함하는 상위문의 상황시점이 (21a)는 과거, (21b)는 미래, (21c)는 현재이다. (21b)에서는 -ha 관형형이 가리키는 상황이 발화시점 현재보다 미래 상황일 수 있지만, 기준시점인 상위문의 상황시점 대비 상대적으로 과거에 일어난 일을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 시제적 과거 시제로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2.3. 명사의 기능

-ra 명사형과 마찬가지로 주어나 목적어 등 명사의 위치에 올 수 있지만 역시 속격 i 앞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며, 명사화 접사 -ngge가 덧붙은 -hangge 형태가 더 많이 사용된다.

(22) -ha 명사형

a. ahūn han i ujihe ambula de dabafi encu teneki sehe, (1:29:6) 형인 Han이 보살펴 준 것이 많은데, 그것을 넘어서 따로 살러 가겠다고 했다.

b. duin deo, sunja amban ceni joboho be emte bithe arafi han de alibuha, (3:10:1) 네 동생과 다섯 대인이 자기들이 고통 받은 것을 하나씩 글로 써서 Han에게 바쳤다.

c. simbe bi sini da banjiha ci geli wesibufi, mini uju jergi ambasai gese ujirakū doro bio, (6:30:1) 너를 내가 너의 원래 살던 것보다 더 높여서 나의 일등급 대인들처럼 대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d. tana ijubuha deri genggiyen fiyan tucimbi, (58:42:4) 진주는 덧칠함을 통해 밝은 광택이 난다.

위의 예문에서 -ha 명사형은 모두 상위문의 상황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의 상황을 가리킨다. 즉 (22a)에서 누르하치의 보살핌은 슈르하치의

배신에 선행하며, (22b)에서 고통을 받은 것은 고발하는 것에 선행한다. (22c)에서는 da '본래'라는 부사가 시간적 선행을 명시하며, (22d) 또한 계기적으로 덧칠하는 행위가 선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종결형과 관형형에 일관되게 -ha 명사형 또한 (상대 시제적)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시간부사절 -ha de는 앞서 살핀 시간부사절 -ra de가 주절과 동시적 상황을 가리키는 것과 대조적으로 주절에 선행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주절의 시제가 과거 시제가 아닌 경우 '가정적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23) -ha de

a. bujantai sini juse, sini gašan i ambasai juse be damtun benjihe de, si tondo mujangga, (2:23:4) Bujantai 너의 자식들과 너의 마을 대인들의 자식들을 볼모로 보내면 네가 충직한 것이 맞다.

b. yaya niyalma medege gaime jihe niyalma be jafafi benjihe de šangnara. (29:45:1) 누구든 정보를 캐러 온 사람을 잡아서 보내면 포상할 것이다.

c. gašan gemu tuwa daha de ai funcembi, (8:53:4) 마을 전체에 불이 나면 무엇이 남겠는가.

c′. baiha baiha de buci mini ai funcembi, (4:67:2) 구할 때마다 주면 나에게 무엇이 남겠는가.

d. tere cooha dosika de, nikan i cooha emu niyalma hono sabuhakū, poo emgeri hono sindahakū. (9:25:6) 그 군사가 들어갔을 때 명 군사는 한 명도 보이지 않았고 포(砲)도 한 방 쏘지 않았다.

(23a-c)는 조건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23c′)는 (23c)에서 -ha de가 쓰인 자리에 -ci가 쓰이고 있다. 이를 통해 -ha de가 만주어의 조건 부동사 ci와 유사한 용법을 가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3a-c)와 달리 주절의 시제가 과거인 (23d)의 경우, 조건의 의미는 없고 -ha de 구문의 상황이 주절의 상황에 대해 선행한 것이라는 의미만 남게 된다. 기본적으로 -ha de는 주절의 시제를 기준으로 선행하는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서, -ha의 과거 시제의 의미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조건문 또한 '어떤 결과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을 기본 의미로 하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 -ha de가 조건문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보인다.

4.2.4. 시상 대립과 무관한 용법

-ra와 마찬가지로 -ha 또한 특정 후치사 앞에서 -ra/-ha 대립 없이 독점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24) -ha와만 결합하는 후치사
a. amala: yehe de cooha genehe amala, monggo gurun i sunja tatan i kalka i geren beise i elcin enggeder efu isinjifi boode bihe, (13:5:5) Yehe에 출병한 후에 몽골국의 5부 Kalka의 여러 Beile들의 사신과 Enggeder Efu가 와서 궁에 있었다.
b. manggi: suweni akdun mujilen be saha manggi, ulin ulha be gajirakū baibi unggimbi, (13:33:2) 너희들의 신실한 마음을 알게 된 후에 재물과 가축을 받지 않고 그냥 보내겠다.

이들 후치사는 모두 '-한 이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과거 시제 -ha와 어울린다는 점에서 -ha의 의미와 무관한 쓰임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 위치에 -ra가 출현하지 않기 때문에 시제 대립을 보이지 않는다.

한편 -ha는 의문법 종결형 biheo의 형태로 '간절한 요구'를 뜻하는 경우가 있다.

(25) 간절한 요구를 의미하는 -ha
a. emu gisun be hendufi genere biheo (2:14:4) 한 마디 말씀을 하고 가시겠습니까.
b. jeku be tuwa sindara be nakara biheo (2:15:4) 곡식에 불 지르는 것을 멈추어 주시겠습니까.

이들 예문에 나타나는 biheo에 대해서 <滿漢類書, 字尾類>(1700)에서 'genere biheo '此懇求之意 乃不敢必語 (8:31b)'라고 하여 -ra biheo가 2인칭에 대한 '간절한 요구'의 의미를 가짐을 기술하였다. 이는 과거 시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106]

한편 wajiha는 waji- '마치다'에 -ha가 결합한 것인데, 비과거 상황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26) 비과거 상황에 사용된 wajiha

a. lefu aidagan be neneme gabtaha niyalma, wame muteci wajiha, (4:33:7) 곰이나 멧돼지는 먼저 쏜 사람이 죽일 수 있으면 되었다(그렇게 하라).

b. suwe gemu uju fusi, tuttu oci, dule wajiha kai, (21:39:3) 너희는 모두 머리를 깎으라. 그렇게 되면 진정 끝난 것이다.

c. tere usin be dosimbume, meni gaire gūsin tumen usin be, ere šurdeme bahaci wajiha, (24:21:7) 그 밭을 포함하여 우리가 얻을 30만 향의 밭을 그 주변에서 얻으면 되었다.

d. suwe beise de benjihe giyahūn de hūda buhe oci wajiha, (26:37:7) 너희가 Beile들에게 보내온 매에 값을 치러야 끝난 것이다.

e. ulin bume udaha orho be ejen gajiha bici wajiha, (28:11:5) 재물을 주고 산 목초를 임자가 가지면 문제가 없다.

wajiha는 <어제증정청문감>(1771)에 표제어로 나타나는데, 이 사전의 전신인 <어제청문감>(1708)에는 없던 것이 추가된 것이다. 이들 사전의 일반적인 동사 표제어 형태인 wajimbi도 표제어로 실려 있으므로 wajiha는 일반적인 wajimbi의 쓰임과는 다른 어휘화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26)의 예들은 모두 '-ci wajiha'의 구성을 보이는데, 이는 한국어의 관용적인 표현인 '-면 되었다'로 번역할 수 있는 것들이다. 여기서 '되었다'는 과거 상황을 가리킨다기보다는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볼 수

106) 이는 영어의 'Would you ... ?' 구문과 같이 과거 시제를 이용하여 공손성을 강화시키는 일종의 담화상의 책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Palmer (2001: 13-14)에서 이러한 과거 시제가 비현실성(unreality), 잠정성(tentativeness), 가능성(potentiality) 등 양태적인(modal) 용법을 가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있는데, 만주어 wajiha도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2.5. -ha의 의미: 과거(past)

이상 살펴본 분사 어미 -ha는 종결형, 관형형, 명사형에서 일관되게 절대 시제 또는 상대 시제의 관점에서 과거의 상황을 지시함을 확인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 -ha에 대하여 과거 시제 또는 '완결된' 양상으로 파악하였는데, 이는 과거 시제와 '완결된' 양상의 의미 영역이 상당부분 겹친다는 점에서 충분히 야기될 수 있는 혼동이다. 그러나 '완결된' 양상과 달리, 과거 시제는 반드시 '완결된' 상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대화상의 함축(conversational implicature)일 뿐이다.[107] 만주어의 -ha는 본고의 2.3에서 살핀 '완망상과 과거 시제의 차이점'을 참고하면 양상 범주보다는 시제 범주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관형형과 명사형에서 정연한 대립을 보이는 -ra가, 역시 양상 범주보다는 시제 범주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ra와 -ha는 비과거/과거의 시제 대립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본고의 6장에서 자세히 논의하겠다.

107)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use of the past tense only locates the situation in the past, without saying anything about whether that situation continues to the present or into the future, although there is often a conversational implicature that it does not continue to or beyond the present." (Comrie 1985: 41)

5. 정동사 어미의 분포와 의미

만주어 문어의 정동사 어미에는 -mbi, -habi, -mbihe, -ha bihe의 네 형태가 있다. 이들은 앞에서 살핀 분사 어미 -ra, -ha와 함께 만주어 문어 평서문 종결어미의 전부를 이루는데, 분사 어미와는 달리 관형의 기능과 명사의 기능을 가지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108] 한편 이들의 분포와 의미를 분석하면, -mbi와 -habi는 기원적으로 존재 동사 bi '있다'를 포함하는 형태임이 유력하며, 의미상 이들의 과거형으로 볼 수 있는 -mbihe와 -ha bihe는 역시 bi의 과거형인 bihe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선 존재 동사 bi의 분포와 의미를 파악하면 정동사 어미의 분포와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다.

존재 동사 bi '있다'는 만주어 문어의 다른 동사와는 달리 현재 시제의 종결형에서 활용 어미가 붙지 않는다.[109]

(1) 현재 시제의 종결형 bi

a. musei cooha julergi golo de sunja tanggū bi, (8:9:1) 우리 병사가 남로(南路)에 500명이 있다.

b. jai yehe ci burulame genehe juwan niyalma bi, (14:3:1) 또 Yehe에서 도망하여 간 열 사람이 있습니다.

c. niyalma de bisire ehe mujilen, gemu ede yooni jalu bi, (14:48:3) 사람에게 있는 악한 마음이 모두 이 여자에게 온통 가득 있다.

반면 과거형에서는 다른 동사와 마찬가지로 -ha가 결합한 bihe 형태가 사용된다.

---

108) 유일하게 -mbihe가 de와 함께 사용되어 시간부사절을 이룰 수 있다.

109) 河內良弘·清瀨義三郎則府(2002: 113-115)에서 akū, bi, joo를 '無活用動詞'로 다루고 있다.

(2) 종결형 과거 bihe

a. sure kundulen han, orin sunja se ci, ehe kuren de eljeme dain dailara de, cooha uksin komso bihe, (4:58:7) Sure Kundulen Han이 25세부터 Ehe kuren에 맞서서 전쟁을 할 때 병사와 갑옷이 조금 있었다.

b. nikan i tumen coohai sindaha amba poo emu tanggū, ajige poo emu minggan bihe, (6:52:4) 명의 병사 1만 명이 배치한 큰 포 100문, 작은 포 1000문이 있었다.

c. monggo gurun i sunja tatan i kalka de, coohai geren, ulha i ambula, gurun i bayan, jaisai de bihe (11:29:1) 몽골국의 Kalka 5부에서 여러 군사, 많은 가축, 부유한 백성이 Jaisai에게 있었다.

한편 종결형에서 -mbi가 붙은 bimbi 형태도 <만문노당> 태조조에 6회 출현하는데, (1)의 bi가 주로 '(사람 또는 물건이 어디에) 있다'는 의미로 형용사적 성격이 강하다면, bimbi는 주로 '(사람이 무엇을 하며) 있다'는 의미로 동사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110]

(3) 종결형 bimbi

a. amba age be emhun juleri unggifi, be gemu amala ainu bimbi (8:33:6) 큰 형을 혼자 앞에 보내고 우리 모두가 왜 뒤에 있습니까.

b. jai jaisanggū i boode, dobori inenggi arki omime, ulha wame sarin sarilahai bimbi, (16:34:5) 또 Jaisanggū의 집에서는 밤낮 술을 마시고, 가축을 잡아 잔치를 벌이면서 있습니다.

c. muke moo gaijara babe muse tuwakiyafi gaiburakūci, i ai jeme bimbi, (37:41:5) 물과 나무를 얻을 곳을 우리가 지켜서 얻지 못하게 하면, 적이 무엇을 먹으며 있겠는가(지내겠는가).

d. gung gairakūci ere caliyan kemuni bimbi, (62:15:3) 공을 세우지 않아도 이 녹은 항상 있을 것이다(유지될 것이다).

---

110) 정확히 같은 예는 아니지만, 남기심·고영근(2011: 130-131)에서 한국어의 이른바 '존재사'의 활용을 기술하면서, 이들이 동사와 형용사의 두 측면을 아울러 지니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즉 '있다'는 평서형에서는 '이 도시에는 큰 박물관이 있다'와 같이 형용사와 같은 활용을 하고, 관형형에서는 '큰 박물관이 있는 도시부터 구경하고 싶다'와 같이 동사와 같은 활용을 한다. 또 최근 들어 평서형에서 '있다'가 '있는다'가 되는 경향이 강하여 동사로서의 특징이 두드러져 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e. emu gisun be holtofi jai adarame bimbi, (64:16:6) 말 한 마디라도 속이고 또 어찌 있겠습니까.
f. meni aba cooha genehe amala, suwe ekisaka bimbio, (66:22:4) 우리가 몰이 사냥을 가거나 출병한 후에, 너희가 잠잠하게 있겠는가.

한편 bi가 비과거 관형형이나 명사형으로 사용될 때 다른 동사와 마찬가지로 분사 어미 -ra가 붙는데, 불규칙 활용형인 bisire 형태가 된다.

(4) 관형형과 명사형 bisire
a. mini yehe de bisire jui be baha manggi, (1:16:6) Yehe에 있는 내 아이를 구한 후에,
b. takūrara aha tarire ihan yalure morin eture etuku jetere jeku, neigen yooni bisire niyalma udu bi, (4:69:4) 부리는 노복, 밭가는 소, 타는 말, 입는 옷, 먹는 곡식이 골고루 모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c. mangga moo i abdaha de aiha i adali filtahūn bisire be safi, (5:7:6) 참나무 잎에 유리같이 투명하게 있는 것을 보고,

(4a-b)는 관형형이고, (4c)는 명사형이다. Gorelova (2002)에서는 (1)의 종결형 bi를 계사(copula)로, (4)의 bi-를 존재 동사(existential verb)로 구별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기술이다.

(5) Gorelova (2002: 368)에서 계사로 파악한 종결형 bi
abka de deye-ra[111] gasha bi, na de feksi-re gurgu bi
"Those flying in the sky are birds, those running on the earth are animals"

이 문장은 <청문계몽>의 권3 <청문조어허자>의 예문을 인용한 것인데, 이에 대한 한문 번역은 '天上有飛禽。地下有走獸。'로 되어 있으며 bi는 한문 有에 대응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관형형과 명사형의 bi-와 마찬가지로 존재 동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다음과 같이 형용사나 부정사의 과거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bihe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11) deyere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원문에는 deyere로 나타난다.

존재 동사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6) 형용사나 부정사의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bihe
a. tere cooha gidaha inenggi, genggiyen galga bihe, (1:6:5) 그 군사를 제압한 날은 밝고 맑았다.
b. emgeri sain gisun be gisureme ergembuhakū, umai de erdemu akū bihe, (1:26:2) 한 번도 좋은 말을 하여 편안하게 하지 않았다. 어떤 것에도 덕이 없었다.
c. jihe cooha be, emu majige andande wahangge, tere be niyalmai wara de wajirengge waka bihe kai, (9:10:6) 보내온 군사를 한 순간에 죽인 것, 그것은 사람이 죽여서 된 것이 아닌 것이었다.

만주어의 형용사와 부정사 akū, waka는 한국어와는 달리 활용을 하지 않으므로, 과거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bi-의 과거형인 bihe를 덧붙인 것인데, 이 때 bi는 존재 동사의 의미가 없고 단지 형용사와 부정사에 과거 시제 -ha를 연결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시제에서는 형용사와 부정사 단독으로 현재 시제의 의미를 가지므로 따로 bi를 사용하지 않는다.

한편 종결형에서 bi에 -ra가 붙은 불규칙 활용형인 bisire가 쓰여서 4.1.1에서 살핀 약속의 양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7) 약속의 양태 의미를 나타내는 종결형 bisire
mimbe emu juwan inenggi ujici, bi bisire, (19:29:4) 나를 한 열흘 살린다면 내가 있겠다(살아있겠다).

요약하면, 존재 동사 bi는 종결형에서 bihe, bimbi, bisire 등으로 다양한 활용형을 보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의미인 '있다'로 사용될 때는 어간 단독형인 bi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다른 동사와는 다른 이질적인 활용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112]

112) 이러한 bi의 특징은 -mbi의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bi : bihe = 현재 : 과거'의 4항대립식을 통해 bi에는 영형태(Ø)의 현재 시제가 붙었다고 볼 수 있는데, 기원적으로 bi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mbi 역시 영형태의 현재 시제를 가진

5.1. 정동사 어미 -mbi

정동사 어미 -mbi는 분사 어미와는 달리 종결의 기능으로만 사용된다. 즉 -mbi가 결합한 형태가 명사를 수식하거나 명사처럼 사용되는 경우는 없다. -mbi 종결형은 현재 시제(present tense)가 전형적으로 가리킬 수 있는 진행 중인(progressive), 습관적인(habitual), 일반적인(gnomic) 상황을 모두 나타내며,[113] 화자의 주관적인 확신이나 객관적인 정황으로 미루어 일어날 것이 확실한 미래 상황을 지시할 수도 있다.

5.1.1. 현재 진행 중인 상황

-mbi는 발화시점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가리킬 수 있다.[114] 그런데 <만문노당>에는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는 경우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편년체 실록으로서 묘사보다는 서사 구조가 주를 이루는 <만문노당>의 특징을 반영하며, 대화문인 경우에도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청자에게 굳이 눈앞의 상황을 묘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현재 진행되는 눈앞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은, 가령 축구 경기에서 아나운서가 선수들의 움직임을 실시간 중계하거나, 어떠한 이유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에게 진행 중인 상황을 설명하거나, 전화 통화 중에 이쪽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등의 특수한 경우에 한정된

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mbi를 현재 시제가 아닌 어떤 다른 범주에 속한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6장에서 자세히 논의한다.

113) 현재 시제의 의미에 대해서는 Bybee et al. (1994: 126)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 책은 Comrie (1985)와 다르게 소위 '현재 시제(present tense)'를 시제(tense)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인데, '현재'가 가리키는 것은 발화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다양한 '비완망상적인 상황(imperfective situations)'이기 때문이다.

114) 선행 연구에서 만주어 -me bi- 형태를 '진행'을 나타내는 보조동사 구문으로 기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어도 〈만문노당〉에는 -mbi 종결형에 대립하는 -me bi 형태가 출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묘사하는 전형적인 형태는 -mbi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종결형 -me bihe나 -me bisu, 비종결형 -me bisire (de) 등의 형태는 〈만문노당〉에 나타나는데, 1.2.2에서 밝혔듯이 -me bi-가 '진행'을 나타내는 보조동사 구문으로 완전히 문법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것으로, <만문노당>에는 물론 이러한 경우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mbi를 이용하여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기술되는 상황은 대부분 눈앞에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8)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지시하는 -mbi

a. sini cooha be geren seme, sini gurun be amban seme mimbe gidašambi kai, (4:9:7) 그대의 군사가 많다 하며, 그대의 나라가 크다 하며 나를 압박하는 것이다.

b. bi abka na de baifi, nikan gurun be dailaha, dailaci, abka na mimbe urušefi gosimbi, (10:32:5) 나는 하늘과 땅에 빌고 명을 정벌하였다. 정벌하니 하늘과 땅이 나를 옳다고 여겨서 아낀다.

c. abkai emgeri buhe doro be aljaburahū seme, gurun i ejen han olhome geleme, doro be akdun jafafi banjimbi, (11:1:6) 하늘이 한 번 준 도(道)를 놓칠까 하여 백성의 주인인 Han이 저어하고 두려워하여 도를 굳게 지키며 산다.

d. han hendume, bi sambi, (14:31:2) Han이 말하기를 "나도 안다."

e. amba fujin i dolo ambula jobombi, tuwa de deijirahū, muke de maktarahū, hairakan suje seme hendure jakade, (14:45:2) Amba Fujin 이 속으로 크게 걱정합니다. '불에 탈세라, 물에 던질세라, 아까운 비단' 하고 말하므로,

f. jase jakai nikan gemu tucifi jušen i babe nungnembi seme donjifi, (5:8:4) 국경 주변의 한인이 모두 나와서 여진 땅을 침범한다는 것을 듣고서

g. bojiri bucere de geleme banjire be buyeme, geleme geleme jimbi seme donjifi, (6:3:2) Bojiri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살기를 원하며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며 온다는 것을 듣고서,

h. jurafi genere de, niowanggiyaha i jugūn de geli cooha sabumbi seme karun i niyalma alanjiha, (8:10:2) 출발하여 갈 때에 Niowanggiyaha 길에서 또 병사가 보인다 하며 정탐병이 알려 왔다.

i. coohai niyalma gemu musi omifi beye ergembi, kalka gamara onggolo, hoton i niyalma be dahacina seme hūlame gisureci, (12:4:6) "병사가 모두 미숫가루를 마시고 몸을 쉬고 있다. 방패를 가지고 가기 전에 성의 사람은 항복하라" 하고 소리쳐 말하니,

(8a-e)는 '압박하다', '아끼다', '살다', '알다', '걱정하다' 등 물리적 실체를 가지지 않는 상황으로, 당연히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8f-i)의 '침범하다', '오다', '보이다', '쉬다' 등은 물리적 실체를 가지는 상황이지만, 전언(傳言)이기 때문에 눈앞에 진행 중인 상황을 묘사하는 것은 아니다. -mbi가 눈앞의 상황을 묘사하지 못하는 것이 자료의 제약인지, 본래의 의미상의 제약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mbi가 발화시점 현재 진행 중인 구체적인 상황을 기술할 수 있음은 확실하다.

그런데 분사 어미 -ra와 마찬가지로, -mbi가 가리키는 현재 진행 중인 상황과 습관적 상황은 그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다. (8a-e)와 같은 상태 동사들은 현재를 포함하는 한정된 시기의 속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아래에서 살필 습관적 상황과 구별하기 어렵다. 반면 (8f-i)는 비교적 현재 진행의 의미가 강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5.1.2. 습관적 상황

-mbi는 현재를 포함하는 일정한 시기에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을 지시할 수 있다. 이는 그 시기를 특징짓는 속성이라는 점에서 현재에도 유효한 상황으로 볼 수 있으며 반드시 발화시점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일 필요는 없다.

(9) 습관적 상황을 지시하는 -mbi

a. muse be tondo seme abka saišafi, genehe genehe bade abka aisilame dafi etembi bahambi kai, (10:17:3) 우리를 바르다며 하늘이 칭찬하여 가는 곳마다 하늘이 돕고 구원하여 이기고 획득하는 것이다.

b. tere anggala, amba fujin, amba beile i boode, emu inenggi juwe ilan jergi niyalma takūrambi, (14:38:1) 게다가 Amba Fujin이 Amba Beile의 집에 하루에 두세 차례 사람을 보냅니다.

c. jai jaisanggū i boode, dobori inenggi arki omime, ulha wame sarin sarilahai bimbi, (16:34:5) 또 Jaisanggū의 집에서는 밤낮 술을 마시고, 가축을 잡아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d. g'ao giya jung sebe gecuheri suje jodombi, sese arambi seme

tukiyefi, (48:15:5) G'ao Giya Jung 등을 '망룡단과 대단을 짠다, 금사를 만든다' 하여 천거하고

이러한 상황은 '구체적인 대상의 한시적 속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대상의 영구적 속성'을 나타내는 아래의 일반적 사실과 구별할 수 있다.

5.1.3. 일반적 사실

보편적 진리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리지 않으며, 당연히 현재에도 유효한 상황이다. 앞서 제시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습관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mbi가 모두 현실의 구체적인 상황을 지시한다면, 일반적 사실을 나타내는 -mbi는 특정한 대상 및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보편적인 가능 세계를 지시한다고 할 수 있다.

(10) 일반적 사실을 지시하는 -mbi

a. alha futa be saci, horonggo meihe gese gūnimbi, cilcin muke be saci, mederi mukei gese gūnimbi, (2:19:3) 알록달록한 끈을 보아도, 독 있는 뱀처럼 생각한다. 물집의 물을 보아도, 바닷물같이 생각한다.

b. gurun de jekui alban gaici, gurun jobombi (3:3:1) 백성에게 곡식으로 공물을 받으면 백성이 고통을 받는다.

c. dain de jamarame jilgan tucici, bata serembi, abade jamarame jilgan tucici, alin urambi, gurgu genembi (4:27:6) 전쟁에서 떠들며 소리를 내면 적이 알아챈다. 사냥할 때 떠들어 소리를 내면 산이 울리고 짐승이 가버린다.

d. abkai wakalaha niyalma anabumbi bucembi. (6:22:3) 하늘이 책망한 사람은 패한다. 죽는다.

(10a)는 격언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격언은 보편적 진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mbi가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10b-d)의 상황도 특정한 대상과 시공간에 한정되지 않는 보편적인 진리를 나타

낸다고 할 수 있다.

5.1.4. 미래

앞서 살핀 -mbi의 용례가 주로 발화시점 현재와 관련된 상황을 가리킨다면, 아래의 -mbi는 발화시점 기준 미래의 상황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11) 미래를 지시하는 -mbi
a. minde ehe deote, minde ehe ambasa be, bi han tehe manggi wambi (3:8:2) 나에게 잘못한 동생들, 나에게 잘못한 대인들을 내가 Han이 된 후에 죽이겠다.
b. ere bithe arafi deijihe be, atanggi bicibe han donjimbi dere, donjiha manggi, mimbe geren i juleri wambi, (3:18:6) 이 글을 써서 불사른 것을 언젠가는 Han이 들을 것이다. 들으면 나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죽일 것이다.
c. ere arki be omifi jai daharakūci suwende ehe dere, simbe afafi te uthai wambi seme hendufi tere arki be omiha (12:35:5) “이 술을 마시고도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쁜 것이니, 너를 공격해서 곧바로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그 술을 마셨다.

그런데 미래 지시의 용법을 가지는 -mbi는 4.1.1에서 살핀 미래 지시 용법의 -ra 종결형과 그 분포와 의미가 다르게 나타난다. 평서문 -ra 종결형이 오직 1인칭 주어만 가지는 제약이 있는 데 반해, -mbi는 이러한 제약 없이 모든 인칭을 주어로 취할 수 있다. (11a)에서는 1인칭 주어와, (11b)는 3인칭 주어와 결합하여 미래 상황을 지시하고 있다. 1인칭 화자를 취하는 경우에도 -ra 종결형과 의미상 차이가 있는데, <만문노당>에 출현하는 모든 -ra 종결형은 ‘2인칭 청자가 수혜자가 되는 1인칭 화자의 미래 행동의 약속’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데 반해 -mbi는 (11a)와 같이 1인칭 화자의 미래 행동의 대상이 2인칭 청자에 한정될 필요가 없으며, (11c)와 같이 2인칭 청자를 죽이겠다는 위협도 가능하다.

즉 -ra에 비해 분포와 의미에서 제약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앞서 3.1에서 살핀 <청문조어허자>의 기술을 참고하면, 미래를 지시하는 -mbi와 -ra의 차이에 대한 만주인들의 직관을 확인할 수 있다.

(12) <청문조어허자>에 대조한 -mbi 종결형과 -ra 종결형
bi urunakū anambi 我必定推。bi uthai anara 我就推呀。
bi urunakū erimbi 我必然掃。bi uthai erire 我就掃呀。
bi urunakū obonombi 我必正去洗。bi uthai obonoro 我就去洗啊。

-mbi에 대해서는 부사 urunakū '必(반드시)'를, -ra에 대해서는 부사 uthai '就(곧)'를 함께 사용하여 대조하고 있다.[115] 이는 -mbi로 나타내는 미래가 '반드시 일어날' 미래로 인식됨을 보여준다. <만문노당>에서 미래 지시의 -mbi가 사용되는 문맥과 <청문조어허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미래 상황을 지시하는 경우 -mbi는 '주관적 확신이나 객관적 근거에 기반하여 어떤 상황이 미래에 일어날 것을 예정 또는 확신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mbi의 미래 지시 용법은 영어에서 현재 시제가 시간 부사 등과 함께 사용되어 예정된 미래를 나타내는 용법과도 유사하다.[116]

(13) Comrie (1985: 47)에 제시된 영어 현재형의 미래 용법
The train departs at five o'clock tomorrow morning.

영어에서 현재 시제가 미래의 용법을 가지는 경우는 계획된(scheduled) 상황을 가리키는 경우에 국한되며 '*It rains tommorrow'와 같이 상식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의 경우에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

115) 예문에서는 부사 urunakū와 uthai를 함께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들을 반드시 함께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116) Bybee et al. (1994: 319)에서는 "I see the President tomorrow at 3 p.m."에서와 같이 현재형을 이용하여 계획되었거나(scheduled) 예측되는(expected) 미래를 표현하는 경우를 'expected future'로 명명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expected**: the situation is to occur in the near future; what is scheduled to happen; qualifies future."

는 것이 어색하다.

한국어에서도 일어날 것이 확실한 것으로 예측되는 미래 상황에 대해서 현재 시제를 사용할 수 있다.[117]

(14) 확실한 미래를 가리키는 한국어 현재 시제
a. 2020년에는 인도의 인구가 중국을 추월한다.
b. 2020년에는 아마 인도의 인구가 중국을 추월할 것이다.
c. ?2020년에는 아마 인도의 인구가 중국을 추월한다.

(14c)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부사 '아마'가 나타내는 불확실성이 현재 시제가 나타내는 확실성과 상반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영어와는 달리 한국어는 열차의 출발 시간과 같이 계획된 미래가 아니더라도 화자가 주관적으로 확신하는 미래 상황에 대해서 현재 시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내년엔 배우자를 만난다'는 무속인의 예언이나 '넌 꼭 성공한다'는 친구의 격려가 그런 것이다. 만주어 -mbi도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미래 상황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확신을 함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만주어 문어에서 -mbi가 사실과 다름없이 여겨지는 미래 상황을 지시한다면, 그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여겨지는 미래 상황도 표현할 수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만주어 문어에는 '명제에 대한 확실성의 정도'를 표현하는 인식 양태(epistemic modality)와 관련된 첨사(particle)로 dere와 kai가 있는데, 이들의 결합 여부에 따라 대략 다음과 같이 세 단계의 인식 양태의 정도성을 부여할 수 있다.[118]

(15) 만주어 문어에서 인식 양태의 정도성
a. 무표적(사실)[119]: jai inenggidari monggo ci juwan orin boo kemuni

117) 한동완(1984)에서 화자의 주관적 인식에 의해 현재 상황과 같이 확실한 것으로 인식되는 미래 상황에 현재 시제 '-느-'가 결합되는 것으로 보았다.

118) Gorelova (2002: 369-370)에서 kai는 진실(truth, trustworthiness)의 양태 의미(modality)를, dere는 가정의(suppositional) 양태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河内良弘·清瀬義三郎則府(2002: 134)에서는 kai와 dere를 '强調·指定·斷定終助詞'에 포함시키고 각각의 의미를 "です, である"와 "であろう, であないか, なのだ" 등으로 파악하였다.

119) Bybee et al. (1994: 179) "The unmarked case in this domain is total commitment to the truth of the proposition, and markers of epistemic modality

ukame jimbi. (35:29:2) 또 매일 몽골로부터 10, 20가구가 항상 도망하여 온다.

b. dere(개연성): tere gemu mini ujire algin de jimbi dere, (71:18:5) 저들은 모두 내가 보살핀다는 소문에 오는 것이리라.

c. kai(확실성): musei gurun irgen be ujire be donjifi, uttu muse be baime jimbi kai, (11:12:3) 우리나라가 백성을 보살피는 것을 듣고서, 이렇게 우리에게 귀부하여 오는 것이다.

(15)는 현재 상황을 지시하는 -mbi의 경우인데, (15a)는 가장 객관적으로 사실을 보고하며, (15b)와 (15c)는 각각 dere와 kai가 붙어서 개연성(probability)과 확실성(certainty)에 상당하는 양태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정도성은 미래 상황을 지시하는 -mbi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16) 미래 상황에 대한 인식 양태의 정도성

a. 무표적: suweni ujulafi jihe darhan hiya be gaji, bi wambi, tuttu akūci, ere weile badarambi seme (5:11:1) "너희들의 우두머리로 온 Darhan Hiya를 데려 오라. 내가 죽이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이 더 커진다" 하며

b. dere: ere bithe arafi deijihe be, atanggi bicibe han donjimbi dere, (3:18:6) 이 글을 써서 불사른 것을 언젠가는 Han이 들을 수 있다.

c. kai: tuttu mergen sain oci, abkai afabuha gurun be saikan ujici, abka geli saišambi kai, (4:57:3) 그렇게 지혜롭고 선량하면, 하늘이 맡긴 백성을 잘 보살피면, 하늘도 칭찬할 것이다.

즉 만주어 문어에서는 현재 사실과 같이 여겨지는 확실한 미래의 경우 -mbi를, 개연성이 높은 미래의 경우 -mbi dere를, 확실성 양태를 보이는 미래의 경우 -mbi kai를 사용하여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들의 정확한 범위와 의미에 대해서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본고에서는

---

indicate something less than a total commitment by the speaker to the truth of the proposition." 이에 따르면 무표적인 -mbi가 명제의 사실 여부에 가장 확신적이고(total commitment), 유표적인 형태가 덧붙은 -mbi kai나 -mbi dere는 그 확신의 정도가 순서대로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dere나 kai가 붙지 않는 -mbi가 양태 의미에서 사실과 다를 바 없는 확실한 미래를 나타낸다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즉 -mbi는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데, 미래의 경우 '확실한 미래'라는 제한된 의미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확실성'이나 '개연성' 등의 다른 양태 의미는 dere나 kai 등을 덧붙여서 표현할 수 있다.

5.1.5. 부정(否定)형

1.2.2에서 밝혔듯이 부정형은 본고의 논의 대상이 아니지만, -rakū의 경우 분사 어미 -ra와 정동사 어미 -mbi에 공통되게 부정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 기술한다. 정동사 어미 -mbi의 부정은 -rakū로 나타나는데, 이는 기원적으로 분사 어미 -ra와 akū '없다'가 결합한 형태로 생각된다.[120] 한편 -ra의 부정형도 -rakū로 나타나므로 -mbi의 부정형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mbi와 -ra의 분포와 의미 차이를 생각하면 이들은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mbi는 종결형으로만 나타나며, -ra는 종결형에서는 '약속'의 양태 의미를 가지는 수행문(performative)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부정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121] 따라서 명사형과 관형형에 나타나는 -rakū 부정형을 -ra의 부정형으로 볼 수 있다.

(17) 부정형 -rakū

a. sahaliyan ula kiyoo caha adali dehi morin adaci ome hetu lasha juhe jafaha serengge be, emu majige tašan seme gūnirakū. (5:25:7) Sahaliyan강이 다리를 놓은 것처럼 말 40마리가 나란히 갈 수 있도록

120) 이렇게 -mbi가 활용형에서 제한된 분포를 보이는 것은 -mbi가 -ra에 비해서 늦게 발달한 형태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121) 3.1.1에서 살폈듯이 -ra 종결형은 1인칭 주어 제약을 가지며 '약속'의 양태 의미를 가지는 수행문으로 기능하는데, 이러한 '약속' 자체는 부정형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약속의 대상이 되는 명제 부분만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래 예문에서 명제 부분은 -rakū로 부정하고 '약속'을 나타내는 -ra는 계사처럼 사용된 o- '되다'와 결합하여 ojoro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mende ambula bume, suwende komso buci, be gaijarakū ojoro, (13:19:1) 우리에게 많이 주고 당신들에게 적게 주면 우리는 받지 않겠습니다.

가로질러 얼음이 얼었다고 하는 것을 조금도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b. mimbe ujirakū, ujihe han de amasi genembi seme habšara jakade, (5:35:6) “나를 돌보지 않는다. 돌봐준 Han에게 되돌아가겠다” 하며 호소하기 때문에

c. ehe be gūnici, emu inenggi andande, sain doro be ududu jalan de baici baharakū sere seme, (1:20:4) ‘불화를 생각하면 하루 순식간이고, 우호의 길은 몇 세대 동안에 구해도 얻지 못한다’고 한다 하며

d. han i jase be yaya dabarakū seme gashūha, (1:22:3) “Han의 경계를 누구도 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맹세했다.

e. weile buci baharakū niyalma oci, beyebe tantafi weile waliyambi, (4:30:6) 죗값을 줄 수 없는 사람이면 몸을 때려서 죗값을 치른다.

f. iselerakū niyalma be ume wara seme (6:25:3) “저항하지 않는 사람은 죽이지 말라” 하며

g. suwe coohai niyalmai hūsun tucime afara be, hūsun tucifi afarakū be saikan tuwa, (10:1:5) 너희들은 병사가 힘써 싸우는 것과 힘써 싸우지 않는 것을 잘 보라.

h. dahara daharakū be suwe inu ambula seolehe de sain kai, (6:32:2) 항복할지 항복하지 않을지를 너희들도 깊이 숙고하는 것이 좋다.

(17a-d)는 종결형으로 나타나는 -rakū로서 -mbi의 부정형으로 볼 수 있으며, (17e-h)는 관형형과 명사형으로 나타나는 -rakū로서 -ra의 부정형으로 볼 수 있다. 그 시간적 지시는 역시 -mbi와 -ra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비과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5.1.6. 시상 대립과 무관한 용법

과거 상황을 기술하면서 -mbi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특정한 환경에서만 나타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mbi의 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18) 병렬 구문에 사용된 -mbi

a. ula i bujantai beilei cooha, inenggi oci, hecen ci tucifi birai cikin de ilimbi, dobori oci, hecen de dosifi dedume bihe, (2:11:5) Ula의 Bujantai Beile의 군사가 낮이 되면 성에서 나와서 강가에 진을 치고, 밤이 되면 성에 들어가서 잤다.

b. nikan cooha duka be dasimbi, jušen i cooha duka be neime durinuhei, tere temšeme durinure šolo de, (10:9:1) 명 병사가 성문을 닫으며 여진 병사가 성문을 열며 서로 빼앗으면서 다투며 장악하는 사이에,

c. mini juleri ohode, gemu meni meni beyebe janggingga fafungga mergen baturu arambi, enggici ohode, han sarkū seme hutu i mujilen jafaci, abkai sindaha han serengge, oilori waka kai, (11:3:3) 내 앞에서는 모두 각각 자신이 Janggin이 된 자, 법 판결하는 자, 현자, 영웅인 척 행세하고, 뒤에서는 Han이 모른다 하여 망령된 마음을 먹어도, 하늘이 내린 Han이라는 존재는 경솔하지 않다.

이들은 4.1.4에서 살핀 병렬 구조에 사용된 -ra와 그 용법이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18a-c)는 각각 '-mbi ... -me bihe', '-mbi ... -me', 'mbi ... ci'의 구조를 보이는데, 이 때 -mbi는 후행하는 문법 형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mbi는 tuwaci '보니' 등의 구문에 후행하여 과거 상황을 지시하는 경우가 있다.

(19) tuwaci 구문과 나타나는 -mbi

a. tereci genefi honin erinde jaifiyan de isinaha, //isinafi tuwaci, nikan i juwe tumen cooha, jaifiyan i hoton araha ninggude ilifi afambi, yafahan cooha girin hada i amba ninggude ilihabi, nikan cooha jai emu kuren, sarhū i alin i ninggude ilihabi, neneme yafahan be tuwakiyame genehe duin tanggū morin i coohai niyalma, nikan i julergi amba ing ni cooha be dulembufi, amargi uncehen de dosifi, sarhū i angga ci sacime jaifiyan i dogon de isitala wahabi,// tereci geren cooha isinaha manggi, girin hada i ninggui yafahan cooha, nikan i cooha be wasihūn gidafi emu tanggū isirakū waha, (8:11:2) 그러고 나서 더 나아가 미시(未時)에 Jaifiyan에 도달하였다. //도달해서 보

니, 명의 병사 2만이 Jaifiyan 성을 쌓아 놓은 위에 포진해서 공격하고 있다(공격하고 있었다). 우리의 보병은 Girin 봉(峰)의 최정상에 진치고 있었다. 명군의 또 한 부대는 Sarhū 산의 꼭대기에 진치고 있었다. 먼저 보병을 지키러 간 기병 400명이 명의 선봉 대영(大營)의 병사를 지나가게 하여 후미로 들어가서 Sarhū의 입구로부터 베어 나가며 Jaifiyan 나루에 도달할 때까지 죽였다.// 그러고 나서 많은 병사가 도달하자 Girin 봉 위의 보병이 명군을 아래로 돌파해서 100명이 조금 안 되게 죽였다.

b. han i beye, yehe i wargi hoton i julergi ala de tefi tuwaci, hoton i julergi dere, šun tuhere ergi dere de afara duin gūsai coohai niyalma, hoton de kalka be hanci ibeme gamarangge goidambi, (12:7:7) Han이 몸소 Yehe의 서성의 남쪽 언덕에 앉아서 보니, 성의 남쪽, 서쪽에서 공격하는 네 기의 군사가 방패를 성에 가까이 전진해 가는 것이 더디다(더디었다).

(19a)에서 isinafi tuwaci '도달해서 보니' 이하의 "// ... //"로 표시한 부분은, -mbi나 -habi 등 현재 시제 형태를 가지나, 문맥상 과거 상황을 지시한다. -mbi가 과거 상황을 지시하기 때문에 앞서 살핀 -mbi의 현재와 미래 지시 용법과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반드시 tuwaci '보니' 또는 이에 상당하는 표현과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있다. (19b)에서도 '군사가 전진하는 것이 더딘' 상황은 과거 상황이지만 -mbi 형태가 사용되었다. 역시 tuwaci '보니' 구문이 선행하는데, 이러한 '인지 동사' 구문이 기준시점을 과거로 옮겨서 마치 발화시점 현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처럼 묘사한다는 설명도 가능하다.[122]

5.1.7. -mbi의 의미: 비과거(non-past)

122) 소위 "역사적 현재(historical present)"로 불리는, 현재 시제를 이용하여 과거 상황을 기술하는 경우로도 볼 수 있다. "A Present Tense is also used in some languages as an optional narrative tense, what is called the "historical present." In this case, the past time reference is established and the entire sequence of narrative events is expressed in the present tense." (Bybee et al. 1994: 319)

만주어 문어에서 정동사 어미 -mbi는 발화시점 현재 진행 중이거나 습관적 상황, 일반적 사실 등 현재 시제와 관련된 상황을 가리킬 수 있다. 또한 -mbi는 미래 상황을 지시하는 데 전형적으로 사용되는데, -mbi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 '일어날 것이 확실한 것으로 여겨지는(expected)' 미래 상황을 가리킨다.[123] 만주어 문어에서 미래 상황을 지시하는 문법 형태가 달리 없고, -mbi가 문맥에 따라 현재와 미래를 모두 가리키기 때문에 -mbi를 '비과거' 시제로 명명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것으로 보인다.[124]

5.2. 정동사 어미 -mbihe

종결형으로만 나타날 수 있는 -mbi와는 달리 -mbihe는 -mbihede(~ -mbihe de)와 같이 여처격 조사 de 앞에 사용되어 시간부사절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분사 어미 -ra/-ha와는 다르게 관형의 기능을 가지지 않으며, 명사의 기능을 가지는 경우도 -mbihede밖에 없고 이마저도 시간부사절이라는 특수한 용법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mbihe를 분사 어미보다는 정동사 어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 제시된 -mbihe의 의미는, 위에서 살핀 -mbi의 여러 의미를 그대로 나타내면서, 단지 상황시점이 과거라는 차이만을 보인다. 단지 -mbi의 의미 가운데 '일반적 사실'은 -mbihe에 나타나지 않는데, 이러한 일반

123) -mbi dere와 같이 '개연성(probabilty)'을 나타내는 첨사 dere와 함께 사용되어 덜 확실한 미래 상황을 가리킬 수 있다. 개연성을 나타내는 첨사 dere는 현재와 과거 상황에도 사용되며 미래 상황에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미래 시제'로 분류할 수 없다. 이는 영어의 will이나 한국어의 '-을 것이-'가 미래 상황을 가리키는 데 전형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미래 시제 요소로 볼 수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박진호 2011: 209 참조).

124) 그런데 -mbi의 '진행상', '습관상', '예정된 미래(expected future)'의 의미는 '비완망상'의 의미에 속하는 것이다. '진행상'과 '습관상'은 Comrie (1976)에서 제시한 비완망상의 주요한 두 하위범주이며 Bybee et al. (1994: 249-250)에서 '예정된 미래(expected future)'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술된 4개 언어 가운데 3개 언어가 비완망상 형태를 이용하여 이러한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mbi를 '비완망상 현재(present imperfective)'로 명명할 수도 있는데, 이는 '비완망상 과거' -mbihe와의 시제 대립을 고려한 것이다.

적 사실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보편적 진리로서, 일반적으로 현재 시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5.2.1. 과거의 진행 중인 상황

정동사 어미 -mbihe는 -mbi와 마찬가지로 진행 중인 상황을 지시할 수 있는데,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mbi와 달리 과거 상황을 지시한다는 차이만 있다.

(20) 과거의 진행 중인 상황을 지시하는 -mbihe

a. ya baci jihe, sini duwali udu bihe, absi genembihe seme (38:2:4) "어느 곳에서 왔느냐, 너의 무리는 몇 명이 있었느냐, 어디로 가고 있었느냐" 하고

b. ilan niyalmai canggi komso aibide genembihe, (39:18:4) 세 사람뿐인 적은 수로 어디로 가고 있었느냐.

c. ice sunja de, amba beile, amin beile, duici beile, dodo age, jirgalang age, jakūn hošonggo yamun de isafi weile beidembihe, (51:15:7) 초닷새에, Amba Beile, Amin Beile, Duici Beile, Dodo Age, Jirgalang Age 가 여덟 Hošonggo 아문에 모여서 죄를 심문하고 있었다.

d. tere šangname bure inenggi abka agambihe, (51:29:4) 상을 준 그 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있었다.

5.1.1에서 살핀 -mbi의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의 용법에서,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는 경우가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지적했는데, -mbihe가 과거에 진행 중인 상황을 묘사하는 것은 그리 드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눈앞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굳이 묘사할 필요성보다 과거에 있었던 상황을 묘사할 필요성이 더 많다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만문노당>에는 소위 '진행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술된 -me bi는 나타나지 않지만, -me bihe는 나타난다.

(21) -me bihe의 예

a. ula i bujantai beilei cooha, inenggi oci, hecen ci tucifi birai cikin de ilimbi, dobori oci, hecen de dosifi dedume bihe, (2:11:5) Ula의 Bujantai Beile의 군사가 낮이 되면 성에서 나와서 강가에 진을 치고 있고, 밤이 되면 성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다.

b. fulgiyan niowanggiyan siren sucufi, niyalmai hanci dahalame bihe, (3:35:3) 붉고 푸른 광선이 솟아 나와서 사람들 가까이 따르며 있었다.

c. tere šurdeme bihe duin hecen be kafi, daha seci dahahakū ofi, afafi gemu waha, (7:2:2) 그 둘러 있는 네 성을 포위하고, 항복하라고 해도 항복하지 않아서 공격하여 모두 죽였다.

d. bi ainambahafi karu gaijara seme gūnime bihe, (13:13:3) 나는 '어떻게 보복할 수 있을까' 하며 생각하고 있었다.

e. alin hada de samsifi beye somime bihe niyalma, gemu liyoodung ni baru baime jio (41:23:4) 산과 언덕에 흩어져서 숨어 있던 사람은 모두 요동 쪽으로 귀부(歸附)하여 오라.

그런데 <만문노당>에서 -me bihe가 -mbihe와 같은 정도로 '과거 진행 중인 상황'을 나타내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me bihe의 예들은 부동사 어미 -me의 의미(동시적 상황)와 존재 동사 bi-의 의미(있다)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도 해석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21a)는 '자면서 (성에) 있었다', (21b)는 '따르면서 (사람들 가까이) 있었다', (21c)는 '둘러서 (옆에) 있는', (21e)는 '숨어서 (산과 언덕에) 있던'과 같이 장소 표현을 -me 부동사와 bi- 사이에 넣어도 어색하지 않다. 반면 (20a)를 '가면서 (어디에) 있었느냐'로 해석하거나 (20d)를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서 (어디에) 있었다'로 해석하는 것은 문맥상 자연스럽지 않다. 본고에서는 *-me bi > -mbi, -me bihe > -mbihe의 통시적 발달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공시적으로 -me bihe가 -mbihe와 같은 정도로 '과거 진행 중인 상황'을 가리킨다는 결론은 유보하는 입장이다.

5.2.2. 과거의 습관적 상황

<만문노당>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mbihe의 용법이다.

(22) 과거의 습관적 행위를 지시하는 -mbihe

a. bi donjici, julgei mergese gisurembihe, mederi muke debenderakū, han i mujilen gūwaliyandarakū seme hendumbihe, (4:8:6) 내가 듣자하니, 옛날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바닷물은 넘치지 않으며, 황제의 마음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b. tede aba abalara de, emu nirui niyalma emu niru bufi yabumbihe, (4:29:3) '그때에는 사냥할 때, 한 Niru당 큰 화살 하나를 주고서 다녔다.'

c. yaya dain cooha yabure de, juwe dain i karun tucifi yabure de, inu sure kundulen han i karun i niyalma neneme sabumbihe, (4:60:3) 무릇 전쟁에 출병할 때 두 진영의 초병이 나가 다닐 때에도 Sure Kundulen Han의 초병이 먼저 알았다.

d. juwe karun acafi afanuci, inu sure kundulen han i niyalma etembihe, (4:60:5) 두 초병이 맞닥뜨리고 서로 공격할 때에도 Sure Kundulen Han의 병사가 이겼다.

e. sain sabuha niyalma be bata kimun seme gūnirakū gung arafi wesibumbihe, (4:65:2) 장점을 보인 사람은 적이나 원수라도 고려하지 않고 공을 인정하여 등용했다.

(22a)에서 인용하고 있는 옛 현인들의 말씀은 과거의 특정 시점에 한 차례 발화되었다기보다는 여러 차례 발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22b-e)는 태조 누르하치의 행적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부분으로, 역시 과거의 특정한 상황을 하나하나 가리킨다기보다는 과거의 일정한 시기를 특징짓는 속성 또는 습관적인 상황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5.2.3. 과거 시점에서 예정된 미래

5.1.4에서 -mbi가 '일어날 것이 확실한 것으로 예측되는 미래'를 지시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는데, -mbihe 또한 과거의 기준시점에서 예정된 미래를 가리킬 수 있다.

(23) 과거의 기준시점에서 예정된 미래를 지시하는 -mbihe

a. jušen juwe tanggū haha gaimbihe, (18:4:7) '속민 2백 장정을 빼앗을 것이었다.'

b. cen wan wei emgi jeku hūlhaha wang bing giye gebungge ciyandzung be wambihe, ahūn wang ši giye giyansi bahafi benjihe gung de ujihe. (60:34:4) Cen Wan Wei와 함께 곡식을 훔친 Wang Bing Giye라고 하는 천총은 죽일 것이었는데, 그 형 Wang Ši Giye가 첩자를 잡아서 보내 온 공을 보아 살려 주었다.

c. orin ilan yan i weile waliyambihe, emu yan sunja jiha faitaha, orin emu yan sunja jiha bi, (63:5:4) 23냥의 죄를 면제할 것이었는데, 1냥 5전을 깎아서 21냥 5전이 있다.

이렇게 -mbihe를 이용하여 과거의 기준시점에서 예정된 미래를 기술하는 경우, 대개 예정된 행위가 중단 또는 취소되었다는 기술이 이어진다. 과거의 상황에 대해서는 -ha를 이용하여 기술할 수 있음에도 굳이 -mbihe를 이용하여 과거의 기준시점에서 예정된 미래를 언급하는 것은, 그것이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과 대비되는 복선을 제시하기 위한 용법으로 보인다.

5.2.4. 반사실 가정

한편 -mbihe는 '반사실(counterfactual) 가정'으로 부를 수 있는,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하는 용법으로도 사용되며, 대부분의 경우 -ha bici '-했으면'이라는 반사실 조건절이 선행한다.

(24) 반사실 가정을 나타내는 -mbihe

a. nikan i cooha olji dendenggele jihe bici, olji geli dulga ukambihe, (6:55:5) 명의 병사가 포로를 나누기 전에 왔더라면 포로가 또 반 이상 도망쳤을 것이다. (도망치지 않았다.)

b. ere jaisai beile be, ini beye i waka be gūniha bici, han wambihe dere, (13:8:2) 이 Jaisai Beile를, 그 자신의 잘못을 생각했더라면 Han이 죽였을 것입니다. (죽이지 않았다.)

c. jai guwangning, liyoodung ni cooha jasei jakade amcame jiderakū bihe bici, jasei dolo genembiheo, (6:55:2) 또 광녕, 요동의 병사를 경계 부근으로 추격하여 오지 않고 있었더라면 경계 안으로 갔겠는가. (갔다.)
d. monggo i bade bihe bici, gege de efu ama bihe, (60:14:5) 몽골 지역에 있었더라면, Gege에게 Efu가 아버지였을 것이다. (이곳에 있지 않으므로 아버지 항렬이 아니다.)
e. meni niyalma suweni bade genefi bahaci, suweni gaijara mujangga kai, tere genehe niyalma be bi inu weile arambihe, (43:15:7) 우리 사람이 너희 지역에 가서 획득하면, 너희가 가져가는 것이 옳다. 그 간 사람을 나 역시 치죄했을 것이다. (그런 일이 없어서 치죄하지 않았다.)

(24a-d)는 동사와 -ha bici가 결합하여, jihe bici '왔더라면', gūniha bici '생각했더라면' 등의 반사실 조건절을 구성한다. 한편 (24e)는 -ha bici가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선행 문장에서 bahaci '획득하면'이라는 조건절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정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다음과 같은 한국어와 영어의 예에서도 반사실 가정에 과거 시제가 사용됨을 볼 수 있다.

(25) 한국어와 영어의 반사실 가정의 예
a. 내가 너라면, 그걸 먹을 거야. / 내가 너였다면, 그걸 먹었을 거야.
b. If I were you, I would eat it.

먹을 것을 자제하고 있는 친구에게 먹을 것을 권유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가정적인 문장을 사용할 수 있는데, (25a)와 같이 한국어에서는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를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영어에서는 전형적으로 과거 시제를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mbihe의 반사실 가정의 용법도 -ha가 가지는 과거 지시의 의미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앞에서 살핀 '과거 시점에서 예정된 미래'를 나타내는 용법과 '반사실 가정'의 용법은 후자가 반사실 조건절 -ha bici에 후행한다는 차이만 있을 뿐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예측'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5.2.5. 시간부사절(-mbihede)

이 형태는 <만문노당> 태조조에서 -mbihe de로 분리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1례 있지만 대부분 -mbihede로 붙어서 나타난다. 그 의미에 대해서, 河內良弘·淸瀨義三郞則府(2002: 83)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26) 河內良弘·淸瀨義三郞則府(2002: 83)에 제시된 -mbihe de의 의미
a. 어떤 행동이 과거에 행해지려 하고 있는 때,
b. 어떤 행동이 과거에 습관으로서 행해지려 하고 있는 때,
c. 어떤 행동이 만일 행해지는 것이 있다면, 또는 만일 행해진 경우,
라는 의미를 표한다.

그런데 본고의 자료인 <만문노당> 태조조에는 (26c)의 의미만이 나타난다. 즉 과거의 상황을 가리키는 경우가 아니라, '가정적 상황'의 종속절을 이루는 데만 사용되었다. 이러한 용법은 이미 4.2.3에서 시간부사절 -ha de의 의미로 지적된 것인데, -mbihede와는 의미상 차이가 있다.

(27) -mbihede의 예
a. yaya fonde nikan gurun de acambihede gisurendufi emu hebei acambi, (13:27:3) 어떤 경우에도 명나라와 화친할 때는 함께 상의하여 합의한 후에 화친할 것이다.
b. monggo jase jakarame sabumbihede, balai ume necire, (21:32:2) 몽골인이 경계를 따라서 보인다면, 함부로 경계를 넘지 말라.
c. yargiyan be wambihe de, muse ume wara, (22:30:5) 진범들을 죽일 때, 우리가 죽이지 말라.
d. solho i elcin jimbihede, jugūn tuwakiyaha niyalma ilibufi, mao wen lung be bumbio burakūn seme fonji, (31:19:5) 조선의 사신이 오고 있으면, 길을 지키던 사람이 멈추게 해서, 모문룡을 넘겨줄 것인가 넘겨주지 않을 것인가를 물으라.
e. han, i jeo de genehe, aika mejige bifi takūrambihede, dalingho bira

be wesihun bitume i jeo be baime jio. (35:23:5) Han이 의주(義州)에 갔으니 무슨 소식이 있어서 사람을 보낼 때에는 대릉하(大陵河) 연안 동쪽을 따라서 의주로 찾아 오라.

앞서 살핀 -ha de가 '-하면' 또는 '-했을 때'의 의미를 가지며, 이 때 -ha de 종속절의 상황이 반드시 주절의 상황에 선행한다면, (27)에 나타난 -mbihede의 예들은 여러 차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거나, 또는 주절과 동시적인 상황을 가리킨다는 차이가 있다. (27a, c, e)에서 종속절의 상황은 한 차례 일어날 일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경우를 가리키며, (27b, d)는 종속절 상황과 주절 상황이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낸다. 대조적으로, 아래의 예문에서 -ha de는 역시 가정적 상황을 지시하지만, 종속절과 주절의 선후 관계 또는 인과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28) tere juwan nirui niyalma emu babe yaburakū, emu juwe niyalma bulcame ukame gūwa nirui emgi fere de yabuha de, tere yabuha niyalma de inu weile, (4:30:2) 그 열 Niru 사람이 같은 곳에 가지 않고 한두 사람이 벗어나서 도망하여 다른 Niru와 함께 사냥터에 다니면, 그렇게 간 사람에게도 죄가 있다.

5.2.6. -mbihe의 의미: 비완망상 과거(past imperfective)

정동사 어미 -mbihe는 '반사실 가정'을 제외하고는[125] 정동사 어미 -mbi의 의미, 즉 '진행 중인 상황', '습관적 상황', '예정된 미래'를 공유하는데, 단지 상황시점이 과거라는 차이가 있다. 이들 의미는 비완망상(imperfective)이 나타낼 수 있는 의미들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mbihe를 비완망상 과거(past imperfective)로 명명한다.

한편 -mbihe는 여처격 조사 de와 결합하여 시간부사절 -mbihede를 이루는데, 그 의미는 '가정적 상황'이라는 점에서 -ha de와 유사하다. 그

125) '반사실 가정'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예측'이라는 점에서 '과거 시점에서 예정되었지만 실현되지 않은 미래'와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 있으며, 단지 -ha bici '-했으면'이라는 반사실 조건절이 선행한다는 차이만 있다.

러나 -ha de가 주절에 선행하는 가정적 상황(적이 보이면 징을 치라)을 나타내는 데 반해 -mbihede는 주절 상황과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가정적 상황(적이 보이고 있으면 징을 치라)이나 여러 차례 나타날 수 있는 가정적 상황(적이 보일 때마다 징을 치라)을 가리킨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의미 또한 -mbihe의 비완망상 의미(진행상과 습관상)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5.3. 정동사 어미 -habi

-habi는 종결형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정동사 어미로 분류된다. 일부 선행 연구에서는 -habi와 -ha의 차이를 설명하지 않거나(박은용 1969), -habi를 정동사 어미로, -ha를 분사 어미로 파악하여 그 분포의 차이만 있지 의미는 같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오민석 2013),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ha와 -habi를 다른 형태로 구분하고 있으며, 대체로 -habi를 현재완료(present perfect)나 이에 준하는 용법으로 파악하고 있다. 완료(perfect)의 의미는 본고의 2.3에서 다루었듯이 '과거 상황의 현재 관련성(the continuing present relevance of a past situation)' (Comrie 1976: 52)을 주요한 속성으로 하며, '결과 지속'과 '경험' 등의 용법이 나타난다.

그런데 河内良弘·清瀬義三郎則府(2002: 74)에서는 -habi에 대해서 '과거의 행동이 종결된 상태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서술하는 용법'과 더불어 '과거의 행동이 이미 행해진 것을 강조하여 서술하는 용법'이 있으며, 이는 '일본어 문어의 たるなり에 대응하는 의미'라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강조'의 용법은 '현재 관련성'에 수반하는 부차적인 용법으로 보인다.

(29) '강조'의 의미를 가지는 -habi의 예(河内良弘·清瀬義三郎則府 2002: 74)

a. sini gurun efujeme wajihabi kai. (T.S. X. 13) 너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완결되었다. [필자: 지금 너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b. udu hacin yali alin i gese muhaliyahabi. (N. 15) 각종 고기가 산처럼 쌓였다. [지금 눈앞에 있다.]
c. jai emu ing ni cooha dobori burulame genehebi. (T.S. XXII. 21) 다시 한 영의 병사들이 밤에 도망쳐 갔다. [지금 우리의 군세가 기울었다.]
d. sunja hacin i boconggo tugi borhohobi. (N. 67) 오색 구름이 운집하였다. [지금 눈앞에 보인다.]

(29)의 모든 예들은 모두 '현재 관련성'의 의미를 가지나 '강조'의 의미를 필수적으로 가지는 것은 아닌데, 이는 (29a)에서 확실성(certainty)의 양태 의미를 가지는 첨사 kai가 -habi의 뒤에 붙는 것을 통해 확인된다. -habi가 강조의 의미를 가진다면 굳이 kai를 덧붙일 필요가 없다.

5.3.1. 결과 지속

영어의 'John has arrived'가 현재 존이 여기에 있음을 함의하는 것처럼, 과거 행위의 결과가 현재까지 지속되는 상황을 가리킨다.

(30) 결과 지속을 나타내는 -habi
a. ula i cooha hoton ci tucifi okdome jihebi, afaki, (2:27:5) Ula의 군사가 성에서 나와서 맞서려고 왔다. 공격하자.
b. tere sargan jui baibi banjiha sargan jui waka, gurun be efuleme banjihabi kai, (4:13:5) 그 딸은 그냥 태어나 딸이 아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태어난 것이다.
c. nikan cooha musei wehe juwere yafahan cooha jaifiyan i girin hada de tafaka be sabufi, girin hada be kahabi (8:11:3) 명 병사가, 우리의 돌 운반하는 보병이 Jaifiyan의 Girin봉에 오른 것을 보고 Girin봉을 포위하고 있다.
d. sini cooha gaifi jihe amba ajige hafan juwan niyalma be weihun jafafi, solho han simbe gūnime asarahabi, (9:20:6) 당신의 군사를 이끌고 온 대소 관원 열 명을 산 채로 잡아서, 조선의 왕 당신을 생각하여 살려 두었다.
e. bira bisakabi, na soktohobi, lifame muke dogon be dooci ojorakū oho manggi, adarame yabumbi (10:6:1) 강이 넘쳤고, 땅이 질척해졌다. 진창

에 빠져 나루를 건널 수 없게 되었으니 어떻게 갈 것인가.

(30)의 예들은 과거 상황의 결과 상태가 발화시점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30c)의 경우 kahabi가 '포위하고 있다'로 번역되어 과거에 시작된 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만, 이는 포위한 결과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한편 아래 (31)의 예들은 주어가 가지는 속성의 변화를 함의한다는 차이가 있다.

(31) 주어가 가지는 속성의 변화를 함의하는 -habi

a. coohai morin turgalahabi, olji morin macuhabi, niowanggiyan orho de morin tarhūbuki, (9:23:7) 군마가 야위었고 노획한 말도 초췌해졌다. 푸른 풀로 말을 살찌우자.

b. hecen inu sakdakabi, (26:32:1) 성 역시 낡았다.

c. šan kamcime banjihabi / 耳抿 / 귀 젓붓다 / šan amasi latumeliyan banjiha (<어제청문감> 6:6a) 귀가 뒤로 붙어서 태어났다.

d. kerkenehebi / 稠麻子 / 만히 얽다 / derei mase umesi labdu (<어제청문감> 6:2b) 얼굴에 마맛자국 매우 많다.

e. makjanahabi / 矬矬的 / makjan niyalma be hendumbihede makjanahabi sembi (<어제청문감> 6:8b) 난쟁이(makjan)를 일컬을 때 makjanahabi라고 한다.

(31a)에서 turgalahabi '야위었다'나 macuhabi '초췌해졌다'는 각각 turgala- '야위다'와 macu- '초췌해지다'라는 동사 어간에 -habi가 붙었는데, 과거 상황의 결과 상태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30)의 예들과 동일하지만, 그 결과 상태가 주어의 속성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habi의 용법은 특히 <어제청문감>의 표제어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31c-e)는 모두 부류(部類) 사전인 <어제청문감>에서 '인부(人部)'의 '용모류(容貌類)' 아래 등재된 것으로, 사람의 속성을 묘사하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다만 -habi는 '과거의 상태 변화'를 반드시 함의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를 함의하지 않

는 일반 형용사와 차이가 있다.[126]

5.3.2. 경험

정동사 어미 -habi는 현재 그 결과가 지속되지 않는 과거의 경험을 나타낼 수도 있다. 많은 선행 연구에서 -habi를 분사 어미 -ha와 존재 동사 bi의 결합으로 보고 있는데(Verbiest 1696, Zaxarov 1879, 박은용 1969, 최학근 1980, Gorelova 2002, 河内良弘·清瀬義三郎則府 2002 등), 분사 어미 -ha가 명사의 기능도 나타낸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능한 통사적 구성이다. 이러한 구성은 의미적인 면에서도 '-했음 있다' 또는 '-한 적 있다'로 직역할 수 있으므로 과거의 경험을 기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32) 경험을 나타내는 -habi

a. usin weilere yadara joboro urundere kangkara niyalma de ulebuhebio, (4:3:3) 밭일하고 가난하며 고생하고 주리며 목마른 사람에게 먹인 적이 있느냐.

b. darhan hiya be unggifi, jase tucike nikan be ucaraha ucaraha bade susai funceme wahabi, (5:9:5) Darhan Hiya를 보내서 경계를 넘는 한인을 맞닥뜨린 곳마다 50명이 넘게 죽였다.

c. julge aisin han, monggo han, ilan duin gurun be gemu uhe obume dahabufi banjihabi, (9:17:3) 옛 금나라의 황제와 몽골 황제는 서너 나라를 모두 통합하여 항복시켜서 지냈다.

d. ere mudan i cooha de, keyen i morin be gemu hūlhame yalucafi, ememu niyalma andala jugūn de sula boshobi, ememu niyalma boode isinjifi bošohobi, (11:2:4) 이번에 출병한 군사 중에서, 개원(開原)의 말을 모두 흠쳐 일제히 타고, 어떤 사람은 도중에 대충 몰고 왔고 어떤 사람은 집에까지 갔다가 몰고 왔다.

e. gūwa gurun i šajin fafun genggiyen akdun akū ofi, abka wakalafi, gurun i niyalmai mujilen be gemu facuhūn obuhabi kai, (11:2:6) 다른

126) 박상철(2016:150-152)에서 〈어제청문감〉에 등재된 -habi 표제어의 이러한 의미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나라는 법률이 분명하지 않고 견고하지 않아서, 하늘이 책망하고 나라의 백성의 마음을 모두 어지럽게 만들었도다.

위의 예에서 -habi가 가리키는 사건의 결과 상태를 발화시점 현재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결과 상태 지속'과는 다른 '경험'의 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용법은 모두 현재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즉 (32)에서 과거의 경험을 발화시점 현재 되살려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현재 상황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32a)의 경우 '여럿을 먹이겠다'는 이유로 혼인 잔치를 크게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대인을 나무라기 위해서 누르하치가 그 대인의 과거의 행적을 들춰내어 말하는 것이다. (32b)는 명나라와의 갈등이 시작된 배경 사건에 대하여 서술자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기술한 것이다. '현재 기술하고 있는 사건과의 관련성' 때문에 -habi가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32c)는 누르하치가 명나라와 전쟁 중에 있는 자신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과거의 전례를 언급한 것이다. (32d)는 누르하치가 부하들에게 '각각 맡은 의무를 저어하고 공경하며 법률을 굳게 지키고 위엄 있게 관할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그 근거로 언급한 과거 사건이다. (32e)는 이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역시 과거 다른 나라의 나쁜 전례를 들춰내고 있다.

5.3.3. -habi의 의미: 현재 완료(present perfect)

정동사 어미 -habi는 '과거 상황의 현재 관련성'을 주요한 의미로 하며, '결과 지속'과 '경험'의 용법을 가지는데, 이는 영어의 현재 완료(present perfect)의 용법과 유사하다. -habi는 그 의미나 형태를 고려하면 분사 어미 -ha와 존재동사 bi의 결합임이 확실한데, 전자에 초점을 맞추면 과거 시제로, 후자에 초점을 맞추면 현재 시제로 분류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habi를 현재 시제로 분류하는데, 아래에서 다룰 -ha bihe를 -habi의 과거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담화상의 기능에서 -habi는 과거 시제 -ha와 뚜렷이 구별되는데, -ha

가 사건을 진행시키고 줄거리를 구성하는 전경(foreground)의 역할을 한다면, -habi는 배경(background)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담화상의 기능 차이에 대해서는 본고의 7장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5.4. 정동사 어미 -ha bihe

정동사 어미 -ha bihe는 그 표기에서도 드러나듯이 분사 어미 -ha와 존재동사 bi의 과거형인 bihe의 연쇄로 볼 수 있다. 그 의미도 '과거 시점에서의 과거 상황', 즉 소위 대과거(pluperfect) 또는 과거 완료(past perfect)로서, -ha와 bihe의 결합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ha bihe'를 하나의 항목으로 다루고 있고, -habi와 시제 대립을 보이며, 일부 자료에서 -habihe 등의 융합된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본고에서도 하나의 형태로 다룬다. 한편 Zaxarov (1879)에서는 -ha bihe가 정동사(изъявительное '직설법')뿐 아니라 분사(причастие)으로도 나타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만문노당> 태조조와 본고에서 살핀 보조 자료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사실이다. 즉 -ha bihe는 종결형으로만 나타난다.

-ha bihe는 위에서 살핀 -habi와 같이 '과거 상황의 현재 관련성'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단지 그 기준시점이 발화시점 현재인 -habi와는 달리 과거의 어떤 시점이라는 차이가 있다. 즉 과거의 기준시점에서 상대적으로 더 과거 상황의 결과가 지속되는 상황이나, 과거의 기준시점에서 상대적으로 더 과거의 경험을 가리킨다. 따라서 의미적으로나 형태적으로나 -habi에 과거 시제 -ha가 덧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habi를 '현재 완료(present perfect)'로 명명하였으므로 -ha bihe는 '과거 완료(past perfect)'로 명명한다.

5.4.1. 결과 지속

정동사 어미 -ha bihe는 과거의 기준시점에서 상대적으로 더 과거 상

황의 결과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표현한다.

(33) 결과 지속을 나타내는 -ha bihe

a. sure kundulen han de dahaha ningguta goloi sengge, nikari gebungge juwe amban de, sure kundulen han dehi uksin buhe bihe, sengge, nikari tere dehi uksin be suifun de sindaha bihe, urgucen goloi niyalma suifun golo be sucufi, tere dehi uksin be gamaha manggi, (2:2:4) Sure Kundulen Han에게 항복한 Ningguta로의 Sengge, Nikari라는 두 대인에게 Sure Kundulen Han이 갑옷 40벌을 주었는데, Sengge, Nikari가 그 갑옷 40벌을 Suifun에 놓아두었었다. Urgucen로와 Muren로 사람이 Suifun로를 습격해서 그 갑옷 40벌을 가져가자,

b. nikan i wan lii han i tehe orin emuci meihe aniya cooha jihe bihe, tere jihe cooha be abka wakalafi bi etehe, (3:33:1) 명의 만력제 재위 21년 계사년(1593)에 군사가 왔었다. 그렇게 온 군사를 하늘이 책망해서 내가 이겼다.

c. ilan biyai orin jakūn i cimari, abka gerenggele tasha erinde, abkai boco sohon sorofi, niyalmai cira gemu sohon soroko bihe, han, yamun de tucifi tehe manggi, jai muduri erinde genggiyen oho. (4:6:1) 3월 28일 아침에 하늘이 밝기 전 인시(寅時)에 하늘의 색이 연황색이 되어 사람의 얼굴색이 모두 연황색으로 되었다. Han이 관아에 나가서 앉고 나서 진시(辰時)에 다시 맑아졌다.

d. ere nadan niyalma be gemu huthufi, wara weile maktaha bihe, han de alara jakade, wara weile be nakafi, amban seme buhe liyoodung de šangnaha aika jaka be gemu gaiha, (21:8:6) 이 일곱 사람을 모두 결박하고, 죽일 죄를 내렸었다. Han에게 알리니, 죽일 죄를 취소하고, 대신이라고 주었던 것과 요동성에서 포상한 것 등 온갖 물건을 모두 압수했다.

e. ana i sargan be wara weile araha bihe, tere be nakafi oforo šan be tokoho, (42:32:3) Ana의 처를 죽일 죄로 처분하였는데, 그것을 취소하고 코와 귀를 찔렀다.

(33a)에는 세 가지의 과거 상황이 제시되는데, 1) Sure Kundulen Han이 갑옷 40벌을 준 사건, 2) 그 40벌을 Suifun에 놓은 사건, 3) 그 40벌이 강탈당한 사건이 순서대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1)과 2)의 과거

상황은 -ha bihe가 결합하였는데, 이는 3)의 사건보다 상대적으로 과거에 발생한 상황의 결과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3)의 사건 이전의 관련된 배경 상황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ha bihe는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더 과거 상황의 결과 상태가 그 과거 시점의 상황과 관련성을 가지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1)과 2)에서 -ha bihe가 아닌 -ha가 결합하였더라도 3)보다 상대적으로 과거의 상황임을 가리키는 것이 가능하지만,[127] 이런 경우 시간적인 선후 관계만을 제시할 뿐, 상황들 사이의 관련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한다. 즉 -ha로 표현된 과거 상황과 후행하는 상황의 관련성이 선후 관계에 있다는 정황상 추측할 수 있는 것이라면, -ha bihe로 표현된 과거 상황과 후행 상황 사이의 관련성은 문법적으로 표현된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 (33b)도 마찬가지로, 1) 군사가 온 사건과 2) 그들을 (누르하치가) 물리친 사건은 모두 과거의 사건을 가리키지만 전자에는 -ha bihe가, 후자에는 -ha가 사용되었다. 정황상 전자와 후자가 관련된 사건이라는 것이 명확하지만, -ha bihe를 사용하여 그 관련성을 문법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33c)에서는 과거 어느 시점까지 지속된 결과 상태를 -ha bihe로 표현하였는데, 그 시점 이후 이러한 결과 상태가 어떠한 이유로든지 다른 상태로 변화하였다. 이렇게 -ha bihe는 대과거의 상황이 후행하는 과거 상황과 대조적인 상태임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33d, e)와 같이 벌을 내렸다가 그것을 나중에 취소하는 상황을 가리킬 때, 벌을 내린 상황에 -ha bihe가 주로 사용된다. 이들은 그 결과 상태가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32a, b, c)와 구별되는데, 그럼에도 '죄의 선고'가 과거의 기준 시점까지 유효하다는 점에서 결과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모든 예들은 -ha bihe가 과거의 특정 시점에, 더 과거에 있었던 상황의 결과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127) Comrie (1985: 28)에서 'be orderly (순서대로)'라는 Grice (1975)의 금언(maxim)을 인용하며, 대체로 이야기의 서술 순서가 원래 사건의 순서를 반영함을 지적하였다.

5.4.2. 경험

-ha bihe는 과거 시점에서 더 이전의 경험을 가리킬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기준 시점이 되는 과거 상황과의 관련성은 필수적이다.

(34) 경험을 가리키는 -ha bihe

a. sure kundulen han, musei nikan gurun i han soorin be durimbi seme henduhe biheni, tereci nikan han i dolo jobome bisire de, (3:30:7) Sure Kundulen Han이 우리 명나라의 황제 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었던 것이다. 그 때부터 명 황제가 속으로 걱정하고 있었는데,

b. etuhe fakūri sufi, enggemu akū morin yalufi burulame tucike bihe, tere dain de gidabuha orici aniya, ini sargan jui be amba genggiyen han de benjihe, (5:30:3) 입고 있던 바지를 벗고 안장 없는 말을 타고 패주하여 달아났다. 그 전쟁에서 격파된 지 스무 해째에 그의 딸을 위대한 Genggiyen Han에게 보냈다.

c. hada i niyalma yehe de dafi, minde juwe jergi cooha jihe bihe, bi karu dailara jakade, abka hada be minde buhe, (6:21:3) Hada의 사람이 Yehe를 도와 나에게 두 차례 병사가 왔었다. 내가 보복으로 정벌을 하자 하늘이 Hada를 나에게 주었다.

d. suweni dulimbai aisin gurun be abkai banjimbi seme gūniha bihe kai, yungji be han tebuci, suwe inu niyalma nikai (15:30:2) 너희들 중앙의 금나라를 하늘처럼 산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영제를 황제로 옹립하다니 너희들도 사람이구나.

e. bi dureng hūng baturu sinde akdafi doro jafaha bihe, sini beye deote juse be eterakū bade, te bi wede akdafi elcin yabure (15:44:3) 나는 Dureng Hūng Baturu 너를 믿고 도리를 지켰는데, 너 자신의 동생들, 자식들을 이기지 못하면 이제 내가 누구를 믿고 사신을 보내겠는가.

(34)의 예들에서 -ha bihe로 표현되는 과거의 상황들은, 후행하는 과거 상황의 시점을 기준으로 그 결과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들은 후행하는 과거 상황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는데, (34a, c)에

서는 인과적 관계를, (34b)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끝내' 정도가 개재하여 이어질 수 있는 양보적 관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34d)는 -ha bihe로 표현된 상황에 후행하는 과거 상황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발화시점 현재의 화자의 태도와 -ha bihe가 지시하는 그것이 상반된다는 점에서, 두 시점 사이에 어떤 상황이 있었으며 그 상황을 통해 이러한 변화가 발생했으리라고 판단할 수 있다. 즉 '금나라를 하늘처럼 떠받든 이전 과거의 상황-(이러한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된 과거의 상황)-금나라를 더 이상 하늘처럼 떠받들지 않는 현재의 상황'의 도식에서 괄호 안의 과거 상황이 명백히 서술되지 않고 잠재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34e)에서도 -ha bihe로 표현된 문장 다음에 후행하는 과거 상황이 뚜렷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역시 발화시점 현재 상황과 -ha bihe가 가리키는 상황에서 화자의 태도는 상반되며, 중간에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상황이 개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ha bihe는 일관되게 발화시점 현재와의 사이에 과거의 상황을 하나 이상 개재하며, 따라서 '과거의 과거' 상황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4.3. -ha bihe의 의미: 과거 완료(past perfect)

위에서 살핀 -ha bihe의 의미는 현재 완료 -habi의 용법인 '결과 지속'과 '경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그 기준시점을 현재(발화시점)에서 과거로 옮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habi는 분사 어미 -ha와 존재 동사 bi로 이루어진 통사적 구성에서 기원한 것이 확실한데, 존재 동사 bi의 과거형이 bihe이므로 -ha bihe는 형태적으로도 -habi의 과거형으로 볼 수 있다.[128] 따라서 -habi '현재 완료'에 일관되게 -ha bihe를 '과거 완료'로 명명할 수 있다.

128) 표기상으로 -habi는 붙여 쓰고 -ha bihe는 띄어 쓰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일부 문헌에서 -habihe 형태도 발견되며, -habi도 -ha bi로 띄어쓰는 경우가 간혹 있다.

6. 만주어 문어의 시제 대립과 양상 대립

이상 4장과 5장에서 각각 만주어의 분사 어미와 정동사 어미가 가지는 시상 의미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하였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만주어 문어의 시제 대립과 양상 대립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만주어 문어의 시상 대립 가운데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은 분사 어미 -ra와 -ha의 대립이다. 이들은 종결의 기능만을 가지는 정동사 어미와 다르게 종결의 기능, 관형의 기능, 명사의 기능을 모두 가지며, 특히 관형형과 명사형에서 두 형태만으로 이루어진 정연한 대립을 이룬다는 점에서 만주어 시상 형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위를 가진다. 또한 정동사 어미가 공시적으로 또는 통시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형태인 데 비해 분사 어미는 통시적으로도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만주어 시상 형태 가운데 가장 초기의 형태로 보인다.

만주어의 시상 형태를 다룬 선행 연구들은 이들의 문법 범주를 정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견해를 보인다. Verbiest (1696)에서 -ra를 미래, -ha를 과거 시제로 기술한 이후, 이들은 대체로 시제 범주 내에서 기술되었는데, Avrorin (1949)에서 -ra와 -ha를 '완결되지 않은' 양상과 '완결된' 양상의 대립으로 기술한 이래, 이들을 양상 범주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이어져 왔다. Avrorin (1949) 이후의 이들 연구는 -ra와 -ha뿐 아니라 다른 시상 형태도 양상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만주어는 시제가 없다'는 주장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하 6.1에서는 만주어 문어에 나타나는 시제 대립을, 6.2에서는 양상 대립을 기술하고, 6.3에서 만주어 문어를 시제 대립 중심의 언어로 볼 수 있음을 주장한다. 6.4에서는 만주어 문어의 시제 및 양상 대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mbi의 기원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을 살피고, 이와 관

련하여 만주어 문어의 공시적인 시상 대립의 형성 과정에 대한 본고의 가설을 제시한다.

6.1. 시제 대립

6.1.1. 비종결형: 비과거 -ra와 과거 -ha

4장에서 살폈듯이 -ra는 평서법 긍정문의 종결어미로 사용될 때 1인칭 주어만을 가지며 '약속'의 양태 의미를 나타낸다.[129] 반면 같은 위치에 나타나는 -ha, -mbi, -mbihe, -habi, -ha bihe는 이러한 주어 제약과 양태 의미가 없는 객관적인 진술에 사용된다. 따라서 종결형에서 -ra와 이들 형태 사이에 대등한 시제 및 양상 대립 관계를 설정하기 어렵다. 반면 비종결형에 사용된 -ra와 -ha는 두 형태만으로 이루어진 정연한 대립을 보인다. 4장의 기술에 따르면 관형형과 명사형에서 -ra는 현재와 미래 상황을, -ha는 과거 상황을 가리키는데, 이는 상위문의 상황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상대 시제적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Avrorin (1949)에서는 -ra와 -ha를 각각 '완결되지 않은 양상(неокончательный вид)'과 '완결된 양상(окончательный вид)'의 대립으로 파악하고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러시아어와 만주어 문장의 차이를 들었다.

(1) Avrorin (1949)에서 제시한 러시아어와 만주어의 복합문
a. Когда ты говоришь, я слушаю. / Когда ты говорил, я слушал.
a′. When you are talking, I listen. / When you were talking, I listened.
b. si(ni) alara de bi donjimbi / si(ni) alara de bi donjihabi
b′. 네가 말할 때, 내가 듣는다 / 네가 말할 때, 내가 들었다.

129) -ra 종결형은 〈청어노걸대〉에서도 일관되게 한국어의 약속형어미 '-마'로 언해되었다.

(1a)와 (1b)는 각각 Avrorin (1949: 64)에서 대조한, 동일한 의미의 러시아어 문장과 만주어 문장이고, (1a′)과 (1b′)은 필자가 참고로 제시한 영어와 한국어 번역이다. '/' 앞의 문장은 현재의 상황을, 뒤의 문장은 과거의 상황을 나타낸다. 러시아어(영어)에서는 주절의 시제에 따라 종속절의 시제도 현재 또는 과거로 변화하는 반면, 만주어(한국어)에서는, 주절의 시제만 현재 또는 과거로 변화하고 종속절의 시제는 변하지 않는다. Avrorin (1949)는 러시아어와 만주어의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발화시점과 다른 기준시점을 설정하였다.[130] 러시아어에서는 주절의 시제와 종속절의 시제가 모두 발화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만주어 종속절은 발화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주절의 시제와는 달리, 주절의 상황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종속절 상황이 완결된 경우 '완결된 양상(окончательный вид)' -ha를 사용하고, 완결되지 않은 경우 '완결되지 않은 양상(неокончательный вид)' -ra를 사용하여 표현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들 양상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3.3.1의 각주 76에서 제시한 것을 재인용).

(2) "неокончательного, обозначающего действие-состояние, мыслимое как не имеющее конца, и окончательного, обозначающего действие-состояние, мыслимое как имеющее конец." (완결되지 않은 양상은 행위-상태가 끝점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완결된 양상은 행위-상태가 끝점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런데 주절의 상황시점을 기준으로 완결된 상황은 과거 상황이며,[131]

130) Avrorin (1949: 64) "здесь мы вправе были бы ожидать появления треть его момента, соотносительного с первыми двумя, установленными выше, т. е. здесь, казалось бы, должны присутствовать: момент речи и относящиеся к нему момент совершения главного действия и момент совершения второстепенного действия."(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시점(時點)이 존재함을 예상할 수 있다: 발화시점, 기준시점이 되는 주동작의 시점, 부동작의 시점.)

131) 반대로 과거 시제는 반드시 완결된 상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대화상의 함축(conversational implicature)일 뿐이다(Comrie 1985: 41). 만주어 -ha가 가지는 '완결'의 의미도 이러한 함축으로 보아야 한다. jaisanggū taiji akū oho, orin jakūn se bihe. (65:23:2) 'Jaisanggū Taiji가 죽었다. 28살이었다.' 이 문장에서 bihe '-이었다'는 계사로 기능하는 bi에 -ha가 붙은 것인데, 이 경우 완결된 상황이라기보다는 단순히 과거

완결되지 않은 상황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미래에 행해질 상황이므로 Avrorin (1949)의 '완결되지 않은'/'완결된' 양상의 대립은 상대 시제적인 비과거/과거 시제의 대립과 의미상 큰 차이가 없다. 즉 용어 선택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문법화의 진전도가 높은 언어에서, -ra와 -ha의 대립과 같이 두 항으로만 이루어진 양상 대립은 일반적으로 비완망상과 완망상의 대립으로 나타난다(박진호 2011: 304). 그런데 Comrie (1976) 이후 정립된 비완망상(imperfective)과 완망상(perfective)의 대립은, Avrorin (1949)의 '완결되지 않은' 양상과 '완결된' 양상의 대립과 차이가 있다. 시제 대립과 달리 양상 대립은 본질적으로 '기준시점에 따른 상황의 시간적 위치'를 나타내지 않지만, 문법화가 많이 진행된 비완망상과 완망상 대립의 경우 시제적인 해석이 가능한데,[132] 비완망상은 상황을 그 내적 시간 구성에 주목하여 내부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취하기 때문에 주로 현재 시제로 해석되고,[133] 완망상은 상황을 이러한 내적 시간 구성의 고려 없이 하나의 덩어리로서 외부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주로 과거 시제나 미래 시제로 해석된다. 그런데 Avrorin (1949)의 소위 '완결된' 양상과 '완결되지 않은' 양상의 대립은,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끝점'을 가지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끝점을 가지는 경우 과거 시제로, 끝점을 가지지 않는 경우 현재와 미래 시제로 해석된다는 차이가 있다.[134]

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상태 동사나 형용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끝점을 가지는 동사라도 -ha가 결합하여 반드시 '완결된' 양상을 나타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vrorin (1949)의 '완결된 양상'이 상대 시제적인 과거 시제와 완전히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

132) 2.2에서 살폈듯이, 시제가 없이 양상 대립만을 가지는 요루바어의 경우, 다른 시간 표현이 부가되지 않을 경우 비완망상은 현재 시제로, 완망상은 과거 시제로 해석되었음을 참고할 수 있다.

133) 비완망상은 미래 시제나 미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등과 함께 사용되어 '비완망상 미래'를 나타낼 수 있지만 이 때의 미래 의미가 비완망상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비완망상은 '예정된 미래(expected future)'를 나타낼 수도 있는데(Bybee et al. 1994: 249-251), 예정되지 않은 미래 상황은 다른 형태에 의해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주어의 관형형과 명사형에서 미래 상황은 -ra에 의해 독점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러한 예정된 미래와 예정되지 않은 미래의 구분이 없으며, -ra는 보편적인 미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134) Comrie (1976: 18)에서 완망상이 반드시 '완결된'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러시아어의 완망상이 비과거 시제와 결합하여 미래 상황을 가리키는 예를

본고에서는 -ra와 -ha의 대립을 유형론적으로 잘 보고되지 않은 '완결된' 양상과 '완결되지 않은' 양상의 대립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상대 시제적 관점의 과거와 비과거의 시제 대립으로 설명하는 것을 택한다.

한편 러시아어의 복합문에서도 상대 시제적 용법을 확인할 수 있다.

(3) 러시아어의 현재 분사 구문

a. Смотря телевизор, я ем яблоко. 'Watching TV, I am eating an apple.'

b. Смотря телевизор, я ел яблоко. 'Watching TV, I was eating an apple.'

주절의 시제가 현재 시제인 (3a) Смотря телевизор 'Watching TV'라는 종속절은 현재 상황을 가리키는 반면, 주절의 시제가 과거 시제인 (3b)의 동일한 종속절은 과거 시간을 가리킨다. 이 때 종속절의 시제는 주절의 상황시점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정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상대 시제(relative tense)의 예로 볼 수 있다.

6.1.2. 종결형: 비과거 -mbi, -habi와 과거 -ha, -mbihe, -ha bihe

앞서 살핀 분사 어미 -ra와 -ha 가운데 -ha는 종결형에서도 과거 시제로 사용되지만 -ra는 1인칭 주어와만 결합하여 '약속'의 양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종결형의 시상 대립 체계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ra를 제외한 다섯 개의 시상 형태 -ha, -mbi, -mbihe, -habi, -ha bihe는 종결형에서 크게 비과거(-mbi, -habi)와 과거(-ha, -mbihe, -ha bihe)의 시제 대립을 보이는데, 과거의 상황을 가리키는 경우 모두 -ha 형태를 가진다는 공통점이 있다.[135]

들고 있다. 최근의 만주어 연구에서 -ra와 -ha에 대해 'imperfective'와 'perfective'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Comrie (1976)의 용어 사용과 혼란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35) -habi의 경우도 -ha bi의 통사적 구성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이므로 -ha를 포함하지

한편 5장에서 살폈듯이, -mbi와 -mbihe는 '진행, 습관, 예정된 미래'라는 의미를, -habi와 -ha bihe는 '완료'라는 의미를 공유하는데, 각각 -ha의 유무에 따른 비과거와 과거의 시제 대립을 보인다. 이들은 기원적으로 존재 동사 bi를 포함하는 형태임이 유력한데,[136] 이는 그 활용형을 비교하면 명확히 드러난다.

(4)
a. bi : bihe = 비과거[137] : 과거
b. -mbi : -mbihe = 비과거 : 과거
c. -habi : -ha bihe = 비과거 : 과거

(4a)의 비과거형 bi의 경우 그 자체로 존재 동사 '있다'의 어간이며, 여기에 -ha가 붙은 과거형 bihe와 비교하면 영형태(Ø)의 비과거 시제가 결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4b)와 (4c)의 비과거형 -mbi와 -habi는 영형태의 비과거 시제가 붙었다고 볼 수 있으며, -mbi와 -habi 자체는 시제가 아닌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의 의미를 각각 비완망상(imperfective)과 완료(perfect)로 본다.

한편 만주어 문어는 과거 시제에서 -mbi의 유무에 따라 '완망상 과거(past perfective)' -ha와 '비완망상 과거(past imperfective)' -mbihe가 대립한다. 또 -ha와 -habi는 모두 과거의 상황을 가리키지만 -habi는 '현재 관련성'을 함의한다는 차이가 있다. 6.2.1에서 -ha와 -mbihe의 대립을, 6.2.2에서 -ha와 -habi의 대립을 검토한다.

만, 마지막에 오는 형태인 bi가 현재형이라는 점에서 현재 시제로 볼 수 있으며, bi의 과거형이 결합한 -ha bihe와 비과거 대 과거의 시제 대립을 보인다.

136) 6.4를 참고하기 바란다.

137) 존재 동사 bi가 단독으로 사용될 경우 주로 '현재 존재함'을 나타내며 미래 상황을 가리키는 경우는 드물다. -mbi가 나타내는 '진행, 습관, 일반적 사실, 예정된 미래'의 의미도 모두 '비완망상 현재(present imperfective)'의 의미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mbi를 현재 시제로 볼 수도 있다. 또 -habi의 경우 '과거 상황의 현재 관련성'을 나타내며 미래 상황을 가리키는 경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들을 '비과거' 시제로 보기보다는 '현재' 시제로 보는 것이 정확할 수 있지만, 만주어에 미래 시제가 따로 없으므로, 비종결형에서 -ra와 -ha의 대립과 일관되게 '비과거' 시제로 보아도 큰 문제는 없다.

6.2. 양상 대립

-mbi의 유무에 따른 양상 대립을 살피기 전에, -mbi와 통사적 구성인 -me bi-의 관계를 살필 필요가 있다. 많은 선행 연구에서 -mbi(-mbihe)가 -me bi(-me bihe)와 이표기 관계인 것으로 기술하였지만(Zaxarov 1879, Haenisch 1961, Gorelova 2002, 河内良弘·清瀬義三郎則府 2002[138]), <만문노당>의 만주어만을 보았을 때, 이들이 이표기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5장에서 살핀 대로 -mbi(-mbihe)는 '진행 중인 상황, 습관적 상황, 일반적 사실, 예정된 미래'를 두루 나타낼 수 있는데 이는 비완망상이 가질 수 있는 의미 영역과 일치한다. 반면 -me bi(-me bihe)는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선행 연구에서 진행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술되고 있으므로 -mbi(-mbihe)가 나타낼 수 있는 의미의 일부만을 가리킬 수 있다. 본고에서는 성백인(1968: 79)의 견해를 따라 -mbi(-mbihe)와 -me bi(-me bihe)가 이표기 관계가 아닌 것으로 본다. 통시적으로 -mbi(-mbihe)가 -me bi(-me bihe)에서 기원하였을 가능성이 높지만(6.4 참조), 공시적으로 두 형태소는 그 의미 영역이 다를 뿐 아니라, <만문노당>의 자료에 한정하면 -me bi(-me bihe)의 경우 하나의 문법 범주(진행상)로 설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두 구성 요소인 -me와 bi(bihe)의 원래 의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5) <만문노당> 태조조에 나타나는 -me bi-의 예[139]

---

138) 河内良弘·清瀬義三郎則府 (2002: 99)는 -mbi와 me bi가 이형태 관계임을 인정했지만, 둘의 의미가 다름을 지적하였다. 성백인(1968: 79)에서는 '-me bi와 -mbi, -me bihe와 -mbihe는 표기의 유동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최학근(1980)에서도 "이는 -me bi 〉 -mbi의 과정으로 -mbi를 형성시킨 흔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다. 또한 일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동일한 기능으로 사용되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나, -me bi와 -mbi는 전연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다. -me bi는 전적으로 '현재 어느 행동이 진행중인 것을 서술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라고 언급하여 두 형태가 다른 의미를 가짐을 지적하였다.

139) 〈만문노당〉 태조조에는 -me bi가 종결형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me bisire de, -me bihe, -me bisu(명령형) 등의 형태만 나타난다. 보조 자료에서도 종결형 -me bi는

a. ini etuhe soboro ilhangga suje i etuku be wesihun heteme bisire de, (4:46:3) 자신이 입은 황록색 꽃무늬 비단 옷을 위로 걷어 올리고 있을 때,

b. usafi korome bisire de, (5:24:6) 낙담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에,

c. bi ainambahafi karu gaijara seme gūnime bihe, (13:13:1) 나는 '어떻게 보복할 수 있을까' 하며 생각하고 있었다.

d. alin hada de samifi beye somime bihe niyalma, gemu liyoodung ni baru baime jio, (41:23:4) 산과 언덕에 흩어져서 숨어 있던 사람은 모두 요동 쪽으로 귀부(歸附)하여 오라.

e. hashū ergi duin gūsai cooha, sarhū i ninggude iliha cooha be tuwame bisu (8:14:2) 좌익의 네 기(旗) 병사는 Sarhū의 꼭대기에 진을 친 병사를 주시하고 있으라.

(5)의 예들에서 -me bi-는 한국어로 번역할 때 '-하고 있다'는 의미의 진행상으로도[140] 해석할 수 있지만, '-하며 있다', '-하면서 있다'와 같이 -me와 bi- 각각의 의미를 살려 직역해도 무리가 없다. 또 <만문노당>과 보조 자료에서 genembi '가다', jimbi '오다' 등의 이동 동사와 -me bi-가 결합하는 예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이동의 의미와 bi '있다'의 의미가 모순되기 때문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141] 반면 -mbi는 아무런 제약 없이 이동 동사와 결합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적어도 공시적으로 -mbi는 -me bi-와 이표기 관계가 아님을 확인하였다. 그 구성 요소인 -me와 bi-의 의미를 유지하고 있는 -me bi-에 비해, -mbi는 일반언어학에서 정의하는 비완망상의 의미를 모두 보여주므로, 하나의 문법 형태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142]

〈삼국지〉, 〈금병매〉, 〈만문요재지이〉 등 한어를 번역한 자료에서 대부분 나타난다.

140) 엄밀한 의미에서의 진행상(progressive aspect)은 상태동사와 결합하지 않는데, (5b)의 korome bisire de '원망하고 있을 때'와 같이 상태동사와 결합하는 예가 있으므로 '연속상(continuous aspect)'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본고에서는 -me bi-가 하나의 문법 요소를 이루지 않는다는 입장이므로 자세히 논의하지 않는다.

141) 보조 자료 가운데 〈만한유서〉(1700)에 "geneme bi 此去而未止之意乃斷而可續語" (8:31)의 유일한 예가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동사의 활용형을 보여주기 위해 gene- '가다'라는 동사의 모든 활용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의미를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인 대역으로 보거나, 한인 편자가 만주어를 잘못 사용하였거나, 또는 1700년경에는 이미 -me bi가 진행상(progressive aspect)으로 발달하여 동사 의미의 제약 없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이하에서는 -mbi의 유무에 따라 대립을 이루는 -ha와 -mbihe, -ha de와 -mbihede, -me와 -mbime, bi와 bimbi의 의미를 대조함으로써 이들 형태에서 -mbi가 비완망상 표지로 기능함을 보인다.

6.2.1. 완망상 과거 -ha와 비완망상 과거 -mbihe

종결형에서 -ha와 -mbihe는 -mbi의 존재 유무에 따라 대립한다.

(6) 종결어미로 나타나는 -ha와 -mbihe의 대조

a. kalka be jergileme dasame faidafi ibeme, hoton i dade gamara de, hoton i dorgi coohai niyalma hoton i ninggu i matun de ilifi gabtaha, (12:5:4) 방패를 나란히 정렬하고 열을 맞춰 전진해서 성의 아래에 가져갈 때, 성 안에서 군사가 성 위의 널판 위에 서서 활을 쏘았다.

a′. sure kundulen han gabtara mangga, joriha babe ufararakū gabtambihe, (4:59:5) Sure Kundulen Han은 활쏘기를 잘하였다. 겨눈 곳을 실패 없이 쏘았다.

b. honin aniya ilan biyai orin de, juwe juse emu minggan cooha be gaifi gidafi, coohai ejen bokdo beile ama jui be gemu waha, (1:5:6) 정미년(丁未年) 3월 20일에, 두 아들이 군사 1000명을 이끌고 공격하여, 군대의 수장인 Bokdo Beile 부자를 모두 죽였다.

b′. weile araha niyalma be niyaman hūncihin seme gūnirakū wambihe, (4:65:3) 죄 지은 사람은 친인척이라고 해도 고려하지 않고 죽였다.

c. ini ahūn deo i niyalma, yehe i narimbulu de ubašame genehe,

142) -mbihe에서 -mbi-를 하나의 문법화한 형태소로 볼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mbi-가 비완망상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로 사용되었다는 설명은 만주어 문어에서 이렇게 동사 어간과 종결어미 사이에 선어말 어미가 개재하는 경우가 달리 없기 때문에 형태론적으로 전혀 새로운 구조를 도입하게 된다는 부담이 있다. 그러나 -mbi-가 진행상을 나타내는 -me bi- 보조 동사 구성에서 축약된 형태라고 본다면 이러한 형태론적 구조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만문노당〉에는 -me bi- '-하고/-하며 있다'뿐 아니라 -me waji- '-하기를 마치다', -me deribu- '-하기를 시작하다', -me mute- '-할 수 있다' 등의 보조 동사 형태가 활발히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새로운 구조의 도입으로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영어의 be gonna의 의미가 그 기원적인 형태인 be going to의 의미보다 더 문법화되었지만 여전히 영어 화자들이 이로부터 be going to를 분석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하게, -mbihe도 -me bihe보다 더 문법화된 의미를 나타내지만 그 형태론적 구성에 있어서 -me bihe와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13:1) 그의 형제들이 배반하여 Yehe의 Narimbulu에게 갔다.

c′. absi genembihe (38:2:4) 어디로 가고 있었느냐.

d. nadan biyai orin de, niowanggiyaha de cooha genere de, honin erinde abka agaha, dobori galaka, (7:7:4) 7월 20일에 Niowanggiyaha에 군대가 갈 때, 미시(未時)에 비가 내렸다. 밤에 개었다.

d′. tere šangname bure inenggi abka agambihe, agara de han hendume, (51:29:4) 상을 준 그 날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비가 올 때 Han이 말하길,

e. beyebe wahakū, eigen sargan i beyei teile tucibufi, booi aika jaka be gemu gaiha, (7:21:1) 몸을 죽이지는 않고 부부의 몸만 나가게 하고 집의 온갖 물건을 모두 빼앗았다.

e′. juwan booi jušen gaimbihe, (18:4:4) 집 열 채의 속민을 빼앗을 것이었다.

(6a-e)는 동사에 -ha가 결합한 형태를, (6a′-e′)은 동일한 동사에 -mbihe가 결합한 형태를 보여준다. 이들은 모두 과거 상황을 지시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mbi의 유무에 따라 다른 의미를 보인다. 본고에서는 -mbi를 비완망상 표지로 보아 -mbihe를 비완망상 과거(past imperfective)로 명명하였다.[143] 비완망상에는 크게 습관상과 진행상이 포함되는데, (6a′b′)은 과거의 습관적인 행위를, (6c′d′)은 과거에 진행중인 상황을 나타낸다. (6e′)는 과거 시점에서 '예정된 미래'를 나타내는데, 이 또한 비완망상 -mbi가 가지는 용법이다(5.1.4 참조).

이에 반해 -ha는 이러한 비완망상의 여러 의미가 없는 단순 과거(simple past)의 의미를 보인다. (6a)에서 '활을 쏜' 상황은 일회적인 것으로, (6a′)이 과거의 특정 시점에서 발생한 모든 활을 쏜 상황을 가리킬 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6d)에서 '비가 내린' 상황은 후속하는 '밤에

143) 따라서 -mbi가 없는 과거 형태 -ha를 영형태(Ø)의 완망상 표지를 가진 것으로 보아 완망상 과거(past perfective)로 볼 수 있다. 앞서 -mbi와 -mbihe를 대조하면서 -mbi가 영형태(Ø)의 비과거 시제를 가진다고 기술하였는데, 영형태(Ø)라는 실체가 있어서 비과거 시제도 가리키고 완망상 표지도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유표적인(marked) 과거 시제 -ha나 비완망상 -mbi가 부재함으로써 무표적으로(unmarked) 비과거 시제나 완망상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ha를 무표적인 과거 시제로 볼 수도 있다. 박진호(2011: 305)의 각주 16을 참고하기 바란다.

갠' 상황으로 이어지며 일련의 사건 전개를 서술하는 반면, (6d′)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은 Han이 말하는 상황과 동시적인 상황으로서, 사건의 전개를 서술한다기보다는 배경을 묘사하는 용법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시간부사절을 이루는 -ha de와 -mbihede도 -mbi의 유무에 의한 대립을 보인다.[144] -ha de의 경우 후속하는 주절과의 시간적 선후 관계가 명확한 데 반해, -mbihede는 주절과 동시적 상황을 나타내며, 전자가 일회적 상황을 나타내면, 후자는 다회적인 상황을 나타낸다는 차이가 있다.

(7) -ha de와 -mbihede의 대조

a. jui de, acaha de beile ebure sembi (12:25:6) 아들과 만나면 Beile가 내려오겠다 합니다.

a′. yaya fonde nikan gurun de acambihede gisurendufi emu hebei acambi, (13:27:3) 어떤 경우에도 명나라와 화친할 때는 함께 상의하여 합의한 후에 화친할 것이다.

b. yaya tai niyalma dain sabuha de, tule poo sinda, tu tukiye, pan fori, (29:22:1) 각 대의 병사는 적이 보이면 바깥 포를 쏘고, 둑(纛)을 올리고, 운판을 치라.

b′. monggo jase jakarame sabumbihede, balai ume necire, (21:32:2) 몽골인이 경계를 따라서 보인다면, 함부로 넘지 말라.

c. amasi jihe de, efu de juwe minggan, gege de juwe minggan, daicing de emu minggan, uhereme sunja minggan haha bure, (45:22:7) 돌아오면, Efu에게 2000명, 공주에게 2000명, Daicing에게 1000명, 모두 해서 장정 5000명을 줄 것이다.

c′. solho i elcin jimbihede, jugūn tuwakiyaha niyalma ilibufi, mao wen lung be bumbio burakūn seme fonji, (31:19:5) 조선의 사신이 오고 있으면, 길을 지키던 사람이 멈추게 해서, 모문룡을 넘겨줄 것인가 넘겨주지 않을 것인가를 물으라.

(7a-c)에서 -ha de의 시간부사절은 주절과의 선후 관계가 명확하다. 그러나 (7a′-c′)에서 비완망상 -mbi가 덧붙은 -mbihede는 선후 관계가

144) 여기서의 논의는 이미 본고의 5.2.5에서 언급한 것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7a′)에서는 acambihede '화친할 때는'은 후속절의 '화친할 것이다'와 동일한 상황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이며, 한 차례의 상황을 지시한다기보다 거듭해서 발생할 상황을 가리킨다. (7b′)는 (7b)와는 달리 '보이는' 상황이 지속되어야 한다. (7b)에서는 적의 모습이 한 번이라도 보이면 뒤에 있는 아군을 대비시키기 위해 경보를 울리라는 의미이지만, (7b′)은 몽골인의 모습이 계속 보일 때 함부로 넘지 말라는 것이므로 몽골인이 사라지면 경계를 넘어도 무방한 문맥이다. (7c)가 '(되돌아) 오는 상황이 완료되면'의 의미라면 (7c′)는 '오고 있으면'으로 후속절 상황과 동시적인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진행 중인 상황이나 습관적인 상황을 지시하는 용법은 비완망상의 의미에 포함되는 것으로, 역시 -mbihede는 -ha de에 비완망상 -mbi가 결합한 형태로 볼 수 있다.[145]

부동사 어미 -me와 -mbime도 -mbi의 유무에 의한 대립을 보인다. 주절과의 시간 관계만 보았을 때, -me는 주절의 상황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또는 미래를 아우르는 비과거 상황을 지시할 수 있는데, -mbime는 동시적인 상황만을 지시한다는 차이가 있다.

(8) <만문노당>에 나타나는 -mbime

a. mini jušen be etuku mahala uju beye be takame sambime waha manggi, (13:14:1) 나의 여진인을 옷이며, 모자며, 머리며, 몸을 분별하여 알고 있으면서도 죽인 후에,

b. dulin niyalma burulambime amasi gabtame, dulin niyalma julesi bošome gabtame, pu hecen tai be gaiha kooli inu ambula bi, (29:38:1) 반은 우리 사람인 척하며 도망쳐 오면서 뒤로 화살을 쏘고, 반은 앞으로 쫓아오면서 화살을 쏘며 보, 성, 대를 빼앗은 사례도 많이 있다.

c. niyaman ombime sirkedefi ainambi. (33:7:1) 인척이 되면서 고집을 부리면 무엇하겠는가.

d. suwe sambime latunjici, suweni ciha dere, (34:9:3) 너희들이 알면서도 침범해 온다면, 너희들의 마음일 것이다.

145) -mbihe는 -mbihede를 제외하고 다른 비종결형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mbihe에 de가 붙었다고 보는 것보다는 -ha de에 -mbi-가 결합하여 비완망상의 의미를 더하였다고 설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e. abkai kesi de banjimbime, abka be daburakū, ini erdemu ini hūsun de banjimbi seme, doro yoso be kiceme dasarakū ehe jurgan i yabuci, (44:12:2) 하늘의 은혜로 살면서도 하늘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재주와 자신의 힘으로 산다고 하여 도의를 부지런히 하여 다스리지 않고 악행을 행하면,

(8)에서 -mbime가 붙은 형태는 모두 후행절과 동시적인 상황을 가리킨다. 한국어로 '-면서(도)'로 빈번하게 번역되므로 역접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도 보이지만, (8b)와 같은 경우도 있으므로 역시 '동시적 상황'이 주된 의미라고 할 수 있다.[146]

bi와 bimbi의 대립도 -mbi의 비완망상 용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존재 동사 bi는 비과거 종결형으로 사용될 경우 다른 시상 형태가 붙지 않고 어간인 bi로만 나타나는 것이 전형적이다. 그런데 소수이긴 해도 특정한 경우에 다른 동사의 활용과 마찬가지로 비과거 종결형에서 -mbi가 붙은 bimbi가 사용된다.

(9) 종결형 bimbi(5장의 예문 (3)을 재인용)

a. amba age be emhun juleri unggifi, be gemu amala ainu bimbi (8:33:6) 큰 형을 혼자 앞에 보내고 우리 모두가 왜 뒤에 있습니까.

b. jai jaisanggū i boode, dobori inenggi arki omime, ulha wame sarin sarilahai bimbi, (16:34:5) 또 Jaisanggū의 집에서는 밤낮 술을 마시고, 가축을 잡아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c. muke moo gaijara babe muse tuwakiyafi gaiburakūci, i ai jeme bimbi, (37:41:5) 물과 나무를 얻을 곳을 우리가 지켜서 얻지 못하게 하면, 적이 무엇을 먹으며 지내겠는가.

d. gung gairakūci ere caliyan kemuni bimbi, (62:15:3) 공을 세우지 않아도 이 녹은 항상 유지될 것이다.

---

146) 한편 (8b)의 burulambime amasi gabtame '도망쳐 오면서 뒤로 화살을 쏘고'와 대구를 이루는 julesi bošome gabtame '앞으로 쫓아오면서 화살을 쏘며'를 대조하면 전자는 burulambime '도망쳐 오면서'와 같이 -mbime가 쓰인 반면 후자는 bošome '쫓아오면서'와 같이 -me가 사용되었다. -me의 여러 의미 가운데 동시적 상황을 나타내는 용법도 포함되지만, 여기에 비완망상을 나타내는 -mbi가 결합한 -mbime가 특히 동시적 상황 용법만을 전담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e. emu gisun be holtofi jai adarame bimbi, (64:16:6) 말 한 마디라도 속이고 또 어찌 있겠습니까.
f. meni aba cooha genehe amala, suwe ekisaka bimbio, (66:22:4) 우리가 몰이 사냥을 가거나 출병한 후에, 너희가 잠잠하게 있겠는가.

(9)는 <만문노당> 태조조에 나타나는 bimbi의 모든 예인데, 그 가리키는 의미가 bi와는 사뭇 다르다. bi는 julergi golo de sunja tanggū bi (8:9:2) '남로에 500명이 있다'와 같이 정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성격이 강한 반면 (9)에서 bimbi가 나타내는 상황은 '(무엇을 하며) 있다'와 같이 행위성이 강하다. 전자는 전형적인 형용사와, 후자는 전형적인 동사와 그 성격이 유사한데, 이러한 까닭에 양상 의미를 나타내는 -mbi가 결합한 것으로 보인다.[147]

6.2.2. 완망상 과거 -ha와 현재 완료 -habi

만주어 문어에서 완망상 과거 -ha와 현재 완료(present perfect) -habi의 대립은 영어의 단순 과거와 현재 완료의 대립과 유사하다. 즉 단순 과거와 현재 완료가 가리키는 것이 모두 과거 상황이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후자는 '과거 상황의 현재 관련성'을 함의하고 전자는 그러한 함의가 없다.

(10) 단순 과거와 현재 완료의 대조
a. bi araha 'I wrote'
b. bi arahabi 'I have written'

(10a)와 (10b)는 동일한 과거의 상황을 가리키지만, 현재 관련성은 (10b)에만 명시적으로 나타난다. 형태상으로 -habi는 과거 상황을 나타내는 명사형 -ha와 존재 동사의 비과거형 bi의 통사적 구성에서 비롯되

147) 형용사는 그 속성상 완망상적 관점을 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양상의 대립을 갖지 않으므로(박진호 2011: 305) 형용사적 용법의 존재 동사 bi에 양상 의미를 가지는 -mbi가 결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었음이 확실한데, 이를 직역하면 '-했음 있다' 또는 '-한 것이 있다'가 되므로 과거의 상황과 그와 관련된 현재의 상태를 모두 나타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ha와 -habi의 의미 차이는 각각의 담화상의 기능을 살필 때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다음의 예와 같은 서사 구조(narrative structure)에서는 주로 -ha를 이용하여 사건을 시간 축 상에 배치한다.

(11) 서사 구조에 사용되는 -ha (<만문노당> (1:1:2) 이하 내용)

a. cooha be waki seme tumen cooha be unggifi tosoho, '군사를 죽이려고 군사 1만 명을 보내서 길을 막았다.'

b. tere tosoho cooha be acaha manggi, '길을 막은 그 군사를 맞닥뜨린 후에,'

c. hūrhan hiya ini gajire sunja tanggū boigon be, alin i ninggude jase jafafi,[148] 'Hūrhan Hiya는 자신이 데려 가던 500가호로 하여금, 산 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d. emu tanggū cooha be tucibufi boigon tuwakiyabuha, '군사 100명을 내어서 가호를 지키게 했다.'

e. cooha gaifi genehe ilan beile de, ula i cooha heturehebi seme amasi niyalma takūraha, '군사를 이끌고 간 세 Beile에게는 Ula의 군사가 길을 막아 놓았다고 뒤로 사람을 보냈다.'

(11)의 문장들은 일련의 사건들을 나타내는데, 이들은 시간적으로 중첩되지 않고 선후 관계가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즉 -ha는 담화 내에서 서사(narration) 기능을 주로 담당한다.[149] 이에 반해 -habi는 서사 기능보다는 배경 상황을 제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12) 배경 제시의 -habi

a. ula i cooha hoton ci tucifi okdome jihebi, afaki, yabu (2:27:5) Ula의

148) Haspelmath & König (1995:106)에서는 만주어의 부동사 어미 -fi를 'narrative converb'로 명명하였는데, 역시 (11)의 예가 서사 구조임을 나타낸다.

149) 본고의 2.2에서 언급하였듯이, 완망상을 취하는 동사는 주로 담화 내에서 줄거리를 전개시키는 전경(foreground)으로, 비완망상을 취하는 동사는 주로 배경(background)으로 기능한다. 또 Dahl (1985: 139)에 의하면 범언어적으로 과거 시제 또는 완망상은 서사(narrative contexts)에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데 반해 완료는 이러한 서사에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

군사가 성에서 나와서 맞서려고 왔다. 공격하자. 가라.

b. deote suwende han ama sain ulin sain morin buhebi, han ama akū oci, suwende buhe ulin morin be icihiyarakū nakambio, (3:7:6) 동생들 너희들에게 Han인 아버지가 좋은 재물과 좋은 말을 주었다. Han인 아버지가 죽으면 너희들에게 준 재물과 말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c. julge ci jihe fucihi enduri bithede, tumen hacin i gisun gisurehengge, inu damu mujilen tondo onco be dele arame gisurehebi, bi gūnici, inu niyalmai banjire de onco tondo mujilen ci dele, jai umai akū kai, (4:44:2) 옛날부터 내려온 부처 신의 글에 1만 가지 말을 하였는데 역시 오로지 마음이 올곧고 넓은 것을 최상으로 언급하였다. 내 생각건대 역시 사람이 살아갈 때 넓고 올곧은 마음보다 높은 것은 또 전혀 없는 법이다.

d. ere erinde amba cooha yabuci ojorakū seme ce sartafi tehebi, te genehede gemu bahambi, (5:15:3) 이런 시기에 큰 군사가 올 수가 없다고 하며 그들이 안심하고 머물러 있다. 지금 가면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e. ini han de holtome jabuki seme jihebi, musei cooha be aliyarakū dere, (6:38:7) 자신들의 Han에게 거짓으로 대답하고자 하여 온 것이다. 우리의 군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닐 것이다.

(12)에서 -habi는 역시 과거의 상황을 가리키지만, -ha처럼 다른 상황들과 함께 순서대로 배열되어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기능을 하지 않는다. -habi에 후속하는 문장들을 검토하면, 어떠한 명령이나 판단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habi를 사용하여 언급된 과거의 상황이 이러한 명령이나 판단의 근거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7장에서 청학서 대역에 반영된 -ha와 -habi의 담화상의 기능 차이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하겠다.

6.3. 시제 대립과 양상 대립의 관계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만문노당>에 나타나는 시제와 양상의 대립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만주어 문어의 시제와 양상 대립

a. 비종결형

과거(past)	비과거(non-past)
-ha	-ra

b. 종결형

	과거	비과거
완망상(perfective)	-ha	-mbi
비완망상(imperfective)	-mbihe	
완료(perfect)	-ha bihe	-habi

만주어 문어의 시상 대립은 비종결형(관형형과 명사형)과 종결형을 나누어 살피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선 비종결형인 관형형과 명사형은 분사 어미 -ra와 -ha로만 이루어진 정연한 시제 대립을 보인다. -ra는 상위문의 상황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상대 시제적인 현재와 미래 상황을 가리킬 수 있으므로 비과거 시제로, -ha는 이와는 상보적으로 상대 시제적인 과거 상황을 가리킬 수 있으므로 과거 시제로 볼 수 있다.

종결형에서는 -ra가 시상 대립에서 제외된다. -ra는 종결형(긍정문)에서, 1인칭 주어만을 가지며 '약속'의 양태 의미를 가지는데, 이러한 주어 제약과 양태 의미 없이 일반적인 진술을 하는 다른 시상 형태와 대등한 시제 및 양상 대립을 보인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150]

-ra를 제외하고, 종결형에 나타나는 다섯 형태들은 -ha의 유무에 따라 크게 과거와 비과거 시제로 나뉜다. 과거 시제에서 -ha와 -mbihe는 비완망상을 나타내는 -mbi의 유무에 의한 양상 대립을 보인다. 비과거 시제에서 -mbi는 기원적으로 비완망상 형태로 볼 수 있지만,[151] 이에 대립하는 완망상 형태는 따로 없다. 비과거(현재) 완료 -habi와 과거 완료 -ha bihe는 '과거 상황의 (기준시점) 현재 관련성'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150) 박재연(2004: 48-49, 56)에서는 '행위 양태(deontic modality)'를 "화/청자가 동작주에 대하여, 명제가 표현하는 행위의 성립과 관련한 조건을 부과하는 수행적 행위"로 정의하고, 이러한 조건 부과 행위를 다시 '대타적(對他的) 조건 부과'와 '재귀적(再歸的) 조건 부과'로 나누었는데, 전자에는 '명령, 제안, 기원' 등이 포함되고 후자에는 '약속, 의도, 소망'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분류를 따른다면, -ra 종결형이 사용된 약속문은 명령문, 기원문 등과 같은 수행문(performative)의 성격을 가지므로 단순히 상황을 서술하는 기능을 가지는 다른 시상 형태와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51) -mbi의 기원에 대한 가설은 6.4를 참고하기 바란다.

데, 일반적인 양상 대립과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Avrorin (1949)에서 -ra와 -ha를 각각 '완결되지 않은' 양상과 '완결된' 양상의 대립으로 기술한 이후, 만주어가 시제 대립이 아닌 양상 대립을 중심으로 하는 언어라고 기술하는 경향이 생겼다.[152] 그러나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만주어 문어는 전형적으로 어말에 -ha가 결합된 형태(-ha, -mbihe, -ha bihe)가 과거 상황을 나타내며, 어말에 -ha가 결합하지 않은 형태(-ra, -mbi, -habi)는 비과거 상황을 나타내는 시제 대립을 보이는데, 이렇게 과거와 비과거 상황을 형태적으로 구별하는 것은 전형적인 시제 대립 중심 언어의 특징이다. 이에 반해 전형적으로 양상 대립을 중심으로 하는 언어에서는 문법적인 시제 형태가 없이 어휘적인 시간 표현이나 문맥에 따라서 시간 해석이 이루어진다. 2.2에서 예로 든 요루바어의 경우를 다시 인용한다.

(13) 요루바어의 완망상과 비완망상(Comrie 1976: 83)
a. ó ń ṣiṣẹ́ 'he is working, he works (habitually)'
b. ó wá 'he came'
c. ó ń ṣiṣẹ́ l′ ánǎ 'he was working yesterday'

152) Haenisch (1961)에서는 -ra와 -ha를 각각 '미완료 분사(Participium Imperfecti)'와 '완료 분사(Participium Perfecti)'으로 명명하고 '과거, 현재, 미래의 완료되지 않은 행위'와 '완료된 행위'라고 기술하였다. 또 직설법 -mbi에 대해서도 'aorist'로 명명하고 '인칭과 시제(Tempus)의 구별이 없다'고 기술한 것은, 만주어를 시제 대립 중심의 언어가 아닌 양상 대립 중심의 언어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Sinor (1968)에서도 -mbi, -ha, -ra를 각각 'aspect neutre', 'aspect accompli', 'aspect inaccompli'로 명명하고, '미완료는 곧 현재와 적어도 일부분 겹쳐지기 때문에, -mbi는 다른 언어에서 현재로 표시될 수 있다'고 기술하여, 현재 시제라는 의미는 완료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데에서 오는 이차적인 의미라고 기술하였다. Li (2000)는 愛新覺羅烏拉熙春(1983)의 시상체계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 확실하지만, 원래 시제 대립으로 파악한 것을 양상 대립으로 변환하였다. 그 결과 愛新覺羅烏拉熙春(1983)의 '과거시(過去時)' 이하의 항목들은 Li (2000)에서 'Perfective' 이하로, '현재시(現在時)'와 '미래시(未來時)' 이하의 항목들은 'Imperfective' 이하로 통합되었다. Gorelova (2002)는 -ra와 -ha에 대하여 'imperfect/perfect'로 구분하면서, Avrorin (1949)의 '이들 두 형태가 고전 만주어에서 고착될 때, 이들의 양상 의미가 시제 의미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었다'는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河內良弘·清瀨義三郎則府 (2002)에서는 -mbi에 대하여 기술하면서 '만주어의 동사에는 시제(tense)를 나타내는 표지가 없으며, 이 접미사는 동작·작용이 「完了가 아니다」라는 aspect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저자가 만주어를 시제 언어가 아닌 양상 언어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요루바어는 시제 표지가 없이 비완망상과 완망상의 양상 대립만을 가지는 언어인데, 다른 시간 표현이 없는 경우 동사 앞에 ń이 붙은 비완망상은 현재 시제로(13a), ń이 붙지 않은 완망상은 과거 시제로(13b) 해석된다. 그런데 l′ ánǎ 'yesterday'와 같은 시간 표현이 부가되면 비완망상도 과거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만주어 -ra나 -mbi와 상반되는 것으로, 이들은 언제나 기준시점 대비 현재나 미래 상황을 지시하며 과거 상황을 지시하지 않는다.[153]

한편 Song (1997: 241-242)에서는 할하 몽골어의 명사형 어미 -san이 절대 시제적으로나 상대 시제적으로 과거 상황을 가리키지 않는 예문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san을 완망상(perfective aspect) 표지로 분류하였는데, 만주어 -ha도 비과거 상황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14) 비과거 상황에 사용된 -ha (4.2.4에서 재인용)
a. jeku be tuwa sindara be nakara biheo (2:15:4) 곡식에 불 지르는 것을 멈추어 주시겠습니까.
b. meni gaire gūsin tumen usin be, ere šurdeme bahaci wajiha, (24:21:7) 우리가 얻을 30만 향의 밭을 그 주변에서 얻으면 되었다.

(14a)의 -ra biheo는 간절한 요구를, (14b)의 -ci wajiha는 조건의 충족을 나타내는 데 모두 미래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ha의 주변적인 쓰임이며, 다른 시제 언어에서도 유사한 과거 시제의 용법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역시 -ha가 과거 시제임을 부정하는 결정적인 반례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15) 영어와 한국어의 유사한 구문
a. Would you mind sharing a room?
b. 먹을 것이 충분하면 되었다. 충분하지 않으면 더 가져오라.

153) 5.1.6에서 보았듯이 -mbi가 tuwaci '보니' 구문과 함께 사용되어 과거의 상황을 기술하는 경우가 있지만, tuwaci '보니'가 기준시점을 옮긴다는 설명이 가능하므로 -mbi가 비과거 시제라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반례가 될 수 없다.

(15a)와 같이 영어에서도 will의 과거형인 would를 사용하여 공손한 요청(polite request)을 할 수 있다. (15b)의 한국어 '-면 되었다'는 만주어 -ci wajiha와 거의 유사한 구문이다. 영어와 한국어가 시제 대립을 중심으로 하는 언어라는 사실이 이런 주변적인 쓰임 때문에 부정될 수 없듯이, 만주어의 -ha가 과거 시제라는 사실도 부정될 수 없다.

6.4. 시제 대립과 양상 대립의 통시적 발달

위에서 살핀 만주어 문어의 시제와 양상 대립은 비종결형과 종결형에서 비대칭적인 모습을 보인다. 관형형과 명사형을 포함하는 비종결형에서는 비과거 -ra와 과거 -ha가 꽉 짜여진 대립을 보이지만, 종결형에서는 기본적으로 비과거 -mbi와 과거 -ha가 대립하며, -ra는 1인칭 화자와 결합하여 '약속'의 양태 의미를 나타낸다. 이밖에 -mbihe, -habi, -ha bihe 등은 그 형태와 의미에서 드러나듯이 -mbi-he, -ha-bi, -ha bi-he 등 공시적으로 또는 통시적으로 분석 가능한 형태들의 결합임을 알 수 있다.

공시적으로 -mbi는 -ra나 -ha와 같이 분석할 수 없는 하나의 형태소임이 확실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mbi는 -ra나 -ha에 비하여 뒤늦게 발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첫째, 종결형과는 달리 비종결형에서는 -ra와 -ha만으로 이루어진 대립 체계를 보인다. 둘째, -mbihe의 존재는 -mbi가 -ha와는 다른 계열에 속함을 보여준다. 셋째, 만주어 음소배열론(phonotactics)에서 -mbi를 제외하고 mb로 시작하는 형태소는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나타나는 경우도 모두 후천적인 발달임을 알 수 있다.[154]

6.4.1. -mbi의 기원에 대한 가설

154) -mbi를 제외하고는 사동/피동 접사 -mbu-가 있는데, 사동/피동 접사 -bu-와 같은 기능을 하지만 특정한 어휘에만 나타난다는 점에서 m이 기원적인 형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하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mbi의 기원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을 살펴본다. 어느 하나를 정설이라고 할 수 없지만, 모든 연구에서 -mbi가 후천적인 발달임을 가리키고 있다.

6.4.1.1. -me bi 〉 -mbi

부동사 어미 -me와 존재 동사 bi가 축약되어 -mbi가 되었다는 가설로, 다수의 연구에서 지지하고 있다(Adam 1873, Zaxarov 1879, Ramstedt 1952, Haenish 1961, Sunik 1962, 최학근 1980, Avrorin 2000, Gorelova 2002, 河内良弘・清瀬義三郎則府 2002). 일부 연구(Zaxarov 1879, Gorelova 2002)에서는 -me bi와 -mbi가 이표기 관계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지만, 다른 연구(최학근 1980, 河内良弘・清瀬義三郎則府 2002)에서는 이들의 의미가 차이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본고의 6.2에서도 이러한 차이를 지적하며 -me bi와 -mbi가 공시적으로 다른 형태임을 명확히 하였다.

여러 연구에서 기술하듯이 -me bi가 진행상(progressive)의 의미를 가진다면, 비완망상인 -mbi의 여러 의미 가운데 하나로 포함될 수 있다. Bybee et al. (1994)에서, '세계 언어에서 진행상(progressive)은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에서 비롯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 진행상이 더 나아가 비완망상(imperfective)으로 발전한다'는 발달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를 따르면 만주어 -me bi > -mbi의 경우도 '장소 표현(존재 동사) > 진행상 > 비완망상'의 보편적인 발달 경로를 거쳤다고 볼 수 있다.

만주어 음소배열론의 측면에서도 -me bi가 -mbi로 축약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만주어 표기에서 bi, de, kai, dere 등 1-2음절의 문법 형태들은 분리해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래와 같이 선행하는 어절과 합쳐서 표기하는 경우도 빈번히 나타난다.

(16) 띄어쓰기 표기의 유동
a. han i beye ci aname, beisei beye inu cooha debi, (35:38:1) Han인 나

자신뿐만 아니라 Beile들 또한 군대에 있다.

b. mini gashūha babi, hūlha ehe mujilengge niyalmai jabšaha aibi, (74:3:7) 내가 맹세한 것이 있다. 도적의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같이 요행한 것이 어디 있는가.

c. ice jakūn de bonio erinde, hashū ergi dzung bing guwan hergen i uju jergi amban fiongdon bucehe, (14:29:2) 초여드레 신시(申時)에 좌익의 총병관 직의 일등 대신 Fiongdon이 죽었다.

d. bi suwembe ujihe be dahame, hūsun bahaki tusa okini sembikai, (29:35:4) 나는 너희들을 보살핌으로써 힘을 얻고,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e. joboro be akūmbuci, jirgara inenggi bidere, (49:33:3) 괴로움이 다하면, 즐거운 날이 있을 것이다.

공시적으로는 발견되지 않지만, 이전 시기에 어말 위치에서 -me bi가 -mebi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형태가 하나의 단위로 재분석되면서 다시 -mbi로 축약되었을 것을 가정할 수 있는데, 만주어 형태소 내부에서 -meb- 연쇄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이러한 축약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 alime baharakū > alimbaharakū '이기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ainame bahafi > ainambahafi '어찌 능히' 등 -me b- 연쇄가 하나의 형태로 인식되면서 -mb-로 축약이 일어난 사례도 있다.[155]

이렇게 의미적으로나 음소배열론적으로나 -mbi가 -me bi에서 비롯되었을 개연성이 있지만, -me bi와 -mbi가 표기상의 혼동 관계에 있으며 그 의미가 완전히 통용된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기 전에는 유력한 가설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적어도 <만문노당>에는 종결형에서 -me bi가 나타나지 않는데,[156] 이것이 -mbi에 완전히 합류한 결과인지에 대해서도 현재로서 답을 내릴 수 없다.

---

155) 이상 두 예는 최동권(2000)에서 제시한 것이다.

156) funceme bi '남짓 있다' 등 어휘화된 -me와 존재동사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는 bi가 종결형에 나타나는 경우는 나타난다. 또한 bi의 과거형 bihe와 결합한 -me bihe, 비종결형 -me bisire de 등의 형태로는 상당수 나타난다. 그 의미는 진행상으로도 볼 수 있지만 -me와 bi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6.4.1.2. -n bi 〉 -mbi

Sinor (1949)에서는 명사형성접미사 -n과 존재동사 bi의 결합으로, Benzing (1955)에서는 명사형성접미사 -n과 1인칭 단수 표지 bi의 결합으로,[157] 박은용에서는 의미 없는 매개음 -n-과 존재동사 bi의 결합으로 보았다. 만주어에는 명사형성접미사 -n이 동사 어간 뒤에 붙어서 명사를 형성하는 경우가 빈번히 나타나는데,[158] 예를 들어 아래와 같다.

(17)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의 예
banji- '살다' : banji-n '생활'
gūni- '생각하다' : gūni-n '생각'

이러한 명사에 존재 동사 bi가 붙으면 gūnin bi '생각이 있다'와 같은 문장을 이루는데, 이러한 -n bi 연쇄가 하나의 단위가 되고 역행동화를 거치며[159] -mbi가 되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주어에는 -n 명사형을 가지지 않는 동사들 또한 많이 있다.

(18) -n 파생명사를 가지지 않는 동사
aga '비' *aga-n : aga-mbi '비 오다'
use '씨' *use-n : use-mbi '씨 뿌리다'

또한 명사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동사도 있다.

(19) 파생명사를 가지지 않는 동사
*gene-n : gene-mbi '가다'

---

157) 최동권(2000)에서는 Benzing (1955)에서 bi를 동사로 기술한 것처럼 인용하였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158) 그런데 명사가 먼저 있었는지 동사가 먼저 있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159) 만주어에는 다음과 같이 비자음 역행동화가 상당히 규칙적으로 나타난다.
dulin '반' + ba '장소' 〉 dulimba '중간'
min '나' + be '대격' 〉 mimbe '나를'

*tanta-n : tanta-mbi '때리다'

어떤 명사들은 -je-, -la- 등의 동사형성접미사와 결합하여 동사가 된 이후에 -mbi와 결합하는 예도 있다.

(20) -je-, -la- 등의 동사형성접미사에 의해 파생된 동사
urgun '기쁨' : urgun-je-mbi '기뻐하다' *urgu-mbi,
adun '목축' : adu-la-mbi '방목하다' *adu-mbi

이러한 예외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n bi > -mbi의 통시적 변화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공시적으로 '동사어간-n bi' 형태가 사용되어 '그 동사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발견하기 어려운데, 이것이 -n bi가 -mbi로 합류한 결과인지 또한 현재로서 확인할 수 없다.

6.4.1.3. -m bi 〉 -mbi

최동권(2000)에서 주장하는 가설이다. 이 논문에서는 -mbi를 몽골어, 터키어, 한국어를 포함하는 알타이 언어에 공통된 명사형 어미 -m과 존재동사 bi의 결합으로 보고 있는데, 만주어에는 공시적으로 -m 명사형 어미가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어말에 m이 나타나지 않는 음소배열론적 제약이 있다. 최동권(2000)에서는 알타이 언어에 공통된 명사형 어미 -m이 -mbi에 흔적으로 남아 있음을 주장하는데, 다음과 같이 시버어에서 종결어미로 '미완료상'의 -m이 나타난다는 것을 주요한 근거로 제시하였다.

(21) 최동권(2000: 124)에서 제시한 시버어 예문
a. mes te zhulxi geneme em tohsuv save-m.
muse te julesi geneme emu toksobe sabu-mbi. (만주어 대역)
우리 지금 앞으로 가 한 농장을 본다.
b. biray muku foshun eyi-m.

birai muke fusihūn eye-mbi. (만주어 대역)
강 물 아래로 흐른다.
c. er uxinderi bierhireng komsu bim husun gel lavdu dɵxü-m.
ere usinderi bargiyangge komso bime hūsun gele labdu dosi-mbi. (만주어 대역)
이 밭에서 수확하는 것 조금 이며 힘 또 많이 든다.

최동권(2000: 124)의 각주 10에서 李樹蘭·仲謙·王慶丰(1984)에서 시버어의 '현재-장래' 시제어미로 -m이 쓰인다고 기술한 것을 따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Zikmundová (2013: 136)에서는 이 형태가 만주어의 -mbi에 대응하는 시버어 -mie의 단축형(short form)인 것으로 기술하고 있고, 兒倉德和(2010: 94)에서도 여기에 대응하는 형태를 -mi로 보고 있으므로, 李樹蘭·仲謙·王慶丰(1984)에서 기술한 -m은 만주어 -mbi에 대응하는 시버어 형태인 -mie 혹은 -mi가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시버어의 선대형으로 생각되는 만주어에서 명사형 어미 -m이 전혀 문증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버어의 -m이 만주어 이전의 고형을 보여준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6.4.1.4. -rV(n)-bi 〉 -mbi

Kogura (2015)는 만주어의 -mbi에 대응하는 시버어 -mi의 형성에 대하여, 만주-퉁구스어에 공통된 직설법 현재 표지인 -rV(n)-과 1인칭 단수를 나타내는 인칭어미 bi가 결합한 -rVm-bi가 재분석된 결과, 만주어(시버어)에서 -mbi가 직설법 현재 표지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음은 Kogura (2015)에서 제시한, 만주어와 함께 만주-퉁구스어의 남부 어군에 속하는 나나이어의 동사 활용이다.

(22) 나나이어 동사 활용(Kogura 2015: 27)

	Vocalic		Consonantal	Irregular
	short	long		(o- 'become')
1sg	-Vm-bi	-rVm-bi	-dVm-bi	o-dam-bi

3sg	-rV	-rV	-dV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나나이어는 1인칭에서 동사 어간의 말음에 따라 다른 형태의 현재 시제가 결합하는데, 동사 어간이 단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동사 어간'-Vm-bi, 장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동사 어간'-rVm-bi,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 '동사 어간'-dVm-bi가 붙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만주어(시버어)에서는 이러한 구별이 사라지고, 아래와 같이 직설법 현재 m과 인칭어미 bi가 하나의 형태로 재구조화된 과정을 겪은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23) 만주어 형태소 -mbi와 -ra의 통시적 재구조화 (Kogura 2015: 30)

a.	*V_{STEM}-m-bi	*V_{STEM}-ra
	V_{STEM}-PRES.**IND**-1SG	V_{STEM}-PRES.IND
b.	*V_{STEM}-m-bi	*V_{STEM}-ra
	V_{STEM}-PRES-**IND(ASS)**	V_{STEM}-**PRES**
c.	*V_{STEM}-**mbi** (Si. V_{STEM}-mi)	*V_{STEM}-ra (Si. V_{STEM}-re)
	V_{STEM}-**PRES.IND(ASS)**	V_{STEM}-PRES

이러한 통시적 변화를 통해 -mbi가 직설법 현재의 기능을 가지게 되면서, 원래 직설법 현재를 담당하던 -ra는 '직설법'의 기능을 잃고 분사(participle) 어미로만 사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만주어(시버어)는 다른 만주-퉁구스어와는 다르게 공시적으로 인칭어미의 흔적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전 시기의 만주어에 인칭 어미가 존재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한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만주어(시버어)를 제외한 다른 만주-퉁구스어에서는 이러한 재구조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도 설명이 필요하다. 나나이어의 경우를 대표적으로 말하면, 1인칭 인칭어미는 -bi, 2인칭 인칭어미는 -ci로 정연하게 구별되는데, 이러한 기능적 부담이 무시되고 만주어에서 어떻게 -bi가 현재 시제의 일부로 재해석되었는지, 또 어떻게 2인칭과 3인칭에 이르기까지 -mbi 형태가 수평화되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나나이어에서 과거를 지시하는

형태로 -xAn-이 있는데[160], 이 형태가 1인칭 단수 인칭어미 -bi와 결합하면 -xAmbi로 나타난다. 이렇게 과거를 지시하는 경우에도 나타나는 -mbi가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형태소로 재구조화되었다고 보기에는 의미적인 모순이 있다. 이렇듯 재구조화의 중간 과정에 대한 타당한 설명 없이는 만주어의 -mbi가 만주-퉁구스어의 -rV(n)-bi에서 비롯되었다는 가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4.1.5. 소결

이상 만주어 -mbi의 기원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모두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있지만 어느 하나도 정설이라고 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공시적인 분포와 의미, 그리고 만주어의 음소배열론적인 제약 등을 고려할 때 -mbi가 -me bi에서 기원하였다는 가설이 가장 사실에 근접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유형론적으로도 여러 언어에서 발견되는 '장소 표현 > 진행상 > 비완망상'의 발달 경로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선행 연구에서 -mbi의 기원을 명확하게 밝히지는 못했지만, -mbi가 기원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6.4.2. 비대칭적인 시상 대립의 형성

만주어 분사 어미 -ra와 -ha는 관형형과 명사형에서 두 형태만으로 이루어진 비과거/과거의 꽉 짜인 대립을 보여준다. 이들은 종결형 어미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 -ha가 관형형과 명사형으로 사용될 때의 의미를 유지하며 단순 과거를 가리키는 데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것과는 달리, -ra는 그 의미 영역이 확연히 축소되었음을 볼 수 있다. 즉 평서법 긍정문에서는 1인칭 주어만을 취하여 '약속'의 양태 의미를 보이고, akū와 결합하여 부정문을, 의문사 및 의문 첨사와 함께 쓰여서 의문문을, ume와

160) 정동사 어미가 아니고 분사 어미이지만, Ko & Yurn (2011)에서 정동사 어미보다 서술어로 빈번하게 사용됨을 언급하고 있다.

함께 쓰여서 금지문을 이룰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미래 또는 비현실 상황을 지시한다는 점에서 정동사 어미 -mbi와 상보적 분포를 이룬다. -mbi는 종결형으로 사용된 경우 진행 중인 상황, 습관적 상황, 일반적 사실, 예정된 미래 등을 가리킬 수 있는데, 이는 비완망상의 보편적인 의미 영역이며, 모두 '현재'와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ra와 -mbi의 상보적 분포는 원래 -ra가 가지고 있던 비과거 상황 지시의 용법을, 후대에 발달한 -mbi가 일부 영역에서 대체하였고, 이에 따라 -ra는 현재와 같이 의미가 축소된 것이라는 가정을 가능하게 한다. 즉 현재와 미래, 현실과 비현실 상황을 두루 지시하는 -ra가 원래 있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정확히 표현하고자 하는 의지의 결과 -mbi의 기원이 되는 형태가 사용되었고, 이것이 문법화된 결과가 -mbi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는 -ra와 -mbi의 기원형이 모두 현재 상황을 표현할 수 있었지만 점차 -mbi가 독점적으로 현재 상황을 표현하게 되었다는 가정을 할 수 있다.[161]

종결형과는 달리 관형형과 명사형에는 -mbi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다. -mbi가 기원적으로 존재동사 bi를 포함한다면, -mbi의 관형형/명사형은 *-mbisire와 -mbihe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후자는 -mbihede(5.2.5 참조)로 문증된다. *-mbisire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로는 음소배열론적인 제약을 고려할 수 있다. m의 기원은 알 수 없지만, 만주어 문어에서 bisire와 같은 3음절 이상의 문법 형태를 선행 어절과 붙여서 쓰는 표기 사례를 찾을 수 없는데, 이는 앞서 살핀 bi, de, kai, dere 등 1-2음절 형태들이 빈번하게 선행 어절과 붙어서 표기된다는 사실과 대비되는 것이다. 이러한 표기 관습의 차이가 만주어 음소배열론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me bi > -mebi > -mbi의 축약은 가능하지만 -me bisire > *-mebisire > *-mbisire는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변화라고 할 수 있다.

*-mbisire의 존재는 추정일 뿐이지만, -me bisire 형태는 종종 나타나는데, 대부분 현재 진행의 의미로 해석된다.

161) 이렇게 새로운 현재 시제가 옛 현재 시제를 대체하면서 후자가 주변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사례를 Bybee et al. (1994: 144-148)에서 소개하고 있다.

(24) -ra de와 -me bisire de의 비교

a. morin tuwakiyara de niru tome emte janggin, jalan de emu ejen gaifi tuwakiyana, (73:11:7) 말을 감시할 때에(방목할 때) Niru마다 Janggin 한 명씩과 Jalan에 Ejen 한 명이 인솔해서 감시하러 가라.

a′. beise ambasa gaifi tomohoi bira be bitume tuwakiyame bisire de, nikan i jai emu ing ni cooha, šanggiyan hada i julergi šokin i hada i amargi de ulan fetefi ing hadafi, (8:18:3) Beile들과 대인들이 Tomoho 강을 따라서 감시하고 있을 때, 명의 또 한 영(營)의 병사가 Šanggiyan Hada의 남쪽에 있는 Šokin봉의 북쪽에 호를 파고 영을 설치하여,

b. boode dosika coohai niyalma be kafi waki seme afara de, han neneme kiru jafabufi ume wara seme takūraha, (12:12:3) 집에 들어간 적병을 에워싸고 죽이고자 공격하려고 할 때, Han이 먼저 죽이지 말라며 소기를 들려서 파견하였다.

b′. dorgi ulan de orho moo fihebume afame bisire de, wargi duka de afaha hashū ergi duin gūsai cooha, hecen de tafaka medege be coko erin de alanjiha manggi, (19:23:1) 안쪽 호에 풀과 나무를 메우며 공격하고 있을 때, 서쪽 문에서 싸우던 좌익 네 기(旗)의 군사가 성에 올라갔다는 소식을 유시(酉時)에 와서 알린 후에,

(24a)에서 tuwakiyara de '감시할 때'는 기준시점 대비 현재 상황이라기보다는 발화시점 현재 이후의 모든 가능 세계를 가리키는 데 비해 (24a′)의 tuwakiyame bisire de '감시하고 있을 때'는 기준시점 대비 현재 진행 중인 구체적인 상황을 지시한다. (24b)의 afara de는 '공격할 때'와 '공격하려고 할 때'의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지만 문맥상 후자가 더 적합한 데 비해 (24b′)의 afame bisire de는 '공격하고 있을 때'로 진행 중이라는 해석만이 가능하다. 이처럼 -ra de는 비과거 영역을 모두 지시할 수 있는 데 비해 -me bisire de는 기준시점 대비 진행 중인 상황만을 가리킬 수 있다. -mbi 종결형에 대응하는 *-mbisire가 발달하지 못한 원인에 대해서는 답을 내릴 수 없지만, 관형형과 명사형에서도 -ra의 의미 가운데 현재 진행을 지시하는 기능이 새로운 형태로 대체되는 과정에 있었음을 이러한 예에서 엿볼 수 있다.

그 선후 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비완망상 과거 -mbihe도 -mbi가 비완망상 현재로 정착하는 과정과 유사하게 형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형태 또한 -mbihede를 제외하고 관형형과 명사형에서 사용되지 않는데, *-mbisire와는 다르게 음소배열론적인 제약이 아니라 기능적인 면에서 요구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할 수 있다. -mbihe 종결형의 의미는 '발화시점 대비 과거 시간에 존재하는 비완망상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관형형 또는 -ra 명사형과 상위문의 상황시점인 -ha의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25) yehe i juwe hoton de, miyoocan poo sindara niyalma sunjata tanggū cooha be unggifi tuwakiyame tebuhe, (3:32:3) Yehe의 두 성에 총과 포를 쏘는 병사 500명씩을 보내어 지켜보며 주둔케 하였다.

위의 문장에서 상위문은 과거의 상황을 가리키지만, miyoocan poo sindara niyalma '총과 포를 쏘는 병사'의 관형형은 습관적 행위 또는 일반적 사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비완망상의 의미 영역에 속한다. 이렇게 안은문장과 안긴문장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표현할 수 있는 것을 굳이 *miyoocan poo sindambihe niyalma와 같이 -mbihe를 사용하여 표현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7. 청학서 대역에 반영된 만주어의 시제와 양상

이 장에서는 앞서 살핀 만주어 문어의 시상 형태가 18세기 중후반 조선 사역원에서 간행된 청학서에 어떻게 대역되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본고의 논의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현존하는 사역원 간행 청학서는 <동문유해(同文類解)>(1748), <청어노걸대(淸語老乞大)>(1765), <삼역총해(三譯總解)>(1774) <소아론(小兒論)>(1777), <팔세아(八歲兒)>(1777), <한청문감(漢淸文鑑)>(1779?) 등 6종이 있는데, 이 가운데 <동문유해>와 <한청문감>은 사전이라는 점에서 시상 형태의 쓰임을 살피는 데 제약이 있고, <소아론>과 <팔세아>는 분량이 매우 짧아서 시상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162]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청어노걸대>와 <삼역총해>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중에서도 <청어노걸대>를 주 자료로, <삼역총해>를 보조 자료로 한다. <삼역총해>의 저본이 되는 <(만문)삼국지>(1722-1735 추정)는 한문 소설인 <삼국연의(三國演義)>를 저본으로 대역한 것인데, 거기에는 한어의 영향인지 소설의 문체적 특징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아래의 예와 같이 하나의 장면에 대한 서술에서 과거 시제 -ha와 현재 시제 -mbi가 뒤섞여 사용되는 것은 <만문노당>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1) <삼역총해>의 한 장면

a. emu inenggi dungdzo besergen de amhaha de lioi bu genefi besergen i dalbade iliha

홀론 董卓이 평상에 잘 제 呂布ㅣ 가셔 평상 ᄀᆞ의 셔니

162) 〈소아론〉과 〈팔세아〉에 -mbihe는 각각 1회, -ha bihe는 〈소아론〉에만 1회 나타날 뿐이다.

b. diyocan besergen i amala ilifi yasai faha guriburakū jing lioi bu be tuwambi
貂蟬이 평상 뒤히 셔셔 눈망올을 옴기지 아니코 졍히 呂布를 보고
c. emu galai ini beye be jorimbi emu galai dungdzo be jorime yasai muke emdubei tuhebumbi lioi bu safi dolo feser seme genefi damu uju gehešembi
ᄒᆞᆫ 손으로 제 몸을 ᄀᆞ르치고 ᄒᆞᆫ 손으로 董卓을 ᄀᆞ르치며 눈믈이 니음ᄃᆞ라 ᄲᅥ르치니 呂布ㅣ 알고 안이 ᄇᆞ아지는 듯 ᄒᆞ여 가셔 다만 머리 그더기니
d. dungdzo amu suwaliyame lioi bu i arbušara be sabufi amasi forofi tuwaci diyocan wei ping ni amala ilihabi
董卓이 줌에 ᄊᆞ이여 呂布의 거동을 보고 뒤 도라보니 貂蟬이 병풍 뒤히 셔시니
e. ambula jili banjifi lioi bu be esukiyeme hendume si ai gelgun akū mini haji hehe i baru efiyembi sefi
크게 셩내여 呂布를 ᄭᅮ지저 니로되 네 엇지 싱심이나 내 ᄉᆞ랑ᄒᆞ는 계집 향ᄒᆞ여 희롱ᄒᆞ는다 ᄒᆞ고
f. hashū ici ergi urse be hūlafi ere be jai boode ume dosimbure seme fafulafi lioi bu be bošome tucibuhe
좌우 편뉴들을 블러 이를 다시 집의 드리지 말라 ᄒᆞ여 금ᄒᆞ고 呂布를 ᄭᅩ차 내치니
g. lioi bu jili banjifi ambula seyeme boode bederehe
呂布ㅣ 셩내여 크게 벼로고 집의 믈러가니라

본고의 주 자료인 <만문노당>은 편년체 역사서로서, 주로 편자가 현재 시점(時點)에서 지나간 일들을 서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거 시제 -ha가 포함된 형태가 많이 사용되며, -mbi나 -habi 등 현재 시제가 나타나는 경우는 대화문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삼역총해>에서 대화문이 아닌 부분에서 -mbi나 -habi 등 현재 시제가 나타나는 것은 <삼역총해>의 저본인 <삼국연의>가 '강담소설(講談小說)'의 형식을 가진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강담소설은 기본적으로 설화자의 구두공연으로 전승되던 이야기를 묶어서 편찬한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생생히 묘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현재 시제를

택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삼역총해>에서 -mbi나 -habi 등 현재 시제가 사용되는 것은 대부분 사건의 배경(background)을 묘사하는 경우이며, -ha가 사용되는 것은 대개 중심 줄거리가 되는 전경(foreground)을 서술하는 경우이다.[163]

이에 반해서 <청어노걸대>에는 전지적(全知的) 시점을 가지는 작가가 등장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문체적 특징이 반영될 여지가 적다. 또한 모든 내용이 대화 구조로 이루어지므로 실제 언어 사용이 잘 반영되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 간간이 등장인물이 과거의 사건을 서술하는 부분에서는 서사 구조를 살필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청학서 가운데 만주어의 시상 형태를 확인하기에 가장 용이한 자료는 <청어노걸대>라고 할 수 있다.[164]

이하 <청어노걸대>의 만주어에 나타나는 -ra, -ha, -mbi, -mbihe, -habi, -ha bihe 등의 형태가 어떻게 대역되었는지를 기술한다.[165] 만주

163) 한편 〈삼역총해〉에서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가 같은 장면에서 사용되는 것이 비시제언어인 한어의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삼국지〉에서 만주어와 병기된 한어를 보면 만주어의 -mbi나 -ha에 대응하는 현재 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문법 형태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만주어 부분에서는 앞서 살핀 대로 생생한 묘사를 위해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거나 비과거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삼역총해〉의 만주어가 한어의 영향으로 시제 구분 없이 사용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164) 〈삼역총해〉나 〈한청문감〉 등 직접 만주인에 의해 편찬된 저본을 가지는 문헌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역원 청학서는 그 편찬 주체가 조선인이라는 점에서 그 만주어 직관을 완전히 신뢰하기 어렵다. 그러나 '원래의 〈청어노걸대〉가 어긋난 곳이 많은 까닭에 당시 김진하(金振夏)가 만주 닝구타(寧古塔)의 비터시(筆帖式)에게서 만주어의 음과 철자를 교열받아 수정이 이루어졌다'는 '청어노걸대신석서(淸語老乞大新釋序)'의 내용을 참조하면(성백인 1991), 적어도 18세기 중엽 만주인의 직관에 〈청어노걸대〉의 만주어가 크게 어긋난 곳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165) 〈청어노걸대〉의 만주어 시상형태에 대한 18세기 한국어 대역은 오민석(2013)에서 이미 상세히 검토된 바 있다(본고의 3.3.8에서 이 논문에서 제시한 만주어의 시상체계를 인용하였다). 그런데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18세기 한국어의 시제체계를 검토하는 목적을 가지며, 여기에 제시된 만주어의 시상체계는 실제 만주어 자료를 검토하여 도출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연구를 종합한 것이라는 점에서 본고의 접근 방법과는 차이가 있다. 만주어 시상 형태의 기술에서 본고와 오민석(2013)은 다음과 같은 큰 차이를 보인다. 첫째, 앞서 기술한 대로 -ra 종결형은 1인칭 주어만을 취하며 '약속'의 양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ra를 종결형의 시상 대립에서 제외하였는데, 오민석(2013)은 이러한 종결형 -ra의 제약에 대해서 기술하지 않고 있다. 이 논문에서 종결형 -ra에 대한 대역으로 비과거 시제인 '-ᄂᆞ-'와 '-으리-'가 나타나는 것으로 기술하였지만, 이는 '아니ᄒᆞ노라', '못ᄒᆞ리라' 등 부정문 -rakū에 대한 대역에서 나타날 뿐 긍정문의 예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둘째, 본고에서 -ha와 -habi를 각각 '완망상

어에 비해 한국어의 문법 형태가 비교적 다양하므로 하나의 만주어 형태에 대해 다수의 한국어 형태가 대응하는 경우가 많지만, 시상 형태의 경우 양 언어에서 모두 한정된 개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제법 일관된 대응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대부분의 형태는 전형적인 대응관계를 보이지만 전형적이지 않은 대응도 상당수 나타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덧붙인다.

한편 근대국어의 시상체계에 대해서는 최동주(2002a, b)를 주로 참고하는데, 여기에 그 대강을 제시한다. 최동주(2002a)는 전기 근대국어를, 최동주(2002b)는 후기 근대국어를 다루고 있는데, 18세기 중반을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고 있다. <청어노걸대>는 1765년에 간행되었으므로 후기 근대국어 자료로 분류할 수 있지만, 언어 현실은 부정법(Ø)으로 과거를 나타내는 등 전기 근대국어의 특징을 유지하고 있다.[166]

<표 5> 전기 근대국어의 시상체계(최동주 2002a)

a. 종결형

서술어	과거		현재	미래
동사	엇	Ø	ᄂᆞ	리
		더		
형용사	더		Ø	

b. '-으니'에 의한 접속문 선행절

서술어	과거	현재	미래
동사	엇	Ø	을 것이
형용사	더		

c. 관형절

과거'와 '현재 완료'로 구분한 데 반해 오민석(2013)에서는 두 형태를 똑같이 '완망상적 과거시제'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habi가 현재 시제 '-ᄂᆞ-'로도 언해되는 경우가 있음을 설명하지 못할 뿐더러, -ha가 부정법(Ø) 종결어미로 대역되어 전경(foreground)으로 기능하는 데 반해 -habi는 부정법(Ø) 종결어미로는 대역되지 않고 주로 '-어시니'로 대역되어 배경(background)을 제시하는 담화상의 기능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7.7 참조). 이러한 까닭에 본고에서는 오민석(2013)에서 제시한 만주어의 시상체계를 참조하지 않고, 본고에서 파악한 만주어 문어 시상 형태의 의미를 기준으로 이하의 논의를 진행하겠다.

166) 최동주(2002a: 121-122)에서 밝히고 있듯이, 같은 시기의 자료라도 자료의 성격에 따라 시상체계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여기에 제시한 전기 및 후기 근대국어의 시상체계는 그 시기의 일반적인 경향일 뿐이지 모든 자료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서술어	과거	현재	미래
동사	Ø	ᄂᆞ	ㄹ
	더		
형용사		Ø	

<표5>는 최동주(2002a)에서 제시한 전기 근대국어의 시상체계인데, 중세국어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던 종결형, 접속문 선행절, 관형형의 시상체계가 분화된 것이 특징이다. 즉 <표5c>의 관형절 체계가 중세국어의 전반적인 시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표5a>의 종결형 체계에서는 '-어 잇-'에서 발달한 '-엇-'이 새롭게 동사의 과거 시제 표지에 추가되었으며, <표5b>의 접속문 선행절 체계에서는 동사의 과거 시제 표지가 '-엇-'으로 통일되고 현재 시제 표지가 '-ᄂᆞ-'에서 부정법(Ø)로 대체되었으며 미래 시제 표지로 '-을 것이-'가 발달하였다.

<표 6> 후기 근대국어의 시상체계(최동주 2002b)

a. 종결형 및 접속문

서술어	과거	현재	미래
동사	엇	Ø	리/을 것이, 겟
형용사	더		

b. 관형절

서술어	과거	현재	
동사	Ø	ᄂᆞ	ㄹ
	더		
형용사	더	Ø	

후기 근대국어의 시상체계는 전기 근대국어의 시상체계와 비교하여 관형절에서는 여전히 중세국어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종결형은 접속문의 체계와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즉 동사의 과거 시제 표지가 '-엇-'으로 통일되었고, 현재 시제는 이러한 '-엇-'이 부재하는 부정법(Ø)으로 표현한다.

<청어노걸대>의 한국어 대역문은 종결형의 과거 시제에서 '-엇-'뿐 아니라 부정법(Ø), '-더-'가 모두 나타나며, 종결형에서 동사의 현재 시제에 '-ᄂᆞ-'가 비교적 규칙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기 근대

국어의 시상체계를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7.1. 비과거 -ra

분사 어미 -ra는 -ha와 함께 종결형과 비종결형(관형형, 명사형)으로 모두 나타날 수 있다. -ha가 종결형과 비종결형에서 모두 동일한 과거 시제의 의미를 가지는 데 비해, -ra는 위치에 따라 다른 의미를 나타내며, 이는 <청어노걸대>의 대역에도 반영되어 있다.[167]

7.1.1. -ra 종결형의 대역

<표 7> <청어노걸대>에 나타나는 -ra 종결형의 대역

ra (27례)	ume ... -ra (38례)	의문사 ... -ra (6례)	sere (3례)
약속문	금지문	수사의문문	전언(hearsay)
-마(22); -니; -노라; -ㄹ 거시니; -고	말라; 말고	-리오; -가	ᄒᆞ더라

전체 용례가 충분히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역이 대체로 4.1.1에서 살핀 <만문노당>에 나타나는 -ra 종결형의 의미와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우선 ume나 의문사가 동반되지 않는 -ra 종결형의 경우 전체 27례 가운데 '-마'로 대역된 경우가 22례인데, '-마'는 한국어에서 '약속형어미'로 분류할 수 있다(권재일 2012: 283).

(2) <청어노걸대>에 나타난 -ra 종결형의 대역

167) -rakū 형태는 의미상 -ra 종결형의 부정형이라기보다는 -mbi의 부정형으로 보는 것이 맞으며, 〈청어노걸대〉에서 '-ᄂᆞ-, -리-, -ㄹ 것이-' 등에 시상 형태에 대응하여 -mbi의 현재 또는 미래 지시와 의미가 일치한다. 여기서는 -ra로 끝나는 형태만을 다룬다. 의문첨사 -o와 결합한 -rao는 '-쇼셔, -리잇가' 등에 대응하여 공손한 명령을 나타낸다.

a. bi booha udame genere (2:3b)[168] 내 반찬 사라 가마
b. suwende ilan moro hiyase be bure (4:4a) 너희게서 되롤 주니 (너희 젹다 말고 아직 ᄒᆞᆫ 째 粥 쑤어 브르도록 먹으라)
c. uttu oci meni gucu be okdome genere (4:25a) 이러ᄒᆞ면 우리 벗을 마즈라 가노라
d. bi tondo hūda be sinde alara (5:17b) 내 고든 갑슬 네게 알욀 거시니 (너희 둘히 내 말을 조차 홍졍홈이 엇더ᄒᆞ뇨)
e. beyei ulin be hairandarakū tede jalgiyame bufi baitalabure (7:17a) 이녁 貨物을 앗기지 아니ᄒᆞ고 져의게 더러 주어 쓰게 ᄒᆞ고 (벗들이 만일 訟詞ᄒᆞᄂᆞᆫ 일 잇거든 ᄲᅳᆺ을 극진이 ᄒᆞ여 말려 그치게 ᄒᆞ고)

(2b-e)의 예들은 모두 '-마'로 대역한다고 해도 의미상 문제가 없는데, 문맥에 따라 만주어에는 없는 연결어미를 사용하여 접속문을 만들거나(2b, d, e), 약속문이 아닌 평서문으로 표현하였다(2c). 이러한 소수의 의역이 만주어 -ra 종결형이 약속의 양태 의미를 가진다는 본고의 주장에 대한 반례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ra 종결형은 금지를 나타내는 ume와 함께 쓰여서 전형적인 금지문을 이루는데, 이에 대한 대역인 '-지 말라'와 '-지 말고'는 종결어미와 연결어미의 차이밖에 없으며 금지문을 나타내는 것이 확실하다.

(3) <청어노걸대>에 나타난 금지문 ume ... -ra의 대역
a. si jai mimbe ume holtoro (1:25b) 네 ᄯᅩ 나롤 소기지 말라
b. si uncaki seci hūdai bade ume gamara (5:2a) 네 풀고져 ᄒᆞ거든 져제 가져가지 말고 (아직 이 店에 두라)

-ra 종결형은 ai '무엇', ainara '어찌 하리오', ainambahafi '어찌 능히' 등의 의문사와 함께 사용되어 수사의문문을 이룬다.

(4) <청어노걸대>에 나타난 수사의문문의 대역
a. ere gese untuhun buda ai joboro (3:8b) 이 ᄀᆞᆺ흔 ᄆᆞᆫ밥이 므어시 슈괴리오

168) 〈청어노걸대〉 2권 3엽의 후면을 의미한다. 이하 동일한 형식을 사용한다.

b. je okini ainara (6:10a) 오냐 그리ᄒᆞ쟈 엇지ᄒᆞ리오
c. geli acara be ainambahafi sara (8:22b) ᄯᅩ 만나기를 엇지 시러곰 알리오

(4a)는 '수고가 아니다', (4b)는 '어쩔 수가 없다', (4c)는 '능히 알 수가 없다'는 의미를 가지는데, 모두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강한 긍정 진술을 내포하는 수사의문문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ᄒᆞ더라'로 대역되는 sere의 경우 '전언(hearsay)'을 나타내며, <한청문감>에도 하나의 표제어를 이루어 '그리ᄒᆞ더라'로 번역되어 있으므로 어휘화된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ra 종결형의 쓰임과는 구별해야 한다.

(5) <청어노걸대>에 나타나는 sere의 대역
a. ere emu jergi morin juwan yan salimbi sere (1:11b) 이 ᄒᆞᆫ 등물은 열 兩 ᄡᅡ다 ᄒᆞ더라
b. jodon hūda duleke aniya i hūda emu adali sere (1:12a) 뵈 갑슨 前年 갑과 ᄒᆞᆫ가지라 ᄒᆞ더라
c. juwe fun menggun de emu ginggin honin yali bumbi sere (1:12b) 두 푼 銀에 ᄒᆞᆫ 斤 羊肉 준다 ᄒᆞ더라

7.1.2. -ra 비종결형의 대역

비종결형에 사용된 -ra는 통사적 위치에 따라 크게 관형형과 명사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대역은 유사하게 나타난다. 우선 전형적인 대역을 제시하고, 이후에 전형적이지 않은 대역에 대하여 설명한다.

7.1.2.1. 전형적인 대역: 비과거 시제

<표 8> <청어노걸대>에 나타나는 -ra 비종결형의 전형적인 대역

관형형		명사형	
현재	미래	현재	미래
-ᄂᆞᆫ(동사)(87),	-ㄹ(54)	-ㅁ(7)	-기(34)

-ㄴ(형용사)(8)		-ᄂᆞᆫ 것(동사), -ㄴ 것(형용사), -ㄴ 줄(형용사)	-ㄹ 줄

<표8>은 관형형과 명사형에 사용된 -ra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비과거 시제 표지라는 본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다음 절에서 설명할 4개의 예외적인 사용을 제외하고, <청어노걸대>의 -ra 비종결형은 동사의 부정법이나 '-엇-' 등 과거 시제 표지로 대역되는 경우가 없다.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에 이르기까지, 관형형에서 현재 시제는 동사의 경우 '-ᄂᆞᆫ(ᄂᆞᆫ)', 형용사의 경우 '-ㄴ'으로 나타나며 미래(비현실) 상황의 경우 '-ㄹ'로 나타나는데, 만주어 -ra 관형형은 문맥에 따라 이들 중 하나로 대역되었다.

(6) <청어노걸대>에 나타나는 -ra 관형형의 대역
a. kadalara šusai tere be dedubufi ilan moo tantambi (1:4b) 檢擧ᄒᆞᄂᆞᆫ 션ᄇᆡ 져를 누이고 세흘 치ᄂᆞ니라
b. meni ere bošome gamara morin (1:10b) 우리 이 모라 가져 가ᄂᆞᆫ 물과
c. mende umai ekšere oyonggo baita akū (2:19a) 우리게 아조 밧분 긴ᄒᆞᆫ 일 업스니
d. bi gūnici si inu mimbe holtoro niyalma waka (1:26a) 내 싱각ᄒᆞ니 너도 나를 소길 사ᄅᆞᆷ이 아니니
e. muse amasi gamara hūdai jaka be inu erdeken i baime udaki (8:15b) 우리 도로 가져갈 흥정 믈건도 일즉 ᄎᆞ자 사쟈

(6a, b)는 동사의 현재형 '-ᄂᆞᆫ', (6c)는 형용사의 현재형 '-ㄴ', (6d-e)는 동사의 미래형 '-ㄹ'이 사용되었다.

한편 -ra 명사형은 대체로 명사형 어미 '-기' 또는 '-ㅁ'으로 대역하고 있으며, 소수의 예에서 '-ᄂᆞᆫ 것, -ㄴ 줄, -ㄹ 줄' 등 형식명사가 덧붙는다. '-ㅁ'과 '-기'가 시제를 나타내는지 또는 '현실/비현실'의 서법과 관련된 것인지는 본고의 관심사가 아니지만,[169] 이들에 '-엇-'이 결합한 '-어

169) 박진호(2011: 318)에서 한국어 관형형의 '-은'과 '-을', 명사절의 '-음'과 '-기'의 대

심’ 또는 ‘-엇기’가 <청어노걸대>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엇-’이 없는 이들 형태를 비과거 형태로 볼 수 있다.

(7) <청어노걸대>에 나타나는 -ra 명사형의 대역
a. hūlhatu suwende ulin bisire akū be adarame bahafi sambi (2:14a) 盜賊 놈이 너희게 貨物 이시며 업슬을 엇지 시러곰 알리오
b. ere emu tanggū fali jiha de sini cihai acara be tuwame bucina (4:3a) 이 一百낫 돈에 네 任意로 맛당홀을 보와 주렴으나
c. ara ere morin ainu jafara de mangga (3:14a) 어져 이 물이 엇지 잡기 어려오뇨
d. ehe ningge hono uncara de ja sembi (8:16a) 죠치 아닌 거슨 오히려 풀기예 쉽다 ᄒᆞ더라
e. umai gelere be sarkū (1:9a) 아조 두려온 줄을 모로니

(7a, b)는 ‘-ㅁ’으로, (7c, d)는 ‘-기’로, (7e)는 ‘-ㄴ 줄’로 -ra 명사형을 대역하고 있다.

7.1.2.2. 비전형적인 대역: 과거 시제

다음 네 개의 예는 -ra 비종결형이 한국어 대역에서 과거 시제(부정법 또는 ‘-엇-’)에 대응하는 것으로, -ra의 일반적인 쓰임을 벗어나는 것이다.

(8) <청어노걸대>에서 과거 시제로 대역된 -ra 비종결형
a. ecimari buda jetere bade bufi funcehe menggun kai (4:20b) 아츰 밥 먹은 곳에셔 주고 남은 銀이라
b. bi taka sini toktobure hūda be donjiki (5:17b) 내 아직 네 정ᄒᆞᆫ 갑슬 듯쟈
c. si menggun sunja yan bederebure akdun bithe be suwaliyame tucibufi minde bureci tulgiyen (6:5b) 네 銀 닷 兩과 므르ᄂᆞᆫ 明文 아오로 내여셔 내게 준 밧긔

립을 현실 대 비현실 서법의 대립으로 언급하고 있다.

d. bi ne hafirabufi menggun baitalara be dahame (6:10a) 내 시방 급ᄒᆞ여 銀 쓰게 ᄒᆞ여심으로

이들을 검토하기 이전에, <만문노당>을 대상으로 검토한 -ra가 언제나 비과거 시제로 해석되었으며, 앞서 검토한 <청어노걸대>의 200여 개가 넘는 -ra가 또한 일관되게 비과거 시제로 해석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8)의 예들에서 -ra가 비과거 시제로 해석될 수 없는지 살펴보겠다. (8a)의 buda jetere ba의 경우 '밥 먹은 곳'이라는 한정된 장소라기보다 '밥 먹는 곳'이라는 일반적 장소를 가리키는 것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 번역은 '아침에 밥 먹는 곳(식당)에서 주고 남은 은이다'가 무난할 것이다. (8b)는 상대방이 아직 자신이 원하는 값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toktobure hūda는 '(네가 이제) 정하는/정할 값'으로 번역이 가능하다. (8c)는 상대방이 구입한 말의 상태가 좋지 않다며 돈을 돌려받기를 원하자 말을 구입할 때 작성한 문서에 적힌 대로 은 다섯 냥의 보증금을 달라는 내용으로, 아직 상대방이 은 다섯 냥과 문서를 자신에게 주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minde bureci tulgiyen은 '내게 준 것 외에'보다는 '내게 줄 것 외에'로 번역하는 것이 문맥상 정확하다. (8d)의 '-게 ᄒᆞ엿-' 구문은 현대국어의 '-겠-'으로 발달하는 것으로[170] 역시 과거 의미보다는 추정 또는 미래의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8)의 예들이 이렇듯 과거 시제로 대역된 이유에 대해서 필자로서는 18세기 조선인의 언어 직관상, 대응 관계가 다소 어긋나더라도 한국어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만주어와 한국어는 유사한 점도 많지만 상이한 점이 더 많은데, 이러한 구조적 차이 또는 표현 방식의 차이로 인한 의역은 필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청어노걸대>뿐 아니라 모든 청학서에 공통된 것으로, 이로 인해 -ra의 기본적인 의미가 비과거 시제임을 부정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170) 최동주 (2002a: 140) 참조.

7.1.2.3. 기타 비전형적인 대역

다음과 같이 -ra가 명사구 또는 형용사로 대역되는 경우는 시제 대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9) <청어노걸대>에서 -ra가 명사 또는 형용사로 대역된 경우
a. guwebure bithe burengge adarame (1:4b) 免帖 주는 거시 엇지오
b. be juleri tatara boo be tuwame jihe (4:23a) 우리는 앏히 下處를 보라 오고
c. dekdere irurengge juhali neigen akū (7:7a) 浮沉이 일절이 고로지 아니ᄒᆞ니
d. kemuni eture jeterengge elgiyen (8:20b) 썻썻시 衣食이 넉넉ᄒᆞ고
e. sini sefu ainara niyalma (1:8a) 네 스승이 엇던 사ᄅᆞᆷ고

또한 -ra jakade '-는 까닭에', -ra unde '-지 못하였다', -ra anggala '-뿐 아니라' 등 -ra만을 요구하는 후치사 앞에 사용된 경우도 시제 대립을 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한국어에서 이에 대응하는 관용적인 표현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10) <청어노걸대>에서 -ra와 함께 나타나는 후치사의 대역
a. bi elhešeme aliyakiyame yabure jakade tuttu jime goidaha (1:1b) 내 쳔쳔이 기ᄃᆞ려 네는 故로 옴이 더디여라
b. takasu wajire unde (7:3b) 날회라 뭋지 못ᄒᆞ엿다
c. suweni juwe ilan niyalma teile sere anggala (4:4b) 너희 두세 사ᄅᆞᆷ 쓘 아니라

시간부사절로 사용되는 -ra de의 경우 '-ㄹ 제'로 주로 번역된다.

(11) <청어노걸대>에서 시간부사절 -ra de의 대역
a. ceceri emke icere de bure hūda juwe jiha (1:19a) 깁은 ᄒᆞᆫ 疋 믈들일

제 주는 갑시 두 돈이오
b. suberi emke icere de (1:19a) 綾은 ᄒᆞᆫ 疋 믈들일 제
c. wang ging de genefi uncara de (1:19b) 王京에 가셔 풀 제는
d. be jugūn yabure de dorolome gocishūn i yabuha de (1:23a) 우리 길 ᄃᆞᆫ닐 제 禮ᄒᆞ여 謙讓ᄒᆞ여ᄃᆞᆫ니면
e. tuktan ulebure de bai turi muke be suwaliya (2:9b) 처음 먹일 제 그저 콩믈을 석고

다음의 예들은 의역으로 보인다.

(12) <청어노걸대>에서 의역된 -ra
a. hendure balama mingga bade antaha be saikan kundulefi unggirengge (3:12a) 닐러시되 千里예 손을 잘 ᄃᆡ졉ᄒᆞ여 보내ᄂᆞᆫ 거시
b. udu hūsai bade gamafi uncara ubade uncarengge emu adali kai (5:12a) 비록 져제 가져가 프라도 여긔셔 프ᄂᆞᆫ 것과 ᄒᆞᆫ가지라
c. $1: si sunja jiha be eberembure naka (6:9a) 네 닷 돈을 더지 말라
d. bi sinde nure be subure jeke jaka be singgebure okto be bufi (7:7b) 내 네게 술을 ᄭᅵ며 먹은 거슬 삭일 藥을 주어

(12a)에서 hendure balama는 <한청문감>에 표제어로 등장하며 '샹담에 닐러시되'로 번역되어 있으므로 관용구로 볼 수 있다. (12b)는 uncara를 '프라도'로 대역하였는데, 위치상 '파는 것'과 같이 동명사구로 해석할 것을 윤문하여 연결어미 '-어도'를 붙인 것으로 보인다. (12c)의 naka는 직역하면 '멈추라' 또는 '그치라'인데, '말라'로 의역하면서 이에 맞추어 동명사 형태로 사용된 eberembure를 '더지(덜지)'로 대역하였다. (12d)는 nure be subure '술을 깰'과 jeke jaka be singgebure '먹은 것을 삭일'이 병렬 구조를 이루어 okto '약'을 수식하는데, 연결어미 '-며'를 이용하여 두 관형형을 연결시켰다. 이러한 연결어미는 만주어에는 거의 발달하지 않은 것으로, 한국어의 구조적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다.

7.2. 과거 -ha

분사 어미 -ha는 앞서 살핀 분사 어미 -ra와는 다르게 종결형과 비종결형에서 일관되게 과거 시제로 나타난다. 이는 한국어 대역에도 반영되었는데, 앞서 -ra의 대역에서도 보았듯이 만주어와 한국어의 구조적 차이 또는 표현 방식의 차이로 인한 의역이 상당수 나타난다.

7.2.1. -ha 종결형의 대역

7.2.1.1. 전형적인 대역: 과거 시제

<청어노걸대>에서 -ha 종결형의 대역에는 전기 근대국어의 과거 시제, 즉 부정법(Ø), '-더-', '-엇-'이 모두 나타나며 그 쓰임도 최동주(2002a)의 설명과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9> <청어노걸대>에 나타나는 -ha 종결형의 전형적인 대역

부정법(Ø) (16)	-엇- (44)	-더- (7)
동사		계사, 잇-, 없-, 아니ᄒᆞ-
-어다(거다), -어라, -니라, -다,	-엇노라, -엇다, -어시되, -엇ᄂᆞ니라, -어시니, -엇거니와	-이러니, -더니

우선 '-더-'는 만주어에서 주로 bihe의 대역으로 나타난다.

(13) <청어노걸대>에 나타나는 계사적 용법 bihe의 대역
a. mini onggolo tataha boo bihe (1:24a) 내 曾前下ㅣ러니
b. emu efujehe doogan bihe (2:12b) ᄒᆞᆫ 문허진 ᄃᆞ리 잇더니
c. bi daci funcehe bele akū bihe (4:3b) 내 본ᄃᆡ 남은 ᄡᆞᆯ 업더니
d. ara onggolo fuhali uttu akū bihe (2:13a) 어져 曾前은 일졀이 이러치 아니ᄒᆞ더니
e. be jugūn yabure anda bihe (1:23a) 우리ᄂᆞᆫ 길 ᄃᆞ니ᄂᆞᆫ 나그ᄂᆡ러니
f. mini boode gingneci emu tanggū juwan ginggin bihe (8:4b) 내 집의셔 ᄃᆞ니 一百열 斤이러니

과거 시제 '-더-'는 중세국어에서 [-상태성]인 동사와 결합하여 '미완료 과거(imperfecitve past)'를 나타내고 [+상태성]인 형용사, 계사, '잇-', '없-' 등과 결합하여 일반 과거를 나타내는데(최동주 1995), <청어노걸대>에서 -ha의 대역으로 나타나는 것은 대부분 후자이다. 전자의 경우 본고에서 '비완망상 과거(imperfective past)' 표지로 본 -mbihe가 대응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아래 -mbihe 항목에서 다루겠다.

최동주(2002a, 2002b)에서는 '-어 잇-'에서 발달한 '-엇-'이 근대국어 시기에 양상 대립이 없는 중립적인 과거 시제로 완전히 문법화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청어노걸대>에서 -ha 종결형의 대역으로 나타나는 부정법(Ø) 과거 시제와 '-엇-' 과거 시제의 분포와 의미를 검토하면 이들이 제법 상보적으로 행동함을 알 수 있다. 우선 그 분포에서 부정법(Ø) 과거 시제로 대역된 경우는 종결어미로만 나타나지만, '-엇-' 과거 시제가 사용된 경우는 종결어미와 연결어미로 모두 나타난다.

(14) <청어노걸대>에 나타나는 -ha 종결형에 대한 부정법(Ø) 과거 시제 대역

a. ere yali urehe si amtalame tuwa (2:6a) 이 고기 닉어다 네 맛보라
b. mini tacihangge hontohon aniya funcehe (1:8a) 내 비환지 半 年이 남다
c. bi elhešeme aliyakiyame yabure jakade tuttu jime goidaha (1:1b) 내 쳔쳔이 기ᄃᆞ려 네ᄂᆞᆫ 故로 옴이 더딕여라
d. tubaci jenduken i jailame genehe (2:15b) 그리로셔 ᄀᆞ만이 避ᄒᆞ여 가니라

<표9>와 (14)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ha 종결형이 부정법(Ø) 과거 시제로 대역된 경우 모두 종결 어미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엇-'이 사용된 경우 '-엇노라, -엇다, -엇ᄂᆞ니라' 등의 종결어미가 주로 나타나지만 '-어시니, -어시되, -엇거니와' 등 연결어미로 대역된 경우도 제법 나타난다.

(15) <청어노걸대>에 나타나는 -ha 종결형에 대한 '-엇-' 과거 시제 대역
a. bi coohiyan wang ging ci jihe (1:1a) 내 朝鮮 王京으로셔 왓노라
b. dengjan dabufi gajiha (2:11a) 燈盞 켜 가져왓다
c. ere emu baita teni getukelehe (2:16b) 이 ᄒᆞᆫ 일이 비로소 明白ᄒᆞ엿ᄂᆞ니라
d. aciha be gemu aciha (4:10b) 짐을 다 시러시니
e. age i gisun be umesi ulhihe (4:2b) 형의 말을 ᄀᆞ장 ᄭᅵ쳣거니와
f. aifini dasaha (2:12b) 불셔 고쳐시되

의미상으로도 부정법(Ø) 대역과 '-엇-' 대역은 차이를 보인다. 적어도 <청어노걸대>에서 '-엇-'을 포함하는 44개에 달하는 -ha의 대역은 그것이 가리키는 과거 상황의 결과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엇-'의 기원형인 '-어 잇-'이 기본적으로 '결과 상태' 또는 '지속적 상황'을 뜻하던 보조용언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최동주 2002b: 509-510)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청어노걸대>에는 다음과 같이 과거 시제와 관련이 없는 '-엇-'의 용례 또한 발견된다.

> enenggi jetere jaka dagilafi niyaman hūncihin be solime gajifi sula teceki (6:21b) 오ᄂᆞᆯ 먹을 것 쟝만ᄒᆞ고 親戚을 請ᄒᆞ여 ᄃᆞ려와 한가히 안잣쟈

현대국어로 '한가히 앉아 있자'로 풀이할 수 있는 이러한 '-엇-'의 용례는 적어도 <청어노걸대>의 한국어에서 '-엇-'이 완전히 과거 시제로 문법화한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서 중세국어 시기부터 완망상 과거인 '-더-'와 대립하는 완망상 과거로 기능한 부정법(Ø) 과거의 경우 '-엇-'이 유지하고 있는 '결과 상태'나 '지속적 상황'의 의미를 함의하지 않는다. (14a)에서 '이 고기 닉어다 네 맛보라'는 문맥상 '지금 막 이 고기가 익었으니 맛을 보라'는 의미이며, 여기서 고기가 익은 것은 완결된(completed) 상황이기는 하지만 결과 상태가 지속될 정도로 과거의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청어노걸대>에서 '-어다(거다)'가 지시하는 상황은 모두 '지금 막' 완결된 상황을 가리키며, (15)에서 '-엇-'으로 표현된 과

거 상황이 현재 상태와 어느 정도 시차를 가질 수 있다는 것과 대비된다. (14b)도 '반년이 넘은' 것은 발화시점 현재를 포함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표현은 했지만 현재와 시차가 있는 상황으로는 볼 수 없다. (14c)의 경우 '더디었다'는 현재까지 지속되는 상태라고 볼 수 없다. (14d)는 사람을 해친 도적의 과거 행적을 서술한 것으로 역시 현재에 어떠한 결과 상태가 남아있지 않다. 특히 (14d)는 대화 구조가 주를 이루는 <청어노걸대>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이야기(narration) 중 하나에 포함된 용례인데, 이러한 이야기에서 부정법 과거(Ø)로 대역된 -ha는 줄거리를 전개시키는 주요 사건을 나타낸다.

(16) <청어노걸대>에 나타나는 도적 이야기
배경: 우리 여긔 前年 六月에 ᄒᆞᆫ 나그ᄂᆡ 纏袋예 ᄒᆞᆫ 권 죠ᄒᆡ를 녀허 허리예 ᄯᅴ고 길ᄀᆞ 나모 아ᄅᆡ 그ᄂᆞᆯ에 쉬며 자더니 (amha-ha bihe)
전경: ᄒᆞᆫ 盜賊이 그리로 지나갈 제 보고 (sabu-fi)
전경: 허리예 ᄯᅴᆫ 거슬 응당 貨物이라 ᄒᆞ여 싱각ᄒᆞ고 (gūni-fi)
전경: 믄득 사오나온 ᄆᆞᅀᆞᆷ 시작ᄒᆞ여 (deribu-fi)
전경: 즉시 ᄒᆞᆫ 덩이 큰 돌흘 주어 가지고 (gai-fi)
전경: 그 사ᄅᆞᆷ의 마리를 向ᄒᆞ여 ᄒᆞᆫ번 쳐 골 치나 죽으니라 (buce-he)
배경: 그 盜賊이 그 사ᄅᆞᆷ의 纏袋를 글러 보니 다만 죠ᄒᆡ ᄲᅮᆫ임으로 (hoošan teile ojoro jakade)
전경: 그리로셔 ᄀᆞ만이 避ᄒᆞ여 가니라 (gene-he)
배경: 衙門으로셔 사ᄅᆞᆷ을 쳐 죽인 일홈 업슨 罪人을 잡지 못ᄒᆞᆫ 연고로 (jafahakū turgunde)
배경: 부졀업시 ᄋᆡ미ᄒᆞᆫ ᄯᅡ흘 次知ᄒᆞᄂᆞᆫ 사ᄅᆞᆷ과 이우지 사ᄅᆞᆷ을 疑心ᄒᆞ여 刑罰ᄒᆞ여 져조고 이실 제 (beideme bisire de)
전경: 다른 곳으로셔 그 盜賊을 잡아 보내니 (benji-he manggi)
전경 또는 배경: 이 ᄒᆞᆫ 일이 비로소 明白ᄒᆞ엿ᄂᆞ니라 (getukele-he)

(16)은 <청어노걸대>의 등장인물이 서술하는 한 이야기의 대역 부분만을 발췌하고 의미 단락의 마지막 서술어에 대응하는 만주어를 붙인 것이다. '배경(background)'과 '전경(foreground)'의 분류는 필자에 의한 것이며, 다음과 같은 최동주(1995: 23-24)의 용어와 개념을 따른 것이다.

"相은 談話의 흐름을 조절하는 메카니즘(flow-control mechanism)으로 작용하여, 이야기의 중심 플롯을 진전시키는 전경(foreground)에서는 '完了相'이 사용되고, 플롯을 뒷받침해 주는 배경(background)에서는 '非完了相'이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경/배경의 차이는 서술 방식과도 관련되는데, 전경을 이루는 사건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서술되며, 반면 배경은 이를 벗어나 때로 전경을 이루는 사건과 시간적으로 중첩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배경은 대개 중심 줄거리를 부연·설명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16)에서 이야기의 중심 플롯을 진전시키는 전경에는 -fi와 -ha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는데, 부동사 어미인 -fi는 차치하고라도 -ha는 완망상 과거(perfective past)임이 확실하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전경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아래에서 살필 -habi의 경우 '과거 상황의 현재 관련성'을 주된 의미로 하는 완료(perfect) 표지로 보았는데, 과거 행위보다는 현재 상태(state)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전경보다는 배경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청어노걸대>의 대역에서 -habi 종결형은 부정법(Ø) 과거와 전혀 결합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예측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7.5 참조).

7.2.1.2. 비전형적인 대역: 현재 시제

<청어노걸대>에서 oho '되었다' 구문은 아래와 같이 현재 시제로 대역되는 경우가 많다.

(17) <청어노걸대>에서 현재시제로 대역된 oho 구문
a. gūsin sunja se oho (1:8b) 셜흔다숫시라
b. sasari gucu arame generengge ele inu oho (1:11a) 홈씌 벗 지어 가는 거시 더옥 올흐니라
c. enenggi orin juwe inenggi oho (2:10b) 오늘이 스므이틀이니
d. geneci isiname muterakū oho (3:15a) 가도 능히 밋지 못홀지라
e. šun tob seme inenggi dulin ofi mujakū halhūn oho (4:15a) 히 正히 낫

임애 ᄀᆞ장 덥다

이들은 모두 동사가 아닌 형용사나 계사로 대역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동사 o- '되다'가 상태의 변화를 함의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역을 이해할 수 있다. (17a)를 현대 한국어로 직역하면 '서른 다섯 살 되었다'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한국어에서도 자연스럽게 사용되어 '지금 서른 다섯이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17c)를 직역한 '오늘 22일 되었다'와 같은 표현은 한국어에서 잘 사용되지 않고 대신 '오늘 22일이다'와 같은 계사 구문이 사용되지만,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는 양 언어의 관용적인 표현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oho가 아래와 같이 과거 시제 '-엇-'으로 대역되는 예도 나타난다.

(18) <청어노걸대>에서 '-엇-'으로 대역된 oho 구문
a. šun uttu den oho (3:5b) ᄒᆡ 이리 놉핫고
b. da an i neigen ofi dolo umesi getuken oho (7:8b) 平常ᄒᆞ여 고로매 속이 ᄀᆞ장 몱앗다
c. mini jidere nergin de gemu dulefi sain oho (5:8b) 내 올 즈음에ᄂᆞᆫ 다 ᄒᆞ려셔 平安ᄒᆞ엿ᄂᆞ니라
d. ilmahū usiha den dekdefi dobori dulin oho (4:8b) 參星이 놉히 ᄯᅥ 밤듕 되엿다

그런데 최동주(2002b: 512)에서 "형용사, 계사 등에 '-엇-'이 통합하여 '과거'를 뜻하게 된 것은 개화기 이후의 일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한 것을 따르면 (18a, b, c)의 예들은 (17)과 마찬가지로 현재 시제로 볼 수 있다. (18d)의 '되엿다'의 경우도 문맥상 '결과 지속'의 의미가 강하므로 현재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의 예처럼 oho가 아닌 동사의 -ha 종결형이 현재 시제의 형용사로 번역된 경우도 있다.

(19) <청어노걸대>에서 현재 시제의 형용사로 대역된 -ha 종결형

a. tuttu okini hefeli inu umesi yadahūšaha (3:5b) 그리 ᄒᆞ쟈 ᄇᆡ도 ᄀᆞ장 골프다
b. emu inenggi šun tuhetele šadame yabufi umesi yadahūšaha (4:2b) ᄒᆞᄅᆞ ᄒᆡ 지도록 ᄀᆞᆺ비 ᄃᆞ녀 ᄀᆞ장 ᄇᆡ 곯흐니
c. be gemu kangkaha (4:17a) 우리 다 목 ᄆᆞᄅᆞ니
d. be umesi ebihe (3:10a) 우리 ᄀᆞ장 브르다
e. bi mujilen ušadaha (6:22b) 내 ᄆᆞᅀᆞᆷ이 서운ᄒᆞ다

(19a-d)는 -mbi 형태 표제어로 실린 <한청문감>에서 각각 'ᄇᆡ 골프다', '목 ᄆᆞᄅᆞ다', 'ᄇᆡ 부르다'로 대역되었는데, -ha와 결합하여서도 형용사의 과거 시제인 '-더라'와 결합하지 않고 현재 시제로 대역된 것이 특이하다. 이들 만주어 동사는 모두 상태동사(statives)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많은 언어에서 상태동사와 완망상(perfective) 형태의 결합은 어떤 상황의 시작을 나타낸다('ingressive meaning', Comrie 1976: 19-20).[171] 다음의 예에서 만주어의 saha '알았다'가 현재 시제로 대역된 것도 이러한 현상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je bi saha (7:9a) 오냐 내 아노라

7.2.1.3. 기타 비전형적인 대역

다음 예들은 4.2.4에서 과거 시제와 무관한 것으로 파악한 wajiha의 예이다.

(20) <청어노걸대>에 나타난 wajiha의 대역
a. bi generakū oci wajiha (3:13a) 내 가지 아니ᄒᆞ면 말려니와 (힝혀 가게 되면 네 집을 ᄎᆞ자 가셔 보지 아닐 道理 이시랴)
b. jiha hūlašara bade gamafi giyai erin hūdai songkoi bahaci wajiha

171) 예를 들어 스페인어에서 동사 conocer '알다'는 단순 과거(simple past = perfective past) 형태로 사용되어 다음과 같이 '알게 되었다'는 의미를 가진다. "*conoci* (Simple Past) *a Pedro hace muchos años* 'I got to know Pedro many years ago'" (Comrie 1976: 19).

(4:20a) 돈 밧고ᄂᆞᆫ 곳에 가져가 거리 時價대로 어드면 므던ᄒᆞ리라
c. uttu oci wajiha ume temšere (3:22b) 이러ᄒᆞ면 므던ᄒᆞ니 ᄃᆞ토지 말라

이들은 4.2.4에서 살핀 <만문노당>의 wajiha와 마찬가지로 조건 부동사 -ci와 함께 사용되어 '-면 되었다' 또는 '-면 문제가 없다'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과거 시제와는 무관한 관용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21) <청어노걸대>에 나타난 baha에 대한 '어들러라' 대역
a. wang ging de gamame uncaha de majige aisi be baha (1:18a) 王京에 가져 가 풀면 젹이 利息을 어들러라
b. jai bodoci aisi be ambula baha (1:20b) 다시 혜니 利息을 크게 어들러라

(21)에서 '어들러라'는 '얻-으리-더-라'로 분석이 가능한데 중세국어에서 이러한 '-리러-' 연쇄는 1) '과거시점에서의 추정' 또는 2) '발화시점에서의 과거의 상황에 대한 가정'을 나타냈다(최동주 1995: 62-63). 이러한 의미는 5.3.3에서 살핀 만주어 -mbihe의 '과거 시점에서 예정된 미래' 의미와 5.3.4에서 살핀 -mbihe의 '반사실 가정'의 의미와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 예와 같이 -mbihe에 대한 대역으로 '-리러-'가 나타나는 것이 전형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7.4 참조).

(4:4b) 만일 前年ᄀᆞᆺ치 넉넉이 거두엇드면 너희 두세 사ᄅᆞᆷ쓴 아니라 곳 여라믄 나그닉라도 다 먹을 것 주어 먹일러니라(ulembu-mbihe)

(21)의 예들은 문맥상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리러-'가 포함된 대역을 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지금으로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의역으로 보고자 한다.[172]

계사적 용법의 bihe가 아닌 일반 동사와 결합한 -ha 종결형이 '-더-'로 대역된 예는 하나만 나타난다.

172) 오민석(2013: 86)에서는 이를 '노걸대류 이본의 영향'으로 보았다.

bi dahūn dahūn i baire de hamirakū ofi arkan seme buhe (2:1b) 내 屢屢히 빌매 견디지 못ᄒᆞ여 마지 못ᄒᆞ여 주더라

'-더-'는 중세국어에서 [-상태성] 서술어(즉 동사)와 결합하여 '미완료 과거(past imperfective)'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술되었는데(최동주 1995), 이에 따르면 '-더-'는 만주어의 계사적 용법의 bihe나 동사와 결합한 -mbihe 형태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그러한 대응이 대부분이지만, '-엇-'의 문법화 이후에 '-더-'의 기능이 '시제 대립의 기준 시점이 '인식시'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변화했음을 고려하면(최동주 1995), 근대국어 시기의 '-더-'의 의미는 과도기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만주어에는 이러한 시점 이동의 '-더-'와 같은 문법 형태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과거 시제 -ha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7.2.2. -ha 비종결형의 대역

-ha 비종결형의 대역은 종결형에 비해서 복잡하게 나타난다. 우선 전형적인 대역을 제시한다.

7.2.2.1. 전형적인 대역: 과거 시제

<표 10> <청어노걸대>에 나타나는 -ha 비종결형의 전형적인 대역

관형형[173]		
동사		'잇-'
-ㄴ (87)	-든 (1), -돈 (1)	-던 (2)

173) 〈청어노걸대〉에서는 명사형으로 사용된 -ha의 용례가 잘 나타나지 않는데, 〈청어노걸대〉에서는 -ha 명사형보다 jaka '것'이 붙은 -ha jaka '-ㄴ 것'(관형형+의존명사)의 구성이나 명사화 접사 -ngge가 붙은 명사형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래에서 살필 -ha be dahame가 주로 '-어심으로'로 대역되는데, 이 경우 -ha가 명사형 '-어심'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ㅁ으로 ~ 므로'가 하나의 어미로 문법화하였

-ha 비종결형의 가장 전형적인 대역은 'ha 명사' 구조에 대한 '-ㄴ 명사' 대역이다.

(22) <청어노걸대>에 나타나는 -ha 관형형의 대역: '-ㄴ'
a. morin de aciha mušuri jodon inu uncarengge (1:10b) 물ᄶᅦ 시른 모시 뵈도 풀 거시라
b. mini gu de banjiha tara ahūn (1:22a) 내 姑母의게 난 四寸兄이오
c. enenggi teni waha ice yali (2:4a) 오ᄂᆞᆯ ᄀᆞᆺ 죽인 새고기라
d. sucilehe morin (5:14a) 삿기 빈 물
e. age teni tabuha beri elhei tata (6:19a) 형아 ᄀᆞᆺ 지은 활이니 완완이 ᄃᆞ릐라

만주어의 -ha가 완망상 과거(perfective past)이며 근대국어의 '-ㄴ'도 비완망상 과거 '-던'에 대응하는 완망상 과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들이 대응하는 것은 의미상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든, -둔' 대역은 다음의 예에서만 나타나는데, '-던'의 변이형으로 보인다. 그 예가 적고, 현대국어에서 '-던'이나 '-었던'이 '-ㄴ'과 의미상 뚜렷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의미 차이를 밝히기는 어렵다.

(23) <청어노걸대>에 나타나는 -ha 관형형의 대역: '-든, -둔'
a. mini sikse henduhe ere duleme genere doogan (3:4b) 내 어제 니ᄅᆞ든 이 지나가ᄂᆞᆫ ᄃᆞ리
b. jurgan ci tatabuha boo be suwaliyame baicame isinjihabi (3:21a) 구의로서 부리웟둔 집 아오로 查覈ᄒᆞ라 와ᄂᆞᆫ지라
c. onggolo sihešeme haldabašame acabuha urse sabucibe (7:24a) 曾前 아쳠ᄒᆞ든 類들이 볼지라도

존재동사 '잇-'은 '-던'과 결합하여 양상 대립 없이 단순히 과거를 가리킨다.

다고 볼 수도 있다.

(24) 관형형 bihe의 대역

a. uttu oci bi duleke aniya gemun hecen de bihe hūda emu adali (1:12b) 이러ᄒᆞ면 내 前年에 皇城에 잇던 갑과 ᄒᆞᆫ가지로다

b. tere antaha i dorgi de emu ukaka manju bihe turgunde (3:21a) 그 손 中에 ᄒᆞᆫ 逃亡ᄒᆞᆫ 淸人이 잇던 연고로

한편 -ha be dahame '-었으므로'는 -ra be dahame '-므로'와 비교하면 대역에서 '-엇-'이 추가되므로 시제 대립이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25) -ha be dahame와 -ra be dahame의 대역

a. bi daci nikan i niyalma de bithe taciha be dahame (1:2b) 내 본ᄃᆡ 漢사ᄅᆞᆷ의게 글 비화심으로

b. be emgeri jeke be dahame ai manggašara babi (3:10a) 우리 ᄒᆞᆫ번 먹어심으로 므슴 어려워홀 곳 이시리오

c. age mini hala be fonjiha be dahame (3:12b) 형이 내 姓을 므러심으로

d. emu gingin yali be udara be dahame (2:4b) ᄒᆞᆫ 斤 고기ᄅᆞᆯ 사므로

e. si muse gemu emu bade hūdašame genere be dahame (1:11a) 너과 우리 다 ᄒᆞᆫ 곳에 흥정ᄒᆞ라 감으로

(25a-c)는 -ha be dahame의 대역으로 '-어심으로'가 나타나고 (25d, e)는 -ra be dahame의 대역으로 '-므로 ~ -ㅁ으로'가 나타나는데 '-엇-'의 유무에 따라 -ha와 -ra가 대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ha amala나 -ha manggi '-ㄴ 후에'와 같은 표현은 -ha 대신에 -ra가 올 수 없으므로 시제 대립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4.2.4 참조), 의미상 과거 시제인 -ha가 결합하는 것이 온당한 것으로 보인다.

(26) -ha amala와 -ha manggi의 대역

a. mini genehe amala ere boode baitalara jaka be yooni gemu benjibu (4:25a) 내 간 후에 이 집의 ᄡᅳᆯ 거슬 오로 다 보내게 ᄒᆞ여라

b. hūda toktobuha amala we ya seme aliyafi amasi bederebuci ojorakū (6:2a) 갑 정ᄒᆞᆫ 후에 아뫼라도 뉘웃처 도로 므르지 못ᄒᆞ리라

c. tuwa sindame mucen be halhūn obuha manggi (2:5a) ᄇᆞᆯ ᄊᆡ어 가마ᄅᆞᆯ 덥게 ᄒᆞᆫ 후에

d. ton be ejeme gaifi beging de genehe manggi (2:9a) 數을 긔록ᄒᆞ엿다가 北京에 가거든
e. gūwa baci tere hūlha be jafafi benjihe manggi (2:16a) 다른 곳으로셔 그 盜賊을 잡아 보내니
f. boihoji de acafi baniha araha manggi jai juraki (3:4a) 主人의게 보고 謝禮ᄒᆞ고 다시 떠나쟈

(26)의 예에서 -ha amala나 -ha manggi로 끝나는 선행절이 후행절보다 시간적으로 앞서는 것을 볼 수 있다. '-ㄴ 후에'는 말할 것도 없이 '조건'을 나타내는 '-거든'도 -ha manggi의 대역으로 빈번히 나타나며, (26e)의 '-니'나 (26f)의 '-고' 또한 -ha manggi의 대역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들이 문맥에 따라 '현재'의 의미뿐 아니라 '선행' 또는 '과거'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174]

원인을 나타내는 -ha turgunde도 시제 대립을 보이지는 않지만 인과관계의 경우 보통 선행절 상황이 후행절에 선행한다는 점에서 -ha가 사용되었으며 '-ㄴ 緣故로'로 대역되었다.

(27) -ha turgunde의 대역
a. inenggidari nikan i šusai emgi emu bade tefi bithe taciha turgunde majige bahanambi (1:8a) 날마다 漢 션비과 ᄒᆞᆫ ᄃᆡ 이셔 글 빈혼 緣故로 젹이 아노라
b. tere antaha i dorgi de emu ukaka manju bihe turgunde (3:21a) 그 손 中에 ᄒᆞᆫ 逃亡ᄒᆞᆫ 淸人이 잇던 연고로

시간부사절 -ha de는 대역에서 '-면'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후행절의 상황에 선행한다는 점에서 -ha의 과거 시제 의미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174) 최동주(2002a)에서도 밝혔듯이, 전기 근대국어의 시상체계를 제시한 〈표5〉에서 '-으니'에 의한 접속문 선행절에 아무 시상 표지가 붙지 않은 부정법(Ø) 형태가 '현재'를 나타낸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향일 뿐이며, 중세국어 시기에 이러한 부정법(Ø) 형태는 종결법과 마찬가지로 '과거'를 나타내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28) -ha de의 대역

a. abka gerere be aliyafi elheken i genehe de ai sartabure babi (2:19b) 하늘이 붉기를 기ᄃᆞ려 쳔쳔이 가면 므슴 어긋날 곳 이시리오

b. fusihūn emgeri fahaha de muke ini cisui tebubumbi (2:26a) 아ᄅᆡ로 ᄒᆞᆫ 번 더지면 믈이 절로 담기ᄂᆞ니라

c. cimari gūwa niyalma sabuha de toorahū (3:3a) ᄂᆡ일 다ᄅᆞᆫ 사ᄅᆞᆷ이 보면 욕ᄒᆞᆯ셰라

d geren tehe de weri uru waka babe leoleme gisurerakū (7:12a) 여러히 안ᄌᆞᆫ ᄃᆡ ᄂᆞᆷ의 是非를 論難ᄒᆞ여 말 아니ᄒᆞ고

e. damu emu erin i untuhun buda ulebuhe de ai jobobuha babi (3:11a) 다만 ᄒᆞᆫ째 ᄆᆞᆫ밥 먹이ᄂᆞᆫ ᄃᆡ 므슴 슈고롭게 ᄒᆞᆫ 곳 이시리오

(28a-d)의 경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가리키는 조건절에 -ha de가 사용되었다. (28e)의 경우 ulebuhe de를 '먹이ᄂᆞᆫ ᄃᆡ'로 현재 시제 '-ᄂᆞ-'가 들어갔는데 의역으로 보인다. 문맥상 '한 번 밥 먹인 것이 무슨 수고한 것이 있겠느냐'로 직역할 수 있는 문장인데, 이는 화자의 실제 과거 행위에 대한 자평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상식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관용적으로 사용되어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ha seme의 경우 '-다 ᄒᆞ여' 또는 '-어도'로 대역되는데, 이 또한 선행절 상황이 후행절에 선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ha의 과거 의미와 어울린다.

(29) -ha seme의 대역

a. boihoji age ume gasihiyabuha seme gasara (3:4a) 主人형아 해롭게ᄒᆞ다 ᄒᆞ여 怨치 말라

b. udu juwan aniya sehe seme efujeme bahanarakū (3:5a) 비록 十年이라도 문허질 줄 모로리로다

c. andase weihukelehe seme usharakū oci majige jetereo (3:8a) 나그닉들 輕히 ᄒᆞ다 ᄒᆞ여 허믈치 아니ᄒᆞ면 젹이 먹으쇼셔

d. uthai hūdai bade gamaha seme hūdai niyalma inu fulu hūda tuciburakū (5:2b) 즉시 저제 가져가도 저제 사ᄅᆞᆷ이 ᄯᅩ 만흔 갑 내지 아닐 거시니

e. jai fulu nemšehe seme inu tusa akū (5:20b) 다시 만히 ᄃᆞ토와도 無益

ᄒᆞ리라

7.2.2.2. 비전형적인 대역: 현재 시제

앞서 살핀 대로 -ha 비종결형의 전형적인 대역은 과거 시제 관형형인 '-ㄴ'으로 나타나지만 아래와 같이 현재 시제인 '-ᄂᆞᆫ-' 또는 '-ㄹ'로 대역되는 경우가 있다.

(30) 현재 시제로 대역된 -ha

a. age si daci yabuha niyalma (1:11a) 형아 너는 본ᄃᆡ 돈니ᄂᆞᆫ 사ᄅᆞᆷ이라 (皇城 ᄆᆞᆯ 갑시 엇더ᄒᆞ뇨)

b. mini udaha ajige ceceri emke de ilan jiha (1:18b) 내 사ᄂᆞᆫ 젹은 깁 ᄒᆞᆫ 疋에 서 돈이니

c. nurei puseli neihe lio halangga niyalma mini sain gucu si takambio (3:18b) 슬 푸ᄌᆞ ᄒᆞᄂᆞᆫ 劉哥 사ᄅᆞᆷ이 내 죠ᄒᆞᆫ 벗이러니 네 아ᄂᆞ냐

d. liyoodung hoton dorgi de tehe wang halangga niyalma jiha akū ofi (5:23a) 遼東城 안ᄒᆡ 사ᄂᆞᆫ 王哥 사ᄅᆞᆷ이 돈이 업슴애

e. gemun hecen i honin i hūdai giyai amargi de tehe wang halangga niyalma be siden obufi (6:1b) 皇城 羊 져제거리 북편의 사ᄂᆞᆫ 王哥 사ᄅᆞᆷ을 證人 삼아

f. beri uncara puseli dalaha age (6:18b) 활 프ᄂᆞᆫ 푸ᄌᆞ 쥬쟝ᄒᆞᄂᆞᆫ 형아

g. bi inu umai ambula ufarabuha ba akū (4:21a) 나도 아조 크게 일ᄂᆞᆫ 곳 업다

h. boihoji age ajige niyalma se ubade jifi ambula jobobuha gojime (3:12a) 主人형아 小人들이 여긔 와 크게 슈고케 ᄒᆞᆯ ᄊᆞᄅᆞᆷ이오 (姓도 뭇지 못ᄒᆞ엿다)

이들을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이 사용된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30a)는 뒤이어서 '황성의 말 값이 어떠합니까'라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형 당신은 원래 (황성에) 다닌 사람이다(그러므로 알 것이다)'라는 전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형'이 (황성에) 한 차례 간 것인지 매년 다니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한국어의 '돈니

-'나 만주어의 yabu-가 모두 어휘 자체적으로 습관상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도 후자로 해석될 개연성이 높다. 그런데 '형'이 지금도 교역을 위주로 하는 장사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습관적 행위는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이므로 '둔니는'과 같이 현재 시제로 대역하는 것이 이 문장에서 원래 yabuha가 가리키는 의미와 상충하지는 않으며, 문맥을 감안할 때 허용가능한 대역이라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30b)는 '너는 깁 등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되파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mini udaha '내가 산' 자체는 과거의 구체적 행위를 가리키지만 질문을 고려할 때 습관적인 구매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여 '내 사는'과 같이 현재 시제로 대역한 것으로 보인다.

(30c-g)는 만주어와 한국어에서 각각 다른 동사를 사용하거나, 같은 동사라도 언어에 따른 어휘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롯된 대역 문제로 보인다. (30c)에서 (nurei puseli) neihe는 직역하면 '(술가게를) 연/개업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역에서는 '슬 푸ᄌᆞ ᄒᆞ는(술가게를 하는)'으로 되어서 동사의 선택이 다르다. 현대국어에서도 '지금 술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미로 '술집을 연/술집을 하는'은 자연스럽지만 '술집을 여는/술집을 한'이라고 하면 의미가 달라진다. (30d, e)에서 만주어의 tehe를 '사는'으로 대역한 것도 마찬가지로 동사의 선택이 다른 데에서 비롯한 문제이다. 만주어에서는 '(어디에) 살다'는 표현은 주로 te- 동사를 이용하는데, te-는 원래 '앉다'라는 의미를 가지며, '자리잡다', '정착하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즉 (30d)의 경우 liyoodung hoton dorgi de tehe는 직역하면 '요동성 안에 정착한'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즉 만주어 원문의 의미를 정확히 나타내기 위해 '요동성 안에 정착한/사는'은 괜찮지만 '요동성 안에 정착하는/산'은 의미가 달라진다. 이는 '정착하다'와 '살다'의 어휘상이 다른 것에서 비롯하는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30f)와 (30g)도 두 언어의 어휘상 차이에서 비롯된 대역일 가능성이 있다.

(30h)의 경우 -ha gojime를 '-ㄹ ᄯᅮᆷ이오'로 대역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예를 보면 이러한 대역은 일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jahūdai muke de yabure gojime (7:13b) 빈ᄂᆞᆫ 믈에 ᄃᆞᆫ닐 ᄊᆞᄅᆞᆷ이오
gemu solime boode gajime jifi šun tuhetele tecehe gojime (6:22b) 다 請ᄒᆞ여 집의 ᄃᆞ려와 ᄒᆡ 지도록 안자실 ᄊᆞᄅᆞᆷ이오

처음 예문의 -ra gojime는 '-ㄹ ᄊᆞᄅᆞᆷ이오'로, 두 번째 예문의 -ha gojime는 '-어실 ᄊᆞᄅᆞᆷ이오'로 대역되었기 때문에 (30h)의 -ha gojime도 '-어실 ᄊᆞᄅᆞᆷ이오'로 대역되는 것이 예상되지만, -ra gojime와 같이 '-ㄹ ᄊᆞᄅᆞᆷ이오'로 대역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이 어렵다. 다만 다음과 같은 두 문장의 현대 한국어 번역을 검토하면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

우리가 주인 형님을 크게 번거롭게 했을 뿐 아직 성도 묻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인 형님을 크게 번거롭게 할 뿐 아직 성도 묻지 못했습니다.

실제 쓰임에서 두 문장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문장이 과거의 상황을, 두 번째 문장이 현재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전자가 현재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고 후자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보아도 무난하다. <청어노걸대>의 대역에도 이러한 넓은 범위의 해석이 적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7.2.2.3. 기타 비전형적인 대역

다음과 같이 -ha 관형형 또는 -ha 명사형이 명사구 또는 형용사 또는 부사로 대역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시제 대립을 보인다고 하기 어렵다.

(31) 명사구/형용사/부사로 대역된 -ha 비종결형
a. jodon hūda duleke aniya i hūda emu adali sere (1:11b) 뵈 갑슨 前年 갑과 ᄒᆞᆫ가지라 ᄒᆞ더라
b. bi tataha boode genembi (5:10a) 내 下處의 가노라
c. tere ehe ningge be inenggidari dalaha šusai sefu de alafi tantacibe

(1:9a) 져 사오나온 이를 날마다 웃듬 션빈 스승끠 알외고 쳐도

d. bi suwembe fuhali tuwame mutehekū bime geli ai joboho sere babi (4:11a) 내 너희를 일졀이 ᄃᆡ졉지 못ᄒᆞ엿ᄂᆞᆫᄃᆡ ᄯᅩ 므슴 슈고라 ᄒᆞᆯ 곳 이시리오

e. ubaci goro akū julergi de emu elben i elbehe diyan boo bi (4:15b) 여긔셔 머지 아닌 남편에 ᄒᆞᆫ 草家店房 이시니

f. ainaha niyalma dosime mutembi (2:23b) 엇던 사ᄅᆞᆷ이 능히 드러오리오

g. bi nenehe mudan beging ci jidere de (2:12b) 내 몬져번에 北京으로셔 올 제

7.3. 비과거 -mbi

정동사 어미 -mbi의 대역은 분사 어미 -ra나 -ha와 다르게 관형형이나 명사형으로 대역되는 경우가 없으며 종결어미 또는 연결어미로만 대역되었다.

7.3.1. 전형적인 대역: 비과거 시제

<표 11> <청어노걸대>에 나타나는 -mbi의 전형적인 대역

		현재	미래
종결어미	동사	-노라(23), -ᄂᆞ니라(15), -ㄴ다(2), -ᄂᆞᆫ다(1)	-리라(26)
	형용사	-다(3), -니라(3)	
연결어미	-니	-ᄂᆞ니(10), -니(21)	-ㄹ 거시니(5)
	기타	-고(28), -어(4), -거니와(1), -되(1), -나(1)	-려니와(2)

-mbi의 의미 영역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것으로, <청어노걸대>에

서도 대부분 비과거 시제로 대역되었다. 즉 최동주(2002a)에서 설정한 전기 근대국어의 시상체계에서 현재 또는 미래 시제로 파악한 형태(<표 5> 참조)와 대응한다. '-니'를 제외한 연결어미의 경우 '-엇-' 문법화 이후 '-엇-'의 유무에 의한 시제 대립이 생겼는데(최동주 2002b: 521), <청어노걸대>에서 -mbi의 대역으로 나타난 이들 연결어미에는 '-엇-'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비과거 시제임을 알 수 있다. 연결어미에서 '-ᄂᆞ니(10례)'와 '-니(21례)'가 공존하는 것은 후기 근대국어 시기에 '-ᄂᆞ니'가 대부분 사라지고 일부 고형만이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역시 '-ᄂᆞ니'가 고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2) -mbi에 대한 종결어미 대역: 현재 시제
a. bi gemun hecen i baru genembi (1:1a) 내 皇城으로 向ᄒᆞ여 가노라
b. umesi sithūme tacibumbi (1:8b) ᄀᆞ장 힘써 ᄀᆞᄅᆞ치ᄂᆞ니라
c. uheri acabufi bodoci tob seme emu tanggū yan ombi (5:18a) 대되 모도와 혜면 정히 一百 兩 된다
d. uheri sunja tanggū fali (2:8b) jiha gūwainambi $3: 대되 五百낫 돈이 맛ᄂᆞᆫ다
e. gemu sain menggun be buci acambi (8:12a) 다 죠흔 銀을 줌이 맛당ᄒᆞ니라
f. ecimari olhon ningge jetere (4:15b) jakade baibi kangkambi 오ᄂᆞᆯ 아ᄎᆞᆷ에 ᄆᆞᄅᆞᆫ 것 먹엇기로 그저 목ᄆᆞᄅᆞ다

(32a-d)는 동사의 경우로 현재 시제 '-ᄂᆞ-'를 포함하는 형태로 대역되었다. (32e, f)는 형용사로서 시제 형태가 붙지 않은 부정법(Ø) 현재 시제 형태로 대역되었음을 볼 수 있다.

(33) -mbi에 대한 종결어미 대역: 미래 시제
a. urunakū tookabure de isinambi (2:10b) 반ᄃᆞ시 어긋나기예 니ᄅᆞ리라
b. be cimari sunjaci ging ni erin de erde genembi (2:12a) 우리 닉일 五更時예 일 가리라
c. si cihalarakū oci bi gūwa bade hebešeme genembi (6:15b) 네 願치 아니ᄒᆞ면 내 다ᄅᆞᆫ ᄃᆡ 議論ᄒᆞ라 가리라

d. mangga oci udambi (6:19a) 세면 사리라
e. dergi baru jurafi geneci amba aisi bahambi (8:21a) 東으로 向ᄒᆞ여 써 나가면 큰 利息 어드리라

앞서 5.1.4에서 -mbi가 가리키는 미래는 '예정된 미래'임을 밝혔는데, <청어노걸대>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볼 수 있다. (33a)에서는 '반드시'라는 부사가 함께 사용되었다. (33b)는 예정된 시간을 함께 제시하였다. (33c, d)는 미래라기보다는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바로 이루어지는 일을 말하고 있다. (33e)는 '五虎先生'이라는 점쟁이가 택일(擇日)을 하는 내용이다. 역시 '예정된 미래'로 볼 수 있다.

다음은 '-니' 연결어미의 경우이다.

(34) -mbi에 대한 '-니' 연결어미 대역
a. sefui juleri sibiya tatafi bithe šejilembi (1:4a) 스승 앒히셔 사슬 빠혀 글 외오ᄂᆞ니
b. uncara niyalma hūda toktosi basa be bumbi (6:3b) 프ᄂᆞᆫ 사ᄅᆞᆷ이 즈름 슈공을 주ᄂᆞ니
c. bi muke tatame genembi (2:25a) 내 믈 길라 가니
d. bi majige uju fintame liyeliyembi (7:6b) 내 젹이 마리 앒하 어즐ᄒᆞ니
e. orin sunja de jurambi (8:21a) 스므닷신 날 써날 거시니

(34a, b)는 '-ᄂᆞ니'가, (34c, d)는 '-니'가 사용되었는데 모두 현재 시제로 볼 수 있다.[175] (34e)는 예정된 미래 상황을 지시하고 있다.

(35) -mbi에 대한 기타 연결어미 대역
a. šejileme mutehengge oci sefu guwebure bithe emke be bumbi (1:4a) 능히 외오ᄂᆞ니면 스승이 免帖 ᄒᆞᆫ나흘 주고 (만일 능히 외오지 못ᄒᆞ면 檢擧ᄒᆞᄂᆞᆫ 션ᄇᆡ 져를 누이고 세흘 치ᄂᆞ니라)
b. ceceri emke de narhūn jodon juwe salibumbi menngun oci emu yan juwe jiha bodome gaimbi (1:19b) 깁은 ᄒᆞᆫ 疋에 ᄀᆞᄂᆞᆫ 뵈 두 疋에 쳐 銀

175) '-ᄂᆞ니' 형태는 일반적 사실 또는 습관적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고 '-니'는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나 형용사 또는 상태동사의 현재형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면 ᄒᆞᆫ 兩 두 돈 혜여 밧고

c. sini gisun ijishūn oci juwe ilan gisun de uthai wajimbi (5:16a) 네 말이 順ᄒᆞ면 두세 말에 즉시 못츠려니와 (만일 오히려 처음대로 벅벅이 움즈기지 아니ᄒᆞ면 언제 비로소 갑 정ᄒᆞ리오)

d. šejilehengge sain oci sefu guwebure bithe emke be bumbi (1:5a) 외오ᄂᆞᆫ 거시 잘 ᄒᆞ면 스승이 免帖 ᄒᆞᆫ나흘 주되 (그 免帖에 셋 치기를 免ᄒᆞ다 ᄒᆞ여 쓰고 ᄯᅩ 그 우회 일홈 두ᄂᆞ니라)

e. gūwa yaya ba gemu nikedeme ombi (6:20a) 다른 온갓 곳은 다 의지ᄒᆞ여 무던ᄒᆞ나 (다만 고재 적이 져름애 그저 내 뜻에 흡죡지 못ᄒᆞ다)

(35a)의 '주고'는 후행절과 병렬적으로 연결되며 시제도 후행절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35b)의 '쳐'는 부사절로 사용되어 후행절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이며 역시 시제는 후행절과 동시적인 것으로 보인다. (35c) '-려니와'는 '-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며 미래 시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35d)와 (35e)는 역시 후행절의 시제(현재 시제)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7.3.2. 비전형적인 대역

(36) -mbi가 과거 시제로 대역된 경우

a. bi donjici juleri jugūn ehe sembi (2:13a) 내 드르니 앏길이 사오납다 ᄒᆞ더라

b. bi inu donjici ere aniya ubade usin jeku be asuru bargiyahakū sembi (4:5a) 나도 드르니 올히 여긔 밧 곡식을 ᄀᆞ장 거두지 못ᄒᆞ다 ᄒᆞ더라

c. tere diyan i niyalma inu uttu gisurembi (5:9a) 져 店 사ᄅᆞᆷ도 이리 니ᄅᆞ더라

d. ehe ningge hono uncara de ja sembi (8:16a) 죠치 아닌 거슨 오히려 풀기예 쉽다 ᄒᆞ더라

e. teni sindafi unggimbi (3:22a) (이들이 올 제 ᄒᆞᆫ나식 ᄒᆞᆫ나식 ᄉᆞᆲ펴 明白히 뭇고) 비로소 노하 보내엿ᄂᆞ니

(36a-d)는 모두 전언(傳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전언의 특성상 지금

여기서 듣고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어 대역에서 ‘ᄒᆞ더라’로 대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한청문감>에서 전형적인 만주어 전언 표지 sere에 대하여 ‘그리ᄒᆞ더라’로 번역하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4.1.1.2 참조).

(36e)의 경우 의역으로 판단된다. 원문대로 번역하면 ‘(요즘에는) 사람들이 올 때 하나씩 하나씩 살펴서 명백히 묻고 비로소 놓아 보낸다’와 같이 습관상적인 해석이 가능한데, 의역하여 구체적인 과거 상황으로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원래 의미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의역으로 생각된다.

한편 -mbi를 앞서 살핀 -ra 종결형의 대역과 마찬가지로 ‘-마’로 대역한 경우도 발견된다.

(37) -mbi를 ‘-마’로 대역한 경우
a. muse juwe nofi hoton dorgi de genefi goidarakū uthai jimbi (5:4a) 우리 둘히 城 안히 가셔 오래지 아니ᄒᆞ여 즉시 오마
b. bi honin be bošome dzo jeo bade genefi uncafi uthai jimbi (6:10b) 내 羊을 모라 涿州 짜히 가셔 풀고 즉시 오마
c. bi tubade genefi ulin be uncafi uthai amasi jimbi (8:1b) 내 져긔 가셔 貨物을 풀고 즉시 도라오마
d. heni majige edeleburakū bime sain menggun be bumbi (8:7b) 죠곰도 써지오지 아니ᄒᆞ고 죠흔 銀을 주마

(37)의 예들은 모두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1인칭 주어인 bi ‘나’ 또는 muse ‘우리’와 함께 사용된다. 화자가 자신의 예정된 미래 행위를 기술하는 데에서 -ra 종결형과 동일하게 ‘약속’의 양태 의미로 해석된 것으로 보인다.[176]

한편 -mbi가 명령형으로 대역된 경우가 하나 있다.

amhara de emu niyalma i eršembi (7:16a) 잘 제 ᄒᆞᆫ 사ᄅᆞᆷ으로 모시라

176) 미래를 지시하는 -mbi와 -ra의 차이에 대해서는 본고의 5.1.4와 박상철(2016)을 참고할 수 있다.

이는 관원을 배행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기술에서 나온 것으로, 여기서 -mbi는 관습적 행위 또는 일반적 사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래 의미는 '(우리는) 잘 때 (관원을) 한 사람으로 모신다'이지만 청자에게 이러한 일반적 사실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명령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7.4. 비완망상 과거 -mbihe

<청어노걸대>에는 -mbihe가 8례만 나타나므로 전형적인 대역과 전형적이지 않은 대역을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다루겠다.

(38) <청어노걸대>에 나타나는 -mbihe
a. bi daruhai siderembihe (3:14b) 내 건네 지달 ᄲᅡ더니
b. duleke aniya ilan jiha menggun de emu ginggin bahambihe (5:6a) 前年은 서 돈 銀에 ᄒᆞᆫ 斤 엇더니
c. teike tucifi suwembe okdome geneki sembihe (5:1a) 앗가 나가 너희를 마즈라 가고져 ᄒᆞ더니
d. giyan be bodoci ere jiha be gairakū acambihe (4:3b) 理를 혜아리면 이 돈을 밧지 아니ᄒᆞ염즉 ᄒᆞ되
e. be giyan i doigonde sinde baniha arambihe kai (6:23a) (진실로 이러ᄒᆞ면) 우리 맛당이 미리 네게 謝禮ᄒᆞ염즉 ᄒᆞ닷다
f. uthai juwan funceme anda sehe seme gemu jeterengge bufi ulembumbihe (4:4b) (만일 前年 ᄀᆞᆺ치 넉넉이 거두엇드면) 곳 여라믄 나그닉라도 다 먹을 것 주어 먹일러니라
g. unenggi ehe oci tere gaimbiheo (4:20b) 진실로 죠치 아니ᄒᆞ면 제 밧아시랴
h. tuttu ofi ecimari saksaha guweme geli yacihiyambihengge (5:7b) 그러모로 오ᄂᆞᆯ 아ᄎᆞᆷ에 가치 울고 ᄯᅩ 즈츼옴ᄒᆞ든 거시

(38a-c)는 모두 '-더니'로 대역되었는데 (38a, b)는 5.2.2에서 살핀

-mbihe의 '과거의 습관적 행위'를 가리키는 용법으로, (38c)는 5.2.1에서 살핀 '과거의 진행 중인 상황'을 가리키는 용법으로 보인다. <표5>에 따르면 전기 근대국어에서 '-더-'는 중세국어와 마찬가지로 동사와 결합하여서 비완망상 과거(imperfective past)를 가리키므로 -mbihe의 의미와 부합한다.

(38d-g)는 5.2.4에서 살핀 -mbihe의 '반사실 가정'의 용법으로 볼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사실과 다른 가정적인 조건절이 선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역으로는 '-엄즉 ᄒᆞ-', '-ㄹ러니라', '-어시랴' 등이 사용되었는데, 모두 가능성 또는 과거의 상황에 대한 가정을 나타내므로 '반사실 가정'의 의미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38h)의 예는 -mbihe가 명사형성접미사 -ngge와 결합한 것인데, <만문노당>에는 이러한 예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 대역은 '-든 것'으로 나타나서 과거의 습관적 행위(오늘 아침에 반복적으로 재채기한 것)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mbihe의 의미와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7.5. 현재 완료 -habi

앞서 5.3에서 살폈듯이 정동사 어미 -habi는 과거 상황의 '현재 관련성'을 주된 의미로 하여 크게 '결과 지속'과 '경험'의 용법을 가지는데,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 -habi를 일반언어학적으로 정립된 개념인 '완료(perfect)' 표지로 명명할 수 있다. <청어노걸대>에서 -habi는 모두 50회 출현하는데, 그 가운데 37회가 '-엇-'이 포함된 형태로 대역되었고 13회는 현재 시제로 대역되었다. '-엇-'의 기원형인 '-어 잇-'이 '결과 상태' 또는 '지속적 상황'을 나타냈음을 고려하면(최동주 2002b: 509-510), 완료 표지 -habi가 부정법(Ø) 과거가 아니라 '-엇-'에 대응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즉 앞서 살핀 -ha의 대역이 부정법(Ø) 과거와 '-엇-'에 모두 대응하는 데 비해 -habi는 '-엇-' 과거 시제와만 대응하며, 부정법 과거(Ø)가 나타내는 '전경(foreground)'의 용법을 보이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7.7 참조).

7.5.1. 전형적인 대역: '-엇-'

(39) -habi가 '-엇-'을 포함하는 형태로 대역된 경우

a. te bicibe han beise duin mederi be uherilefi abkai fejergi be yooni gemu kadalahabi (1:6b) 이제ᄂᆞᆫ 朝政이 四海를 統一ᄒᆞ여 天下를 오로다 거ᄂᆞ려시니

b. mini mujilen de inu uttu gūnihabi (1:15a) 내 ᄆᆞᅀᆞᆷ에도 이리 싱각ᄒᆞ엿노라

c. emu gucu aciha be tuwakiyame morin sindahabi (3:9a) ᄒᆞᆫ 벗이 짐을 직희며 물 노핫ᄂᆞ니라

d. meni diyan i niyalma ere ucuri gemu tucifi genehebi (4:24b) 우리 店 사ᄅᆞᆷ이 요ᄉᆞ이 다 나가시니

e. bi tuwaci fejergi ninggun weihe gemu manafi umesi sakdakabi (5:12b) 내 보니 아ᄅᆡ 웃니 다 달하 ᄀᆞ장 늙엇다

정동사 어미 -habi는 종결어미 또는 연결어미로 대역되며 관형형이나 명사형으로 대역된 경우는 없다. 앞서 <만문노당>에 나타나는 -habi는 모두 '현재 관련성'을 주된 의미로 함을 보았는데 <청어노걸대>에 나타나는 -habi도 마찬가지이다. 아래에서 살필 -habi가 현재 시제로 대역된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이 '-엇-'으로 대역된 경우도 모두 과거 상황의 결과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9a)는 청나라 조정이 현재 천하를 모두 거느리고 있음을 가리키며 (39b) 역시 현재까지 지속되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39c)는 지금 동료가 짐을 지키며 말을 놓아 풀 먹이고 있음을 가리키고 (39d)는 점원들이 모두 나가서 현재 일할 사람이 없는 상황을 가리킨다. (39e)는 형용사에 '-엇-'이 결합하였는데 근대국어 시기에 이러한 결합은 현재 상태를 가리킨다. 따라서 적어도 <청어노걸대>에서 -habi의 대역으로 사용된 '-엇-'은 부정법(Ø) 과거 또는 '-더-'와는 다르게 순수한 과거 시제가 아니며 '결과 상태' 또는 '지속적 상황'이라는 이전 시기의 기원형 '-어 잇-'의 의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7.5.2. 비전형적인 대역: 현재 시제

-habi는 다음의 예에서 현재 시제로 대역되었는데, '현재 관련성'이라는 완료(perfect)의 의미를 생각하면 납득할 수 있는 대역이다.

(40) -habi가 현재 시제로 대역된 경우
a. bi liyoodung hoton dorgi de tehebi (1:10b) 내 遼東城 안히 사노라
b. sini muke tatarengge umesi urehebi (2:24b) 네 믈 깃는 거시 ᄀᆞ장 닉으니
c. ere muke komso ohobi (2:25b) 이 믈이 젹으니
d. te tuwaci ere morin oforo mangginahabi (6:4b) 이제 보니 이 몰이 코에 신코지니
e. yara mentuhun hūlhi dabanahabi kai (7:24a) 과연 어리고 흐림이 과홈이라

-habi가 현재 시제로 대역된 13개의 용례 가운데 9개가 (40a)와 같이 tehebi가 '사노라' 또는 의문문 '사ᄂᆞᆫ다'로 대역된 것이다. 이는 7.2.2.2에서 설명하였듯이 원래 '앉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te-를 한국어에서 '살다'라는 동사를 이용하여 대역하는 과정에서 비롯한 문제로, tehebi에 대하여 '정착하였다/산다'는 가능한 번역이지만 '정착한다/살았다'로 번역하면 의미가 달라짐을 볼 수 있다. 이는 만주어 te-와 한국어 '살다'의 어휘상 차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40b-e)는 모두 상태 동사 또는 형용사의 현재 시제로 볼 수 있는 예이다.

7.6. 과거 완료 -ha bihe

<청어노걸대>에서 -ha bihe 형태는 모두 6례가 나타난다.

(41) <청어노걸대>에 나타나는 -ha bihe

a. bi inu duleke aniya tubade tataha bihe umesi sain (1:15a) 나도 前年에 져긔 부리웟더니 ᄀᆞ장 죠터라
b. si sikse juwan ba seme henduhe bihe (4:11b) 네 어제 十里라 ᄒᆞ여 닐럿더니 (오ᄂᆞᆯ 엇지 三十 里라 하ᄂᆞᆫ다)
c. tere gašan de bi teike bele hūlašame genehe bihe (3:13b) 져 村에 내 앗가 ᄡᅡᆯ 밧고라 갓더니 (ᄀᆞ장 어진 사ᄅᆞᆷ을 만나)
d. ere ucuri emu niyalmai boode geren antaha be dedubuhe bihe (3:20b) 요ᄉᆞ이 ᄒᆞᆫ 사ᄅᆞᆷ의 집의 여러 손을 재웟더니 (그 손 中에 ᄒᆞᆫ 逃亡ᄒᆞᆫ 淸人이 잇던 연고로)
e. ere orhoda si jidere de usihibuhe bihe (8:5a) 이 人蔘이 네 올 제 저젓다가 (이제 ᄆᆞᆯ라 열 斤이 ᄌᆞᆺ다)
f. dara de unufi jugūn i dalba mooi fejile sebderi bade teyeme amhaha bihe (2:14b) 허리예 ᄯᅴ고 길ᄀᆞ 나모 아ᄅᆡ 그ᄂᆞᆯ에 쉬며 자더니 (ᄒᆞᆫ 盜賊이 그리로 지나갈 제 보고)

전체 용례가 적긴 하지만 (41a-d)의 대역을 통해 -ha bihe의 전형적인 대역이 '-엇더니'임을 알 수 있다. 전기 근대국어에서 '-엇-'이 과거 시제로 문법화하였으며 '-더-'도 중세국어로부터 과거 시제였으므로 '-엇더-'를 과거 시제가 중첩된 대과거(pluperfect)로 보거나, 또는 '-엇-'이 기원형인 '-어 잇-'의 '결과 지속' 의미를 유지한 채로 과거 시제 '-더-'와 결합한 것으로 보더라도 모두 -ha bihe의 '과거 완료'의 의미와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177]

(41e)에서 '-엇다가'로 대역된 것은 '전환'의 의미를 가지는데, -ha bihe의 의미에는 세 개의 시점(時點), 즉 현재, 과거, 대과거가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와 대과거 사이의 과거가 '전환'을 가져오는 것으로 해석되기 쉽다. 즉 물에 젖어서 10근이 넘게 무게가 늘었던 인삼이(대과거), 중간에 말라서(과거), 10근이 줄었다(발화시점 현재).

177) 한편 최동주(2002b: 526)에서는 전기 근대국어 이후 '-엇더니'가 하나의 단위로 굳어졌으며, 후기 근대국어 시기에는 '-엇더니'가 1인칭 주어와 결합하는 제약이 생겼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청어노걸대〉에는 1인칭 주어 제약은 보이지 않으며, -ha bihe와 규칙적으로 대응함을 고려하면 '-엇더니'가 최동주(2002b: 526)의 언급대로 단순히 '과거상황을 표현하는 데' 쓰였다기보다는 '대과거' 또는 '과거 완료'의 의미를 가졌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41f)에서 '자더니'는 비완망상 과거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도적이 지나갈 때 진행 중이던 배경 상황으로 기능한다. 원래 amhaha bihe는 -ha bihe 형태를 고려할 때 '잠이 들었는데'와 같이 결과 상태를 가질 수 있는 동사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자더니'라는 대역은 이를 동질적인 행위가 지속되는 행위동사(activity)로 해석하여 대역한 것으로 보인다.

7.7. -ha와 -habi의 대역에 나타나는 담화상의 기능 차이

여기서는 <청어노걸대>와 <삼역총해>에 나타나는 종결어미 -ha와 -habi에 대한 대역을 전수 조사하여 그 담화상의 기능 차이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미 7.2.1에서 -ha 종결형의 대역을 다루면서 부정법 과거(Ø)로 대역된 -ha가 이야기 내에서 줄거리를 전개시키는 주요 사건을 나타냄을 보였는데, -habi의 경우 이와는 대조적으로 부정법 과거(Ø)로 대역되는 경우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따라서 줄거리를 전개시키는 전경(foreground)으로 기능하기보다 배경(background) 정보를 제시하는 기능을 함을 볼 수 있다.

본고에서 두 형태의 대역을 분류하는 데 사용된 용어와 거기에 포함되는 한국어 형태는 다음과 같다.

(42) <청어노걸대>와 <삼역총해>에 나타나는 -ha와 -habi의 대역 분류
a. 부정법(Ø) 종결어미: -거다, -다, -도다, -애라, -어다, -어라, -오롸, -으니라, -은지라, -을지라, -음이라
b. 나머지 종결어미: -ᄂᆞᆫ지라, -ㄴ다, -노라, -더라, -ㄹ로라, -리라, -ㄹ러니라, -ㄹ러라, -어 잇노라, -어시리라, -엇다, -엇ᄂᆞ니라, -엇ᄂᆞᆫ지라, -엇노라, -엇더라
c. 부정법(Ø) 연결어미 : -거ᄂᆞᆯ, -고, -며, -어, -어셔, -으니
d. 나머지 연결어미 : -ᄂᆞ니, -더니, -려니와, -리니, -어 잇고, -어시니, -어시되, -엇거니와, -엇고, -엇ᄂᆞ니, -엇더니

(42a) ‘부정법(Ø) 종결어미’는 ‘-엇-’, ‘-더-’, ‘-ᄂᆞ-’, ‘-리-’ 등 근대국어 시상체계를 이루는 시상 형태를 포함하지 않은 종결어미를 말한다. 감탄법 ‘-도-’나 확인법 ‘-거-’등 공시적으로 시상 형태와 관련되지 않은 형태는 덧붙을 수 있다. (42b) ‘나머지 종결어미’는 반대로 ‘-엇-’, ‘-더-’, ‘-ᄂᆞ-’, ‘-리-’ 등의 시상 형태가 포함된 종결어미를 모두 가리킨다. (42c) ‘부정법(Ø) 연결어미’와 (42d) ‘나머지 연결어미’도 이와 동일하다.

이들 대역은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할 수 있다.

<표 12> <청어노걸대>와 <삼역총해>에 나타나는 -habi 종결형과 -ha 종결형의 대역

	-habi		-ha (종결형)		합계
	청노	삼역	청노	삼역	
종결_부정법	1	4	27	90	122
종결_나머지	20	31	36	30	117
연결_부정법	4	25	9	50	88
연결_나머지	19	56	18	14	107
합계	44	116	90	184	434

<청어노걸대>와 <삼역총해> 전산입력자료의 길이를 단순하게 글자수로 비교하면 각각 167,088자와 256,149자이기 때문에 <삼역총해>가 <청어노걸대>에 비해 약 1.5배 큰 자료라고 할 수 있으며, -habi는 <청어노걸대>와 <삼역총해>에서 각각 44개와 116개, -ha 종결형은 90개와 184개로 나타나므로, 모두 <삼역총해>에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체로 자료의 크기에 비례하여 출현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세부적인 대역을 살피면, 비대칭적인 경향이 나타난다. <표12>에서 -habi에 대해서 부정법(Ø) 종결어미로 대역된 경우는 두 문헌을 통틀어 5례로 -ha 종결형이 부정법(Ø) 종결어미로 대역된 117례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수로 나타난다. 더욱이 <삼역총해>에서 -habi가 부정법(Ø) 종결어미로 대역된 4례 가운데 3례가 내포문에 나타나는 ‘-다’라는

점에서, 실제로 두 문헌에서 -habi가 부정법(Ø) 종결어미로 대역된 예는 다음의 2례뿐이다.

yara mentuhun hūlhi dabanahabi kai (7:24a) 과연 어리고 흐림이 과홉이라 <청어노걸대>
yūn cang amasi marire sidende geren hafasa tsootsoo be gamame aifini genehebi (9:12:b) 雲長이 뒤흐로 두루혈 ᄉᆞ이예 여러 관원들이 曹操를 더블고 볼셔 가니라 <삼역총해>

<청어노걸대>의 대역은 '(어리석음이) 지나치다'는 형용사와 결합한 예로 볼 수 있으므로 현재 시제로 볼 수 있다. <삼역총해>의 예 또한 이어지는 내용과 함께 보면 '관우가 뒤로 물러나는 사이에 여러 관원들이 조조를 데리고 재빨리 지나갔는데 (그들을 관우가 큰소리로 꾸짖으니 말에서 내려 땅에 꿇었다)'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habi가 사건의 전개를 이끄는 전경으로 기능하는 것은 아니며, 관우가 큰소리로 꾸짖는 원인이 되는 배경 상황을 제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habi가 근대국어에서 완망상 과거(past perfective)로 해석되는 부정법(Ø) 종결어미로 대역되어 사건을 전개시키는 전경으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는 확실한 예는 <청어노걸대>와 <삼역총해>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반면 -ha 종결형이 부정법(Ø) 종결어미로 대역되는 예는 두 문헌에서 모두 많이 나타나는데, 특히 <삼역총해>에서 '-다'로 대역되는 경우가 77례로 가장 많이 나타난다. 이는 <삼역총해>가 대화구조가 중심인 <청어노걸대>와는 다르게 서사구조(narration)이 중심이 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다음과 같은 장면이 대표적이다.

(43) <삼역총해>의 한 장면
배경: dungdzo uthai lioi bu i gida be durire jakade 董卓이 즉시 呂布의 창을 아스려 홀 제
전경: lioi bu uthai burlaha 呂布ㅣ 즉시 ᄃᆞ라나다
배경: dungdzo amcara de lioi bu sujure hūdun 董卓이 쏠 올 제 呂布ㅣ

ᄃᆞ롬이 급ᄒᆞ니

전경: dungdzo targū ofi amcaci amburakū jafaha gida be amcame maktaha 董卓이 ᄉᆞᆯ디매 ᄯᆞᆯ오되 밋지 못ᄒᆞ여 잡은 창을 밋처 더지니

전경: lioi bu gida be ashūra jakade orho i dolo tuhenehe 呂布ㅣ 창을 바으니 플 속에 ᄲᅥ러지다

배경: dungdzo geli gida be tomsome gaijara sidende 董卓이 ᄯᅩ 창을 주어 가지려 ᄒᆞᆯ ᄉᆞ이예

전경: lioi bu susai okson i dubade goro oho 呂布ㅣ 쉰 거롬 ᄭᅳᆺ히 멀리 되니

배경: dungdzo amcame yafan i duka be tucire de 董卓이 ᄯᆞᆯ아 동산 문을 나려 ᄒᆞᆯ 제

배경: tulergi ci emu niyalma deyere gese sujume jime 밧그로셔 ᄒᆞᆫ 사ᄅᆞᆷ이 ᄂᆞᄂᆞᆫ ᄃᆞ시 ᄃᆞ라와

전경: dungdzo i tunggen de karcafi dungzo na de tuheke 董卓이 가ᄉᆞᆷ에 마초여 董卓이 ᄯᅡ히 ᄲᅥ러지다

(43)에서 일련의 사건이 시간 순서로 전개되고 있는데, 줄거리를 전개시키는 핵심 사건인 전경을 나타내는 문장은 모두 -ha 종결형과 결합하였으며, 한국어 대역에서는 부정법(Ø) 종결어미 '-다' 또는 부정법(Ø) 연결어미 '-니'로 나타난다.

한편 <표12>에서 -habi가 나머지 연결어미로 대역된 경우는 -ha가 나머지 연결어미로 대역된 경우보다 오히려 많이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어시니'가 <청어노걸대>에 15례, <삼역총해>에 31례로 가장 많이 나타난다.

(44) <청어노걸대>와 <삼역총해>에서 -habi가 '-어시니'로 대역된 경우

a. miningge alban i dengneku doron gidahabi (8:3a) 내 거슨 官家 저울이오 印 쳐시니 (뉘 엇지 감히 다른 저울을 쓰리오)

b. te bicibe han beise duin mederi be uherilefi abkai fejergi be yooni gemu kadalahabi (1:6b) 이제ᄂᆞᆫ 朝鮮이 四海ᄅᆞᆯ 統一ᄒᆞ여 天下ᄅᆞᆯ 오로다 거ᄂᆞ려시니 (世上에 漢 말을 ᄡᅳᄂᆞᆫ 곳이 ᄀᆞ장 만흔지라)

c. te hoton de isinjifi niyalma buda bahabi morin liyoo bahabi (9:15:b) 이제 셩에 니ᄅᆞ러셔 사ᄅᆞᆷ미 밥 엇고 ᄆᆞᆯ이 콩 어더시니 (군ᄉᆞ 정제

ᄒᆞ여 다시 원슈 갑푸라 가면 되리니)

d. yo jin li diyan be meiren i jiyangjiyvn obufi tuwakiyabuhabi (9:18:b)
樂進 李典으로 버금 쟝슈 삼아셔 직희여시니 (죠고만 긔별이 나거든 ᄂᆞ
ᄂᆞᆫ ᄃᆞ시 와 알외라)

(44a, b)는 <청어노걸대>의 예문인데, '-어시니'로 대역된 선행절이 후행절 상황과 연속으로 전개되어 줄거리를 이룬다기보다는 후행절 상황의 전제 또는 배경이 된다고 볼 수 있다. (44c, d)는 <삼역총해>의 예로서 역시 사건의 전개라기보다는 배경으로 작용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44)의 예들에서 후행절이 모두 현재나 미래 시제라는 점에서도 이들은 사건의 연쇄를 이룬다고 볼 수 없다.

요약하면, <청어노걸대>와 <삼역총해>에서 -ha 종결형은 부정법(Ø) 과거 시제로 대역되어 줄거리를 전개시키는 주요 사건을 가리키는 전경(foreground)의 기능을 할 수 있지만, -habi는 이러한 기능을 전혀 가지지 않으며, '-어시니' 등으로 대역되어 후행절에 대한 배경(background)을 제시하는 기능을 주로 한다. 이는 본고에서 -ha를 완망상 과거(perfective past)로, -habi를 현재 완료(present perfect)로 분석한 것과 부합하는 것이다.

8. 결론

여기서는 본고의 논의를 요약하고 연구의 의의와 앞으로 보완할 점을 제시한다. 본고는 만주어 문어에 나타나는 여섯 개의 시상 형태 -ra, -ha, -mbi, -habi, -mbihe, -ha bihe를 대상으로 그 분포와 의미를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만주어 문어의 공시적인 시제(tense) 및 양상(aspect) 대립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초기 만주어 문어를 반영하는 <만문노당(滿文老檔)>을 주 자료로 하여 만주어 문어의 언어 사실을 검토하였는데, 이 자료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만주어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인 가치를 가진다. 첫째, 1599년 위구르 몽골문자를 빌려서 만주문자가 창제된 이후 작성된,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만주어 문어를 반영한다. 둘째, 만주족의 문화가 한족의 문화에 동화되기 이전에 순만문(純滿文)으로 적은 문헌으로, 한어의 영향을 받지 않은 순수한 형태의 만주어를 반영한다. 셋째, 비교적 짧은 시기에 작성되어서 일관된 언어적 직관이 반영되었다.

2장에서는 본고의 논의에서 핵심이 되는 시제, 양상, 완료, 양태 등의 이론적 배경을 Comrie (1976, 1985)와 Bybee et al. (1994)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선행 연구에서 만주어학 고유의 용어로 기술한 만주어의 시제와 양상을 유형론적 연구를 통해 정립된 일반 언어학의 용어로 기술할 수 있었다.

3장에서는 만주어의 시상 형태에 대한 주요 선행 연구 20여 종의 기술을 검토하였다. 우선 청나라 시기에 만주인에 의해 편찬된 만주어 문법서인 <청문조어허자(淸文助語虛字)>(1730)의 기술을 통해 만주인의 문법 직관을 살피고 이어서 외국인(현대 중국의 만주족 포함)이 기술한 만주어 문법서를 편찬 순서대로 살펴보았는데, 이들은 다시 만주어를 시제

대립 중심으로 기술한 연구와 양상 대립 중심으로 기술한 연구로 나뉜다. 후자의 경우 Avrorin (1949)이 선구적인 논문으로 보이는데, 이 논문에서 -ha에 대해 'окончательный вид (완결된 양상)'으로, -ra에 대해 'неокончательный вид (완결되지 않은 양상)'으로 기술한 것이 이후의 연구에서 계승되어 근래의 Roth Li (2000)나 河内良弘·清瀬義三郎則府(2002) 등의 문법서에서는 -ha를 'perfective'로, -ra를 'imperfective (non-perfective)'로 기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는 Comrie (1976) 이후에 정립된 완망상(perfective)과 비완망상(imperfective)의 대립과는 다른 개념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위문의 상황시점을 기준으로, 하위문의 상황이 완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ha와 -ra가 선택되는 것으로 본 Avrorin (1949)의 양상 대립은 상대 시제적인 관점에서 과거와 비과거 시제의 대립으로 대체될 수 있다.

그런데 만주어 시상 대립을 시제 대립 중심으로 보는 연구나 양상 대립 중심으로 보는 연구 모두 주요 시상 형태인 -ra, -ha, -mbi를 같은 문법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시제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과거/현재/미래'의 대립으로 보거나, 양상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소위 '완결되지 않은' 양상과 '완결된' 양상의 대립으로 보았는데, -mbihe의 존재는 이들을 다른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mbihe는 -me bihe의 보조 동사 구성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고에서는 -mbi-(< -me bi-)를 비완망상을 나타내는 문법 요소로 보아 시제 범주에 속하는 -ra/-ha와 구분하였다.

4장에서는 분사 어미 -ra와 -ha의 분포와 의미를 상세히 기술하였다. 분사 어미 -ra와 -ha는 관형형과 명사형에서 두 형태만으로 이루어진 정연한 대립을 보이는데, 상위문의 시제를 기준으로 -ra는 비과거, -ha는 과거 상황을 가리키는 상대 시제적인 성격을 보인다. 평서법 긍정문에서는 -ra 종결형이 1인칭 주어만을 취하며 '약속'의 양태 의미를 보이기 때문에 시제 범주에 포함시키기 어려우며, 따라서 -ha와 대립 관계를 설정할 수 없다. 반면 -ha는 종결형에서도 의미의 변화 없이 과거 시제로 기능한다.

5장에서는 정동사 어미 -mbi, -mbihe, -habi, -ha bihe의 분포와 의미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mbi와 -mbihe는 '진행 중인 상황, 습관적 상황, 예정된 미래' 등 비완망상(imperfective)의 의미를 공유하는데, 각각 비과거 시제와 과거 시제라는 차이가 있다. 또 -habi와 -ha bihe는 '과거 상황과 기준 시점 현재 상태의 관련성'이라는 완료(perfect)의 의미를 공유하는데, 역시 비과거와 과거의 시제 차이가 있다.

6장에서는 4장과 5장의 기술에 의거하여 만주어 문어의 공시적인 시제와 양상 대립을 제시하였다. 비종결형과 종결형을 나누어 제시하였는데, 관형형과 명사형을 포함하는 비종결형에서는 -ra와 -ha만으로 이루어진 비과거와 과거의 정연한 시제 대립을 보인다. 한편 종결형에서 평서법 긍정문에 나타나는 -ra는 1인칭 주어와만 결합하는 제약이 있으며, '약속'의 양태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시상 대립에서 제외하였다. -ra를 제외한 형태들은 -ha의 유무에 따라서 비과거(-mbi, -habi)와 과거(-ha, -mbihe, -ha bihe)의 시제 대립을 보인다. 비종결형과 종결형에서 모든 시상 형태가 비과거와 과거의 대립항에 속하기 때문에 만주어 문어는 기본적으로 시제 대립을 중심으로 하는 언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과거 시제에서는 -mbi-의 유무에 따라 완망상 과거 -ha와 비완망상 과거 -mbihe가 대립한다. 완망상 과거 -ha와 현재 완료 -habi는 모두 과거의 상황을 가리키지만 후자만이 '현재 관련성'을 함의한다는 차이가 있다.

한편 본고의 6.4.2에서는 이러한 공시적인 시제 및 양상 대립의 형성 과정에 대한 가설을 제시하였다. 비종결형에서 -ra와 -ha가 두 항만으로 이루어진 비과거 대 과거의 정연한 시제 대립을 이루는 반면, 종결형에서 -ra는 평서법 긍정문에서 독점적으로 비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mbi와 상보적으로 평서법 부정문, 의문문, 약속문, 금지문 등에서만 사용된다. 이러한 비종결형과 종결형의 비대칭성에 주목하여, 원래 -ra는 종결형에서도 비종결형과 동일하게 비과거 시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종결형에서 발달한 -mbi가 -ra의 의미 영역을 침범하여 평서법 긍정문에서 독점적으로 비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게 되었고, -ra는 그 밖의 주변적인 의미만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았다.

<만문노당>의 자료를 검토하여 기술한 만주어 시상 형태의 의미를 바탕으로, 7장에서는 조선조 청학서 <청어노걸대(淸語老乞大)>의 대역을 검토하였다. 대체로 만주어의 시제와 양상 의미에 부합하는 한국어 시상 형태로 대역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일부 전형적이지 않은 대역의 경우 두 언어의 구조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한편 <청어노걸대>와 <삼역총해(三譯總解)>에 나타나는 종결형 -ha와 -habi의 대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자는 부정법(Ø) 종결어미로, 후자는 '-어시니' 연결어미로 빈번하게 대역되었음을 확인했는데, 이는 이들이 담화에서 각각 '전경(foreground)'과 '배경(background)'으로 달리 기능함을 보여준다.

이 논문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만주어 문어를 반영하는 <만문노당>으로 자료를 한정하여 그 언어 직관의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만주어 문법'이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자료를 대상으로 하면서 시공간적 변이, 한어의 간섭, 구어와 문어의 차이 등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본고에서는 가장 초기의 일관되고 순수한 형태의 만주어 문어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다. 둘째, 선행 연구의 미비한 기술을 보충하였다. 평서법 긍정문에 사용된 종결형 -ra가 1인칭 주어와만 결합한다는 사실은 본고에서 처음 밝힌 것으로, 이는 종결형의 시상 대립에서 -ra를 배제하는 근거가 되어 더욱 정확히 시상 대립을 기술할 수 있었다. 또 -ha와 -habi의 담화상의 기능을 검토함으로써 두 형태가 단지 통사적 분포의 차이뿐 아니라 의미기능상의 차이를 가짐을 명확히 하였다. 셋째, Comrie (1976) 등에서 정립된 시제와 양상의 개념을 이용하여 만주어 시상 형태를 일반언어학의 시상 범주 안에서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에 시제 대립 또는 양상 대립을 중심으로 기술된 만주어 시상 형태를 시제 대립과 양상 대립이 복합된 형태로 기술할 수 있었다.

이 논문의 보완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고에서는 <만문노당>에 나타나지 않는 시상 형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넓은 관점에서 <만문노당> 이후에 나타나는 시상 형태를 함께 살핀다면 더 정확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본고에서는 부정문과 의문문의 시상 의

미는 따로 살피지 않았는데, 긍정문과 다른 의미를 가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함께 살펴야 할 것이다. 실제로 평서법 긍정문의 시상체계에는 -mbi가 포함되고 -ra가 포함되지 않지만, 평서법 부정문은 -mbi가 나타나지 않고 -rakū 형태만 나타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셋째, 시제와 양상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 Comrie (1976, 1985), Bybee et al (1994) 등의 주요 연구에 의지하였는데, 이후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 반영하지 못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간노 히로오미[菅野裕臣](2001), 「사역원 청학서의 원문과 대역의 대응 관계에 대하여」, 『알타이학보』 11, 한국알타이학회, 15-26.

고동호[高東昊](2014), 「漢淸文鑑의 構成에 대한 分析的 考察 – 變改 樣相을 中心으로」, 『朝鮮學報』 231, 朝鮮學會.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주학센터 만주실록 역주회(2014), 『만주실록 역주』, 소명.

구범진(2012), 『청나라, 키메라의 제국』, 민음사.

권재일(1998), 『한국어 문법사』, 박이정.

권재일(2012), 『한국어 문법론』, 태학사.

기시다 후미타카[岸田文隆](1990), 「「三譯總解」 底本考」, 『알타이학보』 2, 한국알타이학회, 87-103.

김두현(2002), 「『만문노당』과 『구만주당』 대조표: 태조조(1)」, 『인문논총』, 울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79-106.

김두현(2003), 「『만문노당』과 『구만주당』 대조표: 태조조(2)」, 『중국사연구』, 중국사학회, 333-376.

김두현(2008), 「『滿文原檔』과 入關前 淸史硏究」, 『명청사연구』 30, 명청사학회, 259-286.

김선민(2012), 「『구만주당』에서 『만주실록』까지 – 청 태조실록의 편찬과 수정」, 『사총』 77,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김주원(1988), 「만주퉁구스제어의 모음조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주원(2012), 「서울대학교 도서관 소장 만주어 몽골어 문헌에 대하여」, 『알타이학보』 22, 한국알타이학회, 1-28.

김주원·권재일·고동호·김윤신·전순환(2008), 『사라져 가는 알타이언어를

찾아서』, 태학사.
김주원·신용권·이성규(2009), 「노걸대, 노걸대언해, 청어노걸대, 몽어노걸대 해제」(http://cces.snu.ac.kr/com/03lqd.pdf), 중앙유라시아 연구소.
김주원·유현조(2014), 「희관본 만주 문헌에 대한 연구 －御製淸文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학술연구 결과물.
김주원 외(2015), 『알타이학의 어제와 오늘(알타이학총서1)』,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남기심(1978), 『국어문법 시제문제에 관한 연구』, 탑출판사.
남기심·고영근(2011),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도정업(2015), 「≪만문노당≫과 ≪만주실록≫의 만주문 대조 연구」, 『알타이학보』 25, 한국알타이학회, 1-35.
문숙영(2005), 「한국어 시제 범주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상철(2015a), 「≪御製淸文鑑≫, ≪淸文彙書≫, ≪御製增訂淸文鑑≫의 표제어 비교: a sere hergen에 한정하여」, 『알타이학보』 25, 한국알타이학회, 37-58.
박상철(2015b), 「≪御製淸文鑑≫ 동사류 표제어의 상 부류」, 『언어학』 73,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133-156.
박상철(2016), 「만주어 종결어미 -re와 -mbi의 분포와 의미: <滿文老檔>을 중심으로」, 『언어학』 75,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43-68.
박은용(1969), 『만주어문어연구(1)』, 형설출판사.
박은용(1973), 『만주어문어연구(2)』, 형설출판사.
박재연(2004),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진호(2003), 「한국어의 동사와 문법요소의 결합 양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진호(2011), 「시제, 상, 양태」, 『국어학』 60, 국어학회, 289-322.
성백인(1968), 「만주어 문어의 부동사 어미 -me에 대하여」, 『한글』 142, 한글학회, 72-102. (성백인 1999b에 재수록)
성백인(1970), 「만주어의 의문법에 대하여」, 『명대논문집』 3, 명지대학, 257-290. (성백인 1999b에 재수록)
성백인(1977), 「만문 특수문자의 로마자 표기법」, 『언어학』 2, 한국언어학

회. (성백인 1999b에 재수록)
성백인(1978),「만문 무권점 십이자두 연구」,『말』 3,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97-134. (성백인 1999b에 재수록)
성백인(1981),『만주어 음운론 연구』, 명지대학 출판부.
성백인(1986),「초기 만주어 사전들에 대하여」,『동방학지』 5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19-258. (성백인 1999b에 재수록)
성백인(1991),「청어노걸대」,『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1-202. (성백인 1999b에 재수록)
성백인(1994),「현존 사역원 청학서와 그 연구」,『알타이학보』 4. 한국알타이학회. (성백인 1999b에 재수록)
성백인(1999a),「청조의 청문감 편찬」,『새국어생활』 9(1), 국립국어원, 145-157.
성백인(1999b),『만주어와 알타이어학 연구』, 태학사.
성백인·정제문·김주원·고동호(2008),「≪御製清文鑑≫의 판본 연구」,『알타이학보』 18, 한국알타이학회, 31-57.
오민석(2013),「18세기 국어의 시제체계에 관한 쟁점 연구:「清語老乞大新釋」에 나타난 한국어와 만주어의 대역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기문(1958),「만주어 문법」,『한글』 123, 한글학회.
정광(1998),『청어노걸대신석』, 태학사.
정제문·김주원(2008),「만주어 사전 ≪御製清文鑑≫(1708년 序)의 연구」,『언어학』 52, 한국언어학회, 117-143.
최계영(2016),「『漢清文鑑』의 사전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동권(2000),「알타이제어의 어말어미 -m에 대하여 －만주어 종결어미 -mbi를 중심으로－」,『알타이학보』 10, 117-132.
최동권(2008),『(한국어·만주어·몽골어) 내포문 비교연구』, 한국학술정보.
최동주(1995),「국어 시상체계의 통시적 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동주(2002a),「전기 근대국어의 시상체계에 관한 연구」,『어문학』 76, 119-152.
최동주(2002b),「후기 근대국어의 시상체계에 관한 연구」,『언어』 27,

507-534.
최학근(1975),「滿洲語에 있어서의 未完結 過去語尾 : -fi(-mpi, -pi)에 對해서」,『어학연구』 11/2, 111-117.
최학근(1980),『알타이어학논고』, 현문사.
한동완(1984),「현대국어 시제의 체계적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동완(1996),『국어의 시제 연구』, 태학사.
황국정(2011),「<청학사서(淸學四書)>에서 실현된 만주어의 시상법 연구 (1) －특이한 “-ha”, “-habi” 구문을 중심으로－」,『인문학연구』 22,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423-440.

江橋(2001),『康熙 ≪御製淸文鑑≫ 研究』, 北京: 北京燕山出版社.
季永海·劉景憲·屈六生(1986),『滿語語法』, 北京: 民族出版社.
李樹蘭·仲謙·王慶豐(1984),『錫伯語口語研究』, 北京: 民族出版社.
安雙成(主編)(1993),『滿漢大辭典』, 瀋陽: 遼寧民族出版社.
愛新覺羅瀛生(2004),『滿語雜識』, 北京: 學苑出版社.
愛新覺羅烏拉熙春(1983),『滿語語法』,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中國第一歷史檔案館 整理·編譯(2009),『內閣藏本滿文老檔』, 瀋陽: 遼寧民族出版社.
春花(2008),『淸代滿蒙文詞典研究』, 瀋陽: 遼寧民族出版社.

河內良弘(1996),『滿洲語文語文典』,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河內良弘(編)(2014),『滿洲語辭典』, 京都: 松香堂書店.
河內良弘·淸瀨義三郎則府(2002),『滿洲語文語入門』,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兒倉德和(2010),「シベ語の動詞接尾辭-mi, -Xei, -maheiについて : アスペクトと時間ダイクシスの體系」,『東京大學言語學論集』 30, 東京大學大學院人文社會系研究科·文學部言語學研究室, 93-113.
滿文老檔研究會(1955-1963),『滿文老檔』, 東京: 東洋文庫.
上原久(1960),『滿文滿洲實錄の研究』, 東京: 不昧堂書店.
今西春秋(1966),「淸文鑑 ― 單體から5體まで」,『朝鮮學報』 40, 朝鮮學會,

121-163.
池上二良(1999),『滿洲語研究』, 東京: 汲古書院.
津曲敏郎(2002),『滿洲語入門20講』, 東京: 大學書林.
竹越孝(2007),『淸代滿洲語文法書三種』, 愛知: 古代文字資料館.
竹越孝(編)(2016), 『滿漢字淸文啓蒙〔會話篇·文法篇〕: 校本と索引 (中國語學研究『開篇』單刊, no.16)』, 好文出版.
早田輝洋(2004),「一人稱代名詞の包括形 · 除外形の體系」,『言語研究』 125, 日本言語學會, 145-171.
早田輝洋·寺村政男(編)(2004),『大淸全書』, 東京: 東京外國語大學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所.

Adam, L. (1873), *Grammaire de la langue mandchou*, Paris: Maisonneuve et C..
Austin, J. L., & Urmson, J. O. (1962), *How to Do Things with Words. The William James Lectures Delivered at Harvard University in 1955 [Edited by James O. Urmson.]*, London: Clarendon Press.
Avrorin, V. A. (1949), “O kategorijax vremeni i vida v man’chzhurskom jazyke”, [On the categories of tense and aspect in the Manchu language], *Otdelenije literatury i jazyka 8*, Izvestija akademii nauk SSSR, 60-66.
Avrorin, V. A. (2000), *Grammatika man’czurskogo pis’mennogo jazyka,* Sankt-Peterburg: Nauka.
Baek, Eung-Jin (2011), *A colloquial Manchu grammar,* Chuncheon: Hallym University Press.
Benzing, J. (1955), *Die tungusischen Sprachen: Versuch einer vergleichenden Grammatik,* Wiesbaden: Steiner.
Bhat, D. S. (1999), *The prominence of tense, aspect and mood* (Studies in Language Companion Series 49),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Binnick, R. I. (2012), *The Oxford handbook of tense and aspect,*

Oxford/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Bybee, J. (1985), *Morphology: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Typological Studies in Language 9), Amsterdam: John Benjamins.

Bybee, J., Perkins, R., & Pagliuca, W. (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omrie, B. (1976), *Aspec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omrie, B. (1985), *Ten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ahl, Ö. (1985), *Tense and aspect systems*. Oxford: Blackwell.

Dahl, Ö. (2000), *Tense and Aspect in the Languages of Europe,* Berlin/New York: Mouton de Gruyter.

Gabelentz, H. C. von der (1832), *Élémens de la grammaire mandschoue,* Altenbourg: Comptoire de la Littérature.

Gorelova, L. M. (2002), *Manchu grammar,* Leiden/Boston/Köln: Brill.

Grice, H. 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Syntax and Semantics 3: Speech Acts,* (Ed. by Peter Cole and Jerry L. Morgan). New York: Academic Press.

Haenisch, E. (1961), *Mandschu-Grammatik: mit Lesestücken und 23 Texttafeln* (Lehrbücher für das Studium der orientalischen und afrikanischen Sprachen 6), Leipzig: Verlag Enzyklopädie.

Hogeweg, L., De Hoop, H., & Malchukov, A. (Eds.), (2009), *Cross-linguistic Semantics of Tense, Aspect, and Modality* (Linguistics today 148), Amsterdam: John Benjamins.

Hopper, P. J. (1982), "Aspect between discourse and grammar: An introductory essay for the volume", *Tense-aspect: Between semantics & pragmatics*,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3-18.

Jendraschek, G. (2011), "A fresh look at the tense-aspect system of Turkish", *Language Research* 47, 245-270.

Kim, J., Ko, D., Chaoke, D. O., Han, Y., Piao, L., & Boldyrev, B. V. (2008), *Materials of spoken Manchu* (Altaic Languages Series 1),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Ko, Dongho & Gyudong Yurn. (2011), *A description of Najkhin Nanai,* Seoul :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Kogura, N. (2015), "On the form and function of verbal suffix -mi (-mbi) in Sibe: Is it a vestige of subject agreement?", *Proceedings of the 12th Seoul International Altaistic Conference,* The Altaic Society of Korea, 23-33.

Lindstedt, J. (2001), "Tense and aspect", *Language typology and language universals 1* (Ed. by Martin Haspelmath), Berlin: De Gruyter, 768-763.

Lyons, J. (1977), *Semantics* (2 vo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enges, K. H. (1943), "The function and origin of the Tungus tense in -ra and some related questions of Tungus grammar", *Language* 19(3), 237-251.

Möllendorff, P. G. von (1892), *A Manchu grammar: With analysed texts,* Shanghai: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ess.

Ning, C. (2009), "Manchu Language Resource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 Comprehensive Review", *China Review International* 16(3), 308-322.

Norman, J. (2013), *A Comprehensive Manchu-English Dictionary* (Harvard-Yenching Institute monograph series 85), Cambidge, MA: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Palmer, F. R. (1986), *Mood and mod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almer, F. R. (2001), *Mood and modality* (2nd e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oppe, N. (1965), *Introduction to Altaic Linguistics.* Wiesbaden: Otto Harrassowitz.

Poppe, N. (1975), "Altaic Linguistics - An Overview", *Gengo no kagaku* [Sciences of language] 6, Tokyo Institute for Advanced Studies of

Language, 130-186.

Ramstedt, G. J. (1952), *Einführung in die altaische Sprachwissenschaft II: Formenlehre* (Suomalais-ugrilaisen Seuran toimituksia 104), Helsinki: Suomalais-Ugrilainen Seura.

Reichenbach, H. (1947), *Elements of symbolic logic,* London: The Macmillan Company.

Roth Li, G. (2000), *Manchu: A textbook for reading document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Rudolph, R. C., & Walravens, H. (2009), "Comprehensive Bibliography of Manchu Studies", *Monumenta Serica*, 57(1), 231-494.

Searle, J. R. (1983), *Intentionalit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Sinor, D. (1949), "Le verbe mandjou", *Bulletin de la Sociiti Linguistique de Paris* 45, 146-156.

Sinor, D. (1968), "La langue mandjoue". *Handbuch der Orientalistik I, V, Altaiistik 3*, Leiden/Köln: Brill, 257-280.

Smith, C. S. (1991), *The parameter of aspect,*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

Song, J. M. (1997),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Khalkha Mongolian" (Doctoral dissertation,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University of London)).

Sunik, O. P. (1962), *Glagol v tunguso-man'čžurskix jazykax*. Moskva/Leningrad: Nauka.

Vendler, Z. (1957), "Verbs and Times", *Philosophical Review* 56, 143-160. (Vendler, Z. (1967), *Linguistics in philosoph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97-121에 재수록)

Verbiest, F. (1696), *Elementa Linguae Tartaricae,* Paris: Poette.

Wylie, A. (1855), *Translation of the Ts'ing wan k'e mung, a Chinese Grammar of the Manchu Tartar Language; with introductory notes on Manchu Literature*, Shanghai/Longdon: Mission Press.

Zaxarov, I. (1879), *Grammatika man'czurskogo jazyka* [Manchu Grammar],

Sankt-Peterburg.

Zikmundová, V. (2013), *Spoken Sibe: morphology of the inflected parts of speech,* Nakladatel: Karolinum Press.

Abstract

A Study on Tense and Aspect in Written Manchu

Sangchul Park

Department of Linguist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aims to describe the distribution and meaning of six tense and aspect markers in Written Manchu, *-ra*, *-ha*, *-mbi*, *-habi*, *-mbihe*, *-ha bihe*, and to present the systematic distinction of tense and aspect in Written Manchu.

The linguistic data of this thesis mainly source from *Manwen Laotang* (滿文老檔), which reflects early Written Manchu. *Manwen Laotang* can be considered as one of the major linguistic material for studies of Written Manchu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Manwen Laotang* reflects the oldest Written Manchu as it was written after the invention of the Manchu script which adopted the Uighur-Mongolian script. Second, since *Manwen Laotang* was written before the Manchu people were affected by the Han Chinese culture and the material was written only in Manchu, it reflects the original

characteristics of the language, yet unaffected by Han Chinese. Third, the language reflected in *Manwen Laotang* is highly consistent, as the material was written with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Chapter 2 presents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s of tense, aspect, perfect and modality as the core topics of the thesis, based on literature including Comrie (1976, 1985) and Bybee et al. (1994). This incorporates the traditional description of the tense and aspect of Written Manchu, previously described in the terminology native to Manchu studies, into the framework of general linguistic theories based on typological studies.

Chapter 3 deals with previous studies. Previous studies can be grouped into two types according to whether they regard Manchu as a tense-oriented language or an aspect-oriented language. Avrorin (1949) and later studies tend to belong to the latter group. However, the distinction of the 'Complete (оконча тельный вид)' and the 'Incomplete (неокончательный вид)' is not equivalent to the distiction of 'perfective' and 'imperfective' in Comrie (1976), and thus can be treated as the distinction of past and non-past which have relative time reference.

Chapter 4 and 5 illustrates the distribution and meaning of Written Manchu participle endings and finite verb endings respectively. The participle endings, *-ra* and *-ha*, have three functions; the predicative use, the attributive use and the nominal use. As for the attributive use and the nominal use, *-ra* and *-ha* both have relative time reference, each indicating

non-past situation and past situation. On the other hand, for the predicative use, *-ha* consistently indicates past situation while *-ra* occurs only with 1st-person subject and indicates deontic modality of 'promise.'

Finite verb endings include *-mbi*, *-mbihe*, *-habi* and *-ha bihe*. *-mbi* and *-mbihe* both convey the imperfective meaning including progressive, habitual and expected future, while *-mbi* indicates non-past situation and *-mbihe* indicates past situation. Similarly, *-habi* and *-ha bihe* both refer to perfect which implies 'continuing present relevance of a past situation,' while *-habi* indicates non-past situation and *-ha bihe* indicates past situation.

Based on the above description of the distribution and the meaning of tense and aspect marker, Chapter 6 presents a systematic distinction of tense and aspect in Written Manchu in which non-finite forms and finite forms are distinguished. The non-finite forms display a tight tense distinction between non-past (*-ra*) and past (*-ha*). As for finite forms, there exists a tense distinction between non-past (*-mbi*, *-habi*) and past (*-ha*, *-mbihe*, *-ha bihe*), while *-ra* stands for modal meaning. Among the past tense markers, *-ha* and *-mbihe* show distinction between perfective and imperfective. While *-ha* and *-habi* both indicate past situation, only the latter implies 'present relevance.'

Chapter 7 illustrates how the tense and aspect distinction in Written Manchu is reflected in the translation into 18th century Korean in *Cheongeonogeoldae* (淸語老乞大). The distinction

discussed in the thesis was mostly maintained in the translation, yet there exist cases of liberal translation due to the structural difference of the two languages. An exhaustive survey of *-ha* and *-habi* in finite forms translated in *Cheongeonogeoldae* and *Samyeokchonghae* (三譯總解) revealed that while *-ha* can be translated to past perfective 'Ø' in Korean, *-habi* was mostly translated to a newly-developed past tense *-ess-* (*-엇-*) rather than the past perfective 'Ø.' This supports the argument of this thesis that *-ha* and *-habi* function as 'foreground' and 'background' respectively.

keywords : the Manchu language, Written Manchu, *Manwen Laotang* (滿文老檔), tense, aspect, perfect

***Student Number* : 2010-30026**